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5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원주·춘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 원주 · 춘천 -

2005년 12월 2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 원주 · 춘천 -

제출일: 2005년 12월 25일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공동연구원: 장영민 (상지대학교 방송영상문화학과)

강범희 (민족문제연구소 강원지부장)

일러두기

1. 여기에 수록한 자료는 1959년부터 1992년까지의 원주와 춘천지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건 및 단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류한 것이다.
2.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거나 찾을 수 없어서 이 자료집에 빠져 있는 사건과 단체항목이 있을 수 있다.
3.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본 조사팀이 발견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해당 사건 및 단체가 갖는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4. 사건명은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사전 등재 항목으로 적합한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여하였다.
5. 사건과 단체에 대한 기술은 가능한 한 관련 원자료(1차·2차 자료)를 그대로 옮겨 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문의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도의 글자를 첨삭하였다.

* 입력 형식은 다음과 같다

<사건>

일련번호. 사건명

사건발생일

관련사건 일지

사건 배경

사건 내용

관계 인물

관계 단체

관계 자료

<단체>

약칭:

소속단체:

존속기간:

활동지역:

법적상태:

결성과정:

조직체계:

주요활동:

주요활동가:

관련자료:

머리말

이 자료집은 강원영서지역(춘천·원주권)의 민주화운동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자료집은 영서지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 및 단체의 각 항목에 관해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서술하여 훗날 영서지역 민주화운동 사전편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강원영서지역은 넓은 면적에 비해 도읍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으며,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못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과 사상의 전파가 비교적 늦게 전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 극한적인 남북대립의 역사 속에서 분단된 도라는 특징상 사회운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온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와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 존재해 왔으며, 1970년대에는 원주지역이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중심지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농지가 부족하지만 농민운동은 굳건하게 전개되었고, 산업시설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노동운동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다. 지역의 보수적 성향은 지역의 일간지들조차도 보수화시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지면을 잘 할애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다 보니 주로 증언과 기억에 의존해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료가 없어 상세히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록이 많은 사건이나 단체는 그만큼 양적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자료집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반드시 중요한 사건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자료집은 크게 사건과 단체로 나누어 항목을 정하고, 각 항목별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건과 단체의 연표를 정리하여 덧붙였다. 어두운 군사독재시절을 살아오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꿈과 땀과 한숨이 서려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더없이 소중한 역사임에도, 시간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모든 사건을 다 정리할 수 없어 안타까움이 남는다. 앞으로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 보충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이 자료집의 발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작업을 지원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5. 12. 25.

강원 원주·춘천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연구책임자 박 정원

목차

일러두기	1
머리말	2
목차	3
I. 작업 진행 경과	4
II. 원주·춘천 지역 사건·단체항목 목록	5
1. 연도별	5
1) 사건항목 목록	5
2) 단체항목 목록 (무순)	7
2. 분야별	8
1) 사건항목 목록	8
2) 단체항목 목록	12
III. 사건항목 기초조사	15
IV. 단체항목 기초조사	196
V. 강원 원주·춘천지역 민주화운동 일지.....	260
1) 민주화운동사건 일지	260
2) 민주화운동 단체 목록	263

1. 작업 진행 경과

1. 연구 참가자

- 책임연구원: 박정원(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장영민(상지대 방송영상문화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강범희(민족문제연구소 강원지부장)

2. 작업 진행 과정

- 계약체결: 2005년 5월 30일
- 상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작업 공간 마련
- 2005년 6월 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조사팀 회의 개최
 - 과제 성격과 방향에 대한 연구팀 구성원들 간의 인식들 공유
 - 작업대상의 분류 및 분업확정
 - 사건·단체의 일지 및 목록 작성
 - 각종 기초 자료 수집
- 중간보고회: 2005년 10월
 - 중간보고 이후 총 3차례의 조사팀 회의를 개최함
 - 기 발간된 관련 문헌, 신문 자료를 토대로 사건·단체 내용 작성
 - 민주화운동 관련단체 및 관련자 면담
 - 사건·단체 일지 및 목록 작성
- 최종 보고회: 2005년 12월 21일
 -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보완 및 내용 완성
- 보고서 납품: 2005년 12월 25일

II. 원주·춘천 지역 사건·단체항목 목록

1. 연도별

1) 사건항목 목록

1. 국가보안법 반대운동(1959)
2. 원주농고, 3·15 부정선거 규탄과 4월혁명(1960)
3. 원주고생, 정치검사 퇴진 운동(1960)
4. 평창농고생 교사퇴진운동(1960)
5. 원주택시기사 표준노동일 및 임금인상투쟁(1960)
6. 6대 의혹사건 판결에 대한 시장 상인의 항의집회(1960)
7. 박정희의 민정이양 연기 반대운동(1963)
8. 관권선거운동 규탄투쟁(1963)
9. 원주경찰서 유치인 처우개선 요구(1963)
10. 춘천대생들, 공수부대원 법정 난입 항의시위(1964)
11. 대성고생, 대일굴욕외교반대 성토대회(1964)
12. 영월광업소 폐광 반대투쟁(1968)
13. 평창 여교사들, '독신여교사수칙' 폐지투쟁(1972)
14. 천주교 원주교구, 부정부패 규탄대회(1971)
15. 가톨릭노동청년회 단식농성(1977)
16.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 연합회 창립(1973)
17. 지학순 주교의 노동·농민운동 지원(1973)
18. 장일순의 사회운동(1971)
19.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과 긴급조치법 위반 구속(1974)
20. 지학순 주교 석방운동(1974)
21.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결성(1974)
22. 한국천주교계에 대한 원주교구 항의사건(1974)
23. 반독재민주화투쟁 점화(1974)
24. 지학순 주교 석방 환영대회(1975)
25. 강원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학생총연맹사건 (1975)
26. 민주회복국민회의 원주·춘천지부 결성(1975)
27. 사회안전법 폐지 및 정치인 각성 촉구(1975)
28. 1·23 원주선언(1976)
29. 신현봉 신부 및 민주인사 석방운동(1976)
30. 구속자를 위한 전국교구 순회 기도회(1977)
31. 김지하 구출위원회 투쟁(1977)
32. 춘천농민회 사건(1978)

33. 강원대, YH사건규탄·유신철폐·경제파탄책임자처벌 시위(1979)
34. 강원대 총학생회 부활위원회 투쟁(1980)
35. 부산미문화원사건 김현장 원주 도피사건(1982)
36. 최기식 신부 등 체포사건(1982)
37. 최기식 신부 석방투쟁(1982)
38.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고문폐지운동(1982)
39. 강원대 성조기 소각투쟁(1982)
40. 소몰이 투쟁(1985)
41. 강원대 총학생회 부활투쟁(1984-1985)
42. 연세대생 광주진상규명투쟁(1985)
43. 강원대 9·7조치 투쟁 (1985)
44. 미국농축산물 저지운동(1985)
45. 강원대 자민투 관련 투쟁(1986)
46. 강원대 교수 40명 시국선언(1987)
47. 원주민속연구회, 민통련 강원지부, 가농, 가생 연대투쟁(1986-1987)
48.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1986)
49.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운동(1986)
50. 상지대 용공조작사건 (1986)
51. 상지대생, 재단 퇴진운동(1987)
52. 원주지역 6월 민주대항쟁(1987)
53. 춘천지역 6월 민주대항쟁(1987)
54. 강원대·한림대·춘천교대생들, 군정종식투쟁(1987)
55. 연세대·상지대생들, 군정종식투쟁(1987)
56.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황성지부 결성(1987)
57. 강원대 총학생회장 구속관련 투쟁 등(1988)
58. 강원대·한림대생, 전방입소 거부투쟁(1988)
59. 전두환·이순자 구속투쟁(1988)
60. 강원농민운동연합 발족(1989)
61. 강원교사협의회 결성(1987)
62. A.M.K. 노동자 투쟁(1989)
63. 김현장 구속사건(1989)
64. 이철규 열사 사인규명투쟁(1989)
65. 평양축전 투쟁(1989)
66. 강원교육운동과 전교조 강원지부 결성(1985-1992)
67. 원주지역노동운동연합 결성(1989)
68. 민족상지 학원자주화투쟁(1987-1994)
69. 3당합당 반대 및 민자당 장기집권분쇄투쟁(1990)
70. 강원대 경찰침탈사건 관련 투쟁(1990)

71. 노동탄압분쇄와 강경대 열사 관련 투쟁(1991)
72. 쌀수입 저지투쟁(1991, 1993)
73. 만도기계노조 파업(이용수 조합원 분신)(1991)
74. 원주택시노조 파업(1991)
75. 학원안정화 대책 반대투쟁(1992)
76. 사노맹 강원위원회 조직사건(1993)
77. 상지대교수협회의 교육민주화투쟁(1992-1993)
78. 전농 강원도연맹 창립(1992)

2) 단체항목 목록 (무순)

2. 분야별

1) 사건항목 목록

<노동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지역	비고
1960. 6. 10	원주택시기사 표준노동일 및 임금인상 투쟁	원주	
1968. 2월	영월광업소 폐광 반대투쟁	영월	
1977. 10월	가톨릭노동청년회 단식농성	원주	
1989. 2-3월	A.M.K. 노동자 투쟁	춘천	
1989. 11월	원주지역노동운동연합 결성	원주	
1991. 11. 10	만도기계 노조파업 (이용수 조합원 분신)	원주	
1991. 11월	원주택시노조 파업	원주	

<농민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지역	비고
1973. 2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 연합회 창립	원주	
1977-1978	춘천농민회 사건	춘천	
1985. 9	소몰이 투쟁	춘천	
1985. 9	미국농축산물 저지운동	도내전역	
1986. 8. 29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운동	도내전역	
1989. 3. 3	강원농민운동연합 발족	춘천	
1991. 10-11.	쌀수입저지 투쟁	도내전역	
1992. 2. 24	전농강원도연맹 창립	춘천	

<정치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지역	비고
1959. 1	국가보안법 반대운동	원주	
1963. 3	박정희의 민정이양 연기 반대운동	원주	
1963. 10. 10	관권선거운동 규탄투쟁	원주	
1971. 10월	천주교 원주교구, 부정부패 규탄대회	원주	
1974. 11. 1	반독재민주화투쟁 점화	원주	
1975. 2. 20	민주회복국민회의 원주지부, 춘천지부 결성	원주·춘천	
1976. 1. 23	‘원주선언’사건	원주	
1987. 9. 14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횡성지부 결성	횡성	

<종교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지역	비고
1973년-	지학순 주교의 노동·농민운동 지원	원주	
1974. 7. 6	지학순주교의 양심선언과 긴급조치법위반 구속	원주	
1974. 7-9월	지학순 주교 석방운동	원주	
1974. 9. 23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결성	원주	
1974. 10. 30	한국천주교계에 대한 원주교구의 항의	원주	
1976. 3-10월	신현봉 신부 및 민주인사 석방운동	원주	
1977. 1-5월	구속자를 위한 전국교구 순회기도회	원주	
1982. 8-12월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고문폐지운동	원주	
1986. 7-8월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원주	

<학생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지역	비고
1960. 3-4월	원주농고, 3.15 부정선거규탄 및 4월 혁명	원주	
1960. 5. 8	원주고생, 정치검사 퇴진 운동	원주	
1960. 5. 27	평창농고생 교사퇴진운동	평창	
1964. 5-6월	춘천대학생들, 공수부대원 법정난입 항의시위	춘천	
1965. 4월	대성고생, 대일굴욕외교반대성토대회	원주	
1975. 6. 3	천주교 정의구현전국학생총연맹사건	원주	
1979. 9. 3	YH사건규탄·유신철폐·경제파탄책임자 처벌시위	춘천	
1980. 2-4월	강원대 총학생회 부활위원회 투쟁	춘천	
1982. 4. 22	강원대 성조기 소각투쟁	춘천	
1984-1985	강원대 총학생회 부활투쟁	춘천	
1985-1986	연세대, 상지대생 광주진상규명 투쟁	원주	
1985. 9-11월	강원대 9.7조치 투쟁	춘천	
1986. 9-11월	강원대 자민투 관련 투쟁	춘천	
1986. 10월	상지대 용공조작사건	원주	
1987. 10-11월	상지대생, 재단퇴진운동	원주	
1987. 8-12월	강원대·한림대·춘천교대생들, 군정종식 투쟁	춘천	
1987. 11월	연세대·상지대생들, 군정종식투쟁	원주	
1988. 4월	강원대 총학생회장 구속관련 투쟁 등	춘천	
1988. 5-6월	한림대·강원대생, 전방입소 거부투쟁	춘천	
1988. 8-11월	전 두환·이 순자 구속투쟁	춘천·원주	
1989. 6월	이철규열사 사인규명 투쟁	춘천·원주	

1989. 8월	평양축전 투쟁	춘천·원주	
1987-1993년	민족상지 학원자주화투쟁	원주	
1990. 6. 8	강원대학교 경찰침탈사건 관련 투쟁	춘천	
1992. 2월	학원안정화대책 반대투쟁	춘천	

<사회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지역	비고
1960. 10. 11	6대 의혹사건판결에 대한 시장상인의 항의집회	원주	
1971년-	장일순의 사회운동	원주	
1975. 2. 19	지학순 주교석방 환영대회	원주	
1975. 9-12월	사회안전법폐지 및 정치인 각성촉구	원주	
1977. 11월	김지하구출위원회의 투쟁	원주	
1982. 4	부산미문화원사건 김현장 원주도피	원주	
1982. 4. 5	최기식 신부 등 체포사건	원주	
1982. 4월	최기식 신부 석방투쟁	원주	
1986. 5. 22	원주민속연구회, 민통련, 가농, 가생 연대투쟁	원주	
1989. 8. 20	김현장구속사건	원주	
1990. 3-5월	3당합당 반대 및 민자당 장기집권 분쇄투쟁	춘천·원주	
1991. 5월	노동탄압분쇄와 강경대열사 관련 투쟁	춘천·원주	
1993. 8. 29	사노맹강원위 조직사건	춘천·원주	

<교육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지역	비고
1987. 5. 4	강원대교수 시국선언	춘천	
1987. 9. 29	강원교사협의회 결성	원주	
1987-1989	강원교육운동의 출범과 전교조강원지부 결성	원주·춘천	
1989-1993	상지대교수협, 교육민주화투쟁	원주	

<인권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지역	비고
1964. 3. 1	원주경찰서 유치인 처우개선 요구	원주	
1972. 10. 4	평창 여교사들, '독신여교사수칙' 폐지투쟁	평창	

<시민운동>

발생일	사건명	발생지역	비고
1987. 6월	87년 6월 민주대항쟁(원주)	원주	
1987. 6월	87년 6월 민주대항쟁(춘천)	춘천	

2) 단체항목 목록

<사회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생명원주21 실천협의회	원주	
	춘천시민연대	춘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모임	원주	
	원주시민연대	원주	
1987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강원지회	강원	

<생활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원주한살림	원주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원주	

<종교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성공회 나눔의 집	원주	

<노동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부	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	강원	
	원주지역노동운동연합	원주	

<청년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강원청년단체협의회	강원	
	원주 YWCA	원주	
	원주 YMCA	원주	
	춘천 YMCA	춘천	
	춘천 YWCA	춘천	

<소비자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원주지부	원주	
	우리밀살리기운동강원본부	강원	

<빈민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원주자활후견기관	원주	

<환경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원주녹색연합	원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	
	횡성환경운동연합	원주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	

<문화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민예총강원지부	춘천	
	춘천사회문화연구회	춘천	
	모두골	원주	

<교육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	
	강원교육연대(원주, 춘천, 강릉)	원주, 춘천, 강릉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원주지부	원주	

<농민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전농 강원도연맹	강원	
	가톨릭농민회	강원	

<경제정의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춘천경실련	춘천	

<여성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원주여성민우회	원주	
	춘천여성민우회	춘천	

<통일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강원민통련	강원	

<정치운동>

발생일	단체명	활동지역	비고
	민중의 당	춘천, 원주	
	진보정당추진위	춘천, 원주	
	민중당	춘천, 원주	

III. 사건항목 기초조사

1. 국가보안법 반대운동

발생일 : 1959년 1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심각한 민심이반을 확인한 자유당 정권은 그로 말미암은 정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집권연장을 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가보안법을 한층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권은 1958년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개정 국가보안법안을 11월 18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른바 '국가보안법 파동'이 시작되었다. 개악된 국가보안법안은 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특히 '인심혹란죄'는 언론 탄압의 소지가 컸으므로 언론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12월 24일 경위를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감금한 상태에서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들 뒤 재빨리 공포해 버렸다. 비록 국가보안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야당과 언론은 물론이며 국민의 비판과 저항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1959년 1월 13일 원주에서도 민주당 원주시당 상임간사 전태중 등 10명이 시내 중심부에서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구류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1월 30일에는 두 사람이 뼈라를 살포하며 데모를 하였다.

관련 인물 : 전태중 등

관련 단체 : 민주당 원주시당

관련 자료 :

자료 1) 1959년 1월 14일 《조선일보》

13일 상오 11시 45분경 원주 시내에서 국가보안법반대 「데모」를 한 탓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던 민주당 원주시당 상임간사 전태중(全泰重) 등 10명은 동일 하오에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는데 담당 박학진(朴鶴鎭) 판사는 전씨에게 5일간의 구류처분을 기타 9명에게는 각각 3일간의 구류나 4백환의 벌금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관계로 전원 즉시 석방되었다.

자료 2) 1959년 1월 31일 《조선일보》

30일 하오 3시30분경 원주시내에서 국가보안법 반대 「데모」가 있었다. 원주시 중앙시장 앞 북문로(北門路) 앞길에서는 2명이 국가보안법반대 「뼈라」 약 1백50장을 뿌리

며 약 5분간 「데모」를 하다가 경찰의 출동으로 제지되었다. 그런데 「데모」하던 2명은 즉시 자취를 감추어 경찰에서는 「데모」한 사람의 행방을 찾고 있는 중이다.

2. 원주농고, 3·15 부정선거 규탄과 4월혁명

발생일 : 1960. 3.14 - 4.26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60년 3월 14일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원주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앙로에서 부정선거운동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의 주동자들은 3학년 학생회장 장충길과 부회장 김영길이었다. 13일 학교 시간에 자유당 선거운동차가 교정에 들어와 밑에 있는 마을을 향하여 고성능 스피커로 선거 방송을 하였는데, 이것이 학생들을 자극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등교한 3학년 학생들 사이에 규탄의 소리가 높아지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시위를 하자고 결정하고, 학생회 간부의 협조도 얻어 부서를 정하고 자금 6백 환도 거두었다. 학생회 간부 몇 명이 “민주주의는 살아 있다”라고 쓴 현수막과 비라를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수업이 끝나자 구 시청 앞까지 달려가서 시위를 시작하니 전교생이 호응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 격려했다. 군인극장 앞에 이르러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 끝에 1백여 명의 학생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주동자들은 무기정학에 처해졌고, 3학년 담임교사 3명은 태백과 강릉 등지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4·19가 일어나자 학생들은 압수된 현수막과 사진 등을 찾아와 당당히 게시하였다. 4월 26일 오후 원주공설운동장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 2백여 명이 모여 4·19 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청년학도를 위한 추모식을 거행하였다. 식이 끝난 뒤, 학생들은 시가행진을 하면서 ‘이기봉을 국외로 축출하라’, ‘최인규와 한희석을 처단하라’, ‘고문경찰을 처단하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국회의원은 전원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시위대가 원주시청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일반 시민 등 참가자들이 8백여 명으로 늘어났고, 시위는 저녁 늦게까지 평온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30일에는 원주출신으로 4월 26일 서울 동대문 앞에서 총탄에 맞아 숨진 장영옥의 시민장도 열렸다. 재경원주학생들이 이튿날 자택으로 시신을 운구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또한 원주의 학생들은 그를 기리는 추모비도 세웠다.

관련 인물 : 장충길, 김영길

관련 단체 : 원주농고 등 원주지역 중고생, 원주시민

관련 자료 :

자료 1) 원주농업고등학교 동창회, 『麥香半世紀』, 1991, 101-102쪽.

자료 2) 1960년 5월 4일 《조선일보》

학생의거사건에 가담하였다가 순사한 원주출신 장영옥(張永玉=28)군의 장례식 지난 30일 이곳 원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장으로 거행되었다. 이날 상오 10시부터 수천 학도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된 장의식은 수만 시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장군은 원주태생으로 원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운전수(運轉手) 직업을 가졌던 바 지난 4월 26일 상오 10경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기관총 사격에 맞아 쓰러졌다.(1960년 5월 4일 《조선일보》)

자료 3) 1960년 4월 28일, 30일 《강원일보》

자료 4) 『원주시사』 현대편, 2000, 780-90쪽.

3. 원주고생, 정치검사 퇴진 운동

발생일: 1960년 5월

관련 일지:

배경과 내용:

4·19혁명 이후 민주화의 열기는 사회 각계로 확산되어 나갔고, 그 여파는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에게도 미쳤다. 아들이 소풍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검사가 해당 학교 교장을 불러서 위협과 모욕을 가한 사건이 일어나자, 원주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반발하여 결국 원주지청의 검사 2명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 이들의 사퇴 요구에는 3·15 부정선거를 묵인하였다는 이유도 들어 있었다.

관련 인물: 송의근, 김옥봉 검사

관련 단체: 원주고 교직원, 학생

관련 자료:

자료 1) 1960년 5월 9일 《조선일보》 이색데모, 두 검사사퇴 요구

지난 8일 원주고등학교 학생들이 두 검사집을 포위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사퇴서를 써 받는 「데모」가 일어났다. 지난 4일 원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소풍갔다가 돌아오던 중 버스 사고로 58명의 중경상자를 내게 되자 사고학부형의 한 사람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인 송의근씨가 학교에 전화를 걸어 「전번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책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교장 김창선씨가 검찰지청에 찾아가 도의적인 사과의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검사는 책임있는 학교직원은 물러나라고 호령을 함으로써 남의 인사문제를 부당히 간섭한다고 옥신각신 언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옆에 방에 있던 김옥봉(검사)씨가 뛰어들어 교장에게 「당신이 교장이오 똑똑하오」 하며 야유를 했다는 것이다. 동 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교장이 사표를 내자 전교직원 22명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면서 「58명의 학생에게 중경상을 입힌 것은 우리들 책임이다」하고 책임을 지고 나서게 되었는데 이 사태를 보게 된 학생 2백여명은 격분하여 「학원에 간섭하는 검찰을 규탄하자」는 결의를 한 후 8일 상오 10시부터 원주시내 평원동에 있는 송검사집을 포위하고 ①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 ②3.15부정선거를 묵인한 것을 이유로 사표를 내라고 외치게 된 것인바 이날 낮 12시30분 송검사는 내실로 들어가 학생의 요구조건인 ①교장에게 구속운운한 것과 ②3.15선거부정묵인 등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서약서를 써서 학생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서약서를 받은 학생들은 또다시 시내 중앙동에 있는 김옥봉씨의 집을 포위하고 시위를 하며 김검사마저 학생들의 요구조건인 ①교장을 야유한 것 ②3.15부정선거를 묵인한 것 ③교장을 구속하겠다는 송검사 발언에 대한 증언을 한다는 것을 서약서에 써서 「데모」는 하오 2시 해산했다.

4. 평창농고생 교사퇴진운동

발생일 : 1960년 5월 27일

관련일지 :

배경과 내용:

평창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사와 교육 방침에 대해서 항의하는 동맹휴학을 벌였다.

관련 인물:

관련 단체: 평창농고 2학년

관련 자료:

자료 1) 1960년 6월 1일 《조선일보》

지난달 27일 당지 평창농업고등학교 2년생 남자반에서는 담임선생을 즉시 교체하여 줄 것과 물리화학선생을 교체하여줄 것 생물선생을 교체하여줄 것 실습시간을 이용하여 무리한 노동을 시키지 말 것 등 4개 항목을 내걸고 맹휴에 들어갔다.

5. 원주택시기사 표준노동일 및 임금인상 투쟁

발생일 : 1960년 6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원주의 택시기사 80여 명이 8시간 노동제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연좌데모를 하였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60년 6월 11일 《조선일보》 임금인상 요구, 원주 운전수 데모,
원주에 있는 「택시」 운전수 80여명은 10일 낮12시부터 공설운동장에 모여 11일 낮 11시 현재 8시간 노동제와 임금인상 요구조건을 내걸고 연좌데모를 하여 시민의 발목을 묶어버렸다. 운전수들이 이와 같은 파업을 하게 된 것은 ① 16시간노동제 임금 3만환을 4만환으로 인상해 줄 것 ② 운전수의 연조관계를 막론하고 균일(이하 기사 없음)

6. 6대 의혹사건 판결에 대한 시장 상인의 항의집회

발생일 : 1960년 10월 11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제2공화국은 이승만 정권의 각종 부정부패, 정치적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였다. 특히 4·19 시위대에 대한 발포 책임자 색출, 자유당 정권이 동원한 정치깡패와 장면 부통령 암살 사건의 주범 등에 대한 처벌 등 이른바 6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은 국민들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그러나 1960년 10월 8일 사법부가 내린 판결은 국민에게는 너무나 의외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48명의 재판 당사자들조차도 너그러운 것이었다. 흥진기 피고는 발포에는 무죄 그밖에 죄로 1년 실형이 내려지자 얼굴에 희색이 돌았다.(동아일보, 1960년 10월 8일) 이러한 판

결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의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원주에서도 11일 50여 명의 시장상인들이 법원 구내에 들어가 「정부는 국민과의 공약을 지켜라」, 「국회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원흉들을 엄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60년 10월 12일 《조선일보》 법원구내에 난입, 원주서는 시장상인들이 시위,

8일에 있는 6대 의혹사건의 언도형량이 낮다고 불만을 품은 원주시내 자유상가 상인 50여명은 11일 하오 2시부터 「정부는 국민과의 공약을 지켜라」 「국회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원흉들을 엄담하라」 등의 데모를 시작하여 하오에도 계속 중에 있다. 이날 데모대들은 한때 춘천지법 원주지청 광장에 난입하여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였으나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경찰서에서는 사고방지만 주력하고 제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날의 데모로 원주시민이 동데모에 가담할 기세를 보이고 있어 사태가 험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7. 박정희의 민정이양 연기 반대운동

발생일 : 1963년 3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민정이양과 군정연장을 연거푸 반복하였다. 1962년 2월 21일에는 2년 뒤에 민정이양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듬해 3월 16일에는 군정을 4년간 연장하고 정치활동을 중지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민과 기성 정치인, 또한 미국정부는 강력히 비난하며 군정연장의 철회와 민정이양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를 요구하였다. 21일 전 신민당과 민정당 등 정치인은 3·16선언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또한 지지서명 작업에 착수하였다.

관련 인물 : 박충모 등

관련 단체 : 신민당, 민정당

관련 자료 :

자료 1) 1963년 3월 22일 《조선일보》 원주서도 반대투쟁,
21일 전 신민당 민정당 및 무소속 등 정객 17명은 모임을 갖고 박의장의 3.16성명이 철회될 때까지 극한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전강원도민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료 2) 1963년 3월 26일 《조선일보》 박정희의 민정이양연기 반대 성명,
24일 상오 원주의 기성정객대표인 朴忠模 陳成源 金成峰 咸在騎 金善篤 朴泰建 權熙元 朴基東 金尙範 楊柱昌 張龍雲 牟炳柱 씨 등은 3·16성명을 반대하는 극한투쟁에 앞서 3·16성명反對捺印宣言文을 작성, 매일 2백명 이상의 지지를 얻기로 했다.

8. 관권선거운동 규탄투쟁

발생일 : 1963년 10월 10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개요 : 1961년 9월 5일 제4대통령 선거일이 10월 15일로 공포된 이후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와 민정당 후보 사이에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었고, 전국에서는 관권선거 시비가 일어났다. 원주에서도 재야 5개당으로 구성된 공명선거투쟁위원회는 시당국이 애국반장 등 1천여 명의 유권자에게 빵을 제공하고 영화를 무료로 관람시킴으로써 공명선거를 해쳤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공명선거투쟁위원회

관련 자료 :

자료 1) 1963년 10월 11일 《조선일보》
10일 하오 원주지구 재야 5개당으로 구성된 공명선거투쟁위원회는 “시당국이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둔 10일 1천여명의 유권자에게 「빵」을 제공하고 영화를 무료로 감상시켜 공명선거를 흐리게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원주시는 추수감사절의 행사라는 명목으로 이날 상호10시 원주시공관에 애국반장 4백12명과 동(洞) 장, 재건국민운동청년회회원과 부녀회원 등 1천여명을 초청하여 빵 세 개씩을 제공하는 한편 극영화를 무료관람시켰다.

9. 원주경찰서 유치인 처우개선 요구

발생일 : 1963년 3월 1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64년 3월 1일 아침 원주경찰서 유치인들이 밥을 많이 달라며 식사거부를 하였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64년 3월 3일 《조선일보》

지난 1일 3·1절 아침 8시쯤 원주경찰서 유치인 1백56명은 “요즘 유치인들에게 지급되는 밥이 적어 굶어죽겠다”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모두 아침밥을 먹지 않고 밥을 많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하루에 쌀2홉과 잡곡 1홉5작 등 3홉5작의 밥을 먹고 부식비는 13월 26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밥 2홉5작에 부식은 된장국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밥을 먹지 않은 것이다. ▲원주경찰서 박 경리주임의 말 = 하루에 18원어치의 밥을 먹으니 배가 고평 것이다. 유치인들 항의로 관식을 만들고 있는 이이세(李利世=46)씨를 불러 개선하라고 했다. ▲강 수사주임의 말=유치인이 배고파 못살겠다는 것은 사실이다. ▲업자 李利世씨의 말= 앞으로 밥과 부식을 개선하겠다.

10. 춘천대생들, 공수부대원 법정 난입 항의시위

발생일 : 1964년 5월-6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5월 21일 한일굴욕외교반대운동을 주동한 학생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법원과 판사집에 공수부대원들이 난입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정권의 학원탄압, 부정, 경제적 실정 등을 성토했던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춘천에서도 5월 하순과 6월 초순에 춘천교육대학과 춘천농과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항의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특히 춘천농과대학 학생들은 박정희의 하야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서울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춘천에서도 대학과 고등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관련 인물 : 춘천지역 대학생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64년 5월 27일, 29일, 6월 4일, 12일, 《강원일보》.

11. 대성고생, 대일굴욕외교반대 성토대회

발생일 : 1964년 4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개요 : 조국근대화를 내세우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행에 옮겼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였고, 미국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직면하였던 박정희 정권은 한일국교정상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청구권 자금의 규모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한일회담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이런 난국을 타결하고자 나온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오히라 일본 외상의 담판 내용이 알려지자, 1964년 3월 10일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커다란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4월 1일 약 8백 명이 원주공설운동장에 모여 대일굴욕외교반대성토대회를 열었고,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성고등학교 학생 3백여 명이 이튿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대성고 학생 6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관련 인물 : 정교성, 죄정옥, 장연현, 김창순, 김명길, 박춘린 등 대성고 학생들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65년 4월 2일 《조선일보》

1일 하오 1시 원주공설운동장에서 청중 약8백명이 모인 가운데 대일굴욕외교반대성토대회가 열렸다.

자료 2) 1965년 4월 3일 《조선일보》 대성고 학생 굴욕외교반대데모

3일 하오 3시 30분 원주시 대성(大成)고등학교 학생 3백여명은 한·일굴욕외교반대 「플랜카드」를 선두로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나와 “배고픈 우리살림 6억원으로 잘 살 수 없다” 이완용 2세들아 각오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원주시청 앞까지 「데모」를 했다. 데모는 시청앞 광장에 일단 모여 “굴욕외교를 즉시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 다시 데모를 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아 30분간 연좌 데모 후 4시 20분쯤 문을 넘어 다시 데모를 하려다가 경찰이 에워싸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학교로 철수했다.

자료 3) 1965년 4월 3일 동아일보

자료 4) 1965년 4월 6일 《조선일보》 대성고 데모 주동학생 처벌

5일 하오 원주 대성(大成)고등학교는 지난 3일 「데모」한 학생 3백명 중 주모자로 알려져 경찰에 연행됐던 정교성(20=구속중), 최정옥(20), 장연현(20), 김창순(20), 김명길(19), 박춘린(20) 군등 6명을 교칙위반으로 퇴학처분했다. 한편 동교 김재옥(金在玉) 교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이사회에 사표를 냈다.

자료 5) 『원주시사』 현대편, 791-3쪽.

12. 영월광업소 폐광 반대투쟁

발생일 : 1968년 2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개요 : 석탄공사가 운영하던 영월광업소 등은 인력관리 부실로 적자를 대규모로 내고 있다는 발표가 1965년부터 나왔다. 1968년 2월에는 연간 3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영월광업소의 폐광이 추진되자, 폐광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고 2천여 명이 시위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전국광산노조와 석공노조가 지원 활동에 나섰고, 이에 따라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영월을 방문하는 등 운동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지만, 결국 1972년 9월에 이르러 동 광업소는 37년만에 폐광하게 되었다.

관련 인물 : 황기택

관련 단체 : 폐광반대투쟁위원회

관련 자료 :

자료 1) 1968년 2월 27일 《조선일보》

석공영월광업소 폐광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黃基澤)는 24일 동광업소의 폐광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상공부, 석공본사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이들은 상공부와 석공당국이 동광업소의 석탄이 질이 낮고 매장량이 없어 연간 3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폐광조처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아직도 매장량은 9백55만톤이나 있고 특수저질탄이므로 사용도가 높으며 적자는 당국이 관리운영을 잘못된 관계로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 다음과 같이 반대이유를 들고 있다. ①연산 30만톤을 내도15년의 가채량이 남아 있다. ② 당국이 광부는 해마다 줄이면서 광부임금의 3배나 봉급을 받는 관리인원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등 허점투성이의 운영을 한 까닭에 적자를 내고 있다. ③ 특수저질탄이므로 발전용 보일러의 적성탄으로 되어 있어 수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13. 평창 여교사들, '독신여교사수칙' 폐지투쟁

발생일 : 1972년 10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유신체제가 등장하기 직전, 독재권력의 횡포와 그에 대한 공포가 전체 사회로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 정권적 차원에서 강요되던 '국적 있는 교육'과 국민교육헌장의 구현 정책에 눌러있던 교육계도 더욱 엄격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72년 평창교육청은 관내 각 초등학교 여교사들에게 "약혼자외의 다른 남자와 유흥장 출입을 금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신여교사수칙'을 시달해 교사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나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는 경위 조사에 나섰다.

관련 인물 : 이기천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72년 10월 4일 《조선일보》

평창교육청이 관내 각초등학교 여교사들에게 「약혼자외의 다른 남자와 유흥장출입을 금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독신여교사수칙>>이란 색다른 근무수칙을 만들어 시달

해 일부 교직원들 사이에 기본권을 무시한 지나친 자유제한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이기천(李起天 44)교육장 명의로 관내 1백16명 여교사 전원에게 보내진 이 수칙은 「실천사항」으로 ① 주거는 학교 인근에 두어야 한다. ② 언행은 자중하고 덕성을 길러야 한다. ③ 건전한 오락으로 명량한 사생활을 영위할 것. ④ 약혼자 외의 다른 남자와 유흥장 출입, 여행, 산책을 하지 말며 독신남녀교사가 방에 출입하거나 야간에 배회하는 것을 삼가도록 했다. 그밖에 「수칙」으로는 ① 지도자적 소양을 기르자 ② 새마을정신으로 검소한 기풍을 기르자 ③ 순결을 지키고 풍기 문제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지 말자고 지시했다. 이 수칙은 지난달 17일에 일어났던 흥천초등학교 이명희 교사피살사건에 자극받아 여교사의 풍기를 순화시킬 목적으로 평창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마련,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위 초등교육과장 이우열씨는 “이 같은 수칙을 서면화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평소 교화로 자율적인 행동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일부 여교사의 탈선 때문에 건전한 전체 여교사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고려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춘천초등학교 이명자(26 미혼) 교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혼여교사는 약혼전에 자유로운 남녀교제가 필요한데 행동에 제한을 가하다니 말도 안된다”면서 “미혼 여교사회의 순수한 행동마저 믿지 못한다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도교위는 34일 오후 이 여교사수칙을 시달하게 된 경위조사에 나섰다.(하략)

14. 천주교 원주교구, 부정부패 규탄대회

발생일 : 1971년 9월-10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개요 :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는 복음선교의 수단으로 5·16장학회와 공동으로 원주 문화방송국을 설립하여 1970년 9월 19일에 첫 전파를 발사하였다. 그러나 방송국 운영을 맡은 5·16장학회는 약속한 투자금도 내놓지 않았고 부정부패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주교구의 시정 요구도 무시하였다. 원주교구는 6개월에 걸쳐 청와대 등에 진정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1971년 9월 투자액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만 믿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제도화된 불의에 대항하여 부정부패의 풍토를 개선할 것을 결의하였다. 지학순 주교를 비롯한 원주교구 신자들은 10월 5일부터 3일간에 걸쳐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가두시위를 하였고, 원동성당 내에서 규탄 농성을 벌였다. 또한 7일 농성을 마치면서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 부정부패 추방운동은 이후 지학순 주교 등 원주교구 성직자와 신자들이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학순 주교

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위해 일어나 강자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농민, 서민 등 약자를 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교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켜 타교구에서도 부정부패 추방운동이 전개되었고, 시위 소식이 전해진 바로 이튿날 서울대 상대생 백여 명도 부정부패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성토대회를 가졌다. 3선개헌 등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치에 대한 저항이 약화되던 당시에 사회정의를 내세우며 권력에 대항하였던 원주교구의 규탄대회는 천주교와 우리 사회의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첫발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

관련 인물 : 지학순

관련 단체 : 천주교 원주교구

관련 자료 :

자료 1) 천주교 원주교구, 『원주교구30년사』, 1996, 162-6쪽.

자료 2) 지학순, <부패의 실상과 사회정의>, 『월간 창조』, 1971. 12, 465-7쪽.

자료 3) 천주교 원주교구, <부정부패자는 물러 가라>, 『민족·민주·민중선언』(김상웅 엮음, 일월서각, 1984), 150-2쪽.

자료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1, 1987, 150-7쪽.

15. 가톨릭노동청년회 단식농성

발생일 : 1977년 10월 11일-13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가톨릭노동청년회는 1958년 처음으로 창립되었다. 1962년 태백시 장성분당 주임신부로 봉직하던 춘천교구의 이영섭 신부는 그곳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예비팀을 구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1년 5월 원주 시내의 제사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교우 청소년들로 가톨릭노동청년회(회장:유순심)를 조직하였다. 지학순 주교도 이미 1969년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총재직을 맡아 1975년까지 봉직하였으며, 1971년 원주교구 회장 이창복은 전국평의회에서 남자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원주의 노동청년회는 매년 원주 시내 공장의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등 활동을 펴나갔고, 자체 세미나 및 시국강연회도 개최하였다. 1977년 8월 20일에 제사공장인 범양산업주식회사 여공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노동청은 노조신고필증의 발급을 지연하였고, 회사도 온갖 방해로 하였다. 이런 와중에 회

사는 노조 간부들을 설득하여 어용노조를 만들어 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10월 11일, 이 회사의 여공 15명이 원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고, 원주교구의 노동청년회는 이 사실에 대한 홍보와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개신교 측과도 연합하여 '근로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갖는 등 노력한 결과, 13일 회사 측에게 여공들에게 합법적인 대우를 해주겠다는 서명을 받아냈다.

관련 인물 : 이창복

관련 단체 : 범양산업노조, JOC

관련 자료 :

자료 1) 『원주교구30년사』, 759-62쪽.

자료 2) 천주교 원주교구 주교좌 원동교회, 『원동백년사』, 1999, 164-5쪽, 196-7쪽.

16.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 연합회 창립

발생일 : 1973년 2월 6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한국가톨릭농민회는 “농민스스로의 단결과 협력으로,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정의 실현을 통한 농촌사회의 복음화와 인류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6년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가톨릭농촌청년회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탄생하였다. 1973년 2월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 연합회가 창립되어 교구내 농민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 2월 6일에는 한국가톨릭농민회 강원지구 연합회 창립총회를 열었고, 2년 뒤에는 춘천교구 연합회가 분리됨으로써 명칭을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 연합회로 변경하였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가농

관련 자료 :

자료 1) 지학순, 『정의가 강물처럼』, 형성사, 1983, 377-9쪽.

자료 2) 『원주교구30년사』, 753-4쪽.

17. 지학순 주교의 노동·농민운동 지원

발생일 : 1973년 3월-6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강원도 원주에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천주교 원주교구장인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선생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다. 지 주교는 원주를 중심으로 하여 태백시 등 원주교구 내에서 조직된 각종 관련 단체를 지원하였고, 교육회나 세미나 등지에 직접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그의 활동은 천주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한국노총 원주지부가 주관이 된 노동강좌 등에도 참여하기도 하였고, 1973년 6월 노동자 교육문제를 다루기 위한 신구교 연합 「한국노동교육협의회」의 회장에 추대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교회에서 강론을 통하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강조하였다.

관련 인물 : 지학순, 장일순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천주교 원주교구, 『빛이 되라』, 1990.

자료 2) 1974년 3월 10일, 지학순 주교 강론 :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한다(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햇불』 1, 1996, 53쪽)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해마다 이 날이 오면 정부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는 식전을 마련하고 모범 근로자들을 표창하고 노동자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애썼다고 추켜세웁니다.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찬사는 지극히 마땅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출 백억불 목표를 앞두고 있는 오늘 10년 전의 근로자들이 받던 대우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고 지주하며 작업은 여전히 고되며 작업환경은 여전히 나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좀먹는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질병과 재해는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리 나라가 보기 드문 기적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국민소득이 몇 배로 늘어났다고 화려한 선전을 해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동자들의 임금은 그동안 물가가 뛰어오른 것을 생각하면 기껏해야 제자리 걸음이며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실로 참혹한 저임금 수준에 못박혀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노동자들이 예전보다 더욱 가혹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물론 노동운동이 발전하지 못했던 데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경제성장만 잘되면 노동자들의 생활이 저절로 나아질 것처럼 말합니다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년의 경험에서 뼈저리게 해득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소리없이 가만히 있는데 기업인들이나 정부가 선심을 써서 자발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것은 순전히 환상에 불과한 것이며 이런 일은 슬프게도 역사상 있어본 일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고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단결된 투쟁뿐입니다. 이 간단하고도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숨기려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반대하고 탄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며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나라의 노동운동은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노동운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성장 정책의 기본을 근로자의 저임금 수준 유지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노동운동을 반대하고 억제하는 입장에 서있는데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임금 수준은 일본의 4분의1, 미국의 15분의1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그대로 묶어 두고 이것을 유일한 밑천으로 하여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수출을 확대시키는 경제정책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 기업가의 탓도 있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기본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영속시키고 있는 것이 국가의 기본정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저임금 상태에 묶어 두려고 하는 정책은 반증을 위차여 국가안보를 지상목표로 하는 우리 나라의 현 시점에서 크게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하면 반공체제를 확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가 노동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임금 노동이 유지되어온 것이 마치 기업가들 때문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이제부터 정부가 앞장서서 저임금을 일소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전히 빈말입니다. 저임금을 일소하기는 커녕 경제정책의 책임자는 임금상승율을 최고 18% 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출경제를 제일 목표로 하는 정부가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사무직에 비해 월등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노동자를 푸대접하는 것이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근래 몇년간에 극도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1971년 정부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선포했습니다. 이 법 9조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면 미리 주무관청에 그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단체교섭과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입니

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불법화한 것이나 다를 없습니다. 이보다 앞서 1970년 1월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 기업체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에 관한임시특례법'이란 법은 외국인 기업 내에서는 노동쟁의는 물론이요, 노동조합의 결성마저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근로자는 외국 자본에 의하여 착취당하는 희생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울산수출자유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민족의 존엄이 외국 자본에 의해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는 실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은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어서 사실상 노총 산하의 단일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을 대변해야 할 노총조직 자체가 어용화되어서 권력의 완전한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노동조합들은 정보, 사찰기관원들에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있으며 노동분규가 생기는 모든 곳에 정보요원들과 기동경찰대가 등원되고 있습니다. 어용이 아닌 진정한 노동운동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불순분자 또는 공산주의자로 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그들의 처참한 무권리 상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잃고 그저 그날그날을 주어진 운명처럼 참고 연명해가는 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노동운동의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깊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참으로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가난한 이웃돕기 운동을 부르짖으면서 막대한 돈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국민은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나 일하면서도 못하는 노동자들을 도우려고 없는 돈을 짜내가며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용공적 행위라고 합니다. 이 꼴이야말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현재와 같은 무권리 상태에 언제까지나 묶어 두려는 정부의 기본 정책에 철저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짓밟는 이러한 정책과 장벽을 남김없이 철폐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식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은 선전, 교육, 회합 등 기타의 모든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다하여 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안됩니다.

약자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다

노동운동 주체는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입니다. 오직 노동자들 스스로의 각성과 단결과 투쟁만이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노동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가 여러분을 짓밟고 쓰레기처럼 취급하더라도 여러분만은 자신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분신자살한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군이 말한 것처럼 '부자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약자의 생명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한 인간성을 짓밟는 모든 것에 맞서서 싸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까탈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돈 없고 배우지 못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 있고 유식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힘 없고 약한 여러분이나 똑 같은 인간이며 하느님의 평등한 자녀인 것입니다. 체에 빠지거나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존심이 있는 사람만이 노예의 신세를 면할 수 있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누구나 인간인 한 생각하고 배우고 지식을 쌓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다운 생활이란 어떤 것이며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십시오. 그것을 개선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전태일을 보고 배우기를 특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늘 초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노동자였지만 노동자의 갈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상을 지니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을 여러분에게 비추어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끝으로 나는 여러분이 조직하고 단결하고 싸우기를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고분고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결하여 싸운다면 여러분은 자신들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운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느님의 가르침입니다. 더 이상 천대받지 않기 위해 각성해야 합니다. 거둬 강조하거니와 노동자들의 각성과 투쟁없이는 현재와 같은 노동자의 비참한 처지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빼앗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화 운동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치사회 민주화가 없이는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노동운동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식인들과 크리스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염두에 둘 때 나는 우리 지식인들과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서둘러 시작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번째로 우리는 먼저 어떤 형식으로든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노동운동에 관한 간행물을 만들어 배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간행물에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체험을 반영하는 목소리가 실려야 하며 곳곳의 노동운동과 노동조건 실태가 끊임없이 보고되어야 하며 노동운동에 관한 소식과 정보와 지식도 되도록 많이 실려야 합니다. 두번째로 동자들의 학습과 연구를 돕기 위해 교재를 마련해야겠습니다. o로써 우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철학, 신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을 마련하고 f것을 모든 노동자들이 체

득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식인들과 크리스찬들이 가진 최대한의 인적 물적 자원이 노동자를 위해 아낌없이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 시설이 노동운동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보다 많은 청년 지식인과 학생들이 노동운동에 뛰어 들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적절한 훈련 계획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네번째로 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적, 법적 억압을 철폐하는 운동을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일입니다. 노동악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운동,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부, 경찰·노동청 등 국가권력기관의 악랄할 정도로 계획적인 간섭에 맞서 반대하는 투쟁, 노동운동가들의 투옥·해고·구타나 기동경찰에 의한 노동쟁의의 폭력적 진압에 항의하는 투쟁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노동운동을 마치 무슨 좌익운동이나 되는 듯이 취급하거나 노동운동가를 용공분자로 몰고 있는 현 사태를 더 이상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선포하여야 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우리 나라와 같은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 속에서 노동운동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억눌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존엄을 추구하는 이 노동운동의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며 사참의 길이며 인간성의 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이외에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정으로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억압이 아리 강성하더라도 결코 사랑의 권세를 꺾을 수 없으며 진리의 길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끝내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전태일의 분신자살 하나만으로도 우리 나라 노동운동이 모든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의 노동운동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맞은 앞날을 기약하는 희망의 새싹들이 억누를 수 없는 힘찬 기세로 물터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혹심한 억압 아래서도 우리 젊은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줄기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청년학생들,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노동자의 에 굳게 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목소리가 지금은 억압에 가리워져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에는 그것이 거대한 함성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며 우리 나라 노동운동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누구보다도 반공을 큰 주제로 삼고 있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암흑속의 횃불에서 위정자들에게 충심으로 진언하고 싶습니다. 전체 국민의 3분의1이나 되며 불덩어리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지 않고 그들을 따듯하게 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상목표로 하는 반공국가, 안보 총화체제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진언합니다. 억압만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18. 장일순의 사회운동

발생일 : 1970-1980년대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원주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인 대성고등학교를 1954년에 설립할 때 이사장을 맡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장일순은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인 정견을 지니고 195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다시 1960년 혁신정당인 사회대중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역시 낙선하였고, 5·16쿠데타 이틀 만에 평소 주창하였던 중립화평화통일론이 빌미가 되어 3년 가깝게 옥고를 치러야 하였다. 출소하여 대성학원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나, 한일굴욕외교반대운동에 연루되어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였고, 1968년 8월 15일까지 정치활동정화법에 묶이고 정권의 감시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장일순은 정신을 각성하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나서지 않는 겸손한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하게 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천주교 원주교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농민을 살리고자 시작한 신용협동조합운동, 시대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1971년 원주교구의 부정부패 규탄대회, 농민운동의 중요한 토대가 된 1973년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발족, 구속된 지학순 주교 석방운동,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신적 제자였던 김지하 구출운동 등에서 막후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7년에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공생의 원리에 입각한 생명운동으로 전환하여 1989년에 ‘한살림 선언’을 세상에 내놓았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1983년 민족통일국민연합을 발족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1991년 시민의 다양한 생활영역에 있어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회의’에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1970년대 ‘원주그룹’의 지도자였던 그는 민청학련운동 승계사업회로부터 투옥인사의 인권보호와 석방을 위해 애쓴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관련 인물 : 장일순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나락 한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 1997.

자료 2) 김지하, <도덕과 정치>『녹색평론』 66, 2002.

자료 3) 최성현, 『좁쌀 한 알』, 도솔출판사, 2004.

19.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과 긴급조치법 위반 구속

발생일 : 1974년 7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박정희 유신정권은 1974년 7월 6일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주교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던 지학순 주교를 김포공항에서 중앙정보부로 강제로 연행하였다. 혐의는 민청학련에 관련된 김지하에게 내란을 선동하려는 명목으로 자금을 주었으므로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김지하는 민청학련 조사를 받던 중 지 주교에게 돈을 받았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활동이 북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실제로 김지하는 원주 학성동 주교관 뒤편 언덕 위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지학순의 일을 돕기도 하고 민주인사들과 교분을 나누기도 했는데, 주교관에 오며가며 이따금 지 주교으로부터 돈을 얻어 쓰기도 했다. 주교의 피체라는 중대사태를 맞아 김수환 추기경은 주교단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원주교구에서도 긴급교구사제회의를 열었다. 또한 1974년 7월 10일, 전국 6개 교구(서울, 원주, 인천, 청주, 수원, 춘천)의 주교, 신부, 수도자, 평신도 등 1천5백여 명이 명동성당에서 지 주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기도회 후 성직자, 수도자 등 4백여 명이 성모동굴 앞에서 철야기도에 들어갔다. 이 기도회에서 주교단 이름으로 ‘지학순 주교의 연행에 관하여’라는 사건 <경위서>를 발표하였다. 성직자 2백여 명, 수도자 4백여 명이 모여 기도회를 개최하는 동안 김수환 추기경이 박정희 대통령과 면담한 뒤, 지학순 주교가 풀려나 명동 성모병원에서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7월 15일 지 주교는 감시하던 정보부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외신 기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1)부정부패, 2) 1인 독재, 3) 1인의 장기집권, 4)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현 정부를 반대한다고 그 이유를 천명하였다. 이 발표가 있는 다음 날인 16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지 주교에 대해 공소장을 발부하면서 7월 23일이 재판일이라고 통고하였다. 7월 21일 성모병원 회의실에서 원주교구 신자들과 수도자 등 1백여 명이 모여 지 주교 본명축일 미사를 봉헌하였고, 이 자리에서 지 주교는 ‘정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각오를 밝혔다. 23일 중앙정보부로 다시 연행되기 직전인 오전 9시경 5백여 명이 모여 기도회를 열고 있던 성모병원 성모동굴 앞에서 지 주교는 <양심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날 12시 15분경 지 주교는 중앙정보부로 구속 연행되었다.

관련 인물 : 지학순, 김수환, 김지하, 박정희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양심선언(『기독교사상』 1975년 4월호. 지학순, 『정의를 강물처럼』, 330-8쪽, 소수)

본인은 1974년 7월 23일 오전 형사 피고인으로 소위 비상군법회의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그러나 본인은 양심과 하느님의 정의가 허용치 않으므로 소환에 불응한다. 본인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본인에 대한 소위 비상군법회의의 어떠한 절차가 공포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출두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끌려간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1)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1972년 10월 17일에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폭력과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2)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도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기본인권과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를 집권자 한 사람의 긴급명령이라는 단순한 형식만 가지고 짓밟는 것이다. 이래서는 인간의 양심이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다.

3) 본인이 위반했다고 기소된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 제 1호, 제 4호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법 유린의 하나이다. 이것들은 소위 유신헌법의 개정을 청원하거나 건의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의 보도까지 금지하며,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를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 의사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여 이러한 금지를 위반하면 종신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식이다.

4) 본인이 범했다고 그들이 기소한 또 하나의 죄목인 내란선동은 본인이 그리스도교 정신을 올바르게 가졌기 때문에 억압받는 청년에게 그리스도교적 정의와 사랑의 운동을 하라고 돈을 준 사실에 대하여 갖다붙인 조작된 죄목이다.

5) 본인을 재판하겠다고 하는 소위 비상군법회의라는 것은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없는 꼭두각시이다. 저들은 지금 수많은 정직한 사람들을 투옥하고 처형하는데 있어서 비상군법회의라 불리우는 형사절차의 이름을 빌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울부짖는 피고인들의 목소리는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동안 통제된 신문들, 통제된 방송들, 통제된 텔레비들에서는 소위 검찰관의 증거 희박한 주장만이 사실로 나타난다.

이상 기록한 것이 나의 기본적 주장이며 생각이다. 이 외에는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나의 진정한 뜻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강박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1974년 7월 23일 아침

순

자료 2) 양심선언을 하기까지(상동)

1.

나에게 주어진 제목은 「나는 왜 양심선언을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또 편집자의 요청에 의하면 내가 양심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구체적 상황, 또 강제적으로 양심에 반(反)하는 자백을 한 내용 등을 적어달라는 것이다. 먼저 밝혀 두어야 할 것으로 나는 양심에 반하는 자백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다.

그러면 왜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당연한 질문에 접하게 된다. 그것은 어차피 글을 써 나가다가 보면 언급될 것이다. 그보다 양심선언운동이 독재권력에 대항하는 한 방편으로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7개월 가까운 감옥생활에서 석방된 나에게 제시되었을 때 저으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작년 7월 23일 내가 양심선언이라는 것을 한 이래 민주회복국민회의가 양심선언운동을 제창하고 그에 따라 권력의 공포에 떠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게 되기에 이르렀으며, 양심에 거역하여 부정(不正)의 대열에 불가피하게 참여했던 인사들이 부정을 폭로하고 구속되면서 양심선언을 해놓고 끌려가는 등 일견 생소한 양심선언이라는 말이 이제 국민 사이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각개의 양심선언이 각기 동일한 동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민주회복국민회의가 제창한 양심선언운동은 자생적으로 조직되고 범국민적으로 참여한 민주회복국민회의 및 그 성원의 권력으로부터의 방위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것은 또한 양심이 권력 또는 폭력과 충돌할 때 양심은 무저항의 길을 택하고, 권력에 의해서 유린 조작되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무효임을 사전(事前) 사후적(事後的)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이 양심선언운동이 수사정보기관에 불려가 불러주는 대로의각서와 진술서를 강요당하기 마련인 많은 민주인사들의 정신적 고통을 크게 덜어주게 되었음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허헌구 교사, 공화당원 김무길, 김진환씨 등의 양심선언은 부정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데 대한 가책과, 폭로한 사실의 분명함과 더불어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렇듯 다소 입장과 동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양심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적인 까닭은 한가지로 귀일(歸一)된다.

2.

그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이며 그 가운데서도 양심을 유린하는 법과 제도, 그것을 운영하는 권력의 횡포이다. 이에 대하여 양심을 지키면서 권력의 탄압속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딘 까닭에 양심선언운동은 권력에 대한 자구책(自救策)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호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법이나 제도는 그것이 높은 도덕성, 정의와 양심에 입각하여 제정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폭력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법이나 제도를 지키고 채택할 때 그 지키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양심 때문에 지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법과 제도가 단지 폭력일 뿐 아니라 폭력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상황 아래서는 양심은 숨 쉴 곳이 없다. 더우기 법과 제도가 이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제도는 더욱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폭력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권력은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과 허위와 결탁하게 되며 그것은 자주란 상승작용을 하여 국민을 괴로움과 어둠속에 몰아넣는 것이다. 이성과 양심, 그리고 인간성에 반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은 인류사의 진보와 시대적 양심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며, 각 개인의 양심도 그러한 법률과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당한 권력, 양심과 인간성에 거역하는 법과 제도와 인간의 양심이 충돌할 때 우선 먼저 폭력에 의하여 양심은 유린된다. 이때 양심은 일단 침묵을 강요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내가 양심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리에 반대되고 이성과 양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기본인권과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를 집권자 한 사람이 짓밟는 자연법의 유린으로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에 근거하여 발동된 긴급조치만 하더라도 그 폭력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으로써 그것을 지키는 것은 형벌이 무서워서이지 결코 양심에 따라 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정신에 따라 지켜진 것이 아니었다.

작년의 대량검거선풍으로 투옥된 사람들은 형벌의 두려움을 박차고 양심의 소리를 참을 수 없어 외친 행동으로 표현한 양심선언운동의 주역들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심은 어떠한 곤란 속에서도 부활하며, 어떠한 압제 속에서도 숨쉬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활발히 내연(內燃)하는 것이 양심이다.

3.

정치권력은 양심과 양심의 대화를 차단하고, 양심과 양심의 유대를 봉쇄한다. 양심은 폐쇄된 애완물이 아니라 그 분출구를 찾아 교호(交互)하며, 하나의 커다란 흐름처럼 합류한다. 권력의 횡포에 신음하는 양심은 개인을 더없이 고통스럽게 하며, 그 껍질을 차고 나올 것을 부단히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곧 양심선언이며 그 양심선언은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양심의 교호작용과 대해(大海)에서의 합류를 가속화시킨다.

이런 뜻에서 양심선언운동은 시의에 적합한 것이며,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각개의 양심선언은 양심은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며 양심은 결코 패배 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는 그동안 수사기관에 끌려가 강요에 의하여 양심에 반하는 각서나 진술서를 써주고 와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많이 보아왔고, 또 가까스로 각서는 쓰지 않았지만 그 이

후의 보복에 대하여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아왔다. 또 그 각서나 진술서를 이용하여 그대로의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각서나 진술서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

이 얼마나 간교한 술책이며 잔인한 꾀인가. 어떠한 형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짓이 바로 이것이다. 과연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뒷날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양심의 수난시대로 기록할 것이다. 어떻게 해를 보고 달이라 할 수 있을까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할 것을 다반사로 강요하는 풍토가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날로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악은 그 악의 존립을 위하여 더욱 그 악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허위와 부정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악이다 라고 했을 때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할 것을 요구하며 그 요구에 불응할 때 폭력을 휘두른다. 그러므로 악, 허위, 폭력은 언제나 공존하며, 그것들은 필경 인간의 양심을 파괴, 유린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되풀이 되면 되풀이 될수록, 그것은 더욱 악랄, 잔인, 비열한 방법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양심은 더 큰 수난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수난은 동시에 양심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를 더욱 확인하게 해 줄 뿐이다.

4.

내가 양심선언을 하게 된 동기는 뭐 그리 별나거나 대단스럽지 못하다. 양심선언의 내용은 언제나 우리가 강론에서 거듭해서 말하는 것들이다. 아마도 내용자체보다 양심선언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졌다는 것과 양심선언 직후 내가 사실상 구속됨으로써 나의 양심선언이 의외로 유명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먼저 나는 양심선언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밝힐 필요를 느낀다.

내가 지난 해 대만에서 있는 주교회에 참석코자 출국한 것은 4월30일이였다. 4월 3일에 긴급조치 4호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보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다. 흔히 그렇듯이 무슨 사태다 조치다 하는 것이 있을 때면 의례히 나이 대한 감시가 심해지고, 그것이 자꾸만 반복하니까 그저 그렇거니 하고 생각하게 될 만큼 감시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그때도 그런 정도 이상의 것이 아니고, 나로서도 민청학련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내가 바로 그것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욱 모를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나는 출국했고, 대만, 필리핀을 거쳐 독일에 갔을 때 김지하가 체포되었고 사건의 진상이 당국에 의하여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배후조종하여 정부전복을 꾀했다는 당국의 발표를 믿는 교포는 거의 없었다. 나 역시 또 어린 학생들을 억울하게 몰아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얼마나 이런 학생들이 고생을 할까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당초 내가 간 목적이 있었던 터라 독일과 오스트리아, 로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황과 교회관계 인사를 만나 대충 일을 마치고 일본을 거쳐 7월 6일 오후 4시 50분 귀국하게 되었다. 나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방치되다시피 연행되었다. 트랩에서 내리면

서 나는 몇몇 낯익은 인사들과 손을 흔들며 인사했는데 나는 그들을 대하지도 못한 채 끌려갔다. 뒤에 들은 얘기지만 밖에서는 나의 행방을 몰라 여러 날 안절부절했다고 한다. 내가 중앙정보부에서 추기경을 만난 것은 7월 8일 오전 1시경이었는데 그 직전까지 밖에서는 나의 행방을 몰랐다고 한다. 내가 귀국한 이래 저들에게 취조를 받은 내용은 내가 김지하에게 돈을 준 것이 폭력으로 정부전복을 피하려는 자금으로 주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추궁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했다.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운동을 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이다.

7월 10일 오후 10시경 중앙정보부로 찾아온 추기경과 더불어 나는 명동성당으로 왔다. 뒤에 들으니 주교단회의를 앞두고 정보부 고위간부가 추기경을 찾아와 박정희 대통령이 추기경을 만나뵙자고 면담을 주선, 추기경이 오후 7시 청와대에서 박대통령을 만나고 이어 내가 일단 정보부에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한다. 면담하는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나에게 대한 심한 감시나 행동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들었다. 나는 주교의 몸으로 내 발로 귀국했고, 또 내가 죄가 있다면 고생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보다 편하게 되기를 결코 바랄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니 그대로 지켜지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에게 대한 감시는 풀리지 않고 16일부터는 더욱 심해지는 것이었다. 두 명의 정보원이 병실에 있는 나와 기거를 같이 하면서 외부인사와의 접촉을 막을 뿐 아니라 심지어 변소가는 데까지 따라다녔다. 간호원하고 얘기하는데도 간섭을 하는가 하면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었다. 이것은 대통령의 약속하고는 엄청나게 틀리는 것이었다. 거기다가 민청학련관계 학생들의 재판이 군법회의에서 사형구형에 사형 언도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판국이었다.

신문보도는 천편일률적으로 군법회의 대변인의 발표만을 실을 뿐 심리내용도,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되니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둔갑되어 나갈지도 모르겠고, 또 무슨 공공이속이 있는지도 몰라 나의 소신과 관련 부분을 분명히 밝혀 놓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것은 길게는 독재와 억압 하에서 무언가 양심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규범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과 짧게는 밀폐된 법정에서 내 얘기가 어떻게 왜곡되어 전달될지 모른 상황 하에 내 뜻을 분명히 밝혀 놓아야 하겠다는 생각 하게 된 것이다.

5.

나는 나의 양심선언을 내외 기자와 원주에서 올라온 교우들 앞에서 발표했다. 그리고 이어 명동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 앞에서 또 강론을 통하여 거듭 밝혔다. 이렇게 하여 나는 흥가분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기소내용을 첨가받게 되었다.

이는 내가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의 명령, 즉 성모병원 621호실(이 병실은 출감해서도 입원했던 바로 그 병실이다) 밖을 촌보(寸步)도 나가지 말고, 정보부 직원의 감시를 받고 있으라는 지시를 어겼고 또 뉴스위크지 기자와의 회견을 위해 나갈 때 나를

따르던 신부와 교우들이 나의 행동을 말리는 정보부 직원과 옥신각신한 것이 특수공무 집행방해라는 것이다. 군법회의 재판부의 제한명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었거니와, 적어도 그때까지는 불구속이었으면서도 정보부 직원이 침식을 한 방에서 같이 하는 행위는 참기 어려운 고역이었다. 더우기 나는 긴급조치가 엄연히 시행되는 위험하다면 위험한 상황에서 자진하여 내 발로 귀국한 천주교주교가 아닌가.

그런 군법회의를,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양심에 입각, 독립하여 재판하는 곳으로 어찌 인정할 수 있는가. 나는 군법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나는 소환에 불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나의 예상대로 그들은 폭력으로 군법회의 법정에서 세웠고, 예정된 스케줄과 각본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 이리하여 나는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15일까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내가 구속된 뒤에서부터 내가 석방되기까지의 기간은 국면의 양심의 노호(怒號)가 가장 높았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여겨진다. 언론은 언론대로 통제된 상태를 벗어나려 피나는 노력을 경주했고, 그 결과 정부에 의해 기사를 배급받는 언론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나 또한 이렇게 밝은 사회에 나와 교회의 품에 안겼지만 현실은 아직도 우리가 투옥되었던 당시의 원점에서 있다.

본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자기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교회는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소명, 그의 생존권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일깨우고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기본권이 짓밟히고 침해당할 때만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가 누구이든 그의 편에서 그를 대변하면서 유린당한 권리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항변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오늘의 현실은 교회의 이러한 사명을 더욱 일깨워 주고 있다. 지금의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을 기하여 이 땅의 민주헌정은 배신적으로 파괴하였고, 한 사람의 집권자가 이른바 긴급명령이라는 형식적인 법절차와 권력남용으로 국민의 기본인권과 존엄성을 마구 짓밟고 있다. 이러한 권력남용으로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소위 유신헌법이야말로 1인 집권을 장기화시키고 3권을 1인에 집중시키는 악법임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나는 긴급조치라는 것에 의하여 감옥생활을 했고, 제의(祭衣)를 입던 몸은 오라줄에 묶였으며, 묵주를 들리는 손에는 차디찬 수갑을 차야했다. 내가 고생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이 땅의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왜 이래야 되는가. 천주교가 양심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될만큼 우리의 현실은 그토록 각박한가. 우리는 지금 그 대답을 기도와 실천으로서 해야 할 때이다. 나의 양심선언은 인간다운 참이 보장되는 날까지 변함없는 나의 신조이기도 하다. 선언은 선언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기도함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양심선언운동은 작게는 자기의 양심을 방어하고 지키는 운동이며, 크게는 양심과 양심의 유대와, 양심의 실천을 상호확인하는 진리와 양심의 실천운동이다. 양심은 어두움을 밝히는 촛불이어야 하며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이어야 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부정과불의를 물리치고 주저함 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곧 우리 교회의 양심선언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의 양심선언은 주교라는 직분상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은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신앙에서 우러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상당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공동의 신앙에서 우러나는 참다운 관심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이를 싫어하는 정치권력과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선언운동도 이런 관점에서 파악되고 확대되어 가야할 것이라고 믿는다. 교회가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인간의 법률도 없다는 점이 우리 신앙의 확신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정치권력과 불가피한 저항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하느님의 지배력이 행사되지 못할 치외법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의 권력은 눈이 어두워 무모와 궤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려 하기도 한다.

이럴 때 교회는 양심의 요람이 되어야 하며 교회를 지키는 것은 곧 양심을 지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양심선언운동은 곧 사랑의 운동이며, 진리의 운동이며, 복음을 선포하는 운동이며, 실천의 운동이다. 양심선언운동은 그러므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범법행위를 자백받으려는 현실상황에서 유린되는 양심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측면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적극적 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져야 한다. 물론 나의 양심선언 또한 자기선언적인 소극적 측면의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제 양심선언운동은 그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고 나는 강조하고 싶다.

부끄러운 일이나 나의 양심선언 내용을 그대로 적어 참고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한다.

"본인은 1974년 7월 23일 오전 형사 피고인으로 소위 비상군법회의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그러나 본인은 양심과 하느님의 정의가 허용치 않으므로 소환에 불응한다. 본인은 분명히 말해 두지만 본인에 대한 소위 비상군법회의의 어떠한 절차가 공포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출두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끌려간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1)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1972년 10월 17일에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폭력과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2) 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도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기본인권과 기본적인 인간의 품위를 집권자 한 사람의 긴급명령이라는 단순한 형식만 가지고 짓밟는 것이다. 이래서는 인간의 양심이 여지없이 파괴될 것이다.

3) 본인이 위반했다고 기소된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 제 1호, 제 4호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법 유린의 하나이다. 이것들은 소위 유신헌법의 개정을 청원하거나 건의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의 보도까지 금지하며, 소위 대통령 긴급조치를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 의사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여 이러한 금지를 위반하면 종신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식이다.

4) 본인이 범했다고 그들이 기소한 또 하나의 죄목인 내란선동은 본인이 그리스도교 정신을 올바로 가졌기 때문에 억압받는 청년에게 그리스도교적 정의와 사랑의 운동을 하라고 돈을 준 사실에 대하여 갖다붙인 조작된 죄목이다.

5) 본인을 재판하겠다고 하는 소위 비상군법회의라는 것은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없는 꼭두각시이다. 저들은 지금 수많은 정직한 사람들을 투옥하고 처형하는데 있어서 비상군법회의라 불리우는 형사절차의 이름을 빌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울부짖는 피고인들의 목소리는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동안 통제된 신문들, 통제된 방송들, 통제된 텔레비들에서는 소위 검찰관의 증거 희박한 주장만이 사실로 나타난다.

이상 기록한 것이 나의 기본적 주장이며 생각이다. 이 외에는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나의 진정한 뜻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강박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1974년 7월 23일 아침
천주교원주교구장 주교 지학순

20. 지학순 주교 석방운동

발생일 : 1974년 7월-9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74년 7월 23일 지학순 주교가 중앙정보부에 구속된 뒤, 7월 30일 원주교구의 사제 45명, 수도자 30명, 신자 1천여 명이 원동성당에 모여 고통 받는 모든 이와 지 주교를 위한 미사와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8월 1일에는 명분 없는 출두요구에 반대해 온 신현봉·노세현·이영섭 원주교구 신부가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원주에서 강제 연행되었다. 지 주교는 8월 12일 비상군법회의에서 3차 공판 끝에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바로 당일 지 주교와 고통 받는 모든 이를 위한 특별미사와 철야 기도회가 오후 6시 명동성당에서 개최되었다. 서울, 인천, 원주, 춘천, 부산, 마산교구 등에서 참여한 신부 2백여 명, 수도자 5백여 명, 신자 2천여 명이 참석한 기도회에서 '지 주교 사건의 경위' 설명과 '침묵의 강론'이 있었다. 8월 15일에는 원주교구 원동성당에서 지 주교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고, 8월 26일 인천 답동성당, 9월 2일 대구대교구, 11일 안동교구 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전국적인 기도회에도

원주교구의 사제들이 참석하였다. 9월 5일 원주교구 단구동성당에서 안동교구 두봉 주교의 집전으로 '지학순 주교와 고통중의 의로운 이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되었다. 또한 이후에도 원주교구의 지 주교 석방 노력과 정권 비판은 끊임없이 행해졌다.

관련 인물 : 신현봉·노세현·이영섭, 두봉신부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74년 9월 30일, 지학순 주교, 서한 : 옥중에서 교황 바울로 6세께(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햇불』 1, 1996, 106쪽)

교황님 !

이곳은 호젓한 감방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조작된 죄목으로 갇혀 있고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이곳이지만 저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과 사명감에서 조용히 이 고통을 감수하며 기도 드립니다. 저는 더욱 침묵의 교회를 취해서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성교회의 기도에 합하여 전 인류를 위하여 정의와 평화구현을 위하여 특히 우리 조국을 위하여 조용히 무릎 꿇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교황님!

그동안 저희 원주교구 모든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자부적인 사랑과 배려에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속된 이유, 즉 죄목이란 내란선동입니다. 그러나 내란선동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의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저는 다만 억압받고 짓눌려 있는, 민주국가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권마저 빼앗기고도 말 못하는 서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겠다는 신념에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인권 침해로 상처받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벗을 위하여 이 땅에는 또 다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적는 다만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미 제 신변의 위협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 7월 6일 귀국하여 연행된 후 지금까지 원주교구로는 가지도 못한 채 받혀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죄목에 응하지 않고 또 인위적인 타협에도 현혹되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저에게 지워진 또 다른 죄목은 긴급조치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긴급조치법은 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결여된 법률로서 양심의 표현마저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마저 억누르고 양심의 굴복을 강요하는 처사로서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회복, 민주회복을 위하여 <양심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주교로서 하느님과 교회와 국가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충실한 종입니다. 저는 부당한 현실을 예언자적 자세에서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갇혀 있는 많은 정의의 투사들인 목사, 교수, 학생, 변호

사, 언론인들과 함께 정의를 노래하면서 가장 미소한 형제들의 벗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항하리오"한 사도 바울로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끝으로 첨부하고 싶은 것은 신문지상에 저의 양심과 어긋나는 표현이 발표되더라도 그것은 강압이지 결코 본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며 원주교구 모든 교우들에게 교황님의 강복을 청합니다.

자료 2) 1974년 10월 1일, 원주교구 평신도 일동, 성명서 - 지학순 주교에 대한 기소 사실은 정당한가?,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1, 1996, 107쪽)

원주교구 평신도 일동

지 주교의 구속은 자연법에 배치된다

독일 바이말 공화국의 법무장관을 지낸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부르흐는 히틀러의 나치 곤욕을 겪은 다음 2차대전 종전 후 최소한도의 자연법 원리 하나를 제시하였다.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는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허용할 책임이 없고 정치적 견해, 사상적 신념에 대한 관용의 의무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자유와 관용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받아서도 안되는 시민이 있다. 즉, 정부가 자유와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만 자연 자해를 파괴하려는 정치 견해나 사상을 가진 분자들만은 자유와 관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 공산주의자, 나치, 파시스트들이 그 예다."

이 점에서 서독은 기본법에서 공산당, 기타 독재적 견해를 불법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국가보안법 등의 특별법을 시행하는 것은 자연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 주교를 내란죄로 기소한 것은 자연법을 거꾸로 적용한 자연법배치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 주교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독재를 옹호한 분도 아니며 오히려 라드부르흐가 제시한 자연법을 사수하려는 분이다.

히틀러는 실정법상 바이말 헌장을 중단시킨 일이 없다. 합법적으로 다수당을 장악하여 총통이 되었다. 하지만 수권법 즉, 국회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입법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법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민을 탄압. 처단하였다. 라드부르흐는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회고하면서 비록 히틀러가 바이말헌정을 중단시키지도 않았고 합법적으로 집권하였더라도 자연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독일 국민은 마땅히 이를 막았어야 했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비폭력 평화적 의사표시는 민주시민의 권리다

지학순 주교는 1974년 7월16일 내란선동 및 이른바 대통령 긴급조치 제1, 4호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7월23일 <양심선언>을 발표한 직후 후 가진 긴급조치 제1호 및 특수공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첫번 기소사실의 요지는 지 주교가1973년 겨울과 1974년 봄에 걸쳐 시인 김지하에게 반정부 데모를 하라고 도합 108만원을 주어서 내란을 선

동하였고 1974년 4월3일에 공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에 따라 자수하지 않아 긴급조치 4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지 주교의 법정진술과 김지하씨의 증언을 보면 지 주교가 돈을 준 것은 데모자금이 아니라 신·구교 청년학생의 그리스도교적 활동에 쓰라고 주었음이 나타난다. 그리스도교적 활동이란 토론과 연극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정의의 부르짖고 불의를 고발함도 그에 속한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설사 정부의 기소사실대로 지 주교가 데모에 쓰는 돈임을 알고 주었다 하더라도 내란죄라는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법률 위반이다. 데모스트레이션은 문자 그대로 의사표시이다. 수많은 사람이 데모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폭력 평화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의 위반행위가 아니다.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 데모는 결코 내란이 아니었다. 민주국가에서는 총파업의 행위까지도 내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상식이 아닌가? 국민투표에 의하여 절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그렇게 자신이 있는 정부라면 천명의 데모든 만명의 데모든 그것이 정부전복을 가져오리라는 피해망상에 빠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가장 악독한 일본의 무단정치하에서도 3.1운동 주동자 33인에 대한 내란죄기소가 각하된 사실을 오늘의 사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지 주교가 김지하씨에게 돈을 준 다음 그 후에 공포된 긴급조치 4호에 따라 자수해야 하는데 자수하지 않았다는 기소사실의 경우도 소급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법에 위배되는 처사다. 이렇게 법을 다룬다면 앞으로는 소급법을 만들어 놓고 자수하지 않았으면 그 자수 안한 죄목으로 처단함으로써 법 제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자진신고 내지 자수를 의무로 판정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최소한 꼭 필요한 때 부득이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시민은 ‘말 안할 자유’조차 상실하는 비굴한 노예가 될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 주교에 대한 긴급조치 4호는 그 자체가 자연법 위반이다. 뿐만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형까지 직면해야 하는 가혹한 법이다. 또 국회의 공개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기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지 주교가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의 명령, 즉 성모병원 621호실을 나가지 말고 정보부 직원의 감시를 받고 있으라는 지시를 어겼으며 지 주교를 따르는 신부와 신도들이 정보부 직원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정부 고위층이 뉴스위크 기자와의 회견에서 천주교 신도들이 정보부 직원을 실신하도록 구타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신부와 신도들이 주교님을 따라가다가 정보부 직원이 지 주교 옷자락을 잡으려 하자 이를 한두번 때민 일 이외에 폭력이나 구타를 했다는 것은 거짓이므로 더 지적할 가치조차 없다. 지 주교가 군법회의 재판부의 제한명령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는 여하간에 그런 명령에 순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속과 불구속을 명확히 구분하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긴급조치가 엄하게 시행되는 위협 속에 자진하여 귀국한 천주교 주교가 도주하겠는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을 리 없다. 그럼 에도 불구속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정보부 직원이 침식을 한 방에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감시하고 심리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비인간 형사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 주교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현재 비상고등군법회의에 계류중이다. 현행법

절차상 제한과 조건 없는 접견권을 가진 변호사마저도 지금까지 단 한번밖에 접견이 허락되지 않았다. 지금 지 주교는 이런 위법 상태를 겪고 있다.

교회가 정치문제에 무관심하면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은 하느님 보시는 앞에서 생명을 걸고 발표한 것이다. 지 주교의 양심선언은 ‘어떠한 힘이든 존중되어야 하는가? 모든 힘 앞에 굴복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최소한도의 기본권은 양심의 조건, 국가 안전의 조건, 사회 경제발전의 조건법을 주장하던 평소의 신념을 단호히 표현한 것이다. 양심과 법 정신에 따른 독립성을 잃은 재판부, 은밀히 진행하는 재판, 언론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언론자유를 부르짖다 투옥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무의미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오늘날 공공건물마다 붙어 있고 현수막 마다 그려 있는 국민총화를 통한 국가 안전과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하여 지 주교가 현 정부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 주교는 최소한도의 기본권과 자존심이 보호된 상태에서만이 국민이 더 많은 간첩신고를 하게 하며 국가가 침략당할 때 자기의 기본권과 자존심을 보호해 준 체제를 지키려는 사명감에서 더 많이 생명을 던져 싸움터에 나갈 것이라고 확신해왔다.

지 주교는 최소한도의 인간적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만이 더 많은 청년들이 더욱 용기 있게 열심히 조국 방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더 많은 지성인이 조국을 지키려 귀국할 것이며 더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더 많이 자발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것을 확신해왔다.

지 주교는 최소한도의 언론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진하여 협조하고 단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어왔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만이 여러 견해 중 어느 견해가 가장 국가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더욱 현명하게 판단하는 견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의 파란 많은 생애를 통해 체득한 신념으로 지켜왔다. 지 주교는 최소한도의 자유와 자존심이 허용된 사회에서만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여 발전하는 풍토, 부정으로 일확천금하려는 사람들이 억제되어 권력에 아부하거나 한눈 팔지 않고서도 경제건설에 몰두할 수 있는 풍토, 기업가가 자존심과 책임감 있는 근로자들과 더 많이 접촉하게 되고 그들의 자발적인 인내와 협조를 받게 되고 파국이 발생하지 않는 풍토가 비로소 조성된다는 슬기로운 인간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지 주교는 양심선언에서 정치활동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어느 정당의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하지도 않았다. 지 주교는 정치가의 영역에서 활동한 일도 없고 세속적인 정치적 명예와 정치적 지위를 꿈에도 생각해본 일이 없다. 그러나 양심의 조건, 국가 안전의 조건, 사회 경제발전의 조건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때면 그 침해의 근원이 교회 내부이든 정치권력이든 어느 곳이든 감현히 일어나 발언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현대적 사목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 현대사회에서 정치 메카니즘은 인간생활의 구석구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공산주의나 전체통치 방식이 교회 자체를 침묵의 교회로 만들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은가? 모스크바, 하노이, 북경에서도 매일 미사가 봉헌되고 신도가 모이는 성당들이 있으며 신부들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

다. 그러나 그곳은 침묵의 교회가 아닌가? 이 현실 앞에서 누가 감히 교회는 정치문제에 무관심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따랐을 뿐

지학순 주교는 비록 학문의 조예가 깊은 법학 박사이지만 오늘날의 시점에서 백마디의 복잡 정교한 이론보다는 원리원칙(Principium)의 수호와 구체적인 실천의 길이 필요함을 직시하고 그 길을 걸어온 분이다. 원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원리를 전제로 한 복잡 정교한 이론은 그 자체로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모래 위의 누각 아닌가? 그 분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온 생활을 더듬어보고 눈여겨본다면 그분의 사상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회 사목정신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지 주교는 가톨릭 교회가 우선 가난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불우한 이들의 벗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불우한 이의 벗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이 시대 우리 나라의 최대 위협인 폭력과 유일사상으로 양심을 파괴하려는 북한 공산주의의 호소력을 봉쇄하여 그들의 침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 주교는 가톨릭 교회가 교회 내부와 외부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발언해야 한다는 사목정신을 가지고 있다. 교회 안의 동료의 입장이나 체면 때문에 대다수의 열망을 무시해야 하고 교회 재산이 위협받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비겁한 의견에 동조하는 자세는 결코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지 주교의 신념이다. 정치 권력이 회유나 위협을 한다고 해서 올바른 많은 사람들의 견해와 뜻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지 주교는 좋은 사상도 바르게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언행일치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예리코로 넘어가는 길에는 오늘도 수많은 학자와 사제들이 '자기들의 임무는 다른 데 있다, 자기들의 할 일이 아니다, 자기들은 더 중요한 직무가 있어 바쁘다, 핍박이 두렵다, 학자나 사제가 점잖치 않게 가던 길을 벗어나 웃을 더럽힐 수 없다'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따른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학순 주교다.

이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지도층인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에 정면으로 도전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처형은 그들에게 위협적 존재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사실 당시 예수님은 기존 가치에서 소외된 변두리 인생인 어부, 창녀, 세리 등을 벗으로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예수의 태도가 차츰 집권층과의 분쟁, 갈등을 격화시켜 마침내 정치적 범죄라는 조작에 의해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했다.

우리는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어려움을 절감하면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주관한 사회정의구현 세미나를 통해 우리 자신의 미흡함을 통감하고 사제단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아래의 몇 가지를 촉구한다.

1. 우리는 언론들의 언론자유 수호선언이 그들의 사명감에서 우러난 지극히 적절한 선언임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사실보도에 더욱 성실할 뿐 아니라 현실을

비판하는 본연의 기능마저 하루 속히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교수를 포함하는 모든 양심적 지식인들이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특권층과 지도층이 자신의 부정부패를 깊이 뉘우치고 일소할 것을 촉구한다.

21.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결성

발생일 : 1974년 9월 23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지학순 주교의 구속은 일반사회도 그러하였지만 특히 천주교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민주주의 회복과 인간의 존엄성을 염원하는 사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치된 힘으로 정권의 탄압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전국적 조직은 부재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조직의 필요성은 지학순 주교 구속 사태에 대한 천주교계의 미약한 대응에서도 드러났다. 9월 23일 원주교구에서 사제단의 이름 아래 3백여 명 신부들이 성직자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란 명칭의 사제단 결성과 명칭에 합의하고 집중적으로 인권회복과 민주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합의 후 첫 기도회를 이 날 저녁 사제단의 이름으로 원주교구 원동성당에서 개최하여 사제, 수도자, 신자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24일 참석자들은 지학순 주교 석방 등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즉 지 주교 투옥 사건으로 원주는 유신정권에 대항하는 교계와 일반사회의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성지가 되었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관련 자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편, 『한국천주교회의 위상』, 분도출판사, 1985, 107쪽;함세웅, 『고난의 땅 거룩한 땅』, 두레, 1984, 235-51쪽.

22. 한국천주교계에 대한 원주교구의 항의 사건

발생일 : 1974년 10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지학순 주교의 투옥은 천주교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원주교구에서도 기도회와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천주교계는 지 주교의 석방운동에 열의가 떨어진 듯하였다. 지 주교의 석방을 위해서는 교계가 유신정권과의 대립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부담도 고려하여야 하였고, 천주교 사제와 신자 사이에서도 정권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 여론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원주교구의 신자들로서는 천주교계가 지 주교의 석방에 소극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주교단을 비롯한 교계 지도층에 호소하고, 더 나아가 특정 성직자들을 지목하여 비판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주교구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지 주교 석방 노력의 촉구는 천주교계로 하여금 박정희 정권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도록 만들었고, 그것은 곧 천주교계의 민주화운동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종교 본연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반성의 계기이기도 하였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가톨릭원주교구

관련 자료 :

자료 1) 1974년 10월 30일, 원주교구 신자 일동, 호소문(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1, 1996, 142쪽)

목자 잃은 양들이 주교단에 묻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를 이끌어나가는 공경하올 주교회의 의장 김수환 추기경님, 그리고 여러 주교님! 저희 원주교구 신자들은 지금 우리들의 목자이신 지학순 주교님을 빼앗기고 슬픔과 한숨과 눈물 속에서 이 호소문을 보내 드리는 우리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목자이신 지학순 주교님께서 이미 백여일이 넘도록 우리와 같은 한국 땅에 계시면서도 우리 곁에 올 수 없는 부자유 속에 계시며 더욱이 차디찬 감방에서 밥 한 끼도 따뜻하게 들지 못하고 불편한 잠자리에서 지내고 계심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미사는 물론 영성체도 못하시고 계시며 우리가 정성껏 보내 드리는 의복조차 제대로 전달이 잘 안되고 면회도 할 수 없으며 지병인 당뇨병으로 어깨 부분이 저려오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양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자를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을 보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 주교님께 '귀국 도중 비행장에서 행방불명되셨다. 모 기관에서 문초를 받고 계신다. 수도원에 연금되어 계신다, 병원에 연금되신다, 다시 모 기관에 연행되셨다'는 등의 소식들이 계속 구전으로 밖에 전해지지 못하는 이 어두움을 보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저희들을 위해 저희 곁으로 달려오실 주교님이신데 그 분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의 부조리를 보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저희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공경하올 주교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국 주교단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 주신 공동 사목교서는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헌장 그리고 여러 교황들의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지 추교님이 귀국하시기 바로 전에 주교단에서 발표하신 사목교서는 오늘의 현실을 밝혀 주신 지침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희 목자이신 지학순 주교님께서 귀국하시던 길에 비행장에서 모 기관에 연행되신 후 보통군법회의를 거쳐 고등군법회의에서도 15년 징역에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이 난 현재까지 한국 주교회의가 취해온 불투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아니 일체 무반응에 가까운 태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하올 한국 천주교회의 지도자이신 여러 주교님!

사도들의 후예로서, 가장 사랑하는 형제로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실 지도자로서, 지성과 덕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가르쳐 오신 여러 주교님 ! 항상 저희 목자이신 지 주교님께서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계신 분들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희들에게 자랑해 오시던 여러 주교님! "복음전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를 따르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라, 같은 뜻을 두고 같이 일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형제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 이 땅에 하느님 왕국을 세우자" 등등 훌륭하신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일러오신 여러 주교님!

지난 7월 이후 주교님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그렇게도 우리에게 훌륭하신 가르침을 주시던 주교님들은 다 어디 계셨길래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이나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마디나 작은 의망이나 용기마저도 전해주실 수 없었는지요? 그렇게 애타게 저희들이 목자를 찾아 헤매는 때에 저희들을 외면한 채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셨는지요?

공경하올 여러 주교님!

저희들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몰라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경하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주교회의를 소집하셨다는 이야기. 김 추기경님과 나길모 주교님, 윤공희 대주교님, 김재덕·황민성·정진석·두봉·박도마 주교님께서 저희들의 목자이신 지 주교님을 위한 기도회를 집전해 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두봉 주교님께서 대전에서 개최된 꾸르실료 울뜨레아에서 지 주교님을 정당하고 훌륭하시다고 강론하신 이야기, 김해덕 주교님께서 성년대회에서 지 주교님을 찬양하고 옳은 일을 하셨다고 하신 이야기, 그리고 김재덕·황민성·나길모·박도마·두봉 주교님께서 지 주교님을 석방하라

는 데모에 앞장서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윤공희 대주교님과 나 주교님과 정진석 주호님께서서는 일부러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지 주교님은 옳은 일을 했으니 용기를 가지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두봉 주교님께서서는 친히 저희들을 방문하시고 지 주교님은 살아계신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 주신 분이시라고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희들을 눈물짓게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서정길 대주교님, 장병화·이갑수·이문희 주교님께서서는 지 주교를 위한 주교단의 공동미사를 거부하시고 바쁜 일이 있다는 핑계로 가버리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정길 대주교님, 이갑수 주교님은 지 주교님을 위한 교구 차원의 기도회를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서정길 대주교님께서 모 기관 사람들에게 지 주교는 나쁘다고 하셨다는 이야기, 심지어 서정길 대주교님께서서는 “이번에 오지리에 가면 지 주교가 납작해지도록 만들고 오겠다”고 하시면서 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장병화 주교님께서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 울뜨레아 대회에서 전체 분위기가 지 주교님 때문에 숙연하게 진행되는 데도 무엇이 좋으신지 춤을 덩실덩실 추셨다는 이야기, 어느 주교님은 무슨 약점을 잡혔고 어떤 주교님은 아버지 때문에 못 나선다는 이야기, 심지어 모 기관의 앞잡이를 선 어느 신부님이 교황대사님을 찾아뵙고 지 주교를 로마에서 소환하도록 하자고 제의하자 교황대사께서 그 뜻을 교황청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지 주교님이 원주 교구장을 면직당하고 후임에는 모 신부가 교구장이 된다는 말과 함께 항간에는 언제 새 교구장이 부임하느냐고 묻고 있다는 이야기 등등 수많은 이야기를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최소한 몇 가지는 사실임이 밝혀질 때 저희들은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 위로의 말이 아쉬운 이 때에

지 주교님을 위한 기도회에는 모습도 보이지 않던 노기남 대주교님께서 육영수 여사의 추모미사에는 빠짐 없이 나오셔서 미사집전을 하실 시간이 있으셨는지요? 신분, 방송, TV를 접할 때마다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더욱 저희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주교회의의 기관지 <<경향잡지>>는 물론 <<가톨릭시보>>와 <<가톨릭소년>> 등 모든 교회의 공식 간행물은 별 것도 아닌 것을 크게 보도하면서도 주교가 납치되고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갇히고 기도회가 열리고 하는 데는 꿀먹은 벙어리 같거나 마지못해 조그마하게 보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존경하올 여러 주교님!

주교님들 가운데 서대문형무소로 저희들의 목자이신 지 주교님을 면회 가신 분이 계십니까? 설사 공권력에 의해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려고 노력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루 세끼 식사 때마다 지 주교님을 생각하여 마음 편히 식사를 하지 못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목자 잃은 양들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하신 분은 몇 분이십니까? 따뜻한 잠자리에서 주무실 때 잠시나마 지 주교님을 위해 기도하신 주교님

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판받는 군법회의장에 들어가 방청하시겠다고 노력해 보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저희들의 목자이신 지 주교님이 설혹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주교님들의 이러한 태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1년 10월 저희들의 목자이신 지 주교님께서 원주 원동주교좌성당에서 3일에 걸쳐 부정부패 규탄 기도회를 가졌을 때 사회각계각층에서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었지만 유독 우리 천주교회 주교님가운데서는 단 한 분의 모습도, 격려의 말씀도 없었음을 저희들은 경험했습니다. 72년 10월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고 우리의 목자이신 존경하올 지 주교님께서 주교관에 일개월 가까이 연금당하고 계실 때도 주교님 가운데 단 한 분도 찾아 주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례하게도 저희들이 그런 점을 지 주교님께 말씀 드릴 때면 지 주교님께서 항상 주교님들을 당신보다도 더 훌륭하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면서 “나는 다른 주교님들 발바닥도 못 미친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존경하올 여러 주교님!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주교님들 가운데 한 분이 지금의 주교님 같이 되셨다면 어땠을까? 만일 그랬다면 지 주교님께서 목숨을 바쳐 그분을 위해 있는 힘을 다했을 뿐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 함께 고통을 나누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원주교구의 일은 부주교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맡기면서 그 교구에 가서 고통을 같이 하셨을 것이란 점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공경하올 우리의 지도자이신 주교님!

성년을 맞아 저희들에게 화해와 쇄신을 촉구하시는 주교님!

저희 원주교구 평신도들은 감히 외람되지만 주교님들께 저희 목자이신 지 주교님에 대한 공식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 주교는 해야 할 해야 할 일을 했으며 그 일은 목자로서 양심적으로 그릇됨이 없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지 지교는 잘못했다. 죄인이다”고 하시든지 어떤 것이든 저희들은 주교님들의 탁월하신 인격과 양심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주교님들이 저희들의 목자이신 지 주교님의 옳다고 밝히시면 옳은 일을 위해 저희들은 목숨을 바쳐 지 주교님을 따를 것이며 만일 옳지 않다면 저희들은 저희들의 목자이시지만 따르지 않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닌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그 결과는 더욱 교회를 암담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치가 안되니까 그렇지 않느냐? 일치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고.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 주교님이 언도받은 15년간을 기다려야 일치가 될까요? 그때까지도 일치가 안되면 더 기다릴까요? 3개월 이상이 지났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교가 영어의 몸이 되는 중대사에 대해 몇 년이 걸려야 일치가 됩니까? 도저히 일치가 안되면 찬반에 기명하시고 다수결로 하시더라도 이번 주교회의에서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결정에 대한 공과는 역사와 하느님 앞에

말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올 여러 주교님!

만일 이번 주교회의에서도 어떤 공식적인 표명이 없으시다면 대단히 외람되고 송구 하오나 저희들은 주교님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실 지도력이 없음은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도덕성마저 잃어버린 분들이라고 단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들기로는 교황 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공개재판을 통해 지 주교의 성실과 애국심이 재확인되길 바란다”는 공식 표명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공경하올 주교회의 의장이신 김수환 추기경님 그리고 여러 주교님!

2백년 한국 교회사에 오늘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어떤 뜻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길 하느님께서 바라고 계신지 주교님들의 현명하신 결정을 통해 저희들에게 전해지길 기도 속에 간절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주교회의에서 아무런 공식 표명이 없으시면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토대 위에서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저희들과 저희의 목자이신 지 주교님을 모함하고 핍박한 분들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곳에서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통해 하느님께 그분들을 용서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속히 회개하고 하느님과 화해하고 저희 목자이신 지 주교님과 화해하고 버림받은 이웃들과 화해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길 기도 드리며 새로운 지도자로 쇄신되어 우리 교회를 더욱 빛낼 거룩한 일을 해 주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올 여러 주교님!

목자를 잃고 슬픔과 한숨과 눈물 속에 지내는 저희들의 처절한 입장을 너그러이 보시고 이 호소 속에 혹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어여쁘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특자를 하루속히 깨끗한 몸으로 돌아오시도록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료 2) 원주교구 신자들이 부른 ‘눈물의 노래’, 담시(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1, 1996, 147쪽)

원주교구 지주교님 억울하게 갇히셨네 우리국민 기본권과 우리사회 자유위해 사회정의 수호하고 생존권의 옹호했네 원주교구 지주교님 억울하게 갇히셨네 민주헌정 확립해야 국가안정 가능하고 기본자유 보호해야 경제발전 틀림없네 원주교구 지주교님 억울하게 갇히셨네 교회정화 자체쇄신 부르짖다 눈총받고 야단맞은 부패분자 때만난듯 원망하네 원주교구 지주교님 억울하게 갇히셨네 지주교님 딸던교우 땅을치며 통곡하고 다른교구 주교님들 따듯하게 위로하고 전국사제 정의위해 줄기차게 싸우시네 추기경님 눈물흘려 원주신부 보살피고 광주교구 따듯하게 지주교님 위해주고 전주교구 강론으로 전국사제 격려하고 인천주교 물심으로 힘을다해 도우시네 대전청주 주교님들

다정하게 어루만져 안동주교 의연하게 교회자세 지키시네 우리나라
젊은신부 깨끗하고 용감하지 깨끗하니 용기생겨 용감하니 깨끗해져
원주교구 지주교님 억울하게 갇히셨네 정보기관 눈을밝혀 교회동정
살펴보고 수사기관 틈을보아 교회분열 획책하네 오슬프다 누구인가
지주교님 비방하네 정의위해 몸바치고 불쌍한자 못잇으며 가난한자
돌보시는 지주교님 비방하네 지주교님 정의감에 잘못된걸 야단치게
일부신부 일부신자 반성없이 되려원한 민주부터 공화까지 정치신부
정말인가 정보신부 지주교님 외국미행 정말인가 아부신부 정보부와
긴밀유대 정말인가 외교신부 주교되려 막후교제 정말인가 인기신부
대의원에 당선되서 무얼했나 자가용에 고급농장 부자신부 정말인가
여자관계 알려질까 떠는신부 정말인가 통분하다 누구인가 지주교님
깎아말해 정의위해 몸바치고 불쌍한자 못잇으며 가난한자 돌보시는
지주교님 깎아말해 지주교를 좌의중상 고위신자 정말인가 지주교님
활동하면 공산주의 발똥붙여 많은신자 비겁신자 재산공직 잃을까봐
벌벌떨고 눈치보며 지주교님 후원않고 어느신자 욕심 많아 재산공직
더늘리려 침흘리어 아부하고 지주교님 고통주네 오괴롭다 주교까지
지주교님 옥보이나 대구주교 당국에게 지주교를 나쁘다고 말했다고
소문나니 그게그게 정말이오 대구부산 마산주교 세분이서 기도회를
거절하고 퇴장했다 소문나니 정말이오 대구주교 신부들께 기도회를
열지말라 엄명내려 금지했다 소문나니 정말이오 한심하다 교회신문
누굴위한 기사인가 지주교의 정의발언 언제인가 깎아냈지 걸핏하면
외부여건 핑계좋다 썩은신문 중요기사 묵살하고 끝에몰고 줄여놓고
부당기사 시시한것 찬란하게 머릿기사 원주교구 지주교님 억울하게
갇히셨네 지주교님 위한행동 누구인가 방해놓네 교회분열 구실대어
착한교우 겁을주고 교회사업 타격있다 옳은신부 실망주제 교회핍박
내세워서 바른신도 꺾으려네 예수께서 보고계서 우리들은 속지않아
옳지않은 썩은부분 떨어져서 분열인가 빵만으로 살수없다 예수께서
가르쳤네 부끄러운 부패신부 교회핍박 방패마소 원주교구 지주교님
억울하게 갇히셨네 지주교님 신념행동 평화로운 정의주장 내란선동
기소사실 근거없는 조작내용 지주교님 신념행동 정치활동 관계없다
양심선언 구절구절 정치강령 전혀없다 지주교님 신념행동 인간자유
수호하고 지주교님 신념행동 사회정의 옹호하네 지주교님 옥중에서
천주님의 성총풍후 전국정의 구현사제 외부에서 성총충만 현대사회
정치현실 인간생활 직배영향 정치문제 눈감는자 궤변가야 물러가라
인간양심 침해하는 정치권력 있을때면 천주교회 관심비판 안가질수
있겠느냐 정의구현 평신도아 잠을깨고 정신차려 교회신자 걸이름만
탐을내는 무리쫓고 아쉬운때 교회만을 이요하는 무리쫓고 적당하게
체면보는 위선마음 반성하자 우리모두 어려울때 교회위해 희생하자

우리각자 괴로울때 천주님께 기구하자

23. 반독재민주화투쟁 접화

발생일 : 1974년 11월 1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74년 11월 1일 원주교구 원동성당 신자 4백여 명이 구속자를 위한 특별미사 봉헌을 마친 후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원주교구의 석방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1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전국 교구에서 '인권회복 기도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기도회는 원주, 서울, 수원, 인천, 전주, 광주, 대전, 마산, 청주 교구 등 전국 9개 교구서 일제히 거행되었다. 촛불을 받쳐 들고 기도회에 참석한 신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빛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억압받는 자에게 해방을, 죄인에게 용서를 주실 것'을 기원했다. 12일 원주교구내 골롬반선교회 소속 외국인 신부들이 '외국인 신부들이 신자들을 선동하여 가두시위에 나서는 등의 탈선행위를 하고 있다'는 김종필 총리의 발언과 '이러한 범법 행위가 계속될 때는 추방령을 내릴 수 있다'는 김동원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3개항에 이르는 반박 성명서를 국내외에 배포하면서 뉴욕 타임지에 게재를 요청하였다. 20일에는 다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오후 7시를 기해 전국 12개 교구에서 동시에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개최되었다. 원주 등 각 교구에서 참석한 성직자, 수도자, 신자의 수는 무려 7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 날 전국 기도회에서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사회정의의 실천을 위해 채택한 '제3선언'에 속하는 <선언문>을 동시에 낭독하였다. 새해 첫날인 1975년 1월 1일 원주교구 안승길 신부가 제천 남천동성당에서 신변에 대한 탄압을 예견하여 <양심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12일에는 원주교구 울뜨레아가 꾸르실리스따의 모임을 갖고 임광규 변호사의 '평신도의 사회참여 운동의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경청 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을 논의하였다. 29일 원주교구 사제단과 신자 3백여 명이 오후 7시 원동성당에서 정레오 신부 집전으로 '지학순 주교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고, 이 기도회에서 사제단과 평신도협의회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학순 주교와 민주인사 석방 2) 언론탄압 중지 3) 민주회복을 위해 기독교 정신에 따라 끝까지 투쟁 4) 현 상태에서의 국민투표는 무의미함으로 철회할 것.

관련 인물 : 안승길, 김종필

관련 단체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주교구 사제단 및 신도

관련 자료 :

자료 1) 1974년 11월 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선언문 : 새 질서 마련을 위한 '제3 시국선언'(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1, 1996, 173쪽)

예수의 본래적 관심사는 하느님 나라에 있다. 하느님 나라는 해방을 향한 인간의 염원을 표현한다. 해방은 불안, 고통, 부정과 불의, 죄와 죽음과 같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일체의 요인에서 해방된다는 뜻이다. 하느님 나라는 악마적 권세로 말미암아 질식되어 있는 이 세계 위에 하느님이 몸소 발휘하시고 행사하시는 절대적 지배권을 가리키는 표현이요, 또한 하나의 엄연한 현실이다.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침묵을 깨치시고 '나는 세상의 의미이고 그 최종적 운명이다'라고 선언하려 나섰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인간의 실존, 그 희망의 근거 그리고 이 희망의 이상향적 차원을 밝혀 주셨다. 동시에 하느님 나라는 미개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즉 현존하는 장소요 여건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 주셨다. 참으로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의 첫 말씀도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시오"(마르코 1,15)였다.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묵은 세상과 구질서의 모든 구조를 뒤엎고 새 세상과 새 질서를 마련하는 결정적 전기요 하나의 위력이다. 그러기에 하느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요 눈먼 장님에게는 빛이요 반신불수에게는 병의 치료와 완쾌를 의미한다. 그러기에 또한 그것은 귀머귀에게는 청각의 회복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하느님 나라는 다가올 내세만이 아니고 철저하게 인간화된 현세, 그 구조가 변혁되고 그 면모가 일신된 현세까지의 모두를 포함한다.

가난이 제 탓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구조와 체제의 모순 때문이라면 그때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포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행동이 불가피하게도 여파를 몰고오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행동이 복음에 입각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구실로 가난을 제거하고 인간의 존엄을 획득하기 위한 행동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모순이요 자기 배신일 것이다.

억압과 무지와 의식의 조작 때문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먼 장님처럼 까맣게 모르긴 있거나 알아도 탄압으로 말미암아 항의는커녕 발설도 못하고 계속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던 이런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 우리는 언론과 보도의 자유에 입각하여 부당하고 불의한 사실이 사실대로 보도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왜곡, 조작된 보도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억울한 사정을 대변하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하느님 나라는 옥

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마찬가지로 투옥된 인사들이 형사범이나 파렴치범도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말살하려는 공산주의자가 아님이 분명하기 이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들은 오히려 민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고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권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헌정을 재건하고 수호하려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의 언행은 그들의 무죄와 석방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그것은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가 인간의 꿈에 그리는 유토피아를 객관화시켜 만든 하나의 신화가 아니고 하나의 엄연한 현실임을 신빙성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현세적 차원을 현실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내세적 차원, 종말론적 차원이 꿈을 이루지 못한 좌절과 환멸에서 조작된 신기루가 아니고 하나의 엄연한 현실이요 궁극적 현실이라는 것도 아울러 증언할 수 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안에 감싸여진 이 세상 전체를 표상하고 포괄한다. 그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느님의 지배권이 행사되지 못할 치외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것은 역사내의 어떠한 정치적 모델, 공동선에 관한 어떠한 이데올로기와의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이른바 안보를 위한 자유의 유보에 불복하고 인간의 기본권 회복과 자유의 신장을 주장하는 우리를 서구식 민주주의의 치졸한 모방주의자로 간주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무고다. 하느님 나라는 미·소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으로 유지되는 현상적 평화도 아니요, 구미 여러 선진 국가와 같은 복지국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를 국지화시키고 분할하고 역사 내의 일정한 모형에 고착하려 하고 단편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는 하나의 유혹일 뿐이다. 예수님도 당신의 전 생애에 걸쳐 이 유혹과 끊임없이 대결해야 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굶주림을 포함하는 인간의 모든 결핍과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기적일 수 없다. 공갈과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스스로의 자유와 존엄성을 비굴하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느님은 각 사람에게 신성 불가침의 생존권을 부여하였다. 그러기에 생명을 위협하고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면서 불의를 강행하는 자는 그가 개인이든 국가이든 모두 하느님 나라를 거스르는 자다. 하느님 나라는 정치적 권력행사로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기존 정권도 하느님 나라의 이름과 기준에 따라 비판받아야 하며 여기에서는 그 합법성 여부는 고사하고라도 어떠한 민주정권도 면제될 수 없다.

다른 한편 교회가 하느님 나라와 그 실현을 위함이라는 명목으로도 정권에 대한 야욕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합법적 민주정부라는 피상적이요, 형식적인 명목만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리스도 신앙인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신앙을 침해하는 월권이다. 차제에 우리는 이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하느님 나라는 인간이 제정한 어떠한 종교적 제도나 체제와도 동일시될 수 없다. 역사 안의 종교사회학적 현상으로서의 가톨릭 교회도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다. 종교가 여러가지 금욕과 수덕으로 공로를 쌓아 이로써 하느님을 강박하여 인간에게 궁극적 행복을 베풀도록 하는 인간의 이니시어티브요, 인간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는 단연 종교가 아니다. 이런 교회는 하느님 나라 앞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의를 외치고 나서는 교회일수록 자체의 정확과 쇄신을 강력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빵의 기적과 치유의 기적으로 당시의 정치 권력과 종교 체제를 포기 내지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없이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보편적 사랑을 널리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당시 지배계급과 기존 체제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처신과 말씀은 마침내 구조와 체제를 고수하고 이를 악용 내지 남용하면서 부당 이득을 독점하는 지배층에게 하나의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드디어 예수를 빌라도 앞에 끌고가서 "우리는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여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하고 자칭 그리스도다, 왕이다 하러 돌아다니기에 붙잡아 왔습니다"라고 무고하였다. 이렇게 선동자로 무고된 예수님은 마침내 로마제국의 국사범 즉 정치범으로 처형되어 돌아가셨다.

권력, 폭력, 그리고 금력과 의식의 조작을 포기하고 하느님이 몸소 베푸신 인간의 위대한 소명에 인간다운 응답을 보내 드릴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유라는 여백과 여건을 인간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부마가들에게서 악마를 추방하고 가난한 사람들, 창녀와 세리들을 벗으로서 환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비정치적인 처신을 끝까지 고수하였건만 그의 반대자들은 이를 정치범화시켜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셨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분의 승리는 관념의 승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비극의 주인공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예수님일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분의 소신이 관념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평생 소신과 죽음에 이르는 그분의 신의를 정당화시켜 주셨다는 것까지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참된 뜻이다. 우리는 이러한 뜻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한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들 희망의 근거다.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희망에 입각하여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 중에 간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수록 사회정의를 실천으로 수행되는 하느님나라에의 우리의 봉사는 더욱 순수하고 더욱 현실적이며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민족에 대한 소박하고 성실한 봉사가 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온 국민 앞에 다

집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구체적으로 슬선할 것을 거듭 선언하는 바이다.

자료 2) 1974년 12월 31일, 당시 : 어화 우리 벗님네여(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햇불』 1, 1996, 207쪽)

(이벽의 천주공경가를 따라 44조로 된 이 노래는 1974년 가을에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으로 당시 정부의 폭압적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원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하우리 벗님네여 이내말씀 들어보소 천지사이 만물중에 우리인간
고귀함을 어느누가 부인하며 어느누가 마다하리 우리인간 태어날때
모든자유 지니고서 이세상에 살게함이 조물주의 의향인데 어느누가
방행하며 어느누가 막을소냐 그러하나 이세상은 잘난사람 너무나
권력으로 모든인간 몰아쥐고 따르라니 어느누가 좋아하며 어느누가
따를소냐 민주주의 잘하자고 우리들이 일어선건 우리인간 위대함과
존엄성을 서로지켜 인권존중 하여가며 인간자유 누리면서 이세상에
평화이룩 모든사람 기쁨속에 형제애를 심어가며 보람되게 살자함을
어찌하여 마다하며 어찌하여 가로막나 거룩하다 천주교회 하느님의
소명받아 인간존엄 생존권리 기본권을 선호하고 일깨우려 일어섬은
인권수호 권리라네 국민대중 들어보소 오늘날의 유신헌법 민주제도
역행하며 권력행사 날로심해 기본권을 짓밟음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유린당한 국민권리 회복하여 돌려주려 앞에서신 지주교를 유신헌법
가지고도 모자라서 치지못해 권력남용 긴급명령 1,4호를 적용하여
내란선동 죄목으로 지주교를 잡아갔네 우리주교 지주교의 일상말씀
들어보소 우리들의 기본권과 우리사회 생존권의 참된민주 참된자유
되찾아야 살수있다 민주헌정 확립해야 국가안전 이룩되고 생활복지
보장만이 경제발전 가져온다 우리교회 자체쇄신 앞장서서 이룩하고
가난한자 혈벗은자 우리들이 돌봐주고 학대받고 소외된자 우리들이
위로하고 명예욕에 불타는자 오만아부 일삼으며 지배욕에 눈이먼자
부정부패 일삼으며 소유욕에 가득찬자 금전노예 된다한다 우리들은
성경말씀 마디마디 새겨가며 진리위해 몸받치며 영원생명 얻으리니
이세상을 바로보고 양심따라 살아가자 이와같이 외치시는 우리주교
지주교님 십오년간 형을받고 옥중살이 하라하니 우리나라 민주주의
참되다고 누가하리 우리들은 양심따라 정부측에 물어보자 가난하고
천대받는 서민대중 외면하고 부정축재 웬말이며 불신풃조 뿌리뽑아
믿는사회 한다더니 고질적인 부정부패 용단없어 못뽑는가 우리들이
잘사는길 외화획득 이라더니 근로자의 피땀팔아 수출한게 빚뿐인가
후진성을 한탄하며 문화발전 한다더니 전통역사 문화민족 우리자랑
욕만먹나 마을마다 새마을로 바꾼다고 외치면서 외부치레 하고보니
남겨준게 빚뿐인가 외교정책 수립하여 국위선양 한다더니 독재정치

이름붙어 나라마다 말쟁이니 외교관계 이뿐이니 이수치를 누가막나
 국가안보 외치면서 정보부에 특권주어 말하라는 우리입은 병어리로
 만들었고 들으라는 우리귀는 귀머거리 만들었고 보라하는 우리눈은
 청맹과니 만들고도 언론자유 있다하니 어느누가 안웃으랴 국민대중
 못하는말 대학생이 대변하자 공부만이 학생본분 제자리로 돌아가라
 다시나서 외치지만 휴강조치 휴교조치 조치조치 하다못해 학교문을
 닫겠단다 학교문이 데모막는 방패인줄 알고있나 우리들은 보았노라
 자유당때 민주당때 쓴맛단맛 다본우리 바보취급 하지말라 과거사와
 오늘현실 비교해서 물어본다 원주교구 지주교가 정권달라 하였던가
 글배우는 대학생이 정권달라 하였던가 잘못하는 민주정치 고치라고
 외치는데 형식적인 법을이용 마구잡아 가뒤놓고 조작죄명 씌워가며
 가혹형벌 내려치니 이사실을 아는자는 땅을치며 통곡하네 인간창조
 조물주도 뺏지않은 우리자유 어느누가 빼앗기고 이세상에 살까보나
 우리들은 외치노니 들어보고 각성하라 유신헌법 철폐하고 민주헌장
 보장하라 인권유린 하지말고 기본권을 도로내라 폭력으로 얻은정권
 계속독재 하지말라 불신풍조 뿌리뽑고 사회정의 구현하라 구속중인
 애국인사 지체없이 석방하고 경제정책 확립하여 생활복지 보장하라

24. 지학순 주교 석방 환영대회

발생일 : 1975년 2월 19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원주교구와 천주교계의 치열한 운동으로 지학순 주교가 마침내 구속집행 정지로 석방되어 1975년 2월 19일 10개월만에 교구로 돌아오자, 원주역에서 원동성당에 이르는 1.5km 도로 연변에 늘어선 신자 5천여 명과 일반 시민 만여 명이 열띠게 환영하였다. 오후 2시에 원주에 도착한 지 주교는 원주역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였고, 원성군청에 이르러서는 인파로 길이 막히어 더 이상 차가 나갈 수 없게 되자, 지 주교는 원동성당까지 500여m를 걸어서 갔다. 지 주교는 국내외 성직자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동성당에서 환영미사를 집전하였고, “정의보다 불의가, 선량한 사람보다 악한 자가 더 득세하여 국민이 살기 어려운 나라는 필요가 없는 나라”, “불의를 바로 고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며, 희생없이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라고 유신정권을 비판하였다.(『원주교구30년사』, 180-2쪽)

관련 인물 : 지학순, 원주 시민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75년 2월 20일 《동아일보》, 불의 고치는게 신앙, 지학순주교 신도·시민 인파속 교구 원주에.

자료 2) 1975년 2월 20일 《조선일보》

석방된 지학순 주교가 19일 오후 3시 천주교 원주교구 원동선당에 도착, 환영나온 3천여 신도들앞에서 7개월만에 미사를 집전, 강론했다. 鄭레오 부주교의 안내로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속에 30분간 집행된 강론을 통해 지주교는 「천주교 역사에 많은 교직자들이 고통을 당해가며 순교했듯이 나도 목자(牧者)의 책임을 느껴 맡은바 사명을 다하겠다」고 전제, 「현재 우리나라는 위정자들의 권력행사장으로 뒤바뀐 시대가 됐다. 불의를 바로 고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며 희생 없이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격양된 어조로 말하자 신도들은 「지주교 만세」를 소리치며 두손을 높이 쳐들었다.

25. 강원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학생총연맹 사건

발생일 : 1975년 5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75년 4월 11일 서울농대생 김상진군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면서 다시금 민주화운동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억압이 그 정도를 더해가자 이에 대한 대학 간 연대에 바탕한 조직적 저항의 필요성이 제기됨. 강원대에서는 최열을 중심으로 이미 1974년에 민청학련구속자석방운동이 전개된 바 있었던 바, 그 역량을 바탕으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학생총연맹을 결성하여 군사정권에 대항하였다.

관련 인물 : 최열 등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26. 민주회복국민회의 원주·춘천지부 결성

발생일 : 1975년 2월 20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74년 12월 25일 서울에서 각계 민주인사 71명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고 민주주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유신정권은 반정부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였고, 더 나아가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박 정권은 퇴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원주에서도 1975년 2월 20일 가톨릭센터에서 민주회복국민회의 원주지부를 결성했다. 원주지부는 광고 해약 사태를 맞아 전개되던 동아일보 광고 게재 운동에 동참하여 결성대회에서 채택된 '결의 및 선언문'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 15일에는 춘천에서 강원도지부와 춘천시지부가 결성되었는데, 이즈음 원주지부 역시 확대개편대회를 치렀고, 22일 동아일보에 다시 격려광고를 게재하였다. 임원진도 주로 성직자 위주로 개편되어 고문에 양대석, 박영록, 양덕인, 그리고 상임대표위원회 신현봉, 백구영이 선임되었다.

관련 인물 : 선종원, 양대석, 박영록, 양덕인, 신현봉, 백구영, 이종원 등

관련 단체 : 민주회복국민회의, 동아일보

관련 자료 :

자료 1) 1975년 2월 22일 《동아일보》 광고란

결의 및 선언문

국민으로부터 잠시 통치권을 위임받은 현정권이 비상권력을 유지키 위하여 인권을 유린하려함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함을 확신하고 서울에서의 민주회복 국민회의 선언을 적극지지 찬동하여 그 산하 단체로서 원주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 위 단체에 가담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선포한다.

1. 개헌을 통한 민주회복이 유일한 난국타개의 길임을 확신코 범시민운동을 전개한다.
2. 천부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임을 믿고 권력에 짓밟혀 아직도 석방되지 않고 있는 민주 애국인사의 석방을 위하여 계속투쟁한다.
3. 민주회복의 기수 동아일보, 동아방송의 억압은 언론자유권의 말살행위 임으로 범시민운동을 전개, 동아를 돕기로 한다.
4. 자유토론없이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에 개의치 않고 민주회복운동을 전개한다.

서기 1975년 2월 20일
민주회복국민회의 원주지부

상임집행위원 원창식(정당인), 윤필병(신민당 제2지구당 상임위원), 이종원(전재경 원주유학생 회장), 안필수(상공인), 선종원(정당인), 정봉철(전신민당 지구당 위원장), 박영식(농업), 김천희(실업인), 박길옥(여성대표), 사무국장 선종원(겸임), 대변인 이종원(겸임)

자료 2) 1975년 3월 16일 《조선일보》

민주회복국민회의 강원도지부와 춘천시지부가 15일 오전 10시 李東熙씨(신민당 중앙당당기위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시 소양로3가 내빈각 특호실에서 결성됐다. 이날 선임된 임원은 고문에 金命玠(신민당 국회의원) 朴永祿(同) 嚴永達(同) 金寅起(同) 崔慶植(전국회의원) 金俊燮(신민당 강원제1지구당위원장) 梁德仁(전 의원) 등 7명이, 상임대표위원에는 李東熙씨, 대표위원에 柳然國씨(재야인사), 洪鍾南씨(정당인) 등 2명이 선출됐다. 그리고 대변인에는 李相壽씨(정당인), 운영위원에 孫斗鍾씨(전 도의원) 등 4명이 선임됐다.

자료 3) 1975년 3월 22일 《동아일보》 광고란

민주회복국민회의 원주지부확대개편대회

고문 양대석(신부), 박영록(국회의원), 양덕인(전국회의원), 상임대표위원 신현봉(신부), 백구영(목사), 대표위원 이학근(신부), 노세현(신부), 최충수(목사), 전의남(목사), 조문행(목사), 사무국장 선종원(정당인), 대변인 백구영(목사 겸임)

27. 사회안전법 폐지 및 정치인 각성 촉구

발생일 : 1975년 9월 20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75년 9월 20일 지학순 주교가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안전법’에 관하여 야당이 함구하고 있음을 질책하는 <성명서>를 김영삼 신민당 총재 앞으로 발송하였다. 12월 12일 원주교구가 인권주간을 맞아 원동성당에서 3시간에 걸친 특별미사를 개최하였는데, 지학순 주교의 주례로 시작된 미사에서 지 주교는 강론을 통해 인권유린의 불의를 고발하고 규탄할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관련 인물 : 지학순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28. 1·23 원주선언

발생일 : 1976년 1월 23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76년 1월 23일 원주교구가 주최한 일치를 위한 신구교 합동기도회가 원주 원동성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신현봉 신부는 <강론>을 통해 양심선언은 신앙의 고백이므로 모든 민중이 일치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정의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도회가 끝난 후 함세웅 신부와 문익환 목사 등 성직자 8명이 모여 신현봉 신부가 작성한 <선언문>를 채택하였다. 신현봉 신부의 강론 내용과 '원주 선언' 내용은 이후 3·1민주구국선언의 기초가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들 간에 뜨거운 공방전의 계기가 되었다. 1976년 3월 3일 삼일절 명동성당 기도회에 참석한 신현봉 신부가 오후 1시경 서울로 연행되었고, 12월 18일 긴급조치법 9호에 의해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관련 인물 : 신현봉, 함세웅, 문정현, 문익환, 조화순, 이경국 등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76년 1월 23일, 신현봉 신부, 강론 : 누가 우리의 주님입니까?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2, 1996, 55쪽)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치운동에 대한 교령을 발표하고 가톨릭에 일치주관을 세웠습니다. 이는 성지께서 당신을 십자가 재단 위에 봉헌하시기 전에 티없이 깨끗한 봉헌이 되기 위해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성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성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요한 17,21)이라는 사실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일치해야겠다는 것은 바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일치하였는데 지금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뜻은 그리스도의 참 뜻을 그 이후에 교회가 실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눌린 자, 당시 로마제국의 식민지였던 갈릴레아 땅의 든 사람들을 당신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로마관리들이 강도라 부르던 두 사람의 십자가를 당신 십자가의 좌우에 두고 그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정치범으로 처형되셨던 것입니다. <중략>

교회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주님은 "내가 굶주렸을 때, 목 말랐을 때, 나그네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을 가난한 자, 눌린 자, 멸시받는 자, 병든 자와 동일시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교회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방비만을 위하여 사회와는 벽을 쌓았습니다. 새 질서를 갈망하는 눌린 자와 가난한 이를 외면하고 누르는 자, 부자의 편에 선 종교가 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봉건주의 종교로부터 부르주아적인 종교로 전환시켰을 뿐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종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부르주아란 말 자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우리 교우 김지하는 메모에 부르주아란 말을 썼다 하여 빨갱이로 몰려서 투옥되었습니다.

일치하자는 것은 신구교 뿐만 아니라 모든 민중과 일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 일치하고 다 함께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신 기도에서도 명백히 나타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는 병어리와 버림받은 이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입을 열어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며 불쌍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찾아 주라.(잠언 31,8~9) 억눌린 이와 고아를 감싸 주어라. 야위고 아쉬워하는 자를 구하여 주고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그를 빼내 주어라"(시편 82,3~4) 하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973년 로마 시노드에서는 현대 사회의 복음화 문제에 대해 '오늘의 교회는 자신의 특권이 침해받을 때면 즉시 항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당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심이 신구교회를 막론하고 현대교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지하 시인은 옥중 양심선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면면한 민주전통과 기독교를 결합하여 제3세계의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은 알아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은 모르실 것입니다. 김지하

시인은 정부가 하느님을 믿는 자기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재판에 회부하려는 음모에 대항하기 위하여 양심선언을 옥중에서작성, 발표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므로 억압과 수탈이 없는 인간다운 삶이 있는 사회, 생존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지하를 빨갱이로 몰려던 것이 양심선언으로 인하여 어렵게 되자 현 정권은 74년도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내렸던 무기징역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했던 것입니다.

지금 신·구교가 일치해야 하는 이유

본론에 들어가 흔히 듣게 되는 국민총화와 일치하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말해 보겠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는 만성고라(玉盤佳肴 萬姓膏)
촉루락시에 민루락이요(燭淚落時 民淚落)
가성고처에 원성고라(歌聲高處 怨聲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닙니까? '금술통의 아름다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맛 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에 촛농이 떨어질 때 만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높다.'

춘향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부귀와 권세를 잡은 사람이 먹는, 좋은 안주와 술은 곧 백성의 피와 기름입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백성의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속에서 어찌 일치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집권자들은 국민총화를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작년인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어느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5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전화 한번 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총화, 총화하고 있습니다. 안마도 춘향전을 예로 든다면 근로자가 5원을 받을 때 벼슬아치는 좋은 술과 안주를 먹으며 한 자리에서 술값을 100 원이 넘게 쓰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총화는 무엇입니까. 몇 사람 안되는 특권층을 배부르고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만백성이 굶주리고 희생되고 억압되고 수탈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탕 먹고 놀테니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희생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들이 부르짖는 총화입니다. 그렇다면 국어사전의 낱말풀이를 바꿔야 합니다. 거기다 백성은 총화 소리만 나오면 입 막고 귀 막고 눈가리고 코로 냄새를 맡아서도 안됩니다. 언론도, 교회도, 지성인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머리로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총화를 깨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총화' 소리만 하면 국민은 단 한마디도 못하고 죽은 듯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이 나라의 총화입니다.

일치는 이런 총화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일치를 방해하는 사람은 총화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신·구교는 일치하지 말라고 하여도 일치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신·구교는 전대미문의 위협에 싸여 있습니다. 김지하 시인이 양심선언을 몰래 밖으로 내보냈다 하여 옆방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없게 하려고 좌우 10여개의 방을 전부 비우고는 독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김지하 한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이 10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10명이면 눈이 23개입니다. 거기다가 카메라까지 설치하고는 그 앞에서 하루 24시간을 감시하는 사람인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지하의 부모와 아내도 작년 5월 19일에 면회를 한 후 지금까지 면회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변호인도 겨우 두번인가 접견이 허락되었을 뿐 작년 9월 이후 접견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인혁당 관계로 5년의 징역을 받은 이가 병들어서 나온지 3시간만에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면회도 안돼! 소식도 알 깊이 없으니 지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있는지 건강이 어떤지 모릅니다. 석방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살아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사식도 안됩니다. 다른 물건도 안됩니다. 단지 돈을 넣어서 옷을 사는 것만이 허락됩니다. 몸이 약하니 약을 사 먹어야 하는데 사입한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불온서적입니까? 왜 안 받아 주는지 우리는 그 까닭을 모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참으로 우리 신·구교는 이 문제를, 이러한 위협들을 타개하여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요. 서울에 가시면 김지하에게 성경을 넣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받아 주지 않더라도 의향을 표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하도록 합시다. 본 이름은 김영일이고 수감번호는 5085번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서가 받고 있는 부당한 대접을 신·구교회는 일치단결하여 철폐시켜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마태 4,4)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 하나 우리가 일치해야 하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형규 목사님에 대한 부당한 박해입니다. 그분은 억눌린 이들을 위한 참 목자입니다. 박 목사에게 상을 주어야 할 정부가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몰아 구속하고 재판놀음에 회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웃어넘기겠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중대한 문제입니다.

선교자금을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되어 고생하는 학생들의 변호비, 가족들의 생활보조비, 영치금으로 쓴 것이 죄입니까? 선교자금을 준 단체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도 없습니다. 미우면 밉다고 하지 왜 말도 안되는 죄를 씌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자금까지도 정치사찰, 정보사찰을 하겠다는 현 정권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교 자금은 하느님 말씀대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하느님의 진리와 정의

와 사랑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실로 종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위협과 도전을 물리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다운 일치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다 함께 외칩시다. 박형규목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저들은 몇 사람 감옥에다 가두어 우리와 떼어놓으면 일치가 무너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굽은 끈, 사랑의 끈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가 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김지하의 양심선언을 몰래 찍어서 변소에다 붙여놓고 변소에 들어가서 번갈아가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원들도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양심선언을 보관, 배포했다 하여 여러 학생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의 이정숙양을 비롯해서 5-6명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언론을 보십시오. 무엇 하나 고통받는 이들의 이야기는 실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처지에 있는지 아무 것도 우리에게 알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암흑이 정치 권력의 억압에서 비롯된 것처럼 동아일보 기자들이 쫓겨난 것도 정치권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론계에서 내쫓김을 당하자 가까스로 회복의 기운을 보이던 언론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섰습니다. 정치 권력의 홍보활동을 하는 관보로 전락했습니다. 지금은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생계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 그러나 쫓겨난 기자들은 누가 뭐래도 참다운 자유언론의 투사임은 불을 보듯이 명백합니다. 자유언론의 투쟁이 밍다면 그 죄목으로 집어넣을 일이지 정신병자 이야기를 만들어 엉뚱한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소생을, 즉 자유언론의 소생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쫓겨난 기자들에게 설 자리를 주자고 호소합니다. 그들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의 자유언론이 살아 있으며 소생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김지하 시인 역시 양심선언을 쓴 장본인이므로 지금의 죄목에다 긴급조치 위반을 보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은 더욱 재미있을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양심선언은 하나의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된 학생들의 정당한 재판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 줍시다.

이제까지 우리는 일치를 저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일치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치하는 길, 일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돌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놓아 주음을 선포하신 것을 보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며칠 전 1월12일 교황께서는 "작년의 헬싱키 정상회담에서의 헬싱키 선언으로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박해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인권유린은 하느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위정자의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며칠 전 한국을 다녀간 성직자 한분인 일본 신문을 한장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일 교포로 한국에 와서 모 교육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어느 여학생의 수기에 관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재일교포 학생 간첩사건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지난 8월 이 사건과 관련되어 모 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기관원의 요청대로 친구 두 사람의 이름을 대 주고 며칠 뒤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뒤에 여권 관계로 만나자는 기관원에 의하여 여자의 순결을 3번이나 강제로 잃었다고 합니다. 간첩단 사건엔 대해서는 재판이 있을 것이므로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찾아왔던 재일교포의 순결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안이 빙빙합니다 나는 외국인인 그 성직자 앞에서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인입니까. 이런 풍토에서 총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다운 일치가 어떻게 이뤄지겠습니까. 권력자와 백성, 사용자와 근로자,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이의 일치가 진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동규범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 5,1 ~12; 25,31~46)

이런 행동규범을 무시하고 권력자가 백성을 억압하고 자본주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협조, 방관한 후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것은 하느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김지하 시인은 그의 양심선언에서 "이 땅에서 억압과 수탈을 없게 하는 것은 억압받은 자와 억압하는 자 모두를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즉 부활의 신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군인, 공무원, 경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미워하지 맙시다. 억압과 수탈이 없어지면 모두 우리 형제입니다. 모두 인간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에게도 일치를 호소합니다. 참된 일치는 우리 모두가 참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백발의 머리를 지닌 노황제가 폐위되어 연행되어 갈 때 연도의 시민들은 "이 강도야 이 강도야 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이것이 12년의 섭정과 44년간 황제로 군림한, 신과 같은 절대자였던 에디오피아 황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누리에 빛나니
폐허에서 소생한 자유의 그리스
그 옛날처럼 반가운 자유! 자유!

이것은 그리스의 10만 청년들이 민주화를 환호하면서 부른 그리스 국가의 일절입니다

다. "파쇼주의는 오늘 밤 죽었다.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고 거리는 마치 축제 때처럼 기쁨이 흘러넘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참된 일치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또한 참된 일치는 화해의 일치요, 쇄신의 일치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천명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곧 일치에 접근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 또한 우리와 더불어 그들의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그리스 청년들처럼 소리 높여 노래 부를 수 있어야겠지만 위정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일치는 사랑으로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한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먼저 사랑하고 보살필 사람은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여 선포하신 묶인 사람, 억눌린 사람, 눈먼 사람입니다. 지금도 감옥에서 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우리는 쇠사슬에 묶인 지학순 주교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옥에 있는 학생, 지성인, 언론인들이 130여명이나 됩니다. 몸은 묶여 있지만 정신은 활화산처럼 타올라 재판을 거부하는 18명의 우리 가톨릭 학생들이 있습니다. 긴급조치 아래서 자기의 갈 길이 감옥인 줄 알면서도 양심과 확신에 따른 용기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긴급조치를 위반했다고 하는지도 모르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급조치 1.4호에 의하여 구속된 많은 이들,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공의회 교령인 일치운동은 교회의 쇄신을 의미하며 그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실천성을 키워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영적인 일치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인간 해방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을 해방하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개인 뿐 아니라 사회까지도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오류와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시켜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모습을 회복시켜 하느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인간 해방과 사회개발을 선교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바로 복음화 그 자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목헌장 42장)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느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일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통 받는 이웃들과 일치합니다.

정부는 74년 말 1인당 국민소득이 연 503불, 25만원가량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6백불 선을 돌파한다고 발표할 것입니다. 가령 5인의 가족이라면 1년의 수입이 12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125만원이라면 세대당 한달의 평균수입이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몇이나 됩니까? 남들이 보면 신부들은 잘 사는 줄 압니다. 또 실제로 일반 가정보다도 잘 삽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사제관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다섯 식구인데 그들에게 인건비까지 주어야 하는 내 한달 수입이 10만원이 안됩니다. 그러니 정부의 발표는 책상에서의 수자 노름이지 실제의 총계가 아

됩니다. 자꾸 올려서 발표하는 것은 선전이 아니면 세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은 세금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유가 나온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석유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흥분하지 말라면서 뒤로는 신문의 제목까지 정해 주는 기만에 우리는 속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 때문에 더욱 큰 빈부의 차인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다 같이 가난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입니다. 이 순간부터 더욱 일치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여 나갑시다.

자료 2) 1976년 1월 23일, 신현봉 신부, 선언문 -민족의 긍지를 찾기 위한 '원주선언'(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2, 1996, 62쪽)

우리 신·구교 성직자는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가진 일치주간 행사에 참석하고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소서'(요한17,21) 하신 구세주의 기도를 우리의 그것으로 확인하였다. 인간은 한 어버이신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특히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 대한 사랑은 곧 하느님께 대한 사랑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이제 우리 신구교회는 전 민중과의 일치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견해를 이에 밝힌다.

1. 베트남 사태 이후 안보문제가 국민적인 중대 관심사로 대두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안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총화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 극히 중요한 관점을 지적하고 명백히 해둘 필요를 느낀다.

첫째 안보의 목적이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즉 무엇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명백해야 하며 절대로 흐려져서는 안된다는 것.

둘째 총화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서 밝혀지고 합의되지 아니 하거나 집권층에 의하여 왜곡될 때는 안보니 총화니 하는 구호가 도리어 자유를 질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음으로써 참된 안보와 총화를 해치게 하는 구실로 악용될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안보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유보 내지는 사실상 포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절도를 피하기 위하여 가진 재산을 모두 불태워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2.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과 풍토에 따라 민주주의의 실제 운용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근본이념이 있고 또한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파괴될 때는 이미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근본이념이란 국가권력의 절대성, 무오류성을 부인하고 견해와 이익의 다양성과 가치의 상대주의를 용납하며 국가권력을 민중의 자유에 대한 가상 적으로 규정하여 부단히 감시, 견제, 제한하는 비판정신을 장려하는 데 있다.

그 최소한의 원칙들이란 주권재민, 기본적 인권의 최고 우월성 보장, 인신구속영장제도, 죄형법정주의, 비판적 언론의 자유, 신앙·사상·양심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생존권 특히 노동 3권의 보장, 3권분립의 원칙에서 특히 사법권과 입법권의 행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당 활동의 자유, 그리고 공명선거의 보장 등이다.

3. 국민총화란 국민 각자가 평등하고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가운데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화해정신을 기초로 하여 평등과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보장하는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지키겠다는 자발적 의지로 뭉치는 것을 말한다. 불평등 속의 총화나 억압에 의한 총화란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는 개념이며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국민총화의 적은 발로 부패와 특권이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억압과 착취의 질서이며 그로 인한 민권과 민생의 위축과 지나친 사회불균등이다. 총화는 침묵이 아니며 총화의 적은 비판과 저항이 아니다.

4. 우리는 민주인사들을 비애국으로 탄압하면서 애국과 안보를 혼자 떠맡는 듯이 하던 티우와 론놀, 바로 그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조국을 버리고 거금을 싸서 도망친 사실을 깊이 음미해야 한다. '배는 난파되어도 선장용의 구명 보트만은 안전했다'는 사실은 압제자의 운명과 민중의 운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일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민중의 입장에 서서 사태를 보는 데 반하여 억압자는 시종일관 영구집권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5. 베트남 사태 이후 안보독재체제의 강화와 정비작업으로서 현 정권이 추진해온 주요 조치는 헌법개정, 전시상태 선언, 긴급조치 선포, 민방위대 조직, 사회안전법 제정, 방위성금의 강징과 방위세의 신설 등 각종 조세의 중과다. 또 통·반장 조직 등 전 국민에 대한 사찰과 밀고조직의 확대, 학원·종교·언론에 대한 사찰과 통제의 강화, 그리고 민주인사와 학생들의 투옥과 재판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극단적인 억압정책은 일시적으로는 민중을 침묵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사멸시키게 된다. 이 결과 국민의 안보의지를 약화시키고 국민 내부의 불안과 분열을 누적,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총화를 파탄시킴은 물론 우리나라를 국제적 고립화와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와 같은 모든 억압 조치들이 날날이 철회, 취소, 중지되어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6. 근래 민주인사들에 대한 현 정권의 탄압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김대중 씨에 대한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은 우리 나라의 법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을 위한 것이다. 박형규 목사 등에 대한 이른바 선교자금 횡령사건 재판은 현 정권의 종교탄압이 거의 광태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돈 준 사람이 잘 썼다고 칭찬하는 터에 횡령이니 배임이니 하는 죄목을 붙인 초법리적인 억지 재판은 민중의 편에 서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우는 오늘날의 신·구교회의 억누를 수 없는 지향에 대

한 어리석은 도전인 것이다.

김지하 사건은 민주세력 파괴 책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 정권은 그를 공산주의로 모는 일방적인 선전책자를 대량으로 배포하였으며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할 수 없게 되자 75년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무기수로 만들었다. 그에게 가해지고 있는 갖가지의 박해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마치 불온서적시하여 차입해 주지 않는 데 대하여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엄숙히 항의한다. 정치보복이라는 설명 외는 납득할 길이 없는 김철씨에 대한 구속 기소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만인의 조소를 살 뿐이다. 이밖에도 많은 학생들이 다시 영장도 없이 투옥되었으며 민주세력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전례없이 강화되었다. 우리는 현 정권이 위에서 말한 모든 수치스러운 재판 놀음을 즉각 걷어치우고 투옥된 민주인사, 애국학생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이 오늘의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한다.

7. 오늘날 우리 민중의 생활은 국민경제의 대외예속, 관료 독점자본주의의 부패성과 특권성, 그리고 이들로 인한 필연적 귀결인 물가고와 저임금, 종과세를 기초로 한 대중 핍박정책 등으로 도탄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국민경제의 대외의존을 막고 전 국민이 외국자본의 채무노예, 임금노예로 전락되어가는 현실을 광정(匡正)하는 것이 총화와 안보를 위한 또 하나의 선결조건이다. 또한 저곡가, 저임금정책을 떨쳐버리고 특권경제를 폐지하여야 하며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며 노동운동, 농어민운동 등을 인정, 민중의 생존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아울러 도시 빈민, 판자촌 주민의 생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8. 외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을 재통일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존엄과 화해의 정신에 입각한 자주 외교를 펴야 한다. 이는 오늘날의 세기사(世紀史)가 동족간의 긴장완화와 모든 민족이 자주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대로 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지상과제다. 국민상호간의 우의와 신뢰에 기초하지 아니 한 관변을 통한 구걸외교, 기생외교로 민족적 긍지를 추락시키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더우기 오늘날세계의 모순과 대립이 동서의 대결에서 남북의 대결로 옮겨가고 있어 반식민, 평화공존, 비동맹, 피압박 민족의 단결인 제3세계 운동이 하나의 대조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 신·구교회가 제3세계 사목운동을 전개하고 있음도 이에 연유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3세계에서 버림받고 있음은 본질적으로 밖으로는 냉전시대의 유물인 강대국 일변도 외교를 청산하지 못하고 안으로는 독자적 억압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9.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지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최대의 재앙인 까닭에 우리는 이의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전상태와 휴전협정의 불안정한 지속이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와 민족의 재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진전시켜야 된다. 평화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패배한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정신만이 현재의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이며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 자주와 자립의 길을 찾는 정도이며 실추된 민족적 긍지와 자부를 되찾는 길임을 거듭 확인하는 바이다.

29. 신현봉 신부 및 민주인사 석방운동

발생일 : 1976년 3월-12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76년 3월 3일 신현봉 신부가 명동성당 선언으로 체포되자, 원주교구는 즉각 봉산동성당에서 매일 저녁 7시 30분 교구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모여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며 신 신부의 귀가를 기원하였다. 3월 8일 원주교구 주최로 원동성당에서 시내 4개 본당 합동으로 구속 사제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고, 16일에는 봉산동성당에서 지학순 주교와 신부들의 공동집전으로 '구속 사제들을 위한 합동 기도회'를 여는 등 원주교구는 4월 18일까지 다섯 차례 합동기도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8월 24일 원주교구가 오후 8시 원동주교좌성당에서 3·1사건으로 구속 중인 사제를 위한 미사를 교구 사제 합동으로 개최하였고, 19일부터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들을 위한 9일 기도 중 묵주기도와 '조국을 위한 기도'를 빠짐없이 바쳐줄 것을 권고하였다. 12월 6일 원주교구가 11월 20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사회정의와 인권을 위한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주제는 '오늘의 현실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현실참여는 사목자들의 소명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관련 인물 : 지학순, 문익환, 안승길, 김수환 등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76년 5월 4일, 안승길 신부, 방청기 : 신현봉 신부님을 뵈던 날(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햇불』 2, 1996, 100쪽)

지난 5월4일 서울 지방법원 주위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10시부터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8시부터 덕수궁 골목길은 삼엄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마치 대역죄인의 재판이라도 있는 듯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경계가 삼엄했다. 아니나 다를까, 원주에서 공판을 방청하겠다고 아침도 굶고 새벽에 상경한 원주 시내 신자들 30여명이 법원 골목을 들어서자 기관원들인 무조건경찰차에 태워 마치 데모 군중을

강제로 연행하듯이 돌아가라 고 마장동까지 실어다 놓고 말았다는 소식과 그 상황에서 몰래 빠져나온 부녀 몇은 서울 주교관 마당에까지 와서 울음섞인 억울함의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9시30분 김 추기경과 지학순 주교님이 법원으로 향했다. 나는 몇몇 교구 신부님들과 동승하여 추기경 차를 따랐다. 덕수궁 골목에 줄을 지은 인파. 그러나 법원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만을 들여보냈다. 수백명의 군중들이 "왜 못 들어가느냐?"며 기관원들과 실랑이를 벌리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삼엄한 검문을 받고 서울 지방법원 대법정이 들어섰다. 후문은 수백명의 군중들이 왜 공개처판에 방청을 막느냐고 애원 아닌 항의를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성가를 부르면서 아예 굳게 잠긴 후문 주위에 주저앉아서 방청을 계속요구하고 있었다.

10시가 되자 3·1사건 구속자 선원이 입장했다. 회색 한복 바지에 흰 저고리. 그리고 양손에 채인 수갑!

신 신부님이 입장한다. 달려가서 안고 싶은 마음. 허나 질서 때문인지 교도관들이 호위망을 좁히며 인접을 못하게 했다.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었다. 허나 검찰에서 발표한 국가전란 대역죄인 치고는 너무나도 태연하셨다. 오히려 미소와 밝은 표정을 가타내셨다. 하긴 양심과 정의를 어기지 않고는 절대 인간 사회나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 없는 생존의식이 정립된 이 신부님들에게 미결수 복장이나 손에 채인 수갑이 이들의 양심에 죄책감을 줄 리가 만무다. 10시가 조금 넘어 재판부 판검사들이 입장하자 법정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인정심문이 시작되었다.

문익환 목사님(피고인)은 증언대에 서자마자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 방청석에 안 보이는데 이 재판이 어떻게 공개재판이 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했다. 뒤이어 변호인들의 질의가 재판부를 향하여 연속되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방청권이 발부되었는가?"

"재판에 가장 관심이 있는 피고인들의 가족이 방청할 수 없게 했는데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많은 관심 속에서 주시되고 있는 이 재판이 불법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재판을 이대로 운영할 것인가?"

드디어 변호인들의 질의에 뚜렷한 답변이 없이 그대로 재판을 계속한다면 변호인단은 퇴장하겠으니 답변을 달라고 제의하자 재판부는 10분간 휴정했다가 5월15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는 발표와 함께 이 날의 재판은 끝이 났다.

이런 재판을 보기 위해서 어렵게 방청권을 얻어 입정한 2백여명의 방청인이나, 법원 주위에서 못 들어온 수많은 군중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기위해서 왔던가? 멀리 전주와 원주에서 올라온 사람들 앞에 벌어진 재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가? 돌연 의분이 치밀었다. 그래서 적어도 신 신부님만은 만나야 하고 위안의 악수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제지하는 교도관들을 뿌리치고 피고인석까지 갔다.

"신 신부님! 접니다. 용기와 신념을 잃지 마십시오. 형님을 위해 항구히 기도바칩니다."

"고마워. 건강하다고 전해줘!"

수갑이 걸린 손을 굳게 잡고 형제적인 사랑을 느끼면서 잡은 손!

"형님, 건강하십시오!"

목이 메이고 울분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심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교도관들의 제지로 겨우 30초 남직한 뜨거운 사제애의 만남이었다. 호송차에 실려가는 신부님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법정을 나와서 에워싸는 방청인들! 후문으로 호송차가 가야 하는데 못 들어온 군중들이 박수를 부르면서 계속 문을 막고 있었다. 나중에 경찰에 의해 군중들이 물러가자 피고인들이 탄 차가 움직였다. 박수와 환성이 섞인 군중들의 소리가 더욱 강하게 울리는 동안 호송차는 후문을 빠져 떠나갔다.

"신 신부님! 건강하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명동 지하성당에 돌아온 각 교구 사제들은 합동미사를 봉헌했다.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방청하지 못한 수많은 군중들, 특히 수도자, 성직자, 신자, 가족들은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법원 주위에 모여 함께 기도와 찬송으로 항의를 계속했다고 한다.

진실은 진실대로 알려져야 한다. 아무리 강한 불의의 힘도 진실은 굴복시키지 못한다. 왜 원하는 모두가 방청할 수 있는 공개재판을 못하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이 법정에 오려고 했는가. 불의에 굴복하지 아니 하는 진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가.

불의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오늘의 이 상황을 기도로 알린다. 안타깝고 의분에 찬 마음으로 서울을 떠나면서 오늘의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을 교구 신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이 방청기를 쓴다. 아울러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재삼 부탁 드린다.

자료 2) 1976년 10월 30일, 안승길 신부, 서한 : 옥중에 계신 신현봉 신부님께(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햇불』 2, 1996, 146쪽)

신부님! 신부님의 목소리를 들은지 벌써 두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을 마지막 뵈은 것은 지난 8월28일 15회 선고공판이 있는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란 형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신부님의 표정은 너무나도 태연하셨습니다. 하긴 주님 앞에 떳떳하신 신부님이셨으니 불안한 그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항소하셨다는 보도를 듣고 2심이 시작되면 법정에서나자 신부님을 뵈올 수 있다는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여 비록 신부님께 소식을 드리지는 못하여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고 있기에 성령을 통하여 이 글을 씁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이때 더욱 신부님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냉기가 서린 감옥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이 스며오는 이 안타까움은 혈연의 정보다 더 강한 주님 안에서 사제로 맺어진 형제애, 바로 그 때문이겠지요. 수감되었던 분들이나 주교님의 옥살이 경험을 듣고 보니 더욱 실감나게 신부님이 계신 감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연행되어 가시던 지난 3월9일 오후였습니다. 강제로 연행하려던 정보부원의 손을 뿌리치다가 찢긴 옷자락, 그 모습으로 태연하게 주교관에서 점심을 드시고 서울로 연행되시던 모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행된 후의 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히려 신부님보다도 더 심한 심적 고통

속에서 나날을 기다림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본당과 교구에선 신부님을 위해 바친 기도와 희생은 정의와 사랑의 외침으로 인한 신부님의 희생에 대한 박수였다고 보다는 어쩌면 사무치는 인간적 그리움을 달래보려는 한 방법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그리움은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형제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아닐런지요.

지난 5월4일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흰 바지저고리 차림에 수갑을 차신 신부님을 뵈고 느꼈던 아픔. 그 오한적인 아픔은 언제까지고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미소 띤 모습으로 목례를 하셨고 나중에 악수까지 나뉘었을 때의 신부님모습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15회에 걸친 공판 중에 발언하신 신부님의 신념에 찬 말씀들은 그리스도적인 조국애와 정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구속된 신부님들, 목사님들, 교수님들과 함께 휴식시간에 대화를 나누던 모습은 마치 티 없는 어린이들의 친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신부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은 우리 주교님이 구속되신 얼마 후 원주 시내 본당 신부님들이 서울 정보부에 연행된 적이 있었지요. 그날 저녁 늦게 교구청에 돌아오셔서 몇 분 사제들과 대화 중에 솔로라도 그 고통을 잊으려 하시다가 나중에는 우시면서 옥중에 계신 주교님을 그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한마디로 신부님은 정의의 문제라면 용감하셨던 참으로 순수한 열정의 소유자셨습니다. 가끔 우리 후배 신부들을 만나면 친아우처럼 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에 진정한 평화와 일치가 오겠는지,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이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누리면서 복음을 지킬 수 있겠는지를 입버릇처럼 되물곤 하셨지요.

그러기에 신부님은 지난 1월23일 원주의 일치기도회에서 진정한 교회의 일치와 국민총화는 사랑과 정의 속에서 이뤄진다고 역설하셨지요. 오늘날 이 일치와 총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열거하시면서 반성해 보자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감옥으로 가시게 될 발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부님도 모르셨겠지요? 알았다 하더라도 신부님은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외침인 그 말씀을 계속하셨을 겁니다.

신부님을 구속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사실 왜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에서 밝혀진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사실 왜곡인지는 방청한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도 열변을 토하시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념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세칭 명동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의 법정에서의 그 발언은 재판장의 말대로 피고인들이 거꾸로 재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광경은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요한 14,6) 주님 안에 일치해 계신 신부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하여 누구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 소식 없이 계신 신부님을 생각할 때마다 치솟는 안타까움을 어찌할 수 없어 신부님과 심령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신부님이 구속되신 이후 우리 교구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의 대폭적인 인사이동, 무엇보다도 신부님을 아껴 주시고 밀어 주시던 최 발도로메오 신부님의 선종은 교구에 큰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사경을 헤매시면서도 “신 신부가 빨리 석방되어야 하는데!” 하시던 최 신부님은 이제 신부님 본당인 교회 묘지에 잠들어 계십

니다. 아마도 신부님의 본당인 봉산동 성당을 항상 지켜 주실 것입니다.

봉산동 성당은 다른 신부님들이 신부님의 석방을 기다리면서 대신 사목하고 계시니 본당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참, 그간에 교구에 큰 경사가 있었지요. 사제 부족으로 허덕이는 교구에 3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5년만에 맞는 경사지요. 새 신부님들은 본당에 부임하여 신부님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하여 성실히 성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교님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주교님의 건강은 좋으신 편이나 아들 같은 교구 사제가 구속되어 있는데 그 심정이야 어떠하시겠습니까? 갖가지 어려운 목자의 멍에를 지신 주교님의 모습을 뵈올 때마다 우리는 이 고통이 값 있는 고통이요, 주님의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여겨 오직 주님의 위로만 바랄 뿐입니다.

지난 5월, 혹시 신부님을 면회라도 할 수 있을까 하여 주교님을 모시고 서대문교도소로 갔다가 냉대만 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교님의 표정은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당신께서도 7개월 이상 계셨던 교도소이니 그 회상과 상념이 오죽하셨겠습니까. 요사이 주교님은 전보다도 더욱 동분서주하시면서 교구사목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물론 항상 수감된 구속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며 교구 신자들에게도 기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구속인사들의 건강과 신념을 주님께 맡기자고 강조하십니다.

신부님! 그 몇 평 안되는 감옥에서 어떻게 계십니까? 기도, 독서, 묵상, 아니 그 보다도 마음은 교구에 와 계시겠죠. 점점 추워지는 날씨! 온기조차도 없는 냉방! 주님의 사랑이 훈훈하게 스며들어 신부님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계신지요. 재판은 언제 끝이 날까요? 정말 5년이란 긴 시간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요. 항소심이 속개되면 뵈올 수가 있을런지요. 언제 공개될지는 저희도 신부님도 모르니 그럼 누가 아는 일인지요.

“우리의 위안처이신 주님이여, 당신 진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신념의 성령을 주시어 어두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신부님 떠나시던 날 새싹이 돋았던 봉산동 동산에는 지금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유한한 시간성 안에 제한된 우리의 육신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영혼과 진리는 희생 속에서 영생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신부님! 이 편지는 출감하신 후 신부님께 드려야겠지만 사전에 교구 신자들에게 공개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신부님께서 나오시는 날까지 기도와 희생과 정의의 외침은 이어지고 영구히 계속될 것입니다. 옥중이지만 꼭 건강을 지키도록 운동을 하세요. 미사와 구도 중에 항상 주님께 빌고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의 승리자이신 예수님께!

자료 3) 1976년 12월 24일, 지학순 주교, 메시지 :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햇불』 2, 1996, 168쪽)

구유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이 부족한 인간이 당신 앞에 꿇어앉아 기도드리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창조하시고 길러 주시고 당신 피로서 구속(救贖)해 주셨나이다. 저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옥고를 치루고 있을 때 우리 꾸르실리스따 형제들이 많은 기도를 바쳐주었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진정으로 피어린 기도와 희생으로 저를 도와 주었습니다. 예수님, 백배의 은혜로 갚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북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나이다. 그들을 하루 속히 그 고향에서 구해 주사 우리와 같이 하느님을 공경하며 자유롭게 성탄을 기뻐하며 살게 해 주소서.

산수풍토가 아름다운 이 나라에 태어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못 살던 옛날이 아니고 발전해가는 이 세대에 태어나게 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많은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또한 사과하나이다. 이 많은 은혜를 받고도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사과하나이다. 당신은 모든 인간은 한 형제이니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였으니 사과 드리나이다. 나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어서 살면서도 정말 못 먹고 못사는 형제들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 곳에, 특히 큰 도시에 좋은 집들이 많이 생겼고 사방에 좋은 길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전의 혜택을 모든 형제자매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형제들이 이 발전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혜택을 남용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희생만 당하고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불공평을 깊이 깨닫고 참 크리스찬 정신으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나 오늘이나 불의는 항상 도처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2천년 전에 당신은 죄 없이 억울하게 불의한 권력자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 어머니께서는 그 피투성이 된 당신 시체를 안고 한많은 억울함을 씹어가며 한없이 한없이 참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당신 모자처럼 원한 맺힌 가슴을 안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건만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으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함세웅, 문정현, 장덕필, 김승훈, 신현봉 다섯 신부님이 3,1 기독교 사건으로 재판 중이며 김명식, 김정수, 김정택, 김승종 등 네분의 수사 신학생이 일명 '십자가 연구'로 불리는 <<제10장 역사 연구>>로 구속 중입니다. 또 <<까마귀 우는 검은 징조>>의 필화사건에 관련되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도 있고 교우 김무길씨가 예수님 당신처럼 법정에서 범법행위의 확실한 근거가 밝혀지지 아니 했는데도 억울하게 엄청난 장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중 일곱 분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별로 하느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해 보려는 마음도 없이 무관심하게 지내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로 여기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곳간에서 탄생하신 전능하신 예수님! 감옥에서 이 추운 밤을 지새우는 신부님, 수도회 신학생들, 목사님들 그 외에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하루 빨리 구해 주십시오. 이젠 날은 점점 추워옵니다. 고통 중엔 있는 이들을 잊어버리고 저는 안락함에 젖어 만

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당신의 참 제자가 되겠다고 약속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이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고 열심히 일하고도 배고파야 하고 다만 불우하게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바로잡기위하여 과연 저는 무엇을 하였는지요. 당신은 당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줌의 소금노릇도 못했으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당신은 근래에 와서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된 많은 문헌인 교황님들의 회칙인 <<어머니와 교사>>, <<지상의 평화>>, <<민족들의 발전 촉진에 관한 회칙>> 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가르쳐 왔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모든 말씀들을 수십번, 수백번 듣고도 별로 실천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헌들을 깊이 연구하려고 노력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훌륭한 크리스찬인 줄로 알고 지금까지 자처해 왔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참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의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공산주의의 온상이기에

너무나 염치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안일과 나태를 변명하기 위하여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비방하며 ‘공산당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찻느냐’고 욕설까지 하였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공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것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심판 때에 세상에서 보잘 것 없는 사람을 도와 준 것은 곧 나를 도와 준 것이요, 세상에서 보잘 것 없는 사람을 학대한 것은 곧 나를 학대한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난하게 말 구유를 선택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걸레 조각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가끔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는 것만이 훌륭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 한 당신의 정신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잘 봉사하면서도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기쁘게 봉사한 일이 없으니 심판대전에 나가서 과연 어떻게 심판을 받겠는지 걱정이옵니다.

조그마한 구유 안에서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여, 과연 저는 무엇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권력만 알고 돈만 아는 물질주의자가 된 현재의 저로서는 절대로 참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는 너무나 자주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온갖 구실을 대면서 당신께 충성을 바치기 보다는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스스로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지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까. 이 비겁한 행동이야말로 곧 세상을 부패케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주의 뒤에는 부정과 부패가 있고 그 뒤에는 무신론적 공산 독재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없으면 공산주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막을 수 없으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바로 공산주의의 온상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곧 공산당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는 너무나 명백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일원인 저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산주의를 막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데도 반공을 국시로 하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왜 우리 교회의 이 충정을 못 알아 주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당신을 무시하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하여는 진정 인간을 사랑하고 아끼는 참 크리스찬 정신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산당은 잔인합니다. 공산당은 무자비합니다. 저 8.13 판문점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북에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공산당의 총칼 아래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산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하고 짐승처럼 부러먹는 독재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속아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 철저한 자본주의나 물질주의가 되는 것이 공산주의를 막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공산당의 서식처를 만드는 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나 공산당을 욕이나 하고 있으면 훌륭한 반공주의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안하고안락하게 살려는 사람은 공산당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옳고 바른 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야 공산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불쌍한 무리들에게 정말 공산주의를 막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공산주의를 막는 길은 오직 크리스찬적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길임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크리스찬 정신은 남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박애주의임을 똑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크리스찬 정신은 사회의 모든 악을 막고 더 정의롭고 평화스러운 사치를 건설하려고 노력하는 정신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생활임을 그토록 당신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미몽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받고도 우리가 이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세상 도처에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의 원천인 물질주의, 현세주의에 속지 말고 정말 크리스찬정신과 생활을 배우며 하느님의 가르침과 은총 안에서 살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고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기 위하여 모든 교회 서적을 공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우리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많은 우리 동포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는 올바른 정신과 힘

을 주십시오. 정말 크리스찬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악의 구조와 제도가 새롭게 변하여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사람이 가슴 필이 새기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여, 우리의 이 간절한 소망을 들어 주소서. 예수님, 새 해에는 꼭 우리나라가 정의와 사랑, 평화와 자유, 윤리와 도덕에 기초한 평화의 빵이 풍요한나라가 되며 모든 백성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 질서를 은혜로 내려 주소서. 아멘.

30. 구속자를 위한 전국교구 순회 기도회

발생일 : 1977년 1월-5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77년 1월 12일 원동성당에서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를 지학순 주교 집전으로 개최하였고, 15일 교구 사제단이 '노동자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회'를 원동성당에서 열었고, 폐회예절 직전 '우리의 주장'을 채택하여 낭독하였다. 다시 24일에는 원동성당에서 '신구교 일치 기도회'를 가졌다. 성직자 20여 명, 신자 7백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기도회에서 안승길 신부는 강론을 통해 '국가와 신앙의 일치는 양심의 정의 안에서만 이뤄진다'고 강조하였다. 2월 17일 사제단이 지학순 주교의 출감 2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원동성당에서 '구속자를 위한 특별미사'를 봉헌하였고, 양대석 총대리 신부는 강론을 통해 '구속 중인 신부들의 고통은 바로 교회의 고통'이라고 하였다. 3월 14일에도 사제단이 원동성당에서 지학순 주교의 주례로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3백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이 날 안승길 신부는 강론을 통해 '교회는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큰 희생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4월 18일 전국교구별로 교구 차원의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는데, 원주교구의 기도회에서도 <강론>을 통해 복음선교의 본질적 요소가 바로 사회정의 구현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처럼 원주교구 사제들의 기도와 강론은 투옥된 사제의 석방을 기원하는 동시에 신앙과 정치가 분리될 수 없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런 저항적인 면모는 교구의 신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신정권이 더욱 강압적이 되고, 이에 대한 저항도 한층 치열해지자 투옥자의 석방은커녕 새로운 희생자도 나오게 되었다. 1977년 4월 18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하고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주최한 4.19 학생혁명 16주년 기념 특별미사가 명동성당에서 열렸는데, 최기식 신부가 이 때문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5월 16일 원주교구 원동성당에서 지학순 주교와 교구 사제단 합동으로 '구속 인사들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관련 인물 : 안승길, 최기식, 양대석, 지학순 등

관련 단체 : 가톨릭 원주교구

관련 자료 :

자료: 1976년 1월 24일, 안승길 신부, 강론 : 오늘의 현실이 교회의 순교를 원한다(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햇불』 2, 1996, 300쪽)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16년 전 부정부패와 독선적인 아집에 사로잡힌 독재정권으로부터 민권을 찾고자 항거한 4.19사건으로 희생된 학생들의 고귀한 얼을 추모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그 정신을 오늘의 치 어두운 현실에 앙양시키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적 신앙의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느님께 기도 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더구나 3.1정신과 4.19정신은 헌법정신의 근본을 이룬 민족의 정기와도 같은 신념이기에 더욱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삼스럽게 표명할 필요도 없이 현실을 떠난 신앙, 국가와 국민을 떠난 신앙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의 진리도, 근본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울로 사도의 말끝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진리 안에,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대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 사랑, 정의, 양심 자체인신 하느님의 복음은 진실을 말하고(로마 9,1) 인간을 따르기 보다는 하느님을 따라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문제의 초점은 바로 인권, 양심, 정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인간의 생존의식과 가치를 모두 포함한 문제입니다. 국가안보도 바로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톨릭 교회는 1971년 전세계 시노드에서도 '사회정의 구현의 노력은 복음 선교의 본질적 요소'라 했습니다. 1974년 시노드에서도 '인권옹호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의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에 앞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교황의 각종 교서나 칙서, 각 주교단의 교서, 성명서 등은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주교단에서도 1975년 2월 28일자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회는 ①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계속기도하며 ②부정부패 사회부조리, 인권유린 등을 고발하는 교회의 발언권을 행사해야 하며 ③정치질서나 정치분야에 윤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④양심에 따라서 정치단체에 자유로이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외침에도 응답이 없음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인권탄압, 양심의 파괴, 진실성의 위장, 물질만능주의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기주의와 윤리성 파괴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제한된 매스콤의 보도 속에서도 양심과 진리와 정의를 찾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할 수 없는 억압의 멍에 속에서 한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고통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앞서서 인간존엄성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성의 파괴이기에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며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어두워지는 현실을 진리와 정의로써 정확시켜야만 하는 중대한 사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저명한 신학자는 "만일 한국과 같은 상황이라면 교회는 당연히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고 박해와 순교까지 각오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그 시급한 사명감을 지적 했습니다.

사실 조국과 국가의 주인인 우리는 사도 바울로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하고(사도행전 4,20)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진실대로 알아야 하고 알려야 합니다. 억압과 권력으로 민중에게서 말을 빼앗고 눈과 귀를 빼앗고 양심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부정과 부패와 허위와 권력의 횡포가 난무하고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억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두운 현실이기에 한국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특히 1974년 이후 현실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부정과 불의와 허위와 인권탄압을 국민과 위정자들에게 고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의 외침은 영혼과 육신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수차례 걸친 시국선언, 현실고발, 주교단 선언, 주교님들의 각종 메시지,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의 대화와 온 국민의 예지를 합쳐 이 난국을 극복하자는 제언 등등의 수많은 사랑의 외침을 계속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조건이나 야심없이 외치는 교회의 소리는 바로 그 누구보다도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염려하는 숭고한 정신에서 나온 조국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사랑의 외침에 따라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루가 14,25)고 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과 정의를 외치던 성직자들과 4.19의 헌법정신을 외치던 수많은 학생들과 3.1정신을 외치던 애국인사들 위에 짊어지워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투옥되어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이분들의 외침이 바로 우리 교회의 외침이요, 동시에 정의구현사제단의 외침이며 민족구원의 외침임을 확인합니다. 이 외침의 메아리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어떤 수난과 고통이 더욱 가해진다 하더라도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치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역경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박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굶주림과 헐벗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혹은 위협이나 칼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의 능력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5)라는 바울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계속 외쳐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외쳐야 하겠습니다.

세칭 명동사건으로 피소되어 26번의 공개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정의구현사제단의 사제이신 문정현, 신현봉, 함세웅 신부님께서서는 투옥 중인 학생들, 애국인사, 특별히 김지하(프란치스코) 형제를 위해서 처우개선과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던 중 투옥되어 지금은 각 지방 교도소에서 독역하고 있습니다. 26번의공판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진리

와 정의의 증언(76.12.20 2심 최후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또한 "세상이 나쁘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요한 7,7)는 주님의 말씀대로 진실을 고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주장하다가 당하는 이 수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과 진리의 희열을 느낀다고 하시던 이문영 박사님의 증언, 구원사상과 역사 안에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진리를 부르짖던 문익환, 문동환 목사님, 공산당의 인권 유린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느님께서 없애 달라고 기도하시던 윤반웅 목사님의 증언, 특별히 우리 조국의 진정한 안보와 총화는 본연의 민주주의의 실현 속에서만이 실현된다고 주장하시던 애국 애족인사들의 주장, 하느님의 사랑과 민족 구원을 외치던 중 오히려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감옥으로 온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던 김대중 선생의 증언 등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의 번영을 위해 희생과 증언을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권력 유지와 체면 때문에 양심을 집어던지고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2천년간 나라없는 설움과 방황 속에서 살다 히틀러 시대에 6백만이나 대학살을 당했고 지금도 아랍제국에 둘러싸여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진실로 애국자인 이분들을 양심에 따라 '무죄'라고 선고해야 합니다.

또 인혁당 사건에서도 배심판사가 1심에서 11명 중 3명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고법에서는 전원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검사와 관사가 옷을 벗어야 했던 비감한 모습과 은폐와 조작임을 외치던 변호인들의 증언은 모두 양심과 진리를 찾는 영원한 복음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김지하 시인은 억압받는 대중들의 대변자로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 1975년도 제3세계 문학상인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에서 '로터스 특별상'을 받았고 1975년도 노벨문학상 대상자로 추대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는 민청련때 무기형을 받고 다시 투옥되어 반공법으로 지난 해 12월30일 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양심선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사상, 즉 친교 속에 이뤄져야 하는 사랑을 온 세계에 전했고 사천주론(四天主論)을 통하여 조국의 구원과 통일과 평화를 외쳤습니다. 사랑과 정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희생이 그에게 내린 것은 영광이며 오로지 조국의 구원을 위한 길은 서대문구치소로 가는 십자가의 길 뿐이라 했습니다. 이 길은 빠스카의 길이며 미사성제의 봉헌이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조국을 위해 보속하고 고행하는 뜻으로 교도소에서 살겠다고 외치고 있으며 무죄가 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조국과 현 위정자 위에 내리기를 기도하겠다고 외침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진리의 길이며 교회의 신명이기도 합니다.

진리와 정의를 갈망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그리고 비록 주님의 복음을 직접신앙을 통하여 고백하지 말았다 하더라도 진리와 정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4.19의거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선적인 아집의 부정부패와 독재정권을 학생들의 정의감으로 무너뜨린 날입니다. 물론 수달은 학생들이 희생을 조국에 바친

비운과 희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3.1정신과 4.19정신은 우리 민족정신으로 민주, 민족, 민생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현 헌법도 3.1정신과 4.19정신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19 학생의거시에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오늘 민족사 안에 영원히 그 정신을 지키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학생들의 외침소리가 쟁쟁히 들려오고 있음을 봅니다. 지난 해 12월 어느 대학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절규에 찬 외침을 드높였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땅은 얼어붙어 있는데 진실을 말하는 자 아무도 없다. 비겁하게 침묵만 지키고 있다. 우리가 이 추악한 현실을 고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유한한 지혜의 인간이 어찌 무한한 환력의 자유를 유린하려 하는가? 바야흐로 태풍전의 정적을 깨뜨리고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민주회복운동이 휘몰아쳐온다. 정의와 자유와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또 1975년 4월11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조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면서 스스로 자신의 생을 조국에 바친 김상진 군은 양심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와 평등과 민주사회를 향한 결단의 깃발을 내걸어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공포의 병영국가가 도래했음을 민족과 역사 앞에 고발코자 한다. 이것이 민족과 역사를 위한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스런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이 보잘 것 없는 생명을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어라.”

이와 같은 진리와 정의의 외침은 바로 하느님의 복음의 외침입니다. 이런 희생과 증언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희망과 번영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외침이 멈춘다면 우리 조국, 우리 교회에는 절망과 파멸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 증언은 어떤 개인이나 권력을 증오하거나 멸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사랑의 깨우침입니다.

허나 진리와 사랑의 증언은 십자가를 동반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수난이 없는 주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이 진리와 정의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의 명예가 지워집니다. 지금 애국인사들, 성직자들, 학생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예를 세상 끝나는 날까지 행하라”고 하신 다음 올리브 동산에 가서 천주 성부께 ‘주님 안에 일치’하도록 간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굳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수난과 부활의 신비는 세상 구원의 진리입니다. 지금 주님은 일치의 기도를 마치시고 “자 때가 왔으니 일어나 가자”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투옥된 형제들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신

앙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을 초래시키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우침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강론을 마치면서 그 무서운 고독의 갈망 속에서도 버림받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한 함세웅 신부님의 상고 이유서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란 제목의 신앙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나 너희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있노라." 아멘.

31. 김지하 구출위원회 투쟁

발생일 : 1977년 11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신현봉 신부를 비롯한 노동자 등 구속 민주인사들을 위해 투쟁해 오던 천주교계는 유신정권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0월 31일 원주교구 사제단은 추계 주교총회에서 '대통령에게 양심수의 사면을 건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도 그 내용의 보도가 보류된 것을 중시, 주교단에 두 차례(10월초, 11월초)에 걸쳐 그 이유의 해명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주교회의 의장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하의 <서한>에서 '이 결정의 기쁜 소식은 당연히 공개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1977년 11월 옥중에 있는 김지하 시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교회지도자와 문인들을 중심으로 '김지하 구출위원회'를 조직하고 지학순 주교가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김지하구출위원회'는 원주·서울·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16개 중요도시에서 '김지하 문학의 밤'을 개최하였다. 12월 12일 인권주간을 맞아 원주교구 사제단이 주교좌성당에서 인권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지학순 주교를 비롯 20여 명의 사제가 집전한 이 날 미사에는 각지에서 온 구속자 가족 등 6백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했다. 지학순 주교는 강론을 통해 인권 보호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역설했고 영성체가 끝난 후 근로자, 학생, 언론인 등이 당하고 있는 인권유린 사례가 1시간 동안 고발되기도 했다. 원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이 미사 끝에 구속인사 석방에 대한 사제단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관련 인물 : 지학순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77년 10월 30일, 원주교구 사제단, 서 한:주교회의 의장께 드리는 글(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햇불』 2, 1996, 362쪽)

첫 번째 서신

존경하는 한국 주교회의 의장 윤공희 대주교님!

한국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한국 주교회의의 결의는 사목활동에 지침이 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로 저희 사제들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30일 상지회관에서 개최된 1977년도 추계 주교총회에서는 여러가지 사목적인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였음을 교회 소식지인 가톨릭시보(10월 2일자)를 통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국에 중요시되고 있고 관심의 초점인 양심과 진리의 수인들을 위한 주교단의 공식 태도를 결의하였으면서도 다른 결의안건은 발표되고 이 결의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주교총회는 양심과 진리의 수인인 지학순 주교, 신현봉·함세웅·문정현 신부, 그리고 목사와 학생, 여러 인사들을 사면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건의문까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면 건의사항이 가톨릭시보에 보도되지 못한 사유를 서울 가톨릭시보 분실에 문의하였던 바 놀랍게도 주교회의 부의장인 김남수 주교와 사무총장인 이종홍 신부에 의해서 보도 보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주교단의 결의사항은 공식 교회 기관지를 통해서 보도되기로 되어 있는 데 한 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보류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교님들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교단에 최대의 존경과 권위를 드리고 있는 저희 각 교구 사제들은 이와 같은 전례 없는 처사에 대하여 의분과 함께 주교회의의 권위에 대한 상실성의 위험을 느껴 의장이신 윤 대주교님께 상신하는 바입니다. 이런 처사로 본다면 대통령에게 건의문이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가히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윤 대주교님!

한국 교회의 권위를 보존하고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처사가 결코 있어서 아니 됨은 한국 교회의 기본적인 소망임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가톨릭시보 기사 게재 중지를 당한 사태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문 전달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를 저희 각 교구 사제들은 건의합니다.

두 번째 서신

존경하는 한국 주교회의 의장 윤공희 대주교님!

지난 10월 초에 저희 원주교구 사제단이 건의한 '주교단 사면 청원서 보도에 관한 건'으로 대주교님이나 주교회의의 권위에 손상과 물의를 초래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청합니다.

그러나 중앙협의회 회보(77년 26,28호)에서 공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셨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저희 사제단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교회가 사면 건의안을 공개화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이고 또 양심수인들을 위한 교회의 대변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있어왔던 것입니다.

양심수인을 위한 사면 건의안 문제는 국회나 다른 단체에서도 공개적으로 신문보도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천주교 주교단에서 양심과 정의와 사랑과 인권을 부르짖는 교회 본연의 태도를 비공개하거나 '극비'로 하는 이유를 저희 사제단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난 9월에 열린 대한예수교장노회 총회는 성직자 구속해제에 관한 건의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그것은 기독교보 등 기관지에 당연히 1면 머리기사로 해서 대서 특필되었다. 구속자 석방 건의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했고 야당 당수도 공개로 건의했다. 따라서 이런 건의는 새롭거나 비밀스런 것도 아니고 어색한 일도 아니다.'(가톨릭시보, 10월 23일자 1면 반사경)

1. 주교회의 사무처 공문(77년 26,28호) 내용으로 저희 원주교구 사제단의 건의를 공개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 청원의 내용이나 사실을 공개화할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으로'(26호 본문 7-8)란 표현과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결의된 적은 없다'(28호 본문 3-4줄)란 표현에서처럼 주교회의나 상임위원회는 '사면건의안'을 공개하지 않도록 결의했다는 뜻입니까? 또한 주교회의는 모든 의결사항을 발표하는 가부까지 의결한 후에 공개 발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지금까지 주교회의의 모든 의결사항은 발표 여부를 결정한 후에 발표하여 왔다는 말입니까?

2. 허종렬 기자의 '원주교구 사제단'에게 보내는 글은 분명히 사신으로 되어있는데 원문은 우리에게 보내지 않고 사본만 만들어서 사무처에서 각 교구에 공개적으로 보낸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장 주교님께서서는 원주교구사제단이 사신으로 보낸 건의 서한에 대해서 원주교구사제단에게는 일언의 회신도 없이 각 교구 주교님들에게 공개 공문을 보내신 것과 사무처에서 각 교구주교님들에게 공문으로 해명한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윤 대주교님! 저희 사제단은 '사면 건의안'을 놓고 어느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상황 안에서 교회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주교단의 의결사항인 '사면 건의안'은 분명히 양심의 수인들은 물론 정의를 지키는 모든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져야 할 기쁨의 소식이기때 저희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성을 밝히는 가운데 교회는 성장하고 주교회의 권위가 유지된다는 소신 또한 변함이 없기에 외람되게도 이렇게 대주교님께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자료 2) 1977년 12월 12일, 원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성명서 :구속인사의 일부 석방은 미봉책이다(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2, 1996, 388쪽)

어두운 세상에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교회는 현재 수감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재천명한다.

정부 당국은 지난 여름 개전의 정을 보인 사람들에 대하여는 석방하겠다는 공언과 함께 7,8월 두 차례에 걸쳐 그 일부의 인사를 석방하였다.

앞서 우리는 그분들의 석방을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긴급조치의 완전한 해제 없는 단순한 신체만의 석방은 하나의 작은 감옥에서 또 하나의 큰 감옥으로 옮겨지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강요되고 있는 '개전의 정'이란 개선되어야 할 주객이 전도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아직도 대부분의 구속인사들과 그 가족들은 정부 당국의 요식화된 각서로서 수감인사들의 개전의 정을 받아내기 위한 갖가지 유혹과 회유와 위협을 단호히 거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분들 개개 인사들의 건강 상태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의 지극히 당당하고도 의연한 태도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이 양심범을 석방함에 있어서는 그분들로 하여금 양심범으로서 투옥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던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제약과 조건을 철폐함이 그 선행요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거기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석방되어야 할 양심범은 적어도 다음의 인사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재판 또는 사건 계류 중인 인사 전원.
2. 김지하 등 긴급조치 1,4호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었거나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반공법 등을 적용하여 병과되어 구속 또는 수감 중에 있는 인사.
3. 이현배, 유인태 등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아직껏 석방되지 못한 인사 전원.
4. 이소선씨 등 근로운동과 관련되어 투옥된 인사.
5. 윤보선 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이천환 주교 등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그동안 누차에 걸쳐 건의 또는 요구한 바와 같이 인혁당 관계 인사들에게 석방조치 또는 적어도 공개재판에 의한 재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또한 현재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배 중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추적도 중지되어야 한다.

현재 학원과 근로운동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탄압이 가혹한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개전의 정을 보이는 구속인사를 석방하겠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처하고 있는 곤경을 미봉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그것은 결코 현재의 난국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로 볼 수 없다. 조건 없는 석방, 이것이 우리의 요구다. 이것이 구속자 문제와 관련한 우리들의 기본 입장이다.

자료 3) 1993년 9월 24일 《조선일보》, 一事一言, 송기원

며칠 전 원주의 치악산 산자락 동네 신월랑 부락 동구 밖에는 「민족통일대장부」와 「민족통일 여장부」 두 장승이 사이좋게 들어섰다. 그 전날 밤에는 원주천 고수부지에서 전야극이 벌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흥겹게 놀이마당을 만들었다. (중략) 1970년대 말 원주에서 열렸던 김지하 석방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부른 값으로 여러 문인들과 함께 20여 일 동안 구류를 산 적이 있는 나로서는 감개가 없을 수가 없었다.

32. 춘천농민회 사건

발생일 : 1978년 2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춘천 농민회 사건은 가톨릭농민회 춘천연합회에서 발간한 농민회 홍보자료를 배포한 유인물 내용 중 학원시위에 관한 소식과 농업정책에 대한 비방이 있다 하여 3명의 간부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받은 사건이다.

사건의 경위는, 춘천교구 가톨릭농민회장 유남선과 총무 김문돈이 제작한 1977년 12월 27일자 유인물 가운데 “농민들의 민주화 능력 부족이라는 미명하에 조합장을 국가가 임명하여 조합장은 농민이 아닌 장관, 도지사, 군수에게 총성한다. 농협의 대의원인 총대는 저희들 끼리 적당히 임명하여 총대선거권자인 농민은 자기들의 총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는 문장과 학원시위에 관한 소식 내용 일부를 문제 삼아 2월 2일 경찰은 유남선 회장과 김문돈 총무를 연행하여 수사에 착수했으며 2월 18일에는 전국본부 협동사업부장인 정성현을 연행하여 사흘간 진술을 받았다. 그 후 유남선 회장은 2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았는데 유인물을 통하여 학생데모를 유도하려 했다는 진술을 강요받았다. 유남선회장이 3월 20일 연행에서 풀려났을 때는 혹독한 고문으로 인하여 제대로 걷거나 앉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여기서 일단 사건이 마무리 되어지는 듯했으나 경찰은 4월 6일 춘천에서 유남선 회장을, 4월 9일 대전에서 정성현 부장을 전격적으로 연행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시켜 버렸다.

5월 8일 춘천교구연합회는 춘천 죽림동 천주교회에서 “농민, 근로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500여명의 회원 및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여기서 농촌복음화에 열중하고 있는 농민회에 대한 경찰당국의 탄압사례를 규탄하고 특히 부당하게 구속된 유남선 춘천교구 연합회 회장과 정성현 전국본부 협동사업부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5월 15일 서울 봉천동 천주교회, 5월 16일 동대문 천주교회에서 기도회를 개최함으로써 천주교회의 항의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5월26일 기도회에서 박명근은 두 사람의 구속경위를 소개했다 하여 긴급조치 9호위

반으로 구속하였다.

그해 7월에 있던 재판에서, 검사는 논고를 통해 “(1)신문과정에서 천주교 신자라는 피고인들이 성호 긋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사실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은닉처로 하기 위한, 종교인을 빙자한 가짜 신자이며, (2)문제의 유인물은 지하신문이라 할 수 있다. (3)월남이 패망하기 전에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의 반정부 활동이 심했는데 막상 망하고 보니 일체의 자유가 없어지고 조국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러움을 만끽하고 있는가” 라고 주장하면서 정성헌, 유남선 에게는 징역 10년, 박명근 에게는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다.

이에 대한 변호인단은 반론을 통해 “(1)성호 긋는 행위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 (2)유인물에서 농협총대에 관하여 언급한 대목은 사실 왜곡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본 것이다. (3)월남이 패망한 것은 학생, 지식인들의 시위 때문이 아니라 집권층의 독재와 망할 수 밖에 없는 부정부패 때문이다”라고 반론하면서 무죄임을 주장했다.

선고판결에 앞서 최후 진술을 통해 정성헌 은 “나 자신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늘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을 듣고 가난한 농민·노동자에 대해 애정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사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당당하게 진술을 하였으며, 유남선 은 “검사는 성호를 긋지 않았다하여 신자가 아니라고 트집을 잡는데 검사 앞에서는 성호를 그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우습다. 나는 어떻게 하면 가톨릭농민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실천했을 뿐 그것이 죄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며 최후진술을 끝맺었다.

선고공판이 열렸던 7월 29일 정성헌, 유남선 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박명근 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되었다.

이날 법원당국은 방청권을 40매만 발부하여 70여명의 친지 및 회원들이 법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방청제한에 대해 항의를 하자 경찰은 “조금만 기다려라. 방청권을 얻어 주 겠 다” 며 시간을 끄는 사이 재판은 끝나고 세 사람을 실은 호송차는 정문을 향해 달려 나왔다.

이에 분노한 회원들과 친지들은 법원정문을 열고 호송차 앞에 드러누워 농성을 하는 등 격렬한 재판을 끝까지 지켜본 춘천교구장 박토마 주교는 “(1)이번 재판은 증인들의 증언이나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재판이다 (2)검사가 신자다 신자 아니다 라고 판단할 권리가 없다. 이는 교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3)주교가 세 형제들에게 영적 지도를 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갔으나 거절당했으며, 며칠 뒤 면회가 되어 고백성사를 하려 했지만 교도관이 입회하여 끝내 하지 못하였다”는 등 재판의 부당성 및 교권침해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관련 인물 : 유남선, 김문돈, 정성헌, 박명근

관련 단체 : 가톨릭농민회 춘천연합회

관련 자료 :

성 명 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농민 대대수가 제도적 억압과 착취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극소수의 악덕재벌과 수축기업에 각종 특혜를 가져다 준 공업위주의 근대화 정책은 1300만 농민과 노동자 및 서민대중을 도탄에 몰아넣고 있다.

주곡 생산을 통한 식량자급 달성이 중대한 민족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농민들은 식량증산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못자리에서부터 추곡수매까지 농민의 주체적 선택과창의성은 여지없이 묵살되고 강압적 지시와 명령으로 농민수탈 일변도 정책만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최대의 봉사로서 충성을 다해야 할 관리들이 오히려 횡포로서 농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농민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고 개별 분산적인 농민의 역량을 규합하여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할 농업정책 당국의 하수인으로 타락하고 있다.

40억원의 비료도입 부정사건이 어제 같았는데 또다시 80억원의 고구마 부정사건이 폭로되었다..... 중략..... 최근 춘천교구 연합회 정,부회장 및 본부 협동부장의 구속사태는 중대한 종교활동에 대한 박해로 단정하고 우리 가톨릭농민회는 여하한 고통이 오더라도 다음과 같은 우리요구가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을 천명한다.

- 1.구속중인 농민회 간부 유남선,정성현,박명근 형제를 무조건 석방하라.
- 1.가톨릭농민회에 대한 사찰,모함,협박,구속등의 탄압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
- 1.농협조합장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즉각 철폐하라.
- 1.비료도입 부정사건 고구마 부정사건에 대한 관계당국은 책임을 지고 농민앞에 시죄하라
- 1.민주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중책을 명심하고 사실보도에 충실하라.

1978.6.19

한 국 가 톨 릭 농 민 회

33. 강원대, YH사건규탄·유신철폐·경제파탄 책임자처벌 시위

발생일 : 1979년 9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9월3일 강대학생 800여명이 YH사건규탄·유신철폐경제파탄·책임자처벌 시위를 전개하였고 이날 선언문과 결의문 1000장을 배포하고 시가 진출을 시도하였다

-성낙철(농화학4) 정양언(수교3) 이기섭(역사4)최윤(영어교육2) 김성규(역사교3) 김광균(체육3)=지난9월3일 학생회관 구내식당에서 점심시간을 이용, 유인물을 배포하고[유신헌법철폐, 학원자유보장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이기섭은 불구속 입건되고 나머지 5명은 구속되었다가 긴급조치 9호해제와 더불어 석방(형 확정되지 않아 면소판결을 받았다.

관련 인물 : 성낙철, 정양언, 이기섭, 최윤, 김성규, 김광균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34.강원대 총학생회 부활위원회 투쟁

발생일 : 1980년2월-4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80년 2월18일-방학 중 연락이 되는 씨클 대표 및 학과대표30여명이 시내에서 모임을 갖고 '총학생회에 부활, 학칙개정안에 학생의견반영'을 하기 위한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결성 위원장에 경영학과 4년 박상순을 선출하였다. 2월19일-일부학칙이 개정되어 제적학생복교 총장직권 휴학제 폐지, 씨클 지도교수 의 무조항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제적학생 9명 일괄복교 준비위원회의 8개항의 건의문을 윤종화 학생처장 에게 전달하였다. 2월21일 씨클 대표 모임 씨클의 학생처 등록거부 결의하였으며, 2월25일에는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고 문교부측 시행령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2월27일에는 행정본관회의실에서 이 총장과 18개 씨클 대표 등 30여명의 학생과 면담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3월내에 학도호국단조직의사 밝혔으나, 학생들은 학도호국단 거부입장을 재천명하였다.

3월10일에는 21개 씨클대표,31개 학과 대표로 구성된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민회)]결성 위원장으로 성낙철(농대 농화학4)선출하였고, 3월12일에는 학교 측 문교부 시행령 따라 학도호국단 선거일정 발표하고 31일 간접선거에 의한 총학생회장 선출하였으나, 3월13일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는 학도호국단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3월14일부터 학민회 학도호국단 전면거부 서명운동 시작하였다. 3월20일에는 학과대표 및 계열대표로 구성된[총학생회 부활위원회]구성 위원장에 최광규 (자대통계3)선출, 자동적으로 학교 측 선거일정을 무산시켰다. 3월28일 [총학생회부활위원회]주최로 학칙개정 및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1차 공청회-학생회관 앞에 1천 여 명 학생참석하였으며, 4월3일 열린 2차 공청회를 마치고 학생회관 앞 에서 7백 여 명이 참석하여 학교당국 지원 하에 열렸다. 4월4일, 이상주 총장 -학생 측의 학생회칙에의 한 총학생회 구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힘. 4월7일,공청회 거친 [총부위]의 학생회칙,대의원대회통과,학칙개정 교수학생협의회가 행정본관에서 열렸으며 4월9일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되어 4월22일 총학생회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인기(법대 행정3)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4월23일,총학생회부활위원회 해체하였다.

한편 1980년4월24일 .민중문화연구회가 주최한 YH여공 초청간담회에 2백여 명이 참석하였고 2월19일에는 긴급조치관련 제적생 복교 조치가 있었다.

복교자 명단 (74년: 정 재돈 (국어교육과2년) - 민청학련

이 병길(행정학과2) -유인물 배포하여 학원소요선동

성 낙철(농화학4) 정 양언(수교3)이 기섭(역사4)최운(영어교육2)김 성규(역사교3)김 광균(체육3)=지난9월3일 학생회관 구내식당에서 점심시간을 이용, 유인물을 배포하고[유신헌법철폐, 학원자유 보장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이 기섭은 불구속 입건되고 나머지 5명은 구속되었다가 긴급조치 9호해제와 더불어 석방(형 확정되지 않아 면소판결))

관련 인물 : 성낙철, 정양언, 이기섭, 최운 등

관련 단체 : 강원대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민중문화연구회

관련 자료 :

35. 부산미문화원사건 김현장 원주 도피 사건

발생일 : 1982년 3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82년 3월 18일 오후 2시 부산의 미국 문화원 건물에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1층 도서관 열람실에 있던 동아대생 장덕술이 사망하고 김미숙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주도자는 고려신학대학 문부식과 김은숙으로 미국의 광주학살 방조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로 김현장이 지목되었는데, 그가 문부

식에게 광주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을 알려주며 방화를 사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미 지명수배가 되었던 김현장은 1년 10개월 동안 원동성당에 숨어 있었고, 문부식과 김은숙은 사건 이후 원주로 와서 김현장을 만났다. 김현장을 숨겨주었던 최기식 신부는 두 사람이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범이라는 사실을 김현장에게 듣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함세웅 신부와 상의한 끝에 자수하도록 설득하였다. 두 사람도 자신들의 행위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인간적인 번민을 하고 있었으므로 곧 자수를 결심하였고, 자수 의사를 전화로 접수한 경찰은 4월 2일 두 사람의 신병을 인수하였다.

관련 인물 : 김현장, 문부식, 김은숙, 최기식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82년 4월 3일,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가 함세웅 신부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

1. 한국천주교회는 교회를 찾아와 교회가 보호중이던 문부식군과 김은숙양의 자수의사를 전달받고 그들의 진정한 뜻이 당국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도록 지난 1일 그들의 자수를 주선하였다. 2. 두사람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 그리고 많은 동료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 특히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로 목숨을 잃은 학생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여 번민하던 끝에 자수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3. 우리 교회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김현장군을 또한 우리는 본인의 뜻에 따라 2일 당국에 자수를 전달하였다. 김현장군은 본건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진실은 은폐되어서도, 또한 과장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4. 우리는 성직자로서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을 수사기관에 인계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고백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죄와 폭력은 미워하나 그러나 죄인을 미워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변호인의 선임 등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자 한다. 우리는 또한 성직자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자료 2) 1982년 4월 2일 《조선일보》

(전략) 문과 김은 29일 오후 가톨릭원주교구청 교구장 지학순 주교를 찾아 주교관으로 갔으나 지주교가 동남아여행중이어서 가톨릭교육원으로 원주교구 사목국장 崔基植(42) 신부를 찾아가 은신처 제공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부는 이들에게 저녁을 먹이면서 자수를 설득했고, 30일 서울천주교 한강교회 함세웅 신부를 찾아와 협의, 자수를 권유하기로 했다. 자수권유를 받으며 40여시간을 최신부가 제공한 은신처에 숨어있던 문은 31일 오후 최신부의 설득을 받아들여 자수를 결심했으며 전화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학순 주교는 예정했던 대로 동남아 여행을 끝내고 1일 오후 8시11분 KAL904편으로 김포공항착, 이날밤 10시쯤 원주에 도착했다.

자료 3) 1982년 4월 3일 《조선일보》

김현장의 검거는 경찰이 원주의 가톨릭교육원을 완전히 포위한 가운데 「자수」형식으로 취해진 것이었다. 김이 이곳에 은신중이라는 정보 아래 확실한 판단을 내린 모수사기관은 2일 가톨릭원주교구청의 고위관계자들에게 김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고, 「협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문부식의 신병을 인수한 경찰도 문을 추구한 끝에 김이 배후인물임을 다시 확인, 가톨릭교육원에 수사대를 급파했다. 오후 6시30분쯤 사복경찰관들이 교육원을 둘러싼 가운데 모기관 관계자와 경찰수사진은 교육원에 들어가 문을 인계했던 최기식신부로부터 김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김은 서울에 압송된 후 모수사기관에 의해 더 이상 배우 조직이 있는지의 여부와 문에게 방화를 지시한 구체적인 방법등을 수사받고 있다. 이 수사기관은 이에 앞서 문을 검거한 후 배후조종인물을 추궁, 김의 이름을 자백받아내고 1일 오후 원주교육원에서 김을 찾았으나 실패, 다시 공작수사를 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 검거는 문의 자백과 모수사기관 및 경찰의 정보추적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모수사기관에서 치안본부 대공(對共)부서로 옮겨진 문은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배후조종인물이 김현장임을 순순히 자백했다. 자신이 김으로부터 의식화훈련을 받고 광주사태와 같은 학생운동의 기폭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사를 받은 후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대답한 사실도 자백했다. 그러나 김이 현재 어디에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김에 대한 자료분석으로 김이 광주사태로 현상수배중인 자이며 강도전과까지 가진 자임을 확인하고 놀란 경찰은 계속 김의 소재를 추궁했다. 그러나 문은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김에 대한 모든 정보와 문의 진술을 분석, 김이 원주교구청에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다. 문이 원주에서 의식화훈련을 받았고 그가 은신처를 구하려 한 곳이 역시 원주이며 배후조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조종자를 찾아가는 것이 범행 후의 일반적인 심리이기 때문이다. 김이 원주교구에서 강사로 지낸 적이 있다는 정보도 확인됐다. 원주에 급파된 형사대는 가톨릭교육원측에 「김이 이곳에 은신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니 신병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원측은 그 대신 문을 검거했던 수사기관에 김의 신병을 인계하려 했던 것 같다. 수사기관원들이 잠시 후 교육원에 도착했고 최기식 신부로부터 오후 6시50분쯤 김의 신병을 인수, 서울로 압송했다. 김의 아버지(60)는 김의 주소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36. 최기식 신부 등 체포사건

발생일 : 1982년 4월 3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4월 3일 최기식 신부는 원주교구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람의 고통이 나 고뇌를 수용하는 한 사제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그러나 “나 자신 도망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번민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 신부는 자신이 자수를 설득 또는 종용했다는 보도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이것을 빌미로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원주교구는 물론 천주교 전체를 억압하기 위해서 사건을 확대시켰다. 즉 중앙정보부는 4월 5일 두 사람을 자수하도록 하였던 최기식 신부는 물론이며 그를 도운 원주교구의 신자들까지 체포하였다. 심지어 지학순 주교에게까지 혐의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언론도 이에 호응하여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천주교 측에서는 ‘살인자를 보호하였다’, ‘원주 교육원이 용공의 온상이다’는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약한 자를 돕는다는 교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나, 결코 쉽지가 않았다.

관련 인물 : 최기식, 이창복, 정인재, 문길환, 김영애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82년 4월 3일 《조선일보》 “文 - 兪 전혀 아는 바 없다”원주교구 지학순 주교 밝혀

문부식에 이어 김현장이 은신해 있다가 붙잡힌 곳으로 알려진 원주시 봉산2동 원주 가톨릭교육원에서는 2일밤 崔基植신부를 만날 수 없었으며 건물 전체의 불도 꺼져 있었다. 다만 교육원 건물 뒤 주택에 교육원에서 일하는 35세가량의 여자1명만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최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낮12시 최신부를 보았으나 언제 외출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 교육원은 가톨릭신자가 아닌 사람도 2박3일 동안 가톨릭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층짜리 이 건물은 식당 강당 교육원생들이 묵는 방 등으로 돼 있으며 최신부는 이곳에 기거하고 있다. 한편 가톨릭원주교구의 池學淳 주교는 2일밤 「부산 미문화원사건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신문을 보고 알았을뿐 문부식이나 김현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안면도 없다고 말했다」. 문부식에 이어 배후 인물로 김현장이 또 검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밤 11시쯤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주교관을 찾아갔을 때 20세가량의 여자가 나와 「주교님은 이미 잠자리에 드셨으니 그냥 돌아가라」면서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다. 당시 주교관 주위는 완전히 소등상태였는데 이 여자는 얼마 후에야 지주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1층식당으로 내려온 지주교는 약5분간 기자와 만났다. 다음은 지주교와 기자가 나눈 대화내용이다. ▲ 지주교 =밤늦게 왜 찾아왔는가. -부산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된 문부식 김현장 등에 대한 얘기를 들으러왔다. 아는대로 얘기해 달라. ▲지주교 =

일체 아는바가 없다. -(신문에 게재된 김현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가. ▲처음 보는 얼굴이다. 문부식이나 김현장과는 안면도 없을뿐더러 문에 대해서는 어제(1일) 밤 11시 외국에서 귀국하여 주교관에 도착해서야 그것도 기자들한테서 들었다. - 이번사건이 일부 가톨릭 교계와 관련이 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는데 ▲지주교 = 모른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최기식 신부는 2일 「두사람이 자수하도록 도와주었을 뿐, 별로 설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신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원주교구 교육원 회의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문과 김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와 처음에는 학생들이라고만 밝히다가 하루 이틀이 지난 뒤 자신들이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점인들이라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최신부는 두 사람과 하루 1-2시간씩 이야기 하다가 자수하기 전날 모두 털어놓아 상당한 시간동안 대화를 가졌으며, 대화 내용은 주로 신앙적인 문제였다고 했다. 최신부와 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인 문과 김이 언제 찾아왔는가. ▲최=자수경위는 얘기하지 않겠다. -어디서 만났는가. ▲최=김이 교육원으로 나를 찾아와 만났다. -처음부터 범인인 줄 알았는가. ▲처음에는 그냥 대학생인 줄 알았다. 하루이틀 지난 후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수하려 했는가. ▲최=올때부터 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 같다.-자수하도록 설득했는가. ▲최=별로 설득하지 않았다. 본인들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원 안에서의 두 사람의 행동은 얘기할 수 없다. -고해성사로 보고있는가 ▲최=이들이 양심적으로 자수하겠다고 말해 도와주었을 뿐이다. -전에 두 사람을 본적이 있는가. ▲최=처음 알게 됐다. -문이 원주에서 의식화교육을 받았다는데. ▲최=얘기할 수 없다. 그 부분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자료 2) 1982년 4월 6일 《조선일보》

치안본부는 5일 오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과 관련, 가톨릭원주교구 교육원 원장 최기식 신부(42) 등 모두 5명을 연행했다. 최신부와 함께 연행된 4명은 전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장이며 전 사회선교협의회 사무국장인李昌復씨(43) 현 가톨릭 농민회 부회장 정인재씨(37) 교육원 관리인 문길환씨(38) 원주치약산서적주인 김영애양(26) 등이다. 한 당국자는 현재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방화사건의 배후 관련 여부라고 말했다. 최신부는 이날 낮12시쯤 교육원에서, 이씨와 문씨 및 김양 등 3명은 이보다 10분쯤 전후해, 교육원 또는 자신의 집에서 각각 원주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연행됐다. 이들은 원주경찰서에서 2시간가량 대기한 후 치안본부요원에 인계돼 3대의 승용차에 분승, 오후 4시5분쯤 서울로 이송됐다. 정인재씨는 서울에서 연행됐다. 경찰은 최신부를 연행해가면서 최신부의 서재에 있던 서적 8권도 압수했다. 압수된 서적은 「변증법적 유물론비판」 「전환시대의 논리」 「농업경제의 실상과 허상」 「노동문제구조」 「우상과 이성」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이다. 연행된 5명 중 최신부는 69년 가톨릭신학대를 졸업, 원주교구 가톨릭농민회 지도신부,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로 활약해 왔다. 80년부터는 원주교구 교육원장직을 맡아왔다. 함세웅신부와 가깝게 지내며 지학순주교의 신뢰를 받아왔다. 이창복씨는 K대 정외과 3년을 수료한 뒤 한국사회선교협의회 사무국

장을 지냈으며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농민회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또 YWCA 위장결혼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녀마주이들과 3년간 생활한 것을 바탕으로 최근 녀마주이의 생활을 담은 『쌍다리밑의 실화』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치악산 서적 주인 김영애양은 작년 7월 책방을 개점, 교육원에 교재를 납품해왔고, 최신부와 특히 사이가 가까웠다. 문길환씨는 2년전 교육원에 취직해 운전사, 보일러공, 식당청소 등 교육원의 잡일을 맡아왔다. 경찰은 이들이 김현장을 22개월간이나 숨겨준 경위와 방화사건 배후관련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외에 김현장과 접촉해온 전주 교구 사목국장 金鳳熙 신부와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주범 丁淳喆의 배후 및 丁의 도피과정에 관련된 신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펴고 있다. (하략)

자료 3) 1982년 4월 6일 《조선일보》

천주교 원주교구교육원장 최기식 신부는 “각오하고 있었다”면서 교육원을 찾아간 경찰에 연행됐다. 5일 낮12시 30분쯤 경찰과 동행해 교육원을 나서는 최신부는 담담한 표정으로 약간 미소를 띠기도 했지만 착잡한 기분이었던 듯 서울로 연행되기 전 원주경찰서에서 머무르는 동안에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고 될수록 대답을 피했다. 최신부와 잠시 동행해준 황지성당 安承吉신부(40)가 질문을 받아 대신 대답해 주기도 했다. 오전10시쯤 치안본부의 연행지시를 받은 원주경찰서는 孫用權서장 주재하에 최신부연행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었다. 11시 40분쯤 회의를 끝낸 뒤 원주경찰서 정보과정 이동식 경감은 정보과형사 2명을 대동, 7백여m 떨어진 원주교구 교육원에 도착, 현관에서 최신부를 위로하기 위해 교육원에 와 있던 황지성당 안신부의 마중을 받았다. 안신부는 이과장을 교육원 2층 최신부방으로 안내, 차를 대접하며 “지금 최신부가 강당에서 혼자 기도중이니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30분쯤후 기도를 마친 최신부가 방안으로 들어서자 이과장은 최신부에게 “같이 가주어야겠다”고 내방 목적을 말했다. 최신부는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한 어조로 “각오하고 있었다”면서 벽에 걸려있던 베이지색 바바리코트를 신부복위에 걸치고 이과장을 따라 교육원을 나섰다. 최신부는 사진기자들의 카메라를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받으며 경찰이 대기시킨 강원 1라 1467호 코티나 승용차 뒷좌석에 올랐다. 차에 오른 최신부는 “할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말할 심정이 아니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대답했다. 최신부는 서울2나 6468호 승용차에 오르려다 옆에 따라온 안신부와 포옹한 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후 차에 올랐다. 최신부 등을 태운 3대의 승용차는 오후 2시 서울로 향했다.

37. 최기식 신부 석방투쟁

발생일 : 1982년 4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82년 4월 7일 최기식 신부가 5일 연행되어 계속 조사를 받게 되자 원주교구가 오전 10시 원동성당에서 교구내 사제회의를 개최하였고, 8일에는 지학순 주교가 원동성당에서 성유축성미사 <강론>에서 “최기식 신부의 양심에는 부끄러움이 없다”며 신도들에게 최근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니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미사에는 27개 본당 신부 33명, 수녀 49명, 85개 공소의 신도대표 등 1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안동교구에서도 원주교구에 서한을 보내 교회의 정당함을 확인하고 아픔에 동참한다고 격려해 주었다. 9일 부산남부경찰서에 수감된 최기식 신부는 부산교구장 이갑수 주교와 부산교구 9명의 신부들과 30여분 면회하였고,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보도 내용은 다른 점이 많으면서 수사기관의 기만에 분노하였으며, <양심선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된 내용을 밝혔다. 11일 원주교구 사제단이 미사 후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최기식 신부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천명하였다. 20일 원동성당에서 구속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는 원주교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동참키 위해 전국 교구에서 달려온 신부들과 정의구현사제단, 수도자 등 115명이 참석했다. 김종태 신부는 <강론>의 서두에 ‘암흑이 빛을 삼키는구나’라는 이사가 5장30절을 인용, 온갖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천주교회를 매도하고 있는 정부의 박해를 논박했다. 그리고 5월 24일에는 춘천교구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죽림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권수호를 위한 특별미사’를 개최하였고, 이 기도회 중에 사제단이 ‘최근 사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정권의 저의에 따라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심하였다. 6월 1일 원주교구 사제단이 원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권수호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하여 <성명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을 악용 오도하는 당국의 횡포와 권력의 시녀로 추락한 현금 언론의 작태를 통탄하며 언론기관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개선,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였다. 1983년 4월 18일 원주교구가 오후 8시 단구동성당에서 ‘최기식 신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원주교구는 물론 전국 교구에서 많은 성직자들이 참석하였고, 이 날 원주교구 사제단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최기식 신부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8월 3일 원주교구는 그 동안 계속 기도회를 열어왔는데, 이날 원동성당에서 다시 ‘인권수호를 위한 기도회, 고문의 폐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개최했다. 마침내 8월 12일 최기식 신부가 형집행정지로 출감하게 되자 저녁 7시30분 원동성당에서 ‘최기식 신부 환영 및 양심수들을 위한 미사’를 개최하였다.

관련 인물 : 지학순,

관련 단체 : 가톨릭 원주교구, 안동교구, 춘천교구 등

관련 자료 :

자료 1) 1982년 4월 8일, 지학순 주교, 강론 : 최기식 신부의 양식을 믿으며(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햇불』 5, 1998, 95쪽)

오늘은 교회 전통에 따라 주교와 사제들의 일치의 표시로 함께 성유축성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제들은 교황 요한 바오로 Ⅱ 세께서 사제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황님은 메시지에서 "사제들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용기와 신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사제들은 진리와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자들은 사제들의 노고를 잊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제 개인들의 실수에 대하여 관대하기를 바랍니다.

최기식 신부님에 대하여

어제 최기식 신부님이 부산으로 압송되어 구속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에 의한 공정한 처리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법의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 신부님의 성직자로서의 양심과 양식에 대하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최 신부님은 훌륭하고 성실한 사제며 진실된 사람입니다. 매스컴을 동원하여 타락된 사제니, 탈선 사제니, 옹공분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가톨릭 교회를 전혀 모르거나 아전 인수격으로 이해한 언론인들의 무지의 소치입니다. 6.25사변을 통하여 70여명의 성직자가 공산주의자들에게 학살당한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소위 옹공분자, 공산주의자를 도왔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나 방화범을 도왔다고 신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치는 것은 박 정권 시대의 잔재의 소치로 국가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교구 교육원과 가톨릭농민회에 대하여

천주교회에서 잘한 것은 왜 말하지 않고 잘못만 과대선전하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 교구와 교육원이 마치 빨갱이 소굴처럼 오도되고 있는데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무지하고 말 못하는 농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진실과 허위를 가르쳐주는 것이 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농민회에서 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톨릭농민회가 신앙정신에 따라 불쌍한 농민들을 돕는 것인데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단체로 언론이 규정짓고 있는 것은, 과거 유신체제의 잔재의 소치입니다. 이래서는 이 나라가 발전될 수 없습니다. 오원춘 사건, 함평 고구마 사건 등의 해결은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농민회를 비방하기 위하여 충북 괴산의 불쌍한 농민들을 매스컴에 내세우는 작태는 벌이지 않아야겠습니다. 더우기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된다는 언론기관이 술선수범하여 앞장서는 일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용공분자, 반국가라는 개념에 대하여

요즈음 보도를 보면 언론인들이 상당히 무식한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 하면 공산주의자로 몰아치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독·프랑스·오지리 등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 중에도 사회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들과 손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와 정부를 구별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잘못하는 정부라도 무조건 옳다고 해서 나라가 발전될 수 없습니다. 잘못하는 정부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을 때 나라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 은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 외미도입 사건 등 여기에 관련된 자들이 반국가사범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부름을 했다고 국가보안법이니 하는 갖은 죄목을 씌우는 처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취재 기자들에게

여러번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당신들이 필요한 내용만 보도하고 다른 내용들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지금 나의 말들을 그대로 보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성직자와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 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가 4,18~19)

최 신부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불쌍한 노동자·농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바로보게 하는 일은 교회와 성직자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법의 처사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불공정한 처사에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 실수에 대하여는 관대하기를 기대합니다.

신자들에게

그 누구의 기사도 연 일주일씩이나 신문의 1면 톱 기사로 자리를 차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부 한 사람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할 일이 없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언론 보도의 과장과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교회와 성직자들을 믿고 일치하기 바랍니다.

최 신부님은 훌륭하고 성실한 사제며 진실된 사람입니다. 신부님과 평신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속죄양을 필요로 한다면 교회가 기꺼이 속죄양

이 될 것입니다.

자료 2) 1982년 4월 9일, 최기식 신부, 선언문:내 양심상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5, 1998, 99쪽)

김현장이 '80년 5월말경 광주사태 후 죽다시피 되어 찾아왔을 때 사제로서 우선 치료를 해주고 돌봐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광주교구 정형달 신부에게 김현장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김현장은 가정적으로 몹시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광주에서 학생운동을 했다는 것과 본인의 성격이 좀 과격하다는 것을 들었다. 그 당시 광주사태로 피해 왔기 때문에 광주사태가 수습이 된 뒤에 자수시키려고 했다. 처음에는 김현장이 수배중인 인물인지 몰랐다. 그 당시 김현장이 이번처럼 신문에 공개 수배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김현장 자신을 통해서 김현장이 수배중인 것을 알고 자수할 것을 작년 6월에 권유했다. 광주사태의 상처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키 위해서 김현장에게 성서를 주어 읽히고 교리를 가르치고 영세를 주었다.

작년 6월 광주사태가 가라앉은 것 같아서 자수를 권유했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때를 보아서 자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었다. 작년에 원주에서 미혼자들에게 성서 그룹 공부를 시켰으면 해서 성경공부와 독서모임을 두어번 갖도록 한 일이 있다. 김현장에게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리나 프로그램을 담당시킨 일은 없다.

가톨릭농민회 교육 프로그램은 이 교육이 농민과 노동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알고 있는 김현장은 절대로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좌경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믿는다.

그의 생각은 우리 나라 농민과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익이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상태의 문제 해결은 현재의 정치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김현장이가 이번 사건의 배후의 인물이라면 그것은 광주사태에 그 뿌리가 있다고 본다.

김현장의 친구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방학 때 찾아왔을 때 그들을 교육원에 재워준 일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들이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이기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재워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81년 12월 15-1월?일까지 문부식이 원주에 왔었던 일이 있었던 학생이라는 것을 이번 김현장을 통해서 들었다.

18일 방화사건이 난 날 나는 뉴스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그날밤 김현장의 방에 가니까 술에 취해서 괴로운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심하게 울부짖으면서 "광주사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기에 나는 그 전처럼 광주사태의 악몽에 사로잡혀서 김현장이가 괴로워하고 있는 줄 알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수녀원에 미사를 봉헌하러 가는데 김현장이가 미사를 신청하기에 받아가지고 수녀원에 와서 보니 위령미사였기 때문에 미사를 드리면서 이상한(혹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예감을 느꼈다. 당시 아침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이에게 물어보지 못한 채 바로 매표로 피정지도를 떠났다. 그런데 기사 문길환씨가 매표로 피정지도를 떠나기 전에 요즘 김현장이가 무엇인가 필요한가 본데 돈좀 주겠다고 하기에

평소에 늘 하듯이 용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보통 때 가끔 용돈으로 만원에서 오천원 정도를 주어왔었다). 그리고 그 돈이 신문에 난 것처럼 문부식에게 간 것은 모른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처럼 50만원을 준 일도 없고 50만원이라는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 19일 수녀원에서 바로 식사를 하고 매폰로 피정지도를 떠났다. 매폰로 가는 도중 차안에서 뉴스를 통해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

22일 피정지도를 마치고 교육원에 돌아왔다. 24일 이창복이를 만나서 “요즘 김현장이 행동이 이상하다. 김현장이가 나는 하느님 곁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유서 비슷한 것을 써놓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김현장이가 무엇인가 요즘 괴로워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걱정했다. 그리고 이때 이창복이에게 이번 사건에 김현장의 후배 중에 혹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어보고 알아 볼 것을 부탁했다.

평소 김현장은 “나는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다. 수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면서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당시 나는 매우 바쁜 일정 때문에 사건에 별 관심이 없었다. 본당 피정 때문에 아침 일찌기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니 이런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30일 오후 원동성당에서 오후 뉴스에 이번 방화 사건으로 3명이 붙잡혔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 4시경 교육원에 돌아와서 김현장에게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때 김현장이 그 주범이 되는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처음 알았다. 그때가 오후 4시였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들을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김현장이가 그들과 이번 사건에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다. 이때 김현장은 이 사건과 자신은 전연 관계가 없다고 했고 이미 본인들은 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언제 그들이 왔는가도 이때 비로소 알았다. 이때 시간이 약 4분밖에 안 걸렸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서울 함세웅 신부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의했다. 이때 김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현장을 지금 넘겨주면 의식화 문제로 연결해서 공산주의자로 몰 것 같으니까, 20일 후쯤 김현장을 자수시키기로 하고 문부식 등은 바로 안기부에 찾아가 자수 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때 김현장을 이들과 함께 자수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함세웅 신부에게 맡기고 바로 나는 저녁에 원주로 돌아와서 이들에게 내일(31일) 오후에 안기부에 찾아가 자수 신청을 하기로 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이때 문부식과 김은숙은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말하고 이제 그들이 잡혀가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또 못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그들의 결혼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받았다. 그래서 교회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두 사람의 결혼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설명해 주고 거절하자 이들이 간절히 애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음날 아침 함 신부에게 이들을 넘겨줄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고 그들의 간청에 따라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두 사람의 약혼식 차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으로 김영애와 문길환씨를 세웠다. 그리고 예식이 사회법적, 교회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지만 두 당사자들간에는 유효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서울에서 온 안기부에 김은숙과 문부식을 넘겨주었다. 다음날 안기부에서 이미 김현장이 교육원에 있음을 알고 넘겨달라 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 보내고 주교님께 말씀 드리고(주교님은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김현장에게 자수 권유를 한다는 나의 마음이 결정되자 자수 절차를 밟고 김현장의 총 고백을 듣고 김현장을 넘겨준 것이 저녁 6시40분경이었다. 이때 나를 구속하지 않기로 안기부에서 약속하고 김현장을 인계해 갔다. 이번 사건에서 문길환씨와 김영애양은 아무 죄가 없는 무고한 선량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부가 이 문제를 잘 처결해 준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 신부가 그들의 자수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문길환과 김양은 죄가 없다. 이들을 위해 변호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도 양심상으로 부끄럼이 없다. 그러나 내가 한 행위가 실정법에 저촉된 행위로서 벌을 받아야 된다면 나는 이를 달게 받겠다. 이번 문제는 광주사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두의 비극이라 본다.

자료 3) 1982년 4월 11일, 원주교구 사제단, 성명서: 최기식 신부의 구속에 대한 우리의 입장(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5, 1998, 104쪽)

천주교 원주교구 사제단은 최근 우리 나라 사회현실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총화와 민주발전에 역류함을 절감하며 이에 극심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것은 스스로 새 시대의 새 일꾼임을 자처하는 당국과 언론이 부산미국문화원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처리, 보도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구체제의 수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그 탈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아직도 한뼘의 울분이 가시지 않은 광주사태의 결과임이 명백한건만 당국이나 언론은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 배경 등은 거두절미하고 단죄와 독단적인 전달만을 서슴없이 자행해왔다. 과연 당국이나 언론이 광주사태의 진상과 원인,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해 단 한번이라도 솔직하고 공정하게 임해왔던가? 그러한 당국이 또다시 이번 사건을 두고 그 관련 혐의를 좌경, 용공, 불온의 온상처럼 고의적으로 오도한 저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원주교구 사제단은 부산 미국문화원 사건과 관련하여 온 국민과 당국에 우리의 기본 입장을 밝히는 바다.

오라! 와서 시비를 가려보자!(이사야 50,8)

1. 당국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과 최기식 신부 사건을 확대시켜 원주교구와 한국가톨릭교회를 불온의 온상처럼 고의적으로 오도한 연후 뒤늦게 사건을 한 사제의 개인 문제로 축소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결코 최기식 신부 한 개인의 문제로 처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어떠한 압력과 고통이 따르든 해도 국가의 진정한 민주발전과 국민단합을 위해 그 원인과 진상규명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최기식 신부의 행동이 결코 불온적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의인을 위해 오

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마태 9,13),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며 (루가 15,4), 내게로 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요한 5,37)"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과,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도와주어야 하고 그가 범죄 혐의자이거나 국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도와주어야 한다(교회법 1179, 1160조)는 교회의 기본 입장과 사제의 양심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사제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범법으로 간주된 이 사건을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시대의 아픔을 말해주는 것(김추기경 4월8일 강론)"으로 보며 교구 사제단이 일치된 마음으로 최기식 신부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고통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3. 당국이 김현장, 문부식 등 일련의 사건 관련자들을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범법자로만 취급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적 사태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당국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사건에 연류된 근원적 문제인 광주사태, 현 정부의 당위성·도덕성 등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며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4.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왜곡 보도된 원주교구 교육원과 가톨릭농민회가 결코 국민을 좌경으로 이끌어가는 용공 내지 반국가적인 기구나 단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인간교육과 신앙교육을 수행하는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단체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아직도 오원춘 사건이나 광주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한 언론이 또 다시 기득권에 편승하여 무책임한 보도를 서슴없이 자행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언론의 비리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부산과 원주에서의 이 사건이 원인에서부터 공정하게 규명되어 해결될 때까지 당국의 사건처리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자료 4) 1982년 5월 24일, 춘천교구 사제단, 최기식 신부 사건에 관한 우리의 입장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5, 1998, 142쪽)

우리는 전 국민을 크나큰 경악과 분노 속에 몰아넣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 속에서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사이에 팽배되어가는 불신감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특히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서 비롯된 최기식 신부의 구속사건과 교회와 교회 공식 단체에 대해 음적, 양적으로 가해진 음해는 현대적 의미의 박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이 같은 일들이 참 언론의 부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야 하는 시대적 아픔일지라도 하느님 모습에 따라 창조된(창세기 1,26)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이 교회의 본래 사명임을 믿는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뿌리를 조속히 내리기 위한 국민 모두의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판단력의 확립을 위해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만약 국가권력이나 그 어떤 집단의 권력이 하느님의 정의를 파괴하

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함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사명임을 자각하고 있다.

2. 교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사람을 언제나 도와주어야 하고 그가 범죄 혐의자거나 국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 자세요 의무며(교회법 1179조, 1160조 참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본정신임을 밝히 알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원주사태도 교회의 이런 본연의 자세와 의무를 수행함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3. 당국이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나 원주사건을 두고 좌경, 옹공, 뒤편 운운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 이런 표현을 가톨릭교회에도 적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임을 개탄하며 교회는 결코 좌경도 옹공도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더 나아가 교회의 지상과제는 이 세상에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하느님 나라의 건설임을 밝혀둔다.

4. 가톨릭농민회, 도시산업선교회 및 신·구교회의 각종 선교단체 등에 대한 왜곡된 보도와 비방과 편견으로 가득찬 언론의 태도는 사실보도와 언론형성이라는 본래적 사명을 통해 국민의 정당하게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지켜야 할 본래적 사명을 망각한 것임을 통감하며 이에 우리는 모든 언론기관의 공신력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5. 당국은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관련된 일련의 혐의자들을 방화범, 보안사범 등의 범법자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광주사태나 현 정부의 당위성, 도덕성 등 근원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6. 현시국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입장만을 호도하기 위해 행해진 왜곡되고 일방통행적인 문교부장관의 논리전개를 용납할 수 없으며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대학생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이 취한 무분별한 조처는 진정한 교육자적 양심에 비추어볼 때 올바른 처사라고 볼 수 없다.

7.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인권이 파괴되고 유린되는 상황 속에서 성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파악하고 형제적 사랑과 일치로 통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의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다짐한다. 특히 권력과 금력의 횡포속에서 신음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자료 5) 1982년 6월 2일, 원주교구 사제단, 성명서: 언론기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5, 1998, 144쪽)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마르코 1,3)

권력층과 대중의 여론보다도 홀로 진리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계승한 교회가 현금에 이르기까지의 한결 같은 소명은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현실적이 투신과 결단인 것이다. 이를 통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교회의 소명은 분명히 권세와 부귀, 세태와 중론에 야합함으로써가 아니라 자기를 버림으로써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기적 안일이나 부정과 불의를 끊고 새 세계의 도래와 새 질

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 시대 우리 나라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주시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교회 자신의 소명을 더욱 깊이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오염된 매스콤의 비리와 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권력층의 부조리, 금전만능의 풍조와 사회 윤리도덕의 타락이 빚어낸 부정부패 등 깊이도 없이 빠져드는 불의한 구조 속에서 인간회복과 진리를 위한 우리의 주장이 한낱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의 소명에 충실해야 함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되는 기도와 교회 본연의 사명수행을 위한 양심적 언행을 통해 교회의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최기식 신부와 구속자들이 못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재차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다.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의령사건, 장 여인 사건 등 잇따른 불행한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허탈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국민과 함께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또 다른 불행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국이 아직도 의혹을 씻지 못한 미진한 부분의 진상을 보다 명백히 규명하도록 촉구한다. 사실 의령살상 사건은 치안이나 정치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권력층과 유착하여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장 여인 사건은 정의사회구현의 기치를 내세워 새 시대를 주장하는 현 정부 당국의 허구성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라 본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악이 바로 권력층의 부정과 정책의 빈곤, 사회 속에 만연된 금전만능주의 풍조와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사회 윤리도덕의 최후의 보루인 교회를 음해하여 자신들의 부정을 은폐시키려 하고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시킨 당국과 언론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언론에 대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국민의 귀와 입이 되어야 할 오늘은 언론이 스스로 눈을 감고 민중을 오도하고 있다면 과장된 말일까? 오늘의 언론은 자신의 기본적인 사명마저 포기한 채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라는 미명하에 편파적이고 획일적인 보도를 남발하며 상업주의, 오락주의를 범람시켜 국민정신을 타락시켰다.

특히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보도는 왜곡과 비방, 과장과 편견 그 자체였다고 본다. 또한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성명서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도 한국 국민을 모독한 미국측의 한마디 해명도 있기 전에 스스로 나서서 미국측의 입장을 변호하는 등 추태를 보였다. 이것이야말로 자주독립 국가의 수치요 배신이 아니고 무

엇인가? 우리는 공신력을 상실한 언론이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때까지 끊임없이 언론인의 자성을 촉구할 것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회가 과연 공산주의일 수 있는가?

유신론을 신조로 삼는 가톨릭교회가 무신론과 유물사관에 근거한 공산주의와는 상극 관계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당국과 언론은 민족사의 비극인 광주 사태의 피해자로서 찾아온 김현장을 치유해주고 자수시킬 때까지 보호해준 최기식 신부를 용공분자로 취급하고 원주교구 교육원과 가톨릭농민회, 더 나아가 가톨릭교회 자체를 불온의 온상으로 보도해왔다. 그리고 최기식 신부와 그를 도와 심부름을 했던 문길환, 김영애를 반국가사범 내지 국가보안사범으로 구속하였다.

최선의 길은?

당국과 언론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최기식 신부의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다. 우리는 당국이나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최기식 신부가 결코 방화를 교사하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찾아온 범인을 보호해주고 자수를 주선한 최기식 신부의 행위는 사제로서 최선의 길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회법(1179호 1160호)상이나 사제적 양심에 비추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종교의 직에 있는 자나 또는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할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교회법 317조 2항)는 교회법정신에 비추어볼 때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교회는 최기식 신부가 취한 행위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면 신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당국에 물은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최기식 신부와 구속자들의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성직자의 일상적 본분인 기도서와 성경마저 볼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도 이 나라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강변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에게조차 면회를 금지시키며 유독 사식이나 의류 영치금 등은 직계가족이 아니면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극히 제한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당국의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비민주적 횡포에 통분을 금할 길이 없다.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우리는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이나 최기식 신부 사건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최근 일어난 모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만 놓고 시비를 가리는 처사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사태가 공정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반드시 그 원인이 밝혀져야 하고 이에 따라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이

번 사건도 올바르게 본다면 이미 광주교구 사제단에서 밝혀주었듯이 최기식 신부 역시 당국이 책임져야 할 광주사태의 피해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일을 떠맡아 수습해준 사제를 옹공시하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양심적 소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정부 당국이 광주사태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며 국민총화와 민주국가 실현을 위해 구시대를 청산하고 솔직한 자세와 새로운 각오로써 국민 앞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바다. 아울러 광주사태 및 학원사태 관련자들을 전면 사면하고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인들에게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바다.

자료 5) 1982년 6월 8일 《조선일보》

원주교구 교육원 뒤뜰에는 「농지세 인하하라」「농협임시특례법 철폐하라」「농협은 농민의 품으로」「기업의 토지매입을 근절하라」「쌀생산비를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가 담긴 20여개의 피켓이 눈길을 끌었다. 연행된 최 신부 대신 교육원을 지키고 있는 安承吉 신부는 5일 「이 피켓들은 작년 11월 강원도 횡성에서 열렸던 가톨릭농민회 대회 때 사용됐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최 신부가 원주교구 가톨릭농민회 지도신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후에 보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신부는 카톨릭원주교구청 교육원이 가톨릭의 순수한 종교교육장일 뿐이지 좌경의식화와는 무관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6) 1982년 7월 12일과 19일 공판정에서 행한 최기식 신부의 진술 : 기성세대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5, 1998, 171쪽)

이 사건에 방청을 오신 성직자, 부제(副祭), 수도자들에 감사한다. 지금은 장난의 시간이 아니다. 나의 가슴은 떨림과 울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 어린 학생들과 같이 묶여 이곳 저곳, 그리고 이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은 언제나 이들과 같이 있고 싶었다. 나는 나의 행위에 후회나 부끄러움은 없다. 처벌에 분노하거나 항의할 생각도 없다. 다만 뜻을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가리킴)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와 교형자매 여러분에게 아픔을 안겨준 것이 마음 아프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학생들과 같은 높은 뜻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청순하고 티없이 맑은 이들이 하는 절규는 판사, 검사, 변호사, 성직자 그리고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 형제들에게 하는 소리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했다. 이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 또한 무엇인가, 그들에게 해준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들은 군사독재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군사정권에 아무런 저항이나 반응없이 순응한 것은 우리 기성인들이었다. 광주살육을 자행한 장본인은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그 이전에 하극상을 일으켜 권력을 잡았다. 그릇된 국민이 언제까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 스스로 우리들은 질문해본 적이 있는가 반성해본다. 나는 오직 학생들에게 부끄러울 뿐이며, 학생들이 저항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

군인의 통치가 나쁜 것은 첫째로 그것의 집권과정이 필연적으로 폭력, 즉 폭력을 사용하기 마련이라는 점이며 둘째로 권력을 절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권과정을 겪고서는 진실로 국민화합이 어려운 것이며 윤리, 도덕의 타락과 파탄과 부패가 또한 필연적인 것이다.

월남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며 박정희 정권의 생성과 몰락이 또한 그러한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이념과 가치를 내놓고서라면 북한의 공산주의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학생들의 절규와 호소와 질문에 대변하는 자세로 우리 모두는 재판에 임해야한다. 그들과 나라가 하나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까지 학생들이 항의하고 저항할 때 정권은 언제나 감옥에 처넣고 제적시키는 등 제거해 왔다. 감옥에 갔다오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환멸과 원한과 분노만이 더해가는 것이다.

노동자와 대학생의 문제에 있어서 기성인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 각자의 마음 속에서 자기가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감옥에 있게 하라. 그러나 그럴 수도 없으려니와 기성인이 어떻게 자신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에 대해 기성인은 누구나 할 말이 없다. 하물며 그들의 티를 보고 들보라고 우겨 몰아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는 여기 이 어린 피고인들이 내 동생 같이만 생각된다. 누가 너희들을 규탄하던, 교도소에 살더라도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또한 성실한 삶을 살아주기 바란다.

재판장! 옳고 바르게 생각하라. 그리고 판단하라.

자료 7) 1982년 11월 29일 최종 구형에 대한 <최후진술>, 최기식 신부, 진 술 : 정의와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5, 1998, 201 쪽)

이런 유형의 재판은 서로 말기 싫어한다는데 이 재판을 맡은 변호사, 판사, 검사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20세 전후의 이들 학생들과 같이 15회 이상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정도 들었고 또 농담도 같이 했습니다. 변론의 기회는 아니지만 이들에게 보다 가벼운 벌을 소망하는 뜻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수감 생활을 통하여 어린 학생들의 아픈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매번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의와 진실에 대한 문제가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매일 묵상하고 또 기도합니다. 묵상과 기도 속에서 얻은 결론은 여기는 분명 하느님의 편에서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 잘못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 내 생활의 어지러움을 먼저 반성하고자 합니다. 교회나 나라가 자신이나 잘못된 과거의 번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세기의 우리 교회가 인문주의적인 학자들의 비판을 받는 것은 기성의 권력과 부(富)에 안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종교는 아편이라는 비판까지도 받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전통과 역사, 그 현실을 외면한 채 신앙만을 심으려고 한 잘못이 있습니다. 제2차대전 이후의 처절한 상황에서 교회의 침묵도 반성되고 회개되어야 합니다. 반성과 회개, 쇄신에 처절하여야만 교회의 발전이 있고 교회에 함께하는 민중의 오늘과 미래가 약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도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오래전에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고 원주민을 학살하며 원자재를 수탈하고 문화를 말살하여 심지어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가 주권과 빼앗아간 재화의 환원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적 죄과에 대해 강대국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는 자신들에 대한 약소국의 시각을 흐리게 하거나 자신들 과오의 은폐의 술책일 뿐 그 내면에는 최악의 원천인 부(富)와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절실하고도 보편적인 각성과 회개 없이는 인류의 장래는 지극히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유토피아와 지상낙원을 말하나 세습정치가 운운될 정도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 반민족적인 친일파 집단의 득세는 정치적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았고 반민족적인 인사들이 민주애국의 인사를 처벌했습니다. 4.19가 정치적 정의의 실현을 향한 위대한 걸음이었지만 5.16에 의하여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5.16 정권은 유신체제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 양심적 애국인사와 근로자와 학생을 감옥에 잡아넣었습니다. 정의와 진리는 왜곡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0.25 사태는 과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사건이었고 오늘날의 정부가 민주주의 토착화 운운하는 것은 과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잘못은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광주사태는 아픔이었고 또한 현 정권의 설립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언론 현실에 대해서도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반성해야 합니다. 현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정권의 실체를 아파하고 반성하며 또 속죄해야 합니다. 새롭게 되자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진실이 보도되었느냐 하는 문제, 학생들이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오고 또 형을 받게 되면 전향서를 쓰는 문제, 박관현 사건과 같이 학생으로서 특사(特赦, 좌익수들이 들어 있는 곳)에 넣어졌다가 단식 끝에 죽음당한 문제 등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한 수용 능력이 없을 때 민주주의는 요원할 것입니다.

가슴 끓는 학생들이나 노동자와 농민 등이 진실과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 옹공으로 몰아 처단한다든지 이번 사건처럼 사형으로(이때 방청석 울음) 처형한다면 그 뒤에는 점점 더 큰 물결, 건잡을 수 없는 물결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다면,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외면한다면,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한다면, 오늘의 현실만을 모면키 위해서 이들을 처형한다면 그 정치제도와 장치는 악마의 세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막혀 있는 큰 뚫을 열고 노동자, 농민, 학생의 주장과 권익이 요구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들 어린 학생들은 순수하게 올바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착하고 진실된 삶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사건화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가벼운 벌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3월 18일 밤, 김현장은 술이 취한 채 울면서 내게 광주사태의 아픔을 얘기했습니다. 광주사태로 죽어간 시민들의 넋을 위로한 비석을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만일 이 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나라와 국민을 진정 사랑한다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광주사태의 아픔을 통감해야 합니다.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숨진 장덕술군의 어머니의 아픔을 같이 통감해야 합니다. 그 아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듣건대 광주사태에 대한 국민의 성금은 공원을 세우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 그 아픔을 씻고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위하여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광주에 하나의 돌을 깎아 비석을 세울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화해를 위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재판에 관여한 모든 분께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덕술군의 어머니에게도 슬픔의 장벽이 무너지고 희망의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 8) 1983년 4월 18일, 원주교구 사제단, 성명서 : 우리는 양심법의 우위를 재확인한다(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5, 1998, 414쪽)

역사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의지 속에 인류의 삶의 현장과 행동양식을 비추보는 거울이므로 역사의 반추는 인류의 현재를 정립시키고 개방된 미래에 눈뜨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복수주의적인 현대사회 속에서 획일주의적, 이념적 사고의 강요가 인간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의 침단으로 몰고 가는지를 직시하는 바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창세 1,26) 창조주 하느님은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에레미어 24, 7~31;33~32;38;에제키엘 11, 20;36, 25)는 계약정식으로 인간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으므로 하느님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하느님과 인간과의 이 계약정식에 따라 인간은 이 지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미의 백성(교회)이 "인간의 품위를 인정받고 남녀가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 수 있기 위하여"(구스타보 구띠에레즈) 이를 방해하는 세력과 부딪히고 있음은 바로 이러한 하느님과인간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느님께 속한 것은 하느님께 바치라"(마태 22,15~22;마르 12,13~17;루가 20,20~26)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느님께 속한 것, 즉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 세계와 세계의 질서, 법과 양심, 정의와 평화, 진리와 사랑 등 일체를 하느님께 바치려는 부단한 노력을 결코 중단할 수 없고, 오히려 사명감을 갖고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과 백성인 교회가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자유를 갖고 신앙을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정치질서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독헌장 76항 참조)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하여 구원의 보편적 성사인 교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도움을 주어야 한

다. 비록 그가 범죄혐의자이거나 국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적 자세요 의무며(교회법 1179조, 1190조 참조) 이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본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정신에 비추어볼 때 현대에 있어 바람직한 정치체도로 평가되고 있는 민주제도(지상의평화 48항)를 헌법상 채택하고 있는 현 정부가 사제적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한 최기식 신부를 구속, 교회를 모략 선전하고 음해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천주교 원주교구 사제단은 다음 사항을 분명히 밝히는 바다.

1. 우리는 작금에 맞이하는 일련의 비극적 사태를 주시해 오면서 자백강요의 폭력성, 재판의 일방성, 통제된 언론의 획일성에 다시금 개탄하는 바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올게 쓰여지며 인간이 인간의 품위를 인정받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정치·사회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할 것을 재다짐한다.
2. 우리는 민중의 생존과 국가의 안념을 위하여 민중의 교회가 취하는 일련의 활동을 반 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용공시하는 풍토가 즉각 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양심법과 실정법이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명령에 따라야 함을 재확인한다.
4. 우리는 최기식 신부의 고귀한 사제적 임무수행의 정당성과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인권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을 때에는 결코 중립을 지킬 수 없으므로(교회의 인권 80항) 자기의 목소리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 사명임을 재확인한다.

자료 9) 1983년 9월 26일, 최기식 신부, 강 론:부산미문화원사건과 우리의 나아갈 길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5, 1998, 468쪽)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작년 4월 이래 저와 함께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현재도 복역중에 있는 문식, 김현장 형제 등 세칭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국내외 진실과 양심을 찾는 양식 있는 자유인들에게 그간 베풀어주신 기도 그리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는 그들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으나 같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석방으로 인하여 만의 하나라도 그 사건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아픔이 축소된다면 차라리 석방되지 않은 것만 같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모임의 뜻을 잃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들에 대한 관심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투옥되어 있는 많은 청년 학생을 비롯, 정치범과 양심범, 그리고 이 순간도 정의와 진실, 양심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스스로 투옥의 길을 선택하는 청년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제언론의 허구성과 기만성이 드러나다

오늘은 순교복자 축일입니다. "장하다 복자여, 주님의 용사여" 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신앙과 용기를 찬양하며 본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하느님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억압이나 죽음으로 이끄는 공포 앞에서도 굽힐 줄 모르는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뜻깊은 축일에 있었던 지난날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9년 전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전국의 신부 300여명이 모여 미사를 봉헌하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뜻을 모아 제1시국 선언을 발표한 날입니다.

바로 오늘 또 이러한 미사를 봉헌함은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신앙, 현실과 교회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겨 신앙을 지킨 많은 순교자들에 대하여는 교회로서 경하함과 영광과 찬양을 드림이 마땅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희생, 그런 순교를 할 수밖에 없게 했던 현실, 그런 역사는 결코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순교자를 생각하며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와 그 상황은 한국의 역사로는 치욕적인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를 쓴 달래도 순교의 역사를 쓰면서 이런 치욕의 역사는 차라리 찢어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진정한 것이라면 순교할 수밖에 없게 하근 이 상황을 외면해서도, 묵인해서도, 지나쳐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상황은 부끄럽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정의로운 청년 학생들이, 내 이웃 형제들이 고문당하고 사건을 조작당하는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 포함하여 학생들에 대한 가혹한 고문과 함께 배후로 몰아 천단하려는 음모 속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문에 대한 공포, 행위의 정당성과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 도움을 요청하는 한 마리의 양을 향하여 사제로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정의와 양심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고문과 조작이 두려워 사제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청년 학생이 있다면 저는 결코 여기 있는 모든 사제 중에 고발할 사람은 결코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 사제에게 고발을 원한다면 이미 사제가 아니기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양심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고 숨어다니지 않게 하려면 첫째, 고문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정당성과 현실을 밝힐 수 있는 확고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부산미문화원 사건의 경우 초기의 떠들썩한 일방적 발표만 있었을 뿐 학생들이 밝힌 동기와 행위의 실체 등 그 진실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없습니다. 석방 이후 저는 신문 보도를 거슬러 읽어보고 있습니다만, 관제 언론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소 사실과도 관계 없는 거짓말, 중상모략, 교회에 대한 온갖 모략과 공격을 무책임하게 보도 방영하고, 내가나올 때 "고맙다"는 한 마디의 인사를 전하는 내용도 내지 않고 나의 소신을 밝혀주지 않는 오늘의 매스콤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때로는 사건의 진실이 그리고 이들 학생들의 동기가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는 헛된 것이요, 재판은 한낱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법정에서 밝혀지는 모든 증거나 진실은 단지 요식행위일 뿐 정작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절규는 고작 법정 안에서만 메아리치고 있을 뿐입니다. 양심적인 법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관은 인사이동 때 부당하게 좌천되거나,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법관의 양심에 의한 판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컨대 김현장군의 경우, 부산미문화원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판결문은 사실상 공소장을 베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특히 김현장군은 나의 권유에 따라 자수했다 해도 문부식군과 김은숙양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는 정상이 하나도 참작되지 않았습니

다.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사형 판결이 있는 1주일 후, 정부가 그들의 정상참작, 사형에서 무기예로의 감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1주일이 죽음과 삶을 오락가락하는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법원은 정상참작을 할 수가 없고, 오직 행정부만이 최종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법원의 존재는 어디에서 그 명분과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인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제 공산주의 양산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뿐만 아니라 반정부 활동과 관련한 학생사건에 당국은 무차별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되었던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국사범이었고 우리들의 순교 선열들도 국사범이었던 점에 비추어본다면 나에 대한 국사범으로서의 처우는 영광이면 영광이었지 부끄러움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사범에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로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제 공산주의를 양산하여 이 국민의 대열로부터 강제로 이탈시켜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교리를 가르쳤고 내 손으로 영세를 준 김현장군이 결코 공산주의가 아니며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예나 이제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수갑을 차고 법정을 드나들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문부식군을 비롯해 그 누구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나를 감탄시킬 만큼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석방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전향서가 강요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들 뿐만 아니라 남민전 사건을 비롯,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많은 수의 학생이 전국의 곳곳에 있는 교도소에서 전향서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어떻게 “나는 이제까지 공산주의자였노라”하는 전향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당한 학생들은 바로 이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향서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 교도소내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전향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복역하는 죄수 사이에 차등과 차별이 있다는 문제입니다만, 전향서를 쓰도록 강요되고 있는 교도소 내의 획일적인 풍토도 문제입니다.

그네들은 위의 지시를 따른다 하며, 국가보안법은 전향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 지학순 주교님께서서는 양심선언운동을 제창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에 반하는 진술이 강요되거나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실을 미리 양심선언을 통하여 밝혀두자는 것입니다. 만약, 전향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선언을 할 수 있도록만 허용된다면 그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부식군은 자신이 법정에서 서게 된 동기는 광주사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거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광주사태를 묵인 또는 지원한 미국에 대하여 항의와 경고를 말하기 위하여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고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치밀한 연구를 했고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과 피해가 적을 수 있는 입구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논리적으로 합당할 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누구보다 인명의 피해에 대해 안타까와 하고 있으며 피해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그들의 사죄의 말을 전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광주사태는 그 진상이 묻혀진 채로 어린 가슴들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나 자신이 광주사태가 아니었더라면 그들과 함께 그 법정에서 서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광주사태만 없었더라면 김현장군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주사태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의식과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련의 KAL 비행기에 대한 공중학살에 분노하면서 우리는 또 다시 광주사태를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아픔, 그 원한, 그 응어리를 지우기에는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상당히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광주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자세는 그 사태의 아픔을 이 나라 온 국민의 아픔으로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아픔과 너의 아픔이 다른 것이라면 결코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구고등법원에서의 최후진술에서 그 아픔을 같이 확인하고 해결의 길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한 제1단계로서 온 국민의 정성으로 온 국민이 함께 그 아픔을 확인하는 뜻으로 광주에 작은 돌이라도 세우자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물론 나의 제의와 호소는 법정 밖으로 나올 수 없었겠지만,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거듭 제의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난 22일 밤에 대구미문화원 앞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진상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폭력적인 행위는 이 땅에서 근절되어야겠습니다. 방화라는 폭력적인 방법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 동기와 원인에 있어 부산미문화원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우리 교회에는

더 할 수 없는 비방과 모략, 음해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손에 채워진 차디찬 수갑의 무게보다는 저로 하여 교회가 입은 상처에 더 가슴아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굳건하게 이겨온 교회의 저력은 바로 순교의 역사로 점철된 교회사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산미문화원사건은 미국에 대한 의문의 한 표현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방으로서의 미국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준 6.25동란에서, 그들 젊은이들이 흘린 고귀한 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흘린 피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에서 밖에는 달리 찾을 길이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추구하는 이상이요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를 이 땅에서도 이 나라 국민들이 함께 향유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인간적 존엄과 기본적 인권이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의 인권과 인간적 존엄성도 소중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의 자유는 유보되어도 좋다면,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유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에 있어서의 독재정권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은 민주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한미간의 유대가 정의와 인류의 공동선에 기초하고 이바지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이 같이 확인하여야 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한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미국측이 그 가치의 확인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도 이러한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문의 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이 대답하여야 할 도덕적 의무이지 한국 국민이 민주화를 이뤄 달라고 구걸하고 애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11월로 예정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고 민주화를 지연하거나 억압하는 사람들을 고무하는 결과로 되지 않을까 한국 국민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미 관계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위에 새롭게 설정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자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이 미사를 드리며 생각하고 묵상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실과정의가 감춰진 상황, 일방적 논리만이 통하는 상황, 양심적인 소리나 행위가 짓밟히는 상황, 증오와 공포가 깔린 상황,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천대받고 감옥 안에서 고통받는 처참한 상황, 불의한 자, 양심을 내던진 자가 행복하게 보여지는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크리스찬은 자기 구원의 확신이나 가치인 정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정의와 사랑을 현실에 접하여 가르치셨고 그 속에서 더욱 깊이 체험하시고 고통을 나누시고 아파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크리스찬은 진

심으로 구체적 상황 안에 아파하시고 몸바쳐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신 그분을 닮고 우리 안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은 믿는 특권뿐 아니라 고난을 따를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 안에 아파하시며 함께하시는 그분께 대한 굳은 신뢰와 희망만이 바른 삶과 순교자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부산미문화원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측에도 아직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 사죄와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38.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고문폐지운동

발생일 : 1982년 8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82년 8월 3일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오후 8시 원동성당에서 '정의평화를 보존하기 위한 기도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의 사제들이 참석해서 고통의 동참과 교회의 결속을 보였다. 이 날 원주교구 정평위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도회 후의 '약식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교수 사제들이 고문폐지운동, 대책방법 등을 논의하였는데, 그 내용을 원주교구 정평위 의장 김지석 신부와 사무국장 차장 김종인 신부 이름으로 전국 교구 사무국장과 정평위 의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문과 언론조작의 문제로 정권은 최기식 신부와 함께 구속된 이창복과 정인재에게 잔인한 고문을 자행하였고, 언론은 원주 교육원을 용공 교육의 아지트라는 이미지를 조작해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1986년 10월 27일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시국과 관련, 20일자 김수환 추기경의 '로마 발언'을 지지하였고, 성명서를 통해 "여야 정치인은 물론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모든 민족 공동체가 다 같이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게 민주화의 성업에 매진할 때"임을 강조하였으며, 12월 9일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제5회 인권주일에 즈음하여 민주인사의 석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실상의 계엄 상태'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시대의 집자가를 다시 한번 질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듬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정평위 주최로 원동성당에서 지학순 주교 주례로 추모미사를 봉헌하였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가톨릭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관련 자료 :

자료 1) 1982년 8월 3일,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서신,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5, 1998, 62쪽)

사목국장, 정평위 의장 제위 더위에 주님의 가호 안에서 신부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8월 3일 원주 원동성당에서 있는 인권수호와 고문폐지를 위한 기도회는 각 교구 제위 신부님들의 협조로 성황리에 마쳤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회 후 가진 약식 세미나에서는 대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배려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고문폐지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2. 그 방법은 각 교구 사목국장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8월 전국 사목국장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대체적인 방법으로는 (1) 고문폐지 서명운동의 전개, (2) 주교단의 성명서 혹은 수도장상연합회와 수녀장상연합회의 태도 표명, (3) 고문사례의 자료수집 방안 모색, (4) 교구별 또는 지역별 기도회의 지속적 기구 설치, (5) 고문폐지와 방지를 위한 범국민적 기구 설치, (6) 자백의 증거화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의 법률적 개선 추진. 이상의 내용들은 의견을 모은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구 차원의 조직적 지원 없이는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오니 제위 신부님들의 협조와 이끄심을 경망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료 2) 1982년 8월 3일,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 : 고문 철폐를 위한 대책을 밝히라(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5, 1998, 172쪽)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과 영상에 뿌리박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본질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이 하느님의 모상이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은 복음의 요구이며 인권의 향상이 성직의 핵심이라고 교회는 확신하다.” (교황 바오로 6세)

이러한 정신에서 교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복음적 메시지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법을 수호해야 할 당국자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상은양 피살사건으로 인해 장경수군에게 가해진 고문, 윤 노파 사건으로 인해 고숙종 여인에게 행해진 고문, 부림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구속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달여에 걸쳐 가해진 고문,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가해진 고문 등 소위 통닭구이, 전기고문, 물고문, 잠 안 재우기, 여성 피의자 옷 벗기기, 무차별 구타 등 그 양태도 다양하다.

장영자, 이철희 부부의 어음사기 사건이나 지하철 붕괴, 심지어는 의령 경찰관 양민학살 사건까지도 황금만능과 인간경시의 시대적 풍조로 돌린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의 기관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비인간적이고 잔학하기 이를 데 없는 고문 사례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복지사회 건설과 정의사회 구현을 내걸고 기아로부터의 해방, 무질서로부터의

해방, 정치 보복과 고문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창한 대통령의 시정방향까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고문의 목적이 진실을 허위로, 허위를 진실로 자작함에 있음이라?

우리는 정치권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며(로마 13.1), 공동선의 추구를 위해 필수불가결의 요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봉사보다는 지배를, 진실보다는 허위를, 공동선의 추구보다는 일부 계층의 영달을 지향하려 할 때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차제에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따라서 온 국민이 열망하는 진정한 민주 조국 건설을 위해서라도 고문이라는 일제와 구시대의 명령은 근원적으로 뿌리 뽑혀져야 하며 아울러 이를 위해 모든 양심적 민주 인사들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광주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일련의 사건들의 진상이 은폐되고 법치국가 안에서 공공연히 고문이 가해지고 또 은폐될 수 있음은 이 나라에 언론자유가 극히 통제당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기에 정부 당국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 정부 당국은 고문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책임자들까지도 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3.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이며 고문 철폐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밝혀라.

39. 강원대 성조기 소각투쟁

발생일 : 1982년 4월 22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79년 12·12 쿠데타로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전두환 일당은 80년 5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에 공수부대를 파견해 대학살을 저지른다. 이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같은 해 8월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민의 국민성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며 한국민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고, 82년 2월 워커 주한 미 대사는 “한국의 재야인사와 민주를 부르짖는 지식인, 학생, 노동자, 농민들은 철부지와 같다.”고 빈정대어 물의를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82년 3월 18일 부산 미문화원에 화재가 났다. 학생들이 ‘광주민중항쟁

에 개입한 미국은 물러가라'는 주장을 하며 건물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그 와중에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남한 사회에서 미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었고, 주장한 내용이나 피해 정도 모두가 나라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전두환 정권과 어용 언론은 가담자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좌경분자로 규정하고 학생운동에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이에 교회단체들은 4월 15일 '광주사태에 대한 미국의 용인, 한국인 비하 발언, 한미불평등 관계'를 근거로 반미 성명을 발표해 국면은 더욱 긴장으로 치달았다. 그 직후인 4월 22일 강원대학교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났던 것이다.

송민석, 정재웅, 이재영, 박인균, 이헌수, 김래용, 황기면, 김을용 이상 8명의 청년은 부산 미문화원 사건에서 제기한 반미의 문제를 학생운동에서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시 춘천고를 나와 성결교 신학대에 다니던 송민석은 미국의 본질에 대한 폭로투쟁이 절박한 시기라 판단하고 고향의 친구들에게 성조기 소각 투쟁을 제안했다.

한편 민중문화연구회라는 모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학습을 해오던 다른 이들은 부산의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리려 했으나 학교 측에 의해 제지가 됐고, 결국 대외적 상징성과 폭발력이 큰 성조기 소각 시위를 기획하게 됐다.

하지만 막상 일을 벌이려니 고민되는 부분이 많았다. 80년 초 포고령 이후, 학생운동권이 구속과 수배 등으로 초토화됐다가 82년 즈음 겨우 조직이 회복되고 있었기에 역량이 미비했던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 대한 혈맹 정서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경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반미'를 걸고 나서면 애써 복원 중인 조직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더 남아 있었다. 바로 악명 높은 '학원 사찰'의 장벽이 그것이었다. 강원대만 하더라도 춘천 경찰서 정보과에서 학원 담당계를 만들어 형사들이 대학 본부와 학생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아예 학교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또 보안대에서는 복학생들을 이용해 학생들 사이에 그들의 정보원을 심어 놓았고 대공과에서도 요원이 들어와 있어 학내에서의 대규모 시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민중문화연구회 활동을 하는 이른바 운동권 학생들의 경우에 각 개인마다 담당 형사가 정해져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행이 붙을 정도였다.

당시의 시위준비는 송민석은 서울 종로에서 대형 성조기를 구입해 왔고 유인물 작성은 이재영과 정재웅이 했다. 정재웅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가리방(당시 학교에서 사용되던 시험지 작성 원판)을 가져다 김을용의 자취방에서 이재영과 프린트 작업을 밤새 했다.

이날 준비된 유인물은 <강원대학교 민주화투쟁 선언문>과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 동지들의 투쟁에 찬사를 보낸다>라는 8절지 2종으로 각각 1천 매씩 만들었다.

4월 22일 오전, 일행은 춘천 시내 모 레스토랑에서 유인물 분배와 역할분담을 확인한 뒤 시간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헤어졌다.

정오가 될 무렵, 1층에 식당이 있는 학생회관으로 점심을 먹기 위해 학생들이 차츰 몰려 들었다. 학생회관 3층 구석에 위치한 씨클 룸(현재 강원대 합창단 동아리방)에서 이 현수, 김 래용은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못을 박고 캐비닛, 회의 탁자, 의자 등을 총동원해 서둘러 바리게이트를 쌓기 시작했다. 시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경찰의 진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곧 창문을 활짝 열고 주변을 지나가는 학생들을 향해 메가폰의 사이렌을 울리며 유인물을 뿌렸다.

이 현수와 김 래용은 성명서를 낭독한 후 “양키 고 홈!”이란 구호와 함께 들고 있던 성조기에 불을 붙였고 살랑이는 봄바람에 성조기는 훽훽 잘 타올랐다. 같은 시간에 다른 이들은 도서관(현재 박물관), 사범대와 연적지(연못) 부근, 경영대, 공대, 춘천 시내 명동거리 등에서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뿌렸다. 최대한 상황을 유지하며 마지막에 집회를 조직하려던 이들의 계획은 이들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5분여를 넘기지 못했다. 날렵한 경찰들이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창문으로 들어온 것과 공들여 쌓아 놓은 바리게이트가 운동으로 다져진 경찰들의 완력에 허물어진 것은 거의 동시였다. 이 현수, 김 래용, 박 인균은 현장에서 체포, 연행됐고 다른 이들은 사전에 약속한대로 서울 종각으로 도피했다가 논의 끝에 이들 뒤에 자수했다. 학생회관 앞에서 이 현수 등을 태운 봉고차가 경찰서로 출발하는 순간 학생들 2,3백여 명이 주변에 모여들었지만 안타까움과 응원의 눈빛만 보낼 뿐 경찰의 기세 때문에 시위는 커녕 박수조차 치지 못했다. 체포 과정에서 박인균은 늑골이 부러졌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다른 이들과 함께 대공분실로 이송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3박 4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받는 도중 이들은 모진고문과 구타 그리고 간접과 접촉 했는지, 집에 월북한 사람이 있느냐는 등 상상이상의 모진조사를 받았다

강원대의 시위는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에 부산 미문화원 사건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학원 내에서 미국의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시위였다. 더욱이 성조기를 불태운 방식은 학생들의 결연한 반미의식과 함께 공개적인 언로와 의사소통이 차단된 당시의 폐쇄적인 학원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위 직후, 주요 일간지 1면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다는 내용이 나왔으나 곧 가판에서 회수됐고 모든 신문에서 1단 기사로만 처리됐다. 이렇듯 철저한 보도 통제로 인해 이 사건이 갖는 강렬한 상징성과 의도가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으나 이후 80년대를 뜨겁게 달군 반미투쟁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반면 강원대 학생운동 세력의 피해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엄청났다. 참가자 전원은 당일 오후에 신속하게 학교 당국에 의해 제명이 됐고 함께 활동했던 사람은 강제징집이 되어 몇 개월 동안 정상적인 모임조차 이뤄내지 못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복귀 동조죄 와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사회 혼란죄 위반으로 기소되어 우방의 국기를 태운 죄 값으로 최고 2년 6개월에서 최하 1년의 징역형을 살았다.

관련 인물 : 송민석, 정재웅, 이재영, 박인균, 이헌수, 김래용, 황기면, 김을용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관련자 증언

‘성조기 소각은 우리가 비폭력적으로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었다. 우리는 지금도 미국이 진정한 우방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송민석) ‘분단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민중과 지배집단의 괴리는 더욱 깊어지고 모든 시민들은 공포감 속에서 무력해지고 있다. 역사 앞에서 다시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질곡 속에 헤매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한 것이다.’(정재웅) ‘양키 고 홈! 은 2차 대전 후 후진국 전반에서 걸쳐 나온 구호로서 이것을 두고 북괴 동조 운운하는 것은 전두환 전기집을 읽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이재영) ‘이제는 더 이상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말 외국 보기 부끄러워 못 살겠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회복되어 우리 국민 진짜 한번 잘살게만 해 달라.’(박인균) ‘우리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특정집단과 국가를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의 조그만 행동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비록 지고 있지만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은 우리 위를 밟고 필 것이다.’(김래용) ‘한번도 민주실현을 못해 본 나라이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양심적 지식인, 학생, 근로자,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나마도 이어온 것이다. 그 꿈틀거림은 지금 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며 결국 독재체제는 무너져 민주정치가 이 땅 위에도 꽃 필 것이다.’

40. 소몰이 투쟁

발생일 : 1985년 6월-11월

관련 일지 :

1. 1985년 6월 12일
가농 회원중심으로 한 강원 춘성군 남면 수동리 농민 10여명 소 피해보상 요구하면서 소반납 당국에 통고.
2. 1985년 6월 26일
가농 춘천연합회 축산단체 대표 및 민주운동단체 대표와 간담회 가짐.
3. 1985년 6월 27일
가농 보리수매 정책과 소 값피해에 대한 성명발표.
강원 춘천지역 영농후계자 80여명 도지사 면담 요구하며 강원도청에서 소값 폭락 항의
가농 춘성 협의회 “당면 농민문제에 대한 농민요구”성명 발표. 창립총회에서

4. 1985년 6월 29일

춘천 축협 축산계장 연합회서 900여 조합원이 모인 조합원 대회 시 외국농축산물수입중단과 소값 폭락피해보상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5. 1985년 8월 중순

가농 춘천연합회 송정 분회원 들 각자의 집에 “소 값피해보상”현수막 걸.

6. 1985년 8월 16일

가농 춘천연합회 춘성 협의회 돌곶 분 회원 들 각자의 집에 “외국농축산물 수입중단” “농가부채탕감”등 현수막 걸

7. 1985년 8월 27일

가농 춘천연합회 춘성 협의회 돌곶 분회 20여 농민 경운기 5대 동원 시위
폭락한 소값의 피해를 보상하라

8. 1985년 11월 26일

가농 춘천연합회 흥천협의회 흥천읍 흥천천주교회에서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 개최
300여 명 참석.

9.1985년 11월 29일

가농 춘천연합회 춘성협의회 춘천시 죽림동 천주교회에서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
개최 600여 명 참석

배경과 내용:

전 두환 정권의 복합영농정책 결과의 하나로써 농민에게 장려금을 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복합영농의 일환으로 소 사육을 장려 하여 농민들이 정부의 권장에 따라 소 사육에 참여하자 그 해 엄청난 양의 소를 도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농민에게 팔아먹었고 소 수입을 확대해 소 값을 폭락시킨 것이다.

당시 싸움에서 주장한 소 사육피해주민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 정부는 소 사육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라!
 - . 정부는 소용자금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하라!
 - . 정부는 농축산물 값의 폭락으로 파산한 농가와 목숨을 끊은 농가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라!
 - . 정부는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한 농가 빚을 탕감하라!
 - . 정부는 나라를 망치고 농민을 죽이는 외국농축산물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 깃발에 쓴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 . 소값 피해보상하라
 - . 농민은 선진조국의 머슴인가
 - . 열나게 일했더니 신나게 수입하네
 - . 양키 강냉이 먹고 설사하는 한우
 - . 입으로는 정의사회, 실제로는 부정부패
 - . 속고 속고 살은 세상 더이상은 못 속겠네
 - . 돼지 똥 밟고 엄마 울고, 소똥 밟고 엄마 운다
 - . 농민은 똥밭에, 재벌들은 돈 밟에
 - . 살인농정 몰아내고 자립농정 이룩하자
 - . 밀려오는 외국 소에 죽어나는 한국농민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민통련 강원지부

관련 자료 :

성명서 **농민들의 소 값 피해는 보상되어야 한다.**

눈 돌릴 사이 없이 바쁜 가을걷이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서울까지 오신 농민형제 여러분!

우리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의 지역운동협의회 소속 10개 지역운동 단체들은 농민형제 여러분의 피맺힌 투쟁에 동참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농촌은 역대정권의 농민 피 말리기 정책 때문에 파농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50년대에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무차별살포정책으로 우리 농촌은 생산기반의 파괴를 강요당했습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 농촌에서 목화, 밀 등 친근했던 농작물이 자취를 감춘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60년대에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농민들을 희생시키는 저곡가정책을 기초로 거대한 외국자본을 끌여 들여 산업화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우리 농촌을 피폐시켜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권의 농민희생정책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은 우리 농촌은 3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각한 폐농의 기초를 해매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학살을 딛고 출발한 군사독재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도리가 없자 그들의 속성대로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외세에 아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1979년에 1백90억불 남짓하던 외채가 오늘날에는 5백 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6년 세월을 경과하는 동안에 박정권 치하 18년 동안에 들여온 외채의 두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포악하고 외세에게는 벌벌 떠는 현 군사독재 정권은 외국농축산물을 무차별 도입함으로써 도탄에 빠진 농민들을 완전히 벼랑에 몰아세웠습니다.

저들은 마늘, 고추, 참깨 등 주요 농산물도 모자라 무말랭이, 바나나까지 수입하여 우리 농민들의 주리를 틀고 있습니다. 특히 울들어 우리 농민의 가장 큰 쟁점으로 드러난 “소 값 피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받아야 할 주요한 과제입니다. 현 정권은 농민들에게 소 사육을 위한 융자금을 내주면서까지 사육을 장려해 놓고 마구잡이로 외국 쇠고기를 수입했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지난 4년 동안에 1백13만 마리분의 외국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소 키우는 우리 농민들이 거덜이 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소와 쇠고기를 도입하여 정부에서 남긴 이익금만도 6천1백54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국민을 대상으로 날강도 장사나 하는 정부인지 무엇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전통적으로 가족처럼 아끼는 소를 때려죽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소 때문에 망한 집안을 어찌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오죽하면 빛더미에 떠밀려 남의 눈을 피해 밤을 틈타 정든 고향을 등지겠습니까?

농민 여러분께서는 이처럼 처절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떨쳐 일어나 쫓기하셨습니다. 외국농축산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 나라

농민을 못살게 만드는 군사독재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외국 빚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나라를 온통 빚더미에 올려놓고 부정부패를 끝없이 자행하고 있는 외채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농민여러분께서는 일어서실 것입니다. 저임금에 항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형제들이나 마찬가지로 농민 형제 여러분도 생활향상에는 너무도 역행하는 현군사독재정권이 계속되는 한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바로 민주주의야말로 이 모든 불합리를 끌어가는 열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즐거워야 할 우리 농촌은 지금 이 현장이 드러내고 있듯이 온통 분노와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지역운동협의회는 우리가 사는 각 지역에서 농민 여러분의 고통과 투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 값 피해를 전액 보상하라”, “외국 농축산물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민생파탄 책임지고 외채정권 물러가라.”

1985년 9월 25일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지역운동협의회

전남 사회운동협의회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경북지부

전북 민주화운동협의회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경남지부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강원지부

충남 민주운동협의회

충북 민주운동협의회

인천 지역사회운동연합

41. 강원대 총학생회 부활투쟁

발생일 : 1984년 4월-1985년 5월

관련 일지 :

1.1984년 강원대학교 4월19일 4.19혁명 기념식

30여명 시위 주요 요구사항은 강제징집철폐,지도휴학제폐지,학원자율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강대신문사 개편 등이었다.

2.1984년5월1일시위

12시200여명의 학생들이 백령광장에서 [강제징집철폐][학원자율보장][공청회개최]를 요구하며 시위

3.1984년 10월17일 오후1시에 50여명의 학생들이 서클등록보장, 지도교수제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

4.1984년 10월18일 대책위는 총학생회장 직선제 자유의 벽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 발표했다. 12시부터 미래의 광장에서 학원민주화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경찰에게 학원사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지연되자 오후 4시부터 진입로와 북문으로

가두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때 여러 학생들이 연행되자 학생들은 학원사찰중지와 구속 학우 석방을 요구하며 행정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학교측의 구속학생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해산 하였다.

5. 1984년 9월20일 학내시위

-씨클등록보장,씨클지도교수제폐지등을요구하며 50여명의 학생들이 시위

6. 84년 9월18일 시위 씨클등록보장,씨클지도교수제폐지등을요구시위 각의 모임 성명발표

7. 84년10월29일 민주학우협의회 결성 씨클 등록 보장,자유의 벽설치,학생장 직선제 실시주장

8. 84년11월20일부터 민주학우협의회, 직선제 추진 위 는 각종 성명발표 후 21일부터 1주간 서명운동 하여 2천3백 여 명 서명 받아내고 한편12월5일 직선지지 학회장협 의회는 총학생회부활 및 직선제실시 그리고 간선제 전면거부 성명서 발표

9. 1985년2월25일민주학우협의회가 [백 령 학우 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을 통해 명칭 을 강원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로 개칭한다고 함 이어 28일 총학생회 부활을 즈음한 강.민.추의 입장이란 성명에서 총학생회의 부활과 학도호국단의 즉각해체주장

10. 1985년 3월16일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집회- 강민추가 주체

-학도호국단의 해체와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촉구

-40여명의 학생이 호국단 실 점거

11. 1985년3월20일-총학생회부활위원회 출범

12. 1985년3월26일-총학생회부활위원회 주최의 집회

-5백 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고 총장실 점거 후 가두진출 경찰과 투석전

-이날 시위로 이강일(철학3)나 종구(수학4) 무기정학,김 래용(자원공4)최 화순(발공3) 최 동주(법학3)유기정학처분

13. 4월2일부터 단식농성하며 징계 부당함을 알리고 총복위는 서명운동 돌입

-각의모임,민중문화연구회,사회문화연구회에서 단식지지 성명 발표

14. 1985년3월27일 총학생회부활위원회 위원장 변보용(경영3)선출

15. 1985년 4월15일-오후2시40분 부당징계취소 및 총장퇴진을 요구하며 학생회관 3 층에서 8일간 단식을 하던 김래용이 투신자살시도 이에 학생700여명이 총장실 및 본 관앞 나래밭에서 총장사퇴를 요구한뒤 4시 10분 김래용의 면회를 위해 복문으로 가두 진출 시도 경찰과 투석전 이 과정에서 8명의 학생이 연행되고 계속해서 저지 당하자 2000여명의 시위대로 불어난 학생들은 학내로 들어와 총장실 및 나래밭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일부시위대는 총장실에서 철야 농성 이날 16일 12시부터 17일 까지 시 한부 수업거부 결의

16. 1984년 4월16일-오전11시 총회 3천여명의 학생참석 가두진출 시도. 16일 연행된 8명 저녁에 석방,철야농성 계속됨.

17. 1984년 4월17일-오전8시30분총장면담 전체교수협의회에서 논의 한다고 함

19일 까지 수업거부 연장 결의 사진

18. 1984년4월23일 3월26일 징계 받았던 5명 징계해제,16일부터 이어져 오던 총장

실농성해제

19. 1985년 5월7일 총학생회장 선거실시-박종호(무역4)당선

20. 1985년 5월17일

총학생회주최제로 기념제 개최-학원문제 성토대회 및 5.17조사위 출범시킴

집회 후 1백 여 명의 학생들이 가두진출시도 경찰들과 투석전 학생1명 연행되었으나 풀려남

21. 1985년 5월20일 총학생회 정식출범

22. 1985년 5월28일 강원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해체

배경과 내용 : 학생자치활동 억압에 대한 대응

관련 인물 : 이강일, 나종구, 김래용, 최화순 등

관련 단체 : 강원대민주화추진위원회

관련 자료 :

42. 연세대생 광주진상규명투쟁

발생일 : 1985년 5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70년대와 1980년대 원주에는 4년제 대학으로는 규모가 작은 상지대와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학생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참여한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학생운동의 역량은 높지 못했고, 조직적 활동 역시 활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두환 군부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높아지자, 이들 대학에서도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생의 민주화운동은 198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성고문 사건, 박종철 사건, 호헌철폐 운동 등 중대한 고비마다 학생들의 투쟁이 전개되었고, 1987년 6월항쟁 때에도 학생 민주화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관련 인물 : 신범균, 이성원, 유태종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85년 5월 24일 《강원일보》

연세대 매지캠퍼스 문리 경법대학학생 3백여명은 23일 오후 6시께 「광주사건진상규명」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햇불시위를 벌였다. 이날 학생들은 교문을 나서려다 경찰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학교로 들어가 농성하다 밤10시께 자진 해산했다. 한편 경찰은 시위학생 8명을 연행했다가 모두 훈방조치했다.

자료 2) 1986년 2월 5일 《강원일보》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는 4일 연세대 매지캠퍼스 문리 경법대학 화학과 신범균(22 화학과), 이성원군(22, 생물과 3년) 등에 대한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음모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유태종군(20, 생물학과 2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43. 강원대 9·7조치 투쟁

발생일 : 1985년 9월-11월

관련 일지 :

1. 85년 9월 9,10일 서연과 학연은 총회를 갖고 문교부조치(학생회칙에서 서연, 학연 불허조치)에 적극대처하기로 함
2. 85년 9월13일-민중민주화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회를 결성
3. 85년 9월13일 시국대토론회 개최(서연,학연,여학생회,법대,인사대,자대)하여 현시국과 학원탄압 등을 토론했고 가두 진출시도 하는 과정에서 10명이 연행
이중2명 구속(윤용병, 이미선)4명이 구류 5명이 훈방조치
4. 85년9월16일-총학생회주최로 학생총회 개최-학원 탄압 중지, 구속 학생석방요구
5. 85년9월18일 이 영국(삼경3휴학) 김 광모(기계3중퇴)등2명이 시내 건물 옥상에서 학원 안정법 철폐를 요구하는 유인물 살포로 19일자로 구속

****1985년 11월14일 [민중.민주개헌 실천투쟁위원회](위원장(정명섭 생물4제적) 결성**

오후1시 학생회관 앞에서 결성식을 하고 1학생식당으로 2백 명의 학생이 자리를 옮겨 [민중. 민주제개헌실현]이라는 성명서와 함께 유인물 배포

가두진출 시도했으나 학교 측의 저지로 무산되고 오후 5시 시내 검은바위 건물에서 애국 시민에게 드리는 글 배포하며 20여분 시위하다 정명섭(민민헌투 위원장),경 성현(생물3)등 14명 연행 연행자중 정 명섭, 황 관중(물리4제적)구속되고 2명 구류 나머지는 훈방조치 되었다. 구속된 정 명섭은 86년2월25일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개월, 황

관중은 징역1년을 선고 받았다.

배경과 내용 : 학생회칙에서 서연, 학연을 불허하는 문교부의 조치가 학생들의 정당한 자치활동 억압이므로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함.

관련 인물 : 윤병용, 이미선, 이영국, 김광모, 경성현, 정명섭, 정명섭, 황관중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44. 미국농축산물 저지운동

발생일 : 1985년 9월 1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철원에서는 9월 1일 11시 김화 천주교회에서 가농회원 등 1백20여명의 농민들이 1부 미국농축산물저지 철원농민 실천대회를 실시하고 미대사관을 향해 경운기 20대와 한국농업·농민 상여, 만장, 현수막을 앞세우고 시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경찰과 대치하여 10여 차례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경찰은 경운기바퀴를 모두 송곳으로 찢어 바람을 빼놓은 매국적 반농민적 처사를 자행하였다. 이에 분개한 농민들은 치열한 몸싸움 끝에 오후 4시 반 성당으로 후퇴하여 군수, 서장의 사과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 농성 3일째인 9월 3일 서장, 군수의 공식 사과와 경운기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냈다.

홍천지역에서는 9월 1일 11시경 성산천주교회에서 임원 및 다수 회원들의 연행 및 연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온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실천대회를 실시하고 경운기와 만장을 앞세우고 수회 가두진출을 시도하였으며, 오후 4시 반까지 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한 후 연합회 농성장에 합세하였다.

춘성지역 에서는 실천대회장인 강촌천주교회에서 11시 각 통로마다의 차단을 뚫고 모인 회원 30여명이 경찰과 충돌하였으며, 연합회 이사 6명과 협의회 총무 등이 이 과정에서 연행되었다. 이에 회원들은 연합회 사무실이 있는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으로 후퇴하여 대회를 실시하고 연합회와 함께 9월 2일까지 농성을 전개했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가톨릭농민회

관련 자료 :

45. 강원대 자민투 관련 투쟁

발생일 : 1986년 9월-11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1986년 9월10일-12일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파쇼체제재편 음모저지투쟁위원회]주최로 학내에서 2백여 명의 학생이 시위하며 경찰과 투석전. 이날 시위로 자.민.투 위원장 유 정 배와 파쇼체제재편 음모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 장 재 환 9월16일 구속되었다

2.1986년11월13일 강대미래광장에서 [반미 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위원장(오상운(사학4)재건 대회 및 실천대회와[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족 민주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위원장(박 인기(농공4) 발대식이 열렸다. -1백2십여 명의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양위원회는 선언문에서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있는 미제와 현 정권의 장기집권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미제축출 파쇼타도를 외치며 후문으로 진출하였고 이를 막은 경찰과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격렬히 시위하였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자.민.투 위원장 오상운 과 부위원장 박희숙(국교3)장.집.탄위원장 박인기와 부위원장 이선숙(심리4)14일7시경 시내명동에서 유인물을 뿌리며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오상운과 박희숙은 연행되었고 박인기와 이선숙은 15일 시내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다 연행되었다.

관련 인물 : 오상운, 박희숙, 박인기, 이선숙

관련 단체 : 강원대 자민투

관련 자료

강원대학교 80학번 박인기 열사의 삶과 투쟁

박 인기 열사는 1962년 춘천에서 출생을 하였고,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던 80년 강원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에 입학한다. 80년 당시 강원대학교 및 대학가에서는 학원민주화의 열기가 드높아지고 있던 시기였다. 강원대학교에서도 사회과학 동아리를 중심으로 총학생회 부활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열사는 강원대학교에 입학 후 동아리[흥사단 아카데미]에 가입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적극성에 힘입어 81년 회장에 피선되기도 한 열사는 1학년 말부터 동아리 내에 사회과학 소모임을 만들어 독서토론회를 주도하면서 사회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열사가 운동을 결심한 시기는 1학년 말경이었다. 열사는 이 기간 중 서울 영등포 부근에서 동료들과 합숙, 일본어 원서로 된 경제, 철학서를 탐독하여 이론을 다졌다.

이런 과장에서 강원대학교에서는 정재웅(경제80), 이헌수(교육학과80)등을 중심으로 한 성조기 소각투쟁이 벌어진다.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반도 남단에 반미의 열기를 가속화 시키는 촉발제가 된 이 사건은 열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아리 선배들과의 마찰로 동아리 흥사단 아카데미를 떠나게 된다. 이후 사회과학 소모임을 주도하면서 활동하던 열사는 82년 2월 돌연 군 입대를 한다. 3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그가 처음 찾아간 것은 당시 근화동에 있던 인권선교위원회(이하 인권위)였다. 이때부터 복학하는 86년 초 까지 인권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운동진영내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다. 이시기가 열사가 기독교와 인연을 맺는 시기이기도 하다.

86년 3월 복학, 기독교 학생의 동아리인 KSCA에 가입한 열사는 기독교 사상 속에서 변혁적 모습을 찾아가면서 후에 성공회에 나가면서 신부가 될 것을 결심할 만큼 신앙을 키워나갔다. 열사가 복학한 86년의 학교의 상황은 선진사상이 유입되면서 조직노선 통합움직임이 고조되는 동시에 이미 구세력으로 전락한 복학생들과 83학번 중심의 신진세력과의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신진 세력에 밀린 복학생들은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실천적 공간 속에도 합류하지 못한 채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열사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취업문제등을 고민하던 열사는 [자민투]사건으로 수배 중 이던 오상운을 찾아가 함께 싸우겠다고 요구했다. 그해 11월 [자민투]산하에 [전두환 장기집권음모저지 및 민족 민주운동탄압분쇄투쟁위원회]위원장을 맡은 열사는 자민투 재건 대회 후 가두투쟁을 전개하던 중 경찰에 연행 구속된다. 주변의 지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의 징역살이는 자청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징역살이를 통해 열사 자신의 운동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던 것 같다. 열사가 처음 병세를 나타낸 것은 구속된 다음해 87년 4월경이었다. 열사는 그때까지도 징벌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기결수 사옥 4사 3층에 위치해 있던 이 징벌방은 춘천교도소 내에서도 생활조건이 가장 열악한 곳이었다. 식사 후 식기를 닦던 열사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발병 한 것이다. 즉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춘천성루까 의원은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물론 오진 이었다.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열사본인은 물론 동료 가족들은 외진을 받길 강력히 촉구했고 춘천도립병원, 원주기독교병원, 서울대 병원 등을 거쳐 신장종양임이 최종 판명되었다. 병에 따른 형 집행

정지로 출소 후 항암치료를 받고 병세가 호전되어 88년2월부터 인권위 간사로 활동을 재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시기 왕성 한 활동을 하였는데 정말 열사의 병은 완쾌된듯했다. 인권위 간사를 사임하고 춘천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89년5월 이상이 왔다. 그간 암세포가 폐로 전 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90년 1월서울대학병원에 재 입원 하게 된다. 병원 측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을 거란 판단에 따라 병원치료를 중단하고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며 치료를 계속 하던 중 90년7월17일 자택으로 돌아왔다. 자택에서 투병의 지를 불태우던 열사는 결국 90년 12월17일 새벽6시 임종했다. 역사를 두려워했던 그래서 더욱 역사 앞에 당당히 서고자 했던 시대를 아파하며 치열하게 살고자 했던 그가 흠으로 돌아갔다

박인기 열사의 약력

1962년1월10일 춘천출생

1980년 강원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입학

1981년 흥사단 아카데미 회장 당선

1983년 군입대

1985년 군제대

1986년 11월13일 강원대학교 자민투 산하 장집투위 위원장으로 시위주도

1987년 5월 복역중 신장종양 발병으로 형 집행정지 출소

1988년 병세호전 인권위 활동 대학졸업

1989년 병 재발

1990년12월17일 투병 중 자택서 운명 흥천군 내촌면 에 안장

46. 강원대 교수 40명 시국선언

발생일 : 1987년 4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주로 민교협에 소속되어 있는 강원대 교수 40명은 [4.13대통령담화와 현 시국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시국성명서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 성명에서 [헌법개정논의를 야당권에서 야기된 분당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 권리로서 이에 대한 국민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

관련 인물 : 조인형, 배동인, 이병천

관련 단체 : 강원대 민교협

관련 자료 :

87년5월5일 강대신문사지지 성명 6일 총학생회지지 성명

47. 원주민속연구회, 민통련 강원지부, 가농, 가생 연대투쟁

발생일 : 1986년 5월-1987년 9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원주교구내 가톨릭농민회와 가톨릭청년연합회가 원주민속연구회, 민주.통일민중운동 연합 강원지부와 함께 5.18 광주 민중항쟁 6주년을 임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호헌철폐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사업사업국은 신자와 시민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민주시민 월례 강좌를 1986년 9월부터 1년 동안 열었다. 강사는 함세웅, 문병란, 황인철, 유인호, 송건호, 박현재, 리영희 등 민주 인사들이었다.(『원주교구30년사』, 946-8쪽)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가톨릭농민회, 가톨릭청년연합회, 원주민속연구회, 민통련 강원지부

관련 자료 :

자료 1) 1986년 5월 22일, 가톨릭농민회 원주연합회 외, <성명서> ‘민주정부 수립의 깃발을 높이 들자!’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7, 2000, 161쪽)

진정한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민중들은 최근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담긴 의미를 바로 우리 민중들 자신의 갈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숨어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결연히 외쳐야 할 함성으로 드러내야 한다. 바로 ‘군사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전 민중의 생존권과 민족자주권을 쟁취하는 것이 그 함성의 요구이자 실천 목표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1.5월 광주민주항쟁은 반외세 민족자주화,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다.

1980년 5월18일의 광주민주항쟁은 참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당연한 주

장이었지만, 군부권력의 총칼 앞에 그 요구가 무참하게 짓밟힌 실상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광주의 5월 민중항쟁은 6년 전의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진정한 민족자주화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계 소음으로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들녘에서, 생존을 걸고 있는 시장터에서 울려나온 그동안의 외침은 바로 군사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외에 다른 것이 없다.

2. 현 정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현 정권은 광주의 그리고 모든 민중의 외침을 짓밟고 나타난 군사독재정권이다. 그들은 정권의 도덕적 부당성을 가리기 위하여 미·일의 외세에 의존하여 민족자주권을 내동댕이쳤으며, 소수 독점재벌과 결탁하여 온갖 부를 독점함으로써 민중들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았고, 구차한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모든 악법을 동원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공민들은 저곡가와 외국 농축산물로 인한 빚더미에 눌러 죽어가고 있다. 중산층 또한 도산과 실업의 악몽과 증가일로의 조세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단지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학생들과 민주운동가들이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민중의 위대한 각성은 군사독재와 외세의 탄압을 떨치고 일어나 반독재 민주화의 힘찬 행진을 계속해가고 있다.

3. 누가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가?

종교계와 교수들이 민주화를 위한 시국선언, KBS 시청료납부 거부운동, YWCA 중등교육자협의회 교육민주화 선언, 언론인들과 문인들의 자유언론 선언 등의 목소리가 계속하여 드높이 울리는 것은 바로 현 정권이 오늘날 일고 있는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단적인 표시다. 그간 각 지역의 개헌 현판식을 통해 메아리친 민중의 합성을 생각해보라! 이역사의 순리와 흐름을 외면한다면, 이 땅은 또 다시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4. 이제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하다.

현 군사정권은 민주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결단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오직 군사정권을 물리치기 위하여 전 민중이 주체가 되어 투쟁함으로써 진정한 민주화와 민족자주를 이룰 수 있을 뿐이다. 아직도 광주 영렬들은 잠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하다.

우리의 요구

1. 광주학살 책임지고 군사정권 물러가라
2. 광주학살 방조한 미국은 사죄하라!
3. 미국과 일본은 독재정권 지지를 즉각 중단하라!
4. 군사정권 물리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5. 민족 · 민주화 · 민중운동 만세! 만세! 만세!

48.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발생일 : 1986년 7월-8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원주교구 사제단과 수도자연합회가 원동성당에서 2천여 명 신도,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고문 폭로 기도회'를 열고 교회의 사명에 따라 민족과 사회와 국민을 위해 복음의 외침을 끊임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성고문의 피해자가 원주 출신이었으므로 가톨릭 신자는 물론이며 일반시민들도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였다. 인권회복기도회(성고문 고발)가 7월 15일과 8월 25일 연거푸 열려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을 고발하고, 민주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목소리가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9월 12일에는 원주교구 여성연합회가 원동성당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여성들의 인권유린 사태를 우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였다.

관련 인물 : 권인숙

관련 단체 : 원주교구 여성연합회

관련 자료 :

자료 1) 1986년 7월 15일, 원주교구 사제단 외, 결의문 : 교회의 사명에 따라 인권을 말한다(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햇불』 7, 2000, 182쪽)

복음의 빛으로 현실의 어두움을 조명해야 할 우리 원주교구 사제·수도자들은 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1986. 7. 10) 현재 처한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권리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처참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보면서 짙은 아픔과 분노를 느낀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법을 수호해야 할 당국자들에 오히려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개탄한다. 82년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연루된 학생들이 당한 인권유린의 행위를 법정진술에서 들으면서 오한을 느꼈던 기억이나 그 후 민청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에게 가해졌던 고문 행위를 다시 기억하는 가운데 최근 나약한 여성근로자에게 잔인하게 가해진 성고문 행위를 한 예로 보면서 오늘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문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짙은 한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해야 할 교회는 닫혀진 사회 안의 어두움을 고발하고 복음과 사랑의 외침을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된다.

1. 고문행위는 진실을 위장시키거나, 침묵의 권리마저 찬탈하는 폭력으로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대죄악이다. 현 정권은 출범시 최고 통치권자가 국민 앞에 기아·무질서·고문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고문이 더욱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다. 고문행위를 자행한 공직자들을 묵인한다면 현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국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문행위를 한 공직자들을 즉시 처벌해야 하며 모든 고문을 중단해야 한다.

2. 최근 부천경찰서 수사경찰관에 의해 근로여성에게 가해진 성고문 행위는 인륜도의를 저버린 행위로서 전 국민에게 경각과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입으로 전할 수조차 없는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윤리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이런 만행이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3. 오늘 국민의 눈은 민주화와 개헌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집권세력은 민주화를 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구속된 대학생, 근로자, 농민, 지식인, 정치가들 모두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들의 석방 없이 민주화는 한낱 위장에 불과하므로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감을 부채질할 뿐이다. 집권자들은 고문의 중지와 더불어 양심수들을 석방함으로써 민주화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4. 민주화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밝힌 김 추기경님의 말씀을 지지하며 KBS와 모든 언론매체들은 공정보도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편파 보도로 국민을 기만하는 KBS 시청료거부운동은 당연한 권리며 민주화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천명한다. 이상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밝히며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따라 민족과 사회와 국민을 위해 복음의 외침을 끊임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자료 2) 1986년 8월 25일, 원주교구 사제단, 성명서 :교회는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편, 『암흑속의 횃불』 7, 2000, 202쪽)

우리 원주교구 사제단은 지속되는 사회적 불안과 구조적인 세상의 죄를 복음의 눈으로 진단하며 또 다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화려한 축제의 등불 아래 한편에서는 선성장후분배의 미명 아래 저임금과 살인적 노동환경에서 피땀 흘리는 노동자, 공업화정책의 속죄양으로서 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저국가정책의 이중고에 시달려 파탄에 이른 농민들의 희생, 재개발과 도시미관이라는 명목으로 단칸 셋방의 보금자리와 생계수단인 손수레마저 빼앗긴 도시빈민과 영세 노점상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리고 용기 있는 교수, 교사, 문인 등 지성인과 학생들의 민주화와 인간해방을 위한 희생적 투쟁과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의 어두움을 큰 아픔으로 바라보고 있다.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장하기위한 언론통제와 탄압으로 국민의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도 감시체제로 국민들을 노예화하고 숨통을 죽이는 현 정권의 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

한때 민주화의 봄을 총칼로 짓눌러버린 뒤 오늘날까지 민주화로의 국민적 열망을 외

면한 채 정의구현과 민주정부 수립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을 옹공주의자로 매도하는 현 정권은 민주정부로서의 정통성을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

급기야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민중의 아픔을 함께하는 한 여성에게까지 성고문이라는 해괴한 폭력을 불사하여 극단적인 인권유린과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함정에 처넣으려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교회는 개인의 구원과 세상질서 회복에 대한 이중 사명의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된다. 교회의 성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착한 사마리아인’의 참된 사랑을 세상에 전하여야 한다. 그것은 폭력과 억압의 굴레에서 신음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움조차 상실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언직을 수행하는 길이다.

최근 부천경찰서의 여성근로자(권양)에 대한 성고문 그리고 경동, 연화광산에서의 노동자들의 생존권 유지를 위한 투쟁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일들은 한 인간이나 경찰, 기업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가 낳은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따라서 교회는 하느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개인과 모두를 모욕하는 모든 체제에 항거할 이유를 확인한다. 우리는 사건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목소리를 대신할 것이며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외세를 배격하고 참된 민주화의 여정을 위해 과감히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결의

- 1.민주헌법 만들어서 민주정치 실현하라!
- 2.언론자유 보장하고 보도매체는 공정보도 실시하라!
- 3.민주인사 석방하고 민주사회 이룩하라!
- 4.국민권익 보장하고 인간생명 중시하라!
- 5.성고문과 일체의 고문행위 철폐하고 권력횡포 남용자 민족에게 사죄하라!

49.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운동

발생일 : 1986년 9월 1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86년 8월 29일 가톨릭농민회가 대전 성남동 전국본부에서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운동 전국본부’ 현판식을 거행. 원주 등 9개 도시 가톨릭농민회 사무실에서도 수입저지

운동 지부조직 현판식을 거행하고, 9월 1일에는 원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주최로 원동성당에서 ‘미국농산물 수입저지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원주가톨릭농민회

관련 자료 :

(『원주교구30년사』, 944쪽)

50. 상지대 용공조작사건

발생일 : 1986년 10월 13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86년 10월 13일은 상지대 학생들은 강사채용시 비리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농성을 개시하였고, 대학측은 주동학생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비리를 밝히려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처벌하는 대학측에 항의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상상지대 학생들의 농성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강사채용시 비리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농성의 주모자였던 경제학과 3년 양모군(22) 등 6명에 대한 학사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은 이날 오전 9시 50여명으로 농성을 시작, 대학측에 부당징계철회와 비리설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농성 학생들은 시간이 가며 점차 증가, 이 날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려던 중간고사를 거부한 채 11시께는 1천여 명으로 늘었고 계속 본관앞 동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14일에도 계속된 상지대생의 시위양상은 점차 과격해지기 시작, 농성학생들 사이에는 붉은 깃발이 등장했다. 학생들은 1층 방송국에 들어가 기물일부를 파손한 후 다시 3층 세미나실을 점거, 최후로 90여명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상황이 다급해진 대학측은 「가자 가자 북의 낙원으로」 등의 용공유인물을 조작하여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였고, 경찰측은 학생회 간부를 체포하는 등 즉각 용의자 색출에 나섰다. 불온유인물이 처음 발견된 것은 철야농성이 시작되던 14일 밤8시40분께. 본관 3층 세미나실을 점거한 학생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본관앞에 모여 사태를 관망하고 교직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상지깃발 1호등의 제목을 붙인 유인물은 16절지 타자지에 복사된 것으로 제목 아래 3-7가지 구호를 적고 그 아래 단체이름을 밝혔는데 유인물은 「전두환정권은 김일성수령님과 타협하여 통일하라」, 「가자 가

자 북의 낙원으로」 등 복귀를 공공연히 찬양고무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한 학생들에게서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당국은 결국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버리고 말았다. 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자주 조작하던 옹공조작이 지방의 비리 사립대에서도 저질러졌다는 점에서도 대단한 충격이었다.

관련 인물 : 양형모, 한규길, 천만영 등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86년 10월 17일 《강원일보》, 31명으로 수사 압축 상지대 불온유인물, 복사점 주인도, 지방대 첫 발견에 충격.

상지대 학생들의 농성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강사채용시 비리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농성의 주모자였던 경제학과 3년 양모군(22) 등 6명에 대한 학사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은 이날 오전 9시 50여명으로 농성을 시작, 대학측에 부당징계철회와 비리설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농성 학생들은 시간이 가며 점차 증가, 이 날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려던 중간고사를 거부한 채 11시께는 1천여 명으로 늘었고 계속 본관 앞 동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14일에도 계속된 상지대생의 시위양상은 점차 과격해지기 시작, 농성학생들 사이에는 붉은 깃발이 등장했다. 학생들은 1층 방송국에 들어가 기물일부를 판손한 후 다시 3층 세미나실을 점거, 최후로 90여명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불온유인물이 처음 발견된 것은 철야농성이 시작되던 14일 밤8시40분께. 본관3층 세미나실을 점거한 학생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본관앞에 모여 사태를 관망하고 교직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상지깃발 1호등의 제목을 붙인 유인물은 16절지 타자지에 복사된 것으로 제목 아래 3-7가지 구호를 적고 그 아래 단체이름을 밝혔는데 유인물은 「000정권은 000수령님과 타협하여 통일하라」, 「가자 가자 북의 낙원으로」 등 복귀를 공공연히 찬양고무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상지대 불온유인물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6일 오후 연행학생중 39명을 추가로 돌려보내고 총학생회장 한규길군(20) 등 운동권 학생 30명과 우산동 D복사점 주인 유모씨(25) 등 31명을 집중조사중이다.

자료 2) 1986년 10월 18일 《강원일보》, 학생2명 추가연행,

상지대 불온유인물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7일 오후 연행학생중 영문과 김모군(21) 등 24명을 학교측에 인계하는 한편 지난 9월 무기정학을 받았던 양모군등 2명을 추가로 연행, 현재 운동권학생 8명과 민간인 1명 등 9명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18일에도 연행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온유인물의 제작 유입 경위와 복사여부 등을 캐고 있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료 3) 1986년 10월 20일 《강원일보》, 4명 또 연행, 상지대 유인물 사건

연6일째 상지대불온유인물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9일 오후 축산과 3년 천모군(22) 등 4명을 추가로 연행, 수사중이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일단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불온유인물을 타이핑한 것으로 보이는 타자기 판매 및 대여상과 노성 사용에 쓰인 자금출처 및 용공불순세력의 연계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51. 상지대생, 재단 퇴진운동

발생일 : 1987년 10월-11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족벌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상지대 학생의 투쟁은 1987년 가을 다시 재연되었다. 불온유인물 사건 진상 규명과 족벌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또한 학원민주화운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상지대 민주화에 불을 붙였다.

관련 인물 : 양형모, 이지(광)원 등

관련 단체 : 학원민주화운동대책위

관련 자료 :

자료 1) 1987년 10월 16일 《강원일보》, 상지대 5백명 교내시위 벌여, 상지대생 5백여명이 15일 오전 10시부터 교내 시계탑앞 광장에 모여 지난해 10월 교내에서 있었던 불온유인물 사건의 진상규명과 족벌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오후 2시30분께부터 가두진출을 시도, 교문앞과 우산4거리에서 대치중이던 경찰과 투석전으로 맞섰다. 경찰은 오후 5시30분께 최루탄을 발사, 강제해산시켰으며 80여명만이 교문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다 저녁 8시께 해산했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밤10시께 1.5m 높이의 민가 담장을 넘다 떨어져 발목골절상을 입은 이종성군(22, 경영2)을 학교에 인계하고 생물학과 2년 김성권군(20) 등 8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자료 2) 1987년 10월 17일 《강원일보》, 연행학생 석방 요구 상지대생 4백명 시위, 상지대학생 4백여명은 16일 오전 9시40분부터 시계탑앞에 모여 불온유인물 사건 해명과 15일 시위 때 경찰에 연행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던 학생들이 돌아오자 오후 4시까지 시위를 벌인 뒤 해산했다.

자료 3) 1987년 11월 4일 《강원일보》 상지대 1백명 교내시위 벌여,
 상지대생 1백여명은 3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관 앞에 모여 지난해 교내에서 발생한 불온유인물 사건 해명 등 2개항을 요구하며 교내시위를 계속하다 오후3시까지 해산했다.
 이날 학생회 및 서클연합회 대표 등 12명의 공동대표로 구성된 학원민주화대책위원회를 발족, 대학당국에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로 하는 한편 대학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행정학과 3년 이광원군(21) 등 6명의 학생들은 행정관 3층 세미나실에서 철야단식을 하고 있다.

52. 원주지역 6월 민주대항쟁

발생일 : 1987년 4월-6월

관련 일지 :

1987. 1. 박종철군 고문치사
 2. 1 인권회복 및 고문반대 기도회
 4. 3 전두환 호헌선언
 4.29 원주교구 신부들. 민주개헌 단식기도 돌입
 5. 1 원주교구 수녀들 동조단식 돌입
 강원민통련 성명서 발표
 원주교구평협, 청년연합회, 교리교사연합회, 농민회 등 성명발표
 17 원주지역 민주헌법쟁취투쟁본부 결성
 19 시민대토론회, 시민다수 연행됨
 6. 4 원주와 춘천의 가톨릭, 개신교(N.C.C), 강원민주통일민중연합, 청년과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강원본부 발기인대회 겸 창립준비총회 시내에 전단 '민주강원' 3만장 배포
 10 전국동시다발 국민대회 개최(원주 시민 1천여명 참가)
 11 '민주화투쟁실천주간' 선포, 영강교회 등 교회와 대학 집회와 시위 계속 됨.
 17 매일 시내집회와 시위가 계속됨
 18 연세대의대에서 최루탄추방결의대회개최, 상지대학생들과 시민들 합류 시위대 2천여명으로 불어나 원주시내 완전점거, 밤 9시에 시청로터리에서 시국대토론회 개최
 19 시민·학생들,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시국토론회개최, 시민 3천여명 참여
 20 학생들 시국토론회개최. 우중에 2천여명 시내 중심도로를 관통하며 촛불 평화대행진을 하였다. 시위대 투석으로 KBS, 명륜파출소, 민정당사 유리창

파손

23 시민학생 2천여명, 경찰과 격렬대치(대학생, 고교생, 시민 등 105명 연행)
초중고교원32명 시국성명 「현시국과 교육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
상지대·연세대생 1백여명, 원동성당 철야농성 돌입.

24 원주기독교연합회, 개운동 영강교회(목사=서재일)에서 원주지방 개신교 목회
자 및 신도 7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합예배를 가짐. 예배를 마친 목회자
와 신도 4백여명은 밤11시경부터 「호헌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진
출

천주교 원주교구 신부·수녀·신자 등 6백여명과 개신교회 목사 신자 등 4백
여명 「나라를 위한 기도회」와 「6.25기념예배」 후 가두행진

26 시민·학생, 경찰의 「6.26국민평화대행진」 원천봉쇄 항의하여 1천5백여명
이 중앙시장 앞 원일로 점거시위. 밤11시까지 시내전역 격렬시위

29 노태우, 6.29 항복선언

7. 7 이한열열사 추도 및 시국토론회 개최

9 이한열열사 국민장, 가톨릭 추모미사. 한국기독교협의회인권협의회 원주
지역 선교협의회 성명발표

배경과 내용 :

전두환 정권은 군부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1987년 4월 3일 호헌을 선언하였지만,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더 나아가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원주에서는 이미 전해부터 민주통일민중연합 이창복 부의장의 구속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분노가 강력히 분출하였고,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자 2월 1일 원동성당에서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종철군 추도미사 및 인권회복, 고문반대 기도회’가 열리고 가두시위가 벌어지는 등 이미 정권에 대한 비판이 크게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헌철폐 투쟁은 즉각 점화될 수 있었다.

4월 29일 원주교구 박순신, 김승오, 김한기, 배은하 신부 등 14명의 신부들이 민주개헌 단식기도에 돌입하였고, 5월 1일에는 21명의 수녀가 동조 단식을 감행하였으며, 같은 날 강원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 사제단의 단식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1일에는 원주교구 청년연합회가 ‘젊은 예수’ 소식지 1호를 발행하여 전국의 기도회 소식과 단식 중인 사제단의 근황을 시민에게 알렸다. 평협, 청년연합회, 교리교사연합회, 농민회 등에서도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투쟁에 동참하였다. 이어서 17일 광주사태 7주기를 맞아 각 본당별로 신자들이 검정 리본을 달고 1일 단식기도를 봉헌하였다. 이처럼 천주교에서 시작된 항쟁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 즉 농민, 청년, 문화단체, 학생 등의 대표자들이 모여 가칭 민주헌법쟁취투쟁본부를 설치하고 대중투쟁의 연대를 다짐하였다.

5월 19일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려 5백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위가 벌어져 농민회원, 사제, 학생 등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러한 투쟁의

연대는 더욱 확대되어 6월 4일 가톨릭센터에서는 원주와 춘천의 가톨릭, 개신교(N.C.C), 강원민주통일민중연합, 청년과 농민 단체를 주축으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강원본부 발기인대회 겸 창립준비총회**가 열렸고, 안내전단 '민주강원' 3만 매를 배포하였다. 6월 10일 전국적으로 열린 국민대회가 원주에서도 열렸고, 대대적인 시위가 시내 중심부에서 벌어져 1천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맞섰다. 11일에는 '민주화투쟁실천주간'이 선포되어 학교와 교회 등지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시위가 일어났다. 17일부터는 시위대가 가두에 진출하여 대중투쟁을 도모하였고, 18일에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연세대 의대에서 '최루탄추방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가 끝난 뒤 가두 진출에 성공하였으며, 원주역 쪽에서 오던 상지대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합세함으로써 2천여 명의 시위대가 시내 주요도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오후 9시 30분 시청 로타리에서 시국토론회를 열고 '독재타도', '호헌철폐', '연행학우 석방', '공정보도 언론각성'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 곳곳을 행진하였다. 19일에도 대학생들이 학내 집회를 마친 뒤 시내로 진출하여 시민들과 합세하여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시국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 인원이 3천여 명에 달하였다. 20일에도 학생들은 시국토론회를 열었고, 밤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2천여 명이 시내 중심도로를 관통하며 촛불 평화대행진을 하였다. 이때 시위대의 투석으로 KBS, 명륜파출소, 민정당사의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이처럼 6월 하순 내내 원주에서는 학생, 시민, 종교인들의 치열한 민주항쟁이 전개되었고, 26일의 평화대행진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마침내 군부독재는 6·29선언이라는 형식으로 항복하게 되었다.(『원주시사』 현대편, 814-23쪽)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87년 4월 30일 《강원일보》

강원 원주 원동성당에서는 申鉉奉신부(원주 단구동 성당주임신부)등 20명의 사제가 오후 10시부터 각각 단식기도에 들어갔다고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밝혔다.

자료 2) 1987년 6월 11일 《강원일보》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 4백여명은 이날 오후 5시 원주시 일산동 원주의대에서 교내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다 이중 1백여명이 학교를 빠져나와 오후 6시 10분께부터 대회장인 원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원주 MBC앞 원일로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찰의 최루탄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맞서다 강력한 제지로 흩어진 학생들은 오후 7시께 일산동 사무실앞과 시립도서관앞에서 시위를 하다 원동고개를 넘어 남부시장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한때 5백여명으로 불어났던 시위대는 밤11시40분께까지 「호헌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석전을 벌이다 천주교 원주교구 최기식 김승오 신부의 설득으로 해산했다.

▲상지대생 2백여명도 「호헌철폐」 등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6.10대

회장인 원동성당에는 1백여명의 정사복 경찰관이 배치돼 출입을 봉쇄해 대회를 열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원동성당에 들어가려던 이항후씨(23,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등 4명을 연행했다.

자료 3) 1987년 6월 12일 《강원일보》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 2백여명은 11일 오후 1시께부터 원주의대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학생들은 오후 4시께 가두진출을 시도,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다 오후 6시께 해산했다.

자료 4) 1987년 6월 17일 《강원일보》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 3백여 명은 16일 오후 4시부터 호헌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진출을 시도, 제지하는 경찰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밤 8시께 해산했다. 이날 경찰이 쏜 최루가스가 대학캠퍼스와 인접해 있는 원주기독병원 구관 입원실에 날아들어 환자들이 재채기를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자료 5) 1987년 6월 18일 《강원일보》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 4백여명은 17일 오후 3시께부터 원주기독병원앞 3개 간선도로에서 호헌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치중인 경찰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밤9시께 자진해산했다. 시위학생중 30명은 원주의대 강의실에서 철야농성을 했다.

자료 6) 1987년 6월 23일 《강원일보》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 5백여명과 시민 1천5백여명은 22일 오후 5시부터 「호헌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밤늦게까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학생과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하는 동안 시청로터리부터 군청앞까지 2차선 도로의 교통이 완전차단 됐으며 도로변 상가도 철시했다. 학생들은 오후 3시 연세대 일산캠퍼스 아카시아숲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오후 5시 캠퍼스로부터 3백m쯤 떨어진 원일로 중소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구호만 외치는 등 비폭력시위를 했으나 시위대가 2천여명으로 불어나 경찰이 해산경고방송을 한 뒤 오후 8시 25분께 다탄두 최루탄(일명 지랄탄)을 쏘자 과격시위로 돌변했다. 최루탄 발사로 흩어졌던 학생들은 캠퍼스에 다시 모여 경찰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맞서다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간선도로에 진출한 학생과 시민 등 3백여명은 밤(판독 불능)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원주의대 문리경법대 보건과학대학은 22일부터 기말고사를 치르기로 했으나 학생들의 거부로 치러지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시위에 참가했던 대학생 49명 고교생 8명 회사원 8명 등 1백5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초중고교원32명 시국성명 발표, 도내 초중고 교사32명은 22일 「현시국과 교육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고 “현재 교육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4.13호헌조치 당위성에 대한 교직원 연수 및 계도 활동은 교육을 정치도구화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성명은 4.13조치의 철회와 정치민주화의 선언과 관련한 교사의 불이익처분원상복귀 등 4개항을 촉구했다. 서명교사는 다음과 같다. 원영만, 한연숙, 오중현, 박순남, 김경호, 박병준, 정종렬, 곽대순, 김경림, 김광수, 김순봉, 김선연, 김현숙, 김홍영, (이하 판독불능)

자료 7) 1987년 6월 24일 《강원일보》, 원주도심 또 격렬시위, 성당안에 최루탄 발사 항의 철야농성

연세대 원주캠퍼스학생 4백여명은 23일에도 원주시내 중심가에서 최루탄을 쏘며 제지하는 경찰에 돌과 화염병으로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이중 2백63명은 원동성당안으로 들어가 철야농성을 벌였다. 또 안승길 신부를 비롯한 가톨릭 신자 2백명은 이날밤 경찰이 농성중이던 학생들에게 성당안에 최루탄을 발사한 것에 항의, 촛불 가두시위를 벌인 뒤, 나상극 원주경찰서장의 사과를 받고 성당으로 돌아가 자정께 해산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지난 22일과 23일의 시위 때 연행된 학생 시민 등 1백15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24일 오전 현재 1백60여명이 성당안에서 계속 농성중이다. 연세대 원주의대 본과 3,4학년 학생 1백여명은 23일 오후 4시 흰가운을 입고 시청앞 광장과 중소기업은행앞 도로까지 진출, 「호헌철폐」, 「연행학생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어 원주캠퍼스 학생 4백여명도 시청앞광장 - 남부시장에 이르는 원일로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자 오후 7시께 1백여명이 원동성당으로 들어갔으며 학생수는 2백63명(학생발표)으로 늘어났다. 경찰이 시위학생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쏜 최루탄 7발이 성당마당에 떨어지자 안승길 주임신부와 신현봉 박순길 신부 등은 즉각 신자들을 소집, 기도회를 가진 뒤 밤 10시 10분께 2백여명의 신자들과 함께 성당정문에서 1백m앞까지 나와 촛불시위를 벌였다. 성가와 묵주기도를 하던 신자들은 나상극서장이 성당에 최루탄을 쏜 것을 공개사과하자 성당으로 되돌아가 24일 밤8시 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해산했다. 이날밤 경찰의 최루탄 발사로 거리로 흩어졌던 학생들은 자유시장 간선도로에서 산발시위를 벌이자 밤8시25분께는 일산동파출소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유리창 5장이 깨졌으며 KBS원주방송국 유리 14장도 깨졌다. 이에 앞서 오후 4시45분께는 일산동 원주기독병원앞에서 학생들의 동향을 살피던 원주경찰서 이모 경위(48)가 시위학생들에 의해 캠퍼스 안으로 끌려갔다 2시간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자료 8) 1987년 6월 25일 《강원일보》, 농성 사흘째 계속,

천주교 원주교구 소속 신부 수녀 신자 등 6백여명과 개신교회 목사 신자 등 4백여명은 24일밤 「나라를 위한 기도회」와 「6.25기념예배」를 각각 가진 뒤 원주 시내 중심가에서 촛불과 횃불 행진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 23일밤부터 원동성당에서 이틀째 철야농성을 벌인 대학생 1백여명은 연행학생석방 6.10대회 이후 구속자 및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귀가후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25일 오전 현재 계속 농성중이다. 천주교 원주교구 사제단은 24일 밤8시 원동성당에서 수녀 신자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인 신부 집전으로 미사를 올린 뒤 십자가와 「살상무기 최루탄을 이땅에서 추방하자」, 「호헌철폐」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로 나와 촛불시위를 벌였다. 신자들은 남

부시장 - 중앙로 -원인동로터리 - 원동성당까지 1km를 행진한 뒤 밤10시35분께 자진해산했다.

원주기독교연합회도 이날 밤 8시30분부터 개운동 영강교회(목사=서재일)에서 원주지방 개신교 목회자 및 신도 7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6.25 37주년 연합예배를 가졌다. 기념예배에서 고영근 목사(목민선교회장)은 「기독교는 정의의 종교이므로 불의에 항거해야 하며 평화를 찾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예배를 마친 목회자와 신도 4백여명은 밤11시께부터 「호헌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진출했는데 교회에서 7백m 떨어진 교동국교 입구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자진해산했다. 한편 원주경찰서는 지난 22일 가두시위와 관련, 연행했던 1백5명중 적극 가담자인 대학생 4명과 일반인 1명 등 5명을 즉시에 넘기고 나머지 1백명은 훈방했다. 춘천 명동입구 원주시청광장 평화대행진 집결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24일 26일로 예정된 「국민평화대행진」 때의 전국 15개 도시의 집결예정지를 발표했다.

자료 9) 1987년 6월 26일 《강원일보》, 농성풀고 귀가 안전귀가 보장받은 1백여명, 지난 23일부터 천주교 원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온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과 상지대생 1백여명은 25일밤 경찰로부터 안전귀가를 보장받고 3일만에 농성을 풀었다. 「호헌철폐」 「연행학생석방」 등을 요구하며 원동성당 교리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여온 학생들은 이날 오후 23일 시위 때 연행됐던 학생 10명이 전원 훈방되는데 이어 안승길 신부가 「농성학생들의 안전귀가를 보장하겠다」는 나상극 원주경찰서장의 확인서를 받아오자 밤9시 경찰이 준비한 버스 23대를 나눠타고 학교로 돌아가 해산했다. 이날 안승길 신부와 김승오 신부는 학생들의 버스에 동승해 귀가를 도왔다. 이에 앞서 농성학생들은 이날 오전 10시 「민주화토론회」를 가진 후 성당앞을 지나는 행인과 차량에 26일 평화대행진에 참가를 원하는 유인물을 나눠줬다. 한편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2백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일산동캠퍼스 아카시아숲에서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민주화토론회를 가졌다.

자료 10) 1987년 6월 27일 《강원일보》, 춘천 원주 가두시위, 춘천 원주 등 도내에서 계획됐던 「6.26국민평화대행진」은 경찰의 강력한 저지로 무산되자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대학생과 시민 등 시위대들은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밀려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시위를 벌였다. 춘천에서는 1백여명이 명동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투석전을 하면서 경찰 오토바이 1대를 불태웠다.

원주에서는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상지대생 시민 등 1천5백여명이 중앙시장앞 원일로를 점거,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로 해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시위를 벌이던 학생 등 73명을 연행했다. 원주 원주시청앞 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평화대행진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열리지 못했으나 학생 시민 등 1천여명은 시내 곳곳에서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밤 시위로 서청광장부터 일산동사무소앞 로터리까지의 원일로는 교통이 완전 차단됐으며 도로변상가도 모두 철시했다. 오후 6시 15분 경찰의 삼

엄한 경비속에 연세대 캠퍼스 학생과 상지대생 시민 등 3백여명은 일산동사무소앞 로터리에서 「평화행진 보장하라」 「민주헌법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시위에 나섰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학생과 시민들이 계속 늘어 시위대는 한때 1천여명으로 늘어났다. 김승오 신부와 개신교 목사 등 6명이 앞장선 시위대는 경찰을 밀고 1백m 떨어진 원성군농협앞까지 진출한 뒤 대회장소인 시청앞 광장으로 가려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자 연좌시위에 들어갔다. 오후 8시 15분께 일부 학생들이 경찰의 제지선을 뚫으려 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분산시켰으며 1백여명의 학생들은 연세대 일산 캠퍼스로 들어가 돌과 화염병을 던졌다. 또 자유시장과 중앙시장 간선도로에서 시위를 하던 1백여명의 학생과 연도의 시민들도 「최루탄을 쏘지마」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등 밤 11시께까지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다 해산했다. 밤9시40분께는 중앙동 농협앞 변압기 부근 전선에 불이 붙어 10시 15분까지 35분 동안 중앙동 일산동 일원이 정전되기도 했는데 한전측은 「전선에 휘발성 인화물질이 붙어 정전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수암감리교회 신현철 목사(39)와 장로, 가톨릭 농민회원 6명을 연행했다가 시위가 끝나자 풀어줬으며 대학생 21명 등 35명은 연행 조사중이다. 이날 시위를 진압하던 원주경찰서소속 이용해의경(22) 등 3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춘천 일부 종교계와 재야에서 26일 오후 6시 춘천 명동 입구에서 개최하려던 「민주헌법쟁취국민평화대행진」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열리지 못했으나 학생 재야인사 등 1백여명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밤11시20분까지 산발적인 가두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대회 1시간전부터 명동입구에 전경들로 「인의장막」을 설치했고 6백여명의 정사복 경찰관을 동원, 대회를 원천봉쇄했다. 오후 6시10분께 조양동 신용보증기금 춘천지점 옆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NCC춘천인권선교위원회 회원 13명이 차도를 따라 1백50m가량 행진, 명동이부로 진출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강제해산됐다. 이와는 별도로 오후 6시15분께 학생 민통련 회원 등 1백여명은 운교로터리에 집결,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다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이때부터 시위대는 쫓기면서 「숨바꼭질시위」를 계속 벌였다. 경찰은 이날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대에 맞섰으나 최루탄을 쏘지 않았다. 학생 시위대는 오후 7시20분께 팔호광장, 오후 9시40분께 한국투신 춘천지점 앞, 오후 10시께 팔호광장에서 한때 1백50여명으로 시위대가 늘어났으나 밤11시20분께 경찰의 저지로 자진해산했다. 학생 등 시위대는 이날밤 9시51분께 중앙로에서 경찰 사이카 1대를 불질렀다. 이날 시위로 경찰관 1명이 부상했으며, 경찰은 모두 38명(여자 3명 포함)을 연행했으나 27일 새벽3시께 9명을 훈방했다.

자료 11) 1987년 7월 7일 《강원일보》, 연대 원주캠퍼스 분향소 설치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 70명은 6일 오후 3시 일산캠퍼스 아카시아숲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최루탄 부상으로 숨진 이한열군(경영2)을 애도하며 시국토론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학생들은 원주의대 현관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숨진 이군을 추모했다.

자료 12) 1987년 7월 9일 《강원일보》

원주지역 대학생연합회는 9일 오전 11시 연세대 일산캠퍼스 농구장에서 「애국학생 고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을 지냈다. 이날 장례식에는 5.3인천사건으로 구속됐다 출감한 민통련 부의장 이창복(49) 부천성고문사건의 권양(23)과 김승오 신부 재야인사 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어 학생들은 이군의 빈관을 앞세우고 원일로-평원로-역전광장-시청로터리까지 행진했다. 이에 앞서 학생 70여명은 8일 오후 4시 연세대 일산캠퍼스 아카시아숲에서 빙상학생총회를 열고 원주의대 강의실에 철야추모회를 가졌다.

자료 13) 1987년 7월 10일 《강원일보》

원주 「고이한열군추모미사」가 9일 밤8시 가톨릭원주교구 원동성당에서 안승길 신부 집전으로 신부 신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추모미사에서는 시인 고은씨의 조시를 대학생이 낭독한데 이어 배은하신부(제천 남천동성당)의 강론이 있었다. 배 신부는 「이군의 죽음은 이 시대의 비극을 집약시킨 핵불」이라며 「폭력이 이 땅에 판쳐서는 안되는 것을 깨우쳤다」고 말했다. 미사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최루탄추방 서명운동을 벌였다. 원주 2백여명 이군 추도행진, 연세대 일산캠퍼스 농구장에서 9일 오전11시부터 열린 「고 이한열 열사민주국민장」 발인식부터 추모행진까지 4시간 동안 경찰의 제지없이 평온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참석한 민통련 부의장 이창복씨는 대표분향과 추도사를, 성고문사건의 권양은 대표분향을 했는데 발인식이 끝나고 추모행진이 시작되자 자리를 뒀다. 대형태극기와 만장 조기를 앞세우고 이군의 빈관을 멘 2백여명의 추모행렬은 낮12시부터 오후3시까지 원일로- 평원로 - 시청광장-일산캠퍼스 아카시아숲에 이르기까지 행진을 했다. 장례행진이 시가지를 지나는 동안 연도의 시민들은 젊은이의 죽음을 애도했다.

한편 이날 발인식에서는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협의회 원주지역선교협의회 이름으로 「비인간적 폭력경찰의 퇴진을 촉구하며 원주시민의 서명운동에 드리는 글」이란 성명서가 발표됐다.

53. 춘천지역 6월 민주대항쟁

발생일 : 1987년 6월

관련 일지 :

- 1987년 6.10-춘천 죽림동 성당 에서 신부 등 50여명이 미사 후 성명성낭독하고 가두진출을 감행하였고 20여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강원대 학생들은 시내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정문에서 저지되고 학생회간부 ‘독재타도’ 혈서를 씀
- 6.12 강원대생 1000여명 교내 시위 후 핵불 시위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다가 오후 11시 30경 해산
- 6.18 강원대. 한림대생 3000여명 8호 광장, 윤교동 로터리, 명동,도청 앞 광장 등에서 산발시위를 비폭력으로 진행 되다가 오후11시 투석전으로 변함 경찰장비30여점

탈취 소각

- 6.19 오전 11시경 강원대생 2000여명 비상총회 개최 후 학내시위 하다가 오후3시경 해산 후 1만 여 명의 학생,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거리에서 6시부터 새벽2시경 까지 시위 계속
- 6.20 강원대, 한림대생 1000여명 밤늦게 까지 격렬 시위
- 6.26 명동입구에서 개최하려던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이 봉쇄되자 오후11시 20분까지 시내곳곳에서 산발시위
시위대 중앙로에서 경찰 사이카 1대 불지름
- 6.27 경찰의 원천봉쇄로 윤교 로타리 팔호광장 으로 갔다가 터미널에서 격렬한 시위

배경과 내용 :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고문·살인·사기정권의 장기집권을 음모 분쇄하자!

61년간 오늘은 우리의 선열들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거부하는 처절한 투쟁을 전개했던 6.10만세사건을 일으킴으로써 민족해방 운동의 금자탑을 쌓은 날입니다. 과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선열들께 부끄럽게도 조국을 두 동강 내놓고 억압과 수탈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은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을 용공·좌경으로 몰아 구속을 시키고 모진 고문을 가하여 급기야 젊은 대학생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있으며 그 사건 조차도 권력의 상층부가 개입하여 축소조작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출발한 정권은 그 거짓을 막기 위해 더 큰 거짓을 범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도 뻔뻔스러운 군사독재 정권은 민주개헌을 하지 않고 현행헌법으로 계속 장기집권을 꾀하고 있습니다.

1. 폭력과 기만은 군사독재 정권의 본질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은 80년 5월 온 국민의 영화와 같은 민주화 의지를 짓밟고 2000여 광주 민중의 피를 군화 발에 적신 채 들어선 정권입니다. 이들은 일말의 정통성도 정당성도 지니지 못하고 외세와 매판재벌에 빌붙어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온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폭력과 기만적 술책으로 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고 박 종철군의 고문치사와 사건 은폐조작 사건은 바로 현 정권의 폭력성과 기만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친성고문사건, 김 근태, 사노련, M.L.당 서간 관계자에 가한 고문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문이 현 정권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이를 은폐해 왔습니다. 이것은 현 군사독재 권력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폭력과 기만 뿐 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 폭력과 기만의 정권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만적인 폭력과 기만에 찬 군사독재정권은 미국과 매판재벌을 등에 업고

88올림픽의 성공적 수행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민주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신 호 헌 론」 4.13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야당을 분열시키고 탄압을 하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잔인한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민주화 의지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대대손손 누리겠다는 음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직자를 비롯한 문인, 교수, 언론인, 민주화 운동단체, 학생들의 호헌철폐, 민주헌법 쟁취투쟁은 전국적으로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그 흐름이 한군데로 모아져 5.27마침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기에 이르렀으며 현 정권은 점점 고립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3. 국민의 힘만이 민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우리는 주위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여 왔습니까? 젊디 젊은 박 종철 군이 보진 고문 끝에 차디찬 시체가 되어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사건 조차 권력에 의해 은폐, 조작 되었다는 것을 접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러한 폭력정권이 우리를 억누르고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불의에 대한 침묵은 불의에 대한 방조요, 반민주적 정권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국민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화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민주헌법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4.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민주헌법 쟁취하고 민주정부 수립합시다.

강원도민 여러분! 올해는 이 나라가 민주화를 이루느냐, 아니면 억압과 수탈 속에서 또 오랫동안 고통을 받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한 광산 노동자들의 선진적인 투쟁과 농민 대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기반으로 지난 6.4 원주에서 강원도내 신·구교 성직자, 민주화운동가, 시민들이 참여하여 민주헌법쟁취 강원도민 운동본부를 결성하였으며 앞으로 강원지역에서 민주화를 위하여 혼신의 힘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민주화는 결코 몇몇 양심 있는 분과 민주화 운동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분의 참여와 단결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민주헌법쟁취 강원도민운동본부는 강원도민 여러분의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하며 민주화의 그날까지 열심히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 더 이상 안속겠다 거짓정권 물러나라
-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 행동하는 국민속에 박종철은 부활한다
- 국민합의 배신하는 호헌주장 철회하라
- 강원도민 단결하여 민주헌법 쟁취하자

1987.. 6. 10

민주헌법쟁취 강원도민운동본부

54. 강원대·한림대·춘천교대생들, 군정종식투쟁

발생일 : 1987년 8월-12월

관련 일지 :

1987년 8월19일 전대협 출범식 참가 (충남대학교), 강대협 소속으로 강대생 88명 참가

8월28일 고 이 석규 민주노동열사 추모제 및 군부독재종식을 위한 규탄대회 2백 여 명 학생참석

9월3일 미래광장에서 학원민주화쟁취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덕)를 결성

9월11일 강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강대협) 발대식. 강원지역 대학생 700여 명 참석. 이날 성명에서 미제축출, 군부독재의 완전종식, 민족통일의 과업에 적극 참여 하며 노동자들과 연계투쟁 강화, 학내 비민주적요소척결을 위한 투쟁을 벌인 것을 발표. 이날 5백여 명의 학생들은 독재타도, 미제 축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후문 진출시도했으나 경찰의 최루탄 발사에 맞서 화염병과 투석전을 벌였다.

11월4일 광주사태 원흉처단 및 거국중립내각쟁취를 위한 춘천시민결의대회 개최

-강원대학교 총학생회,강원민통련,춘천기독교청년협의회주최

11월17일 [군정종식과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춘천시민공동위원회(위원장 하 광윤. 강원 민통련 상임위원)창립대회

12월3일 군정종식 후보단일화쟁취 춘천지역 대학생취진위원회 결성
위원장이강일(강대 철학3 휴학) 선출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학생 1백여 명이 모여 발대식 가짐

12월18일-19일[부정선거규탄 춘천시민궐기대회]개최하고 격렬한 시위 벌임

12월21일 강원대학교 미래의 광장에서 [12.16부정선거제3차 규탄대회] 개최, 학생 120명 참가. [현 정권은 반민족적정권유지책을 획책 하고 있다]고 성명발표 미국규탄. 차기 총학생회는 신입생 에게 드리는 글 배포

1987년 강원 춘천의 돼지감자 피해보상시위

1988년 4월27일 춘천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반대시위가 400여명이 모인가운데 열림

배경과 내용 :

1987년 8월15일 강원지역대학생 대표자협의회(회장 이진기 강원대총학생회장)는 춘천지구대학생대표자협의회 발대식을 춘천시청 앞에서 갖고 4박5일간의 백민학도 통일 대장정에 올랐다 1987년 11월 17일에는 [군정종식과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춘천시민공동위원회(위원장 하 광윤. 강원 민통련 상임위원)창립대회 및 광주학살 원흉 전 두환 춘천방문저지대회가 강원대학교 미래의 광장에서 4백여 명 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창립성명서에서 이 시대에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참혹하게 유린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을 위해 군정종식과 공명선

거보장을 위한 춘천시민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비타협적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힘

관련 인물 : 하광윤, 권오덕, 이강일, 이진기

관련 단체 : 강대협

관련 자료 :

55. 연세대·상지대생들, 군정종식투쟁

발생일 : 1987년 11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비록 6·29선언이 나왔을지라도, 군부독재가 붕괴되고, 민주화가 실현되지는 않았으므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해서 각 부분에서 민주화의 요구가 터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종식을 외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1987년 11월 26일 《강원일보》 원주 대학생들 3백여명 시위,
원주지역 대학생 3백여명이 25일 오후1시부터 상지대학 정문에 모여 군정 종식 등 4개항을 요구하며 가두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로 오후 4시께 해산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화염병 1백여개와 투석으로 대치중인 경찰과 맞서며 가두진출을 시도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 해산시켰다.

자료 2) 1987년 11월 27일 《강원일보》 원주 대학생 이틀째 시위,
연세대 상지대 등 원주지역 대학생 3백여명은 26일 오후 4시30분 연세대 일산 캠퍼스에서 군정종식거국내각쟁취결성대회를 갖고 오후 5시30분부터 가두진출을 시도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하다 경찰의 제지로 해산했다. 이날 시위에서 학생들은 교문앞 2백m까지 진출, 1백여개의 화염병을 던졌으며 경찰은 다발탄 등 최루탄을 쏘아 해산시켰

다.

56.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황성지부 결성

발생일 : 1987년 9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황성지역에서도 1987년 9월 황성 천주교회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박영록 공동의장 등 1백 30여명이 모여 황성지부를 결성하였다.

관련 인물 : 박영록, 황환신

관련 단체 :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관련 자료 :

자료 1) 1987년 9월 15일 《강원일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황성지부 결성대회가 14일 오후 3시 황성 천주교회에서 국민운동본부 박영록 공동의장을 비롯 재야인사 등 1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결성대회는 민주헌법쟁취 선언문과 결의문 채택에 이어 지난 12일 결성대회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 황환신 공동대표 등 4명에 대한 인문과 고문 3명을 선출했다. 2부 행사로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 초청 「민주화를 국민의 힘으로」라는 강연이 있었다. 3부행사는 마당놀이 「밥」이 황성성당 마당에서 펼쳐졌다.

57. 강원대 총학생회장 구속 관련 투쟁 등

발생일 : 1988년 1월-4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88년1월28일 88년 총학생회장 신 동화는 총학생회 수련회중 주체사상등 유인물 20종을 배포한 혐의로 연행되고 2월6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3월10일

총학생회장 구출 및 투쟁방향 설정을 위한 제1차 비상학생총회가 강원대 미래광장에서 1백 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4월7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신 동화 1차 공판 -1백 여 명의 학생들이 법정에서 가담하였고 신동화는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민족의 자주,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애국 백령인 과 함께 투쟁 할 것이다 라고 밝힘. 5월13일 구형공판에서 국가보안법, 폭력법위반으로 3년10월형 구형 6월2일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6개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선고 결과에 따라 현 총학생회는 6월23일 해체하고 6월16일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9월15일 보궐선거에서 단선된 21대 총학생회 발대식. 9월28일 20대 총학생회장 신 동화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1989. 3월30일 제20대총학생회 및 9개 단과대학 출범식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제20대 전투적 총학생회 발대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학우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등의 성명을 발표하고 1천 여 명의 학생들이 부정선거집권 노태우를 처단하자. 수입개방 요구하는 미국을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후문 앞으로 진출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들과 맞서 투석전과 화염병 등으로 2 시간가량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1988년4월7일 강원대학교 민중의 당 추진위원회 결성(위원장 하창수 정외3)

-[민중스스로가 주인 이 되는 시대의 개막]의 기치로 출범

강원대학교 미래의 광장에서 3백 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식이 치루어 졌으며 이날 부천서 성고문조작사건의 권익숙의 초청강연도 함께 이루어 졌다.

1988년4월14일 학살원흉퇴진 및 애국인사 당선을 위한 [강원대학교 총선대책위원회]가 1백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의 광장에서 열렸다. 김 동균 총대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의 분열을 극복하고 반 노태우, 반 민정당 투쟁으로 뭉쳐 군부독재를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

**1988년4월27일 반미청년회 선전국 명의의 kal기 관련 대자보가 강원대학교 1,2 학생 회관 앞 게시판 게재. 대자보 게시 혐의로 구속된 방 용익(무역3) 군의 법정투쟁에 학생 1백 여 명이 참석하여 방청을 지켜보았으며 방 용익은 최후진술에서 KAL기 폭파 사건이 조작이다 아니라는 본인이나 검찰이 판단 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과 역사가 증언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인물 : 신동화, 하창수, 김동균, 방용익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59. 강원대·한림대생, 전방입소 거부투쟁

발생일 : 1988년 5월-6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88년5월2일부터 총학생회와 9개단대학생회 대자보통해 전방입소 교육은[전방입소는 현정권의 정당성 획득을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군부독재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전방입소 거부결의

-전방입소 거부투쟁의 일환으로 5월13일-14일 광주 망월동 묘지 참배투쟁을 벌였다.

88년5월10일 전방입소 대책위원회 결성(이하(전대위)위원장 장일만 총학생회 사회부장)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전방입소는 통일이 국시이어야 할 이 땅에 분단의식을 강요 하는 처사]라고 주장

-발대식후 학생들은 후문진출을 시도하였으며 다수의 학생이 부상을 있었고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88년5월16일 전대위는 오전6시부터 정문과 후문을 봉쇄하고 수송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나 수송버스가 공설운동장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천 여 명의 학생들이 공설운동장을 향하려고 정문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자 돌과 화염병을 들고 격렬하게 시위를 전개하였다.

9시30분 수송버스가 학생들을 싣고 공설운동장을 출발하려 하자 유성일(법학2)군이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스탠드 난간에 올라가[양키옹병교육인 전방입소를 거부하고 단결하자]며 분신을 기도했다. 이에 학교 측은 다시 조달청 앞에 차를 세우고 다시 학생들을 전방입소를 시키기 시작, 경영대와 사범대 학생들이 먼저 전방입소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김 태섭(정치4)등 3명의 학생이 분신을 시도했다. 전대위는 학생들이 전방입소를 한 것은 학교 측과 학도호국단의 술책이라며 수업과의 집기를 들어내며 2시간여를 농성하였다. 학생들은 오후5시 집회와 토론을 거친 후 전방입소 시작했다. 이날 전방입소 거부자는 148명이었다.

1988년5월17일 한림대학교 광정에서 강대협 주최 강원지역4만학도5월항쟁 연합추모 및 실천대회개최 이날 집회에 강원지역8개대학 5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투쟁하자!4만학도여!오월의 함성으로 조국통일 그날까지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투쟁하였다. 이날 시위도중 강원대생 송영석군이 경찰이 던진돌에 맞아 부상을 당하였다.

1988년 6월8일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강원대학교 도서관앞에서 3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조통특위 부위원장 손승렬은 이광희 6.10남북학생회담 강원지역 대표이며 강원대학교 조통특위 위원장은 결의문에서 [남북학생회담은 결코 낭만일수없으며 절대절명의 과제이자 전민족적 요구라고 주

장하고 어떠한 방해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기어이 조국통일의 신기원을 열어갈 것이라 밝혔다. 6월10일 남북청년학생회담 무산 강원대생10명 연행되었으나 전원 풀려남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59. 춘대협, 전두환·이순자 구속투쟁

발생일 : 1988년 9월-10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88년 8월25일 총학생회회의 방학 중 사업보고 및 고 성 완희 열사 49제와 전 두 환. 이 순자 구속수사촉구 실천대회가 도서관 앞에서 2백 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학생시위는 전 두환. 이 순자를 즉각 구속하라. 5공 비리 비호하는 노태우를 처단하자 등의 요구를 내걸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로 4명의 학생이 연행되었다. 9월8일 춘천지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연합 진군제 및 전 두환. 이 순자 구속을 위한 촉구대회 강원대학교 민주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춘천지역 대학생 5 백 여 명이 참여한 이날 시위는 전 두환 이 순자 구속촉구와 분단올림픽 결사반대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전개과정: 9월11일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주최로 [초청강연 및 양심수 석방촉구 결의 대회] 2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0월11일 [양심수 전원석방과 전 두환 ,이 순자 구속처단 및 분단의 원흉, 통일의 적 미 제국주의 축출을 위한 투쟁위원회] 결성식이 7백 여 명의 학생들이 강원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있었다. 이날 결성식과 함께 양심수 석방 촉구대회도 함께 치러졌다. 위원장인 손 승렬(사회3)은 투쟁선언문에서 4천만 남한민중의 피와 땀을 강탈한 전 두환 이 순자는 지금도 남단을 활보하고 있고 자유와 민주를 외치던 수많은 양심수는 아직도 차가운 골방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순으로 얼룩진 반도의 남단에서 자유롭게 사랑하며 진정한 참 세상 자유를 얻기 위해 7천만 한민족이 하나 되어 반미의 깃발 높이 휘날리며 반미자주, 반독재 민족해방의 성스러운 투쟁에 힘차게 나가자’ 주장

10월11일,20일,27일 [양심수 전원석방과 전 두환 이 순자 구속처단 및 분단의 원흉, 통일의 적 미 제국주의 축출을 위한 투쟁위원회]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전 두환 이 순자 구속투쟁 및 분단의 원흉 미 제국주의 축출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11월3일 [학생의 날 50주년 기념식 및 전 두환. 이순자생포를 위한 백령인 총궐기대회]가 강원대학교 미래의 광장에서 5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이날 총학생회 부회장 최 형식과 인사대 학생회장 이호 가 삭발을 했으며 9개단체 학생회장들은[구속 전 두환, 처단 노 태우]혈서를 썼다. 이날 학생들은 강원대 후문 앞과 춘천시내 명동일대에서 처단 노태우 구속 전 두환 을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11월4,5일 [전 두환. 이 순자 구속처단을 위한 백령인 2차,3차 궐기대회] 4일과 5일 투쟁에서 많은 학생들이 삭발과 단식, 혈서등 극한적인 투쟁들로 투쟁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양심수 전원석방과 전 두환 이 순자 구속처단 및 분단의 원흉, 통일의 적 미 제국주의 축출을 위한 투쟁위원회]위원장 손 승렬 등 4명의 강원대생 들이 민정당 이 민섭 국회의원 점거농성 시도하다가 구속되었다. 구속자는 손 승렬, 변 창용, 김진욱,이호 4명이다.

1989년.1.31 강원농민운동 연합 춘성군 협의회 소속 농민 300여명이 의료보험료 납부 거부 면대회진행, 고지서 수거 소각함. 1989년 2월25일 [5공비리 광주학살민중생존권 탄압자 노태우,부시 규탄대회]가 춘천 민족민주운동 연합춘천준비위원회(위원장 유남선 가톨릭농민회 중앙위 의장)에서 주최로 강원대학교 백령회의관에서 시민 학생 3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노 태우는 분명 5공 비리,광주학살의 주범 이며, 민중생존 탄압자 전두환과 공범이라고 전제하고 노태우 정권의 본성을 낱알이 벗겨내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 했다.

관련 인물 : 손승렬, 유남선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60. 강원농민운동연합 발족

발생일 : 1989년 3월 3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89년 3월3일 강원농민운동연합(의장.엄동익. 횡성군 농민회장)결성식 및 89년 영농 발대식이 6개 군 3개 단체 농민을 비롯 학생, 시민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대학교 백령회의관에서 열렸다 이날 결성 선언문에서[강원농민들의 권익신장과 농민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이 땅 1천만 농민의 해방을 위해 총진군]할 것을 다짐했다.

관련 인물 : 엄동익

관련 단체 : 강원농민운동연합

관련 자료 :

61. 강원교사협의회 결성

발생일 : 1987년 9월 12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민주화의 열기는 초·중등교육계에도 확산되었다. 1987년 9월 12일 가톨릭센터에서는 교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원성교사협의회(회장 백문식, 원주여고)가 출범하였다. 19일에는 민주교육추진 강원교사협의회가 교육행정당국과 경찰당국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150여 명의 교사가 모여 원주 천주교 교육원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장으로 황시백교사(고성고)를 선출하였고, 교육의 민주화와 교사의 기본권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단위학교에서도 교사협의회가 속속 결성되어 원주여고 38명, 대성고 25명, 복원여고 21명 등이 가입하였다.

관련 인물 : 백문식, 곽대순, 황시백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민주교육추진 강원교사협의회, 강원교사신문, 1987년 10월 20일<1호>

62. A.M.K 노동자 투쟁

발생일 : 1989년 2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문제의 발단은 1989년 1월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서 회사 측의 부당한 최저임금제 실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시작되었다.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와 정확한 최저임금제를 알리기 위해 3층 수퍼룸에서 함께 일하던 성 주애(25), 손 미애(25) 두 사람이 회사 측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반박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2월15일 회사 측은 무단이탈, 명령불복종, 유인물선전선동등의 이유로 해고. 2월16일, 17일 출근투쟁을 통해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며 한편으로 언론에도 호소한다. 2월18일, 노동부에 해고의 부당성을 진정. 2월25일 강원대학교에서 있었던 춘천 민족민주운동연합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집회와 3월3일 강원농민운동연합결성식, 3월10일 근로자의 날 행사 등의 행사에 참가하여 그들의 주장을 알리고 서명, 성금모금 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울타리’라는 친목모임이 주축이 되어[정상적인 최저임금제 관철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한다. 하자만 준비 되지 못하고 급조하여 만든 임대위는 제대로 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회사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끝나버리고 만다. 춘천지역에서 이 투쟁은 노동운동의 맹아라는 의의를 가진 투쟁이었다.

관련 인물 : 성주애, 손미애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63. 김현장 구속사건

발생일 : 1989년 8월 19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부미방사건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김현장씨는 처가가 있는 원주에 거주하면서 민통련 국제국장 맡아 활동하는 등 활발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다시 공안당국의 분노를 사게 되어 결국 구속수감되었다.

관련 인물 : 김현장

관련 단체 : 전민련

관련 자료 :

1989년 8월 20일 《조선일보》

안기부는 19일 수배중인 전민련국제협력국장 金絃獎씨(39)가 일본의 반한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주민주청년회 사무실과 김씨의 집인 원주시 명륜동 세경아파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민련의 팩시밀리를 통해 한민통 등과 남북한범민족대회결성 및 李哲揆군 변사사건 등에 관한 문서를 교환하고 6월 2일에는 한민통 郭동의의장으로부터 17만6천2백엔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지난 6월 29일 전민련 팩시밀리를 이용해 북한측 평측준비위원회가 체코의 프라하에서 전대협앞으로 보낸 전문을 받아 전대협에 넘겨주는 등 林秀卿양의 밀입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64. 이철규 열사 사인규명투쟁

발생일 : 1989년 6월 3-10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89년 5월18일[5.18광주민중항쟁추모 및 계승제와 조선대고 이 철규 열사 고문살인 진상규명 실천대회]가 춘천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주최로 춘천교대에서 춘천지역 대학생 5백여 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광주항쟁 계승하여 노태우정권타도하자][고문살인 자행하는 합수부를 해체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춘천교대부터 터미널까지 평화대행진을 진행하였다. 6월1일 [구속학우 석방 및 고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강원대학교 매래의 광장에서 3백 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고문살인 은폐조작 노태우정권 타도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후문 앞 2백여 미터 앞까지 평화대행진을 진행. 6월3-10일 이 철규 열사 사인규명 촉구 단식농성투쟁. 강원대학교 24명의 학생들이 강원대 민주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이 철규 열사 사인규명 및 구속학우 석방 5공 청산 등의 요구를 가지고 8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6월7일 춘대협이 주최한[민중운동탄압분쇄 및 고 이철규 열사고문살인 은폐조작규탄대회]가 5백 여 명의 춘천지역대학생들이 강원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집회를 가짐 이날 집회는 노태우정권퇴진투쟁에 총궐기하자며 삭발 혈서등 투쟁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있

었으며 경찰들과 대치하여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춘대협

관련 자료 :

65. 평양축전 투쟁

발생일 : 1989년 5월 27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89년5월27일[평양축전준비위원회 위원장 최형식 회계4]구성하였다 축전준비위원회는 현 시기 구구운동의 좌표인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의 범국민적 대중화를 실현시킨다고 목표 아래 준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6월7일 춘대협 축전참가 명단제출 및 축전참가를 위한 춘대협 대표단 발족식 및 고문살인 은폐조작 노태우정권 퇴진 결의대회가 열렸다. 6월9일 2차회담 참가를 위한 춘대협 출정식이 강원대학교 미래의 광장에서 오후1시에 열렸고 이후 상경. 6월10일 서울에서 있는 6.10민중항쟁기념식 및 2차회담 출정식 참가. 6월15일 2차회담 보고대회 및 고문살인 은폐조작 노태우 퇴진촉구대회개최. 6월27일 통일한마당(동대문운동장) 및 축전참가를 위한 춘대협 출정식 오후1시 미래의 광장. 6월30일 축전 출정식 및 환송대회. 7월10일 강대신문에 평양축전을 알리는 글을 게재한 변창용(환경4)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는 문교부의 6.3조치이후 언론탄압과 학생운동탄압의 일환으로 자행된 것이었다. 8월20일 새벽 3시경 강원대학교에 경찰150여명이 난입하여 의해 학교 침탈 당 함-수배자 검거와 2학기 투쟁사업에 대한 일련의 봉쇄조치로서 이루어짐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66. 강원교육운동과 전교조 강원지부 결성

발생일 : 1985년-1992년

관련 일지 :

1985년 1월 18일 : 춘천 YMCA 교육자협의회 창립, 정회원 16명 포함, 강원지역 현직 초·중등 교사 40 여명 참석(회장 곽대순)

1986년 5월 10일 : 교육민주화 선언 참여(서울- 부산-광주- 춘천)

5월 29일 : 강릉중등교사준비위원회 명의로 교육민주화지지선언(이후 전국적인 지지선언으로 확대) 강원지역 32명 선언 참여, 강원도 교육청 선언 교사 견책, 경고 등 징계

1987년 6월 21일 : 강원도내 교사들, 4.13 호헌조치 철폐 요구 시국선언 발표 '현 시국과 교육에 대한 우리의 견해'...초·중등 교사 32명 참여

8월 18일 : 강원지역 교사 대토론회 개최

9월 19일 : 강원교사협의회 창립 (이후 강원도 각 시군 교사협의회 창립) 비교학력고사 철폐, 보충자율학습 폐지 서명운동, 교육법개정 서명운동 및 학교민주화운동 전개

11월 20일: 전국교사협의회 주최 제 1차 '민주교육법 쟁취 전국교사대회' 강원지역 교사 200여명 참가

1988년 12월 20일 : 제 2차 '교육악법 개정 촉구' 전국 교사대회 개최 여의도 광장, 강원지역 교사 300여명 참가, 교육법개정운동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교장선출임기제. 학생자치 활동 보장. 교원의 노동3권 보장), 학교 민주화운동, 사학비리척결 운동, 촛지없애기 운동 등 전개

1989년 2월 19일 : 전교협 대의원대회에서 노조건설 의결

3월 9일 : 국회, 6급 이하 공무원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 인정하는 법 개정안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화 좌절

3월 11일 : 노조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5월 14일 : 노조건설 발기인대회(당국의 봉쇄 속에 강원대 미래광장)

5월 24일 : 강원도교육청 교사 5명 직위해제

5월 28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연세대)

-초대 운영규 위원장, 이부영 수석 부위원장 선출

5월 30일 :전국최초로 흥천 명덕초교 분회건설

6월 8-9일 : 강원지역 10개 지회 동시 결성

6월 11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창립(초대 원영만 지부장 선출), 전교조 결성관련 4명 구속(원영만, 이준연, 김인희, 한명신) 및 5명 파면, 해임

7월 1일 : 문교부 전교조 조합원 전원파면해임 방침으로 1,527명 해직 (강원도 42명 해직)

8월 10일: 전교조탄압저지 및 합법성쟁취를 위한 공동대책기구 결성
 7월 9일 : < 전교조 탄압 저지 제1차 국민대회 > 개최 (여의도 교수부지)
 - 여의도 둔치, 교사 1,800여명 연행(강원 28명 연행)
 7월 26일 : '전교조 사수' 해직교사 명동성당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583명)
 10월 23일 :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국민걷기대회
 1990년 5.11 : 참교육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 강원도 지역 행사
 (원주-사북-태백- 삼척동해-강릉-속초-춘천-홍천경유)
 5월 현직교사 중심으로 <해직교사원상복직추진위원회> 결성
 1991년 10월 15일 : 교원 1만 5천명 초등수업시수경감/교과전담제 실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청원
 1992년 6월 21일: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원상복직을 위한 전국추진위원회(전추위)」
 결성. 10만 교사청원 서명운동으로 강원지역 원희추 위원장 정재욱 해임

배경과 내용 :

1960년 4.19 교원노조가 박정희 군사쿠데타에 의해 와해되고, 1970년대까지는 교육
 운동이 거의 전개되지 못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조직이 창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교사 모임은
 비공개 모임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1982년부터 공개적인 교사들의 조직인 한국
 YMCA 중등 교육자협의회, YMCA사우회, 흥사단 교육문화연구회 등이 창립되어 활동
 을 시작하였다. 강원도의 경우는 1985년 1월에 춘천 Y M C A 교육자협의회가 창립되
 면서 강원교육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86년 5월 10일 서울-부산-광주-춘천을 중심으로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하면서 교사들이 중심이 된 교육운동이 교사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과 사회 각계각층의 사회변화 요구가 분출하면
 서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가 창립되고, 교육법개정투쟁 및 학교 민주화투쟁을 전개하
 면서 교육운동도 대중조직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더욱 발전한 대중조직
 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89년 5월 28일 건설되면서 교사들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변화시키는 주인으로서, 이 땅의 당당한 교육노동자임을 천명하게 된다.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앞두고 노태우 군사정권은 정부의 모
 든 부처 특히 안기부, 검찰, 경찰, 언론기관을 총동원하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노조건설 저지에 총동원되고, 심지어 육성회, 학교 어머니회까지 동원하여 노조결성을
 저지하는데 앞장섰다. 노조탄압에 가장 앞장선 강원도 교육청은 5월 24일 심재경 교육
 감이 직접 노조건설 주도교사 5명을 고발하고 직위해제 시켰다. 다른 시·도 보다도 강
 원도의 경우 탄압이 극심하였다. 해직된 42명의 교사 대부분이 교육감이나 교장에 의
 해 그리고 학교의 사주를 받은 육성회장등에 의해 고발되어 사법처리가 되었다. 특히
 4명이 구속되고, 나머지38명은 모두 불구속되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
 고 강원도 교육청은 전교조 가입교사를 탈퇴시키기 위해 온갖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
 인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목숨을 건 노조사수투쟁이 조
 직되고 노조결성을 지지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투쟁, 학부모 후원단체, 학생들의 지지

등이 결합되어 정권의 탄압을 이겨내고 조직을 사수했다.

1989년8월10일[전교조탄압저지 및 참교육실현을 위한 춘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결성식이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앞에서 있었다.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생회, 민주교수협의회 강원지회등 24개단체 1백여명이 모여 결성식을 치렀고 위원장에 허동선과 집행위원장에 최윤을 선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우리의 잘못된 교육풍토는 비틀린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탄압과 폭력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문교부에 밀길수없다]전제하고 [이에 적극대처와 범시민적확산을 공동대책위를 결성 지속되는 탄압속에서도 교원노조쟁취를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했다.

8월23일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배동인 교수는 전교조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총장 이춘근에게 공개질의를 하였다. 배동인 교수는 공개질의서에서 8월14일자 [노조가입교원에 대한조치]라는 제목의 전교조 가입교수 징계(파면 또는 해임)조치에 대한 문교부장관 공문과 관련 강원대학교서 전교조에 가입한 4명의 교수(박병기,배동인,박사명,배동인,이병천)에게 이춘근 총장이 탈퇴의사여부를 문의한 데 대해 [자율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선된 총장으로서 문교부 장관의 명령, 지시에만 따라야 하는지,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민주화를 실현 해 나갈 수 있는 민주 의식과 비판의식을 갖고 있음을 가시적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한 배동인 교수는 전교조에 대해[전교조는 교원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국민전체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견해를 밝히고 이러한 문제에 관한 전체교수회의 등 토론회 및 대사회적 공청회들을 제안했다.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박정원 교수는 전교조 결성을 반대하는 노태우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칼럼을 보내 줄 것을 상지대학보사 홍석진기자로부터 요청받고, 원고를 써서 보냈으나 학교 측(주간교수와 김귀현 부총장)에서 시의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철회할 것을 종용받았다. 그러나 박정원 교수가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않자, 학교 측은 일방적으로 칼럼을 삭제한 채 학보를 제작하였다. 이에 학보사 기자들이 언론탄압이라며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대부분의 학보사 기자들을 해고하였으며 이후부터 상지대학보의‘교수칼럼’난은 폐지되었다.

1985년과 1986년, 원주 영강교회 서재일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주지역 인권위원회에서는 ‘민주교사 탄압저지와 민주교육 수호를 위한 성명서’등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해직되자 전국최초로 기독교대책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해직교사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8월31일[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교조 사수 결의 대회]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생회와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학생연합 주최로 강원대학교 미래의 광장에서 1백5십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9월5일 강원대학교[전교조 사수와 합법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이 2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곳에서 진행되었다. 이날시위에서 임근태(경영4) 이금선(임산가공2)등이 연행되었다. 9월24일[전교조 탄압저지와 합법성쟁취를 위한 2차 국민대회]가 전교조 강원지부,전교조 탄압저지와 참교육실현을 위한 춘천시민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강원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교수,학생,시민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전교조강원지부, 민교협강원지회, 원주인권위원회, 춘천공대위

관련 자료 :

67. 원주지역노동운동연합 결성

발생일 : 1989년 11월

관련 일지 :

89년 11월 사무국, 조직부, 교육선전부 구성

90년 2월 1일 편집실, 사무국, 조직국으로 개편, 원주지역노동운동연합 명칭 확정

90년 4월 14일 회원 23명 참가 공식 결성(초대의장 김광호, 전 통일문화연구회대표)

배경과 내용 :

1989년의 원주지역 노동운동의 성과와 반성 속에서 원주지역민주청년회, 통일문화연구회, 진보정당결성을 위한 정치연합 원주지부 3개 단체가 새로운 단일조직 건설을 위해 연대하여 본격적인 노동운동 조직이 출범했다.

창립대회 행사(가톨릭센터 메인홀)

강연: 신철영(전국노운협 공동의장)

교양강좌 실시 1강좌: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김영미(전효성물산 노조위원장)

2강좌: 노동법에 대하여

박석운(구로노동인권회관 소장)

3강좌: 최근 노동운동계를 둘러싼 정세 및 과제

박태주(한국노동교육협회 부위원장)

4강좌: 한국경제위기로 어떻게 보는가?

박정원(상지대 교수)

‘원노련신문’발행 등 활동.

관련 인물 : 김광호, 박승욱, 김기봉, 이지원, 김선주, 양형모, 박만식 등

관련 단체 : 원주민주청년회, 통일문화연구회, 진정련, 원노련

관련 자료 :

68. 민족상지 학원자주화투쟁

발생일 : 1987년-1994년

관련 일지 :

- 1987. 6. 10 호헌철폐 독재타도 6월 항쟁 시작, 100명 우산동 사거리 진출
- 6. 18 400여명 집결, 거리 진출, 학생 700여명으로 불어나 시내 진출
- 6. 20 시민들과 함께 시내 집회 계속
- 6. 29 노태우, 6.29 항복선언
- 10. 용공조작진상규명 및 족벌재단 타도를 위한 투쟁위원회 결성
- 1988. 4. 8 망월동 참배 방해사건 발생, 본관 유리창 깨짐
참배 후 주동자 5명 연행 구속됨
- 1988. 2학기 전이구속투쟁, 등록금 동결 투쟁
- 1990. 4-5월 한의학과 단식(실습실, 커리큘럼 개정 등)
생물학과 수업거부, 기획실 점거투쟁, 단식
한약학과 교무과 점거, 화학과 수업거부
자원공학과 총장실 점거, 국문과 철야농성
- 4. 21 한겨레신문, 김문기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개악을 적극적으로 로비 보도.
사립학교법 반대투쟁 전 학과로 확산
경상대 전면 수업거부, 경상·인사·자연대 중간고사 거부
- 5. 1 노동절 학내 행사
- 5. 9 민자당 출범 규탄대회
- 1991. 1학기 상반기 예비대학 투쟁, 총학 총무부장 납치 폭행당함
- 1991. 2학기 자체식당 건설투쟁(이사장 친척이 운영하는 학교식당 국에서 지령이
나옴. 이에 항의, 학생들 학과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자체식당 건설,
강제철거)
- 8. 22 학운위에서 학칙, 방값, 식당 문제제기
- 9. 2 학교식당 폐쇄, 학생들 임시대책위에서 김밥판매
- 90. 6-7 학생들 100여명, 광주망월묘지 참배 및 조선대 방문
- 9. 8 이사장 지역구인 명주양양에서 선전전
- 9. 9 자체식당(천막식당) 건설, 운영
- 10. 4 자체식당 사수투쟁, 식당을 철거하려는 총장 및 교직원들과 몸싸움
- 10. 5 총·부학생회장 제적 등 7인 징계당함
- 10. 6 자체식당 강제철거 됨(새벽 3시 반)
- 10. 14 부당징계철폐와 식당강제철거규탄 투쟁 및 용공조작 규명투쟁 5주기
계승을 위한 민족상지 총궐기대회, 300명 참가
- 10. 21 서울 파고다 가구 앞 및 원주시내 선전전

- 10. 23 '족벌재단의 학칙위반에 대한 징계대회' 개최 1,300명 참가
- 10. 30-31 폭력연행 배후조종·족벌타도와 의장님구출을 위한 민족상지 결의대회' 800여명 참가, 본관 점거 후 집기 들어냄, 본관에 닭똥 뿌림
- 11. 2 민주당 조사단 방문, 전국 국회의원들에게 서신 보냄
- 11. 3 원주 연대회의 결함
- 11. 13 한약학과 삭발, 단식. 물리학과 철야농성
- 11. 27 학원자주화 투쟁본부 설치, 방중 투쟁 결의대회
방학 중 매일 한 학과가 하루를 책임지기로 함
- 1992. 1. 16 총학간부 60여명, 총장실과 기획실 점거
- 2. 9 민자당 창당 2주기 규탄투쟁
- 2. 25 예비대학 개강
- 8. 5 총장 부재중 인사위원회 개최
- 8. 10 박정원 교수 재임용탈락 구두로 통보
- 8. 26 교협 철야농성에 돌입
- 9. 1 총학생회 총장실 점거(본격 재단퇴진 투쟁 돌입)
- 9. 2 학교당국, 31명 무더기 제적 철회
원주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주주의민족통일원주연합에서 박정원교수 재임
용탈락 관련 성명서 원주시내 가두배포
- 11. 18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교수·학생·학부모·지역인사 참가)
학생 2,000여명 집회 후 본관 점거, 수업거부 결의
- 11. 24 원주시내 평화대행진(학생 1,500명 참가)
- 11. 26 700명 상경투쟁, 파고다가구 앞, 명동성당 선전전
- 12. 3 2차 상경투쟁, 세종문화회관 앞 및 명동성당
- 12. 4 교육부, 상지대 이사장과 총장에 경고
- 12. 7 교환실과 전산실 폐쇄
- 12. 29 한의대 학생들, 학교측과 타협
- 1993. 1.3-5 총학생회 임원 수련회
- 2. 15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토론회(영강교회)
- 3. 2 교수 38명 단식투쟁 결의
- 3. 10 총학간부 8명 교수단식지지 단식돌입
- 3. 17 총장실 점거 200일째
- 3. 19 교육 빌미 사학 땅투기(중앙, 동아, 한겨레)
- 3. 20 "김문기의원 우이동 그린벨트 훼손" (중앙)
- 3. 24 김문기 이사장의 땅투기 의혹, 탈법에 의한 부동산 매입 연일 대서특필
- 3. 27 대검찰청에서 학원비리 수사 착수 및 교육부감사 시작
- 3. 29 이사장 검거
- 3. 31 총학생회 출범식, 이사장 구속
- 6. 4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

- 7. 22 교수협의회, 331일간의 철야농성 해제
- 8. 30 김찬국 총장 취임
- 1994. 3. 1 박정원교수 복직
- 1995. 5. 10 김찬국 총장해임사태(교수·학생·직원 총력투쟁 전개)
- 1995. 12. 6 교육부 관선이사진 교체(이상희 이사장 취임)
- 1999. 10.12 제4대 총장 한완상 박사 취임
 - 12.31 교육부, 상지학원 이사진 교체 (문선재 이사장 취임)
- 2000. 10. 2 (재)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설립(교직원 발전기금 자진납부)
- 2001. 3. 3 강만길 총장 취임
- 2002. 1. 1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진 교체 (이돈명 이사장 취임)
 - 12.24 교육인적자원부 상지학원 정이사 승인
- 2004. 1. 1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이사 출범 (변형운 이사장 취임)
- 2005. 1. 1 김성훈 총장 취임

배경과 내용 :

1986년 10월의 용공조작사건 발생 이후 상지대학생들의 학원자주화투쟁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특히 1987년의 6월 민주대혁명 이후 급속히 고양된 학생들의 대학자주화 의식과 조선대, 인천대 등의 학원자주화운동 성공에 고무되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보기 드물게 교수들과 결합하여 마침내 비리재단 퇴진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관련 인물 : 진광장, 박진호, 이주엽, 김태우, 김창환, 조은주, 이영선 등

관련 단체 : 상지대총학생회

관련 자료 :

69. 3당합당 반대 및 민자당 장기집권분쇄투쟁

발생일 : 1990년 3월-5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90년 3월15일[민자당 일당독재 및 장기집권 음모분쇄를 위한 춘천지역 청년학생결 의대회]가 강원대학교 도서관앞에서 춘천시내 대학생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재야단체의 지지성명을 김경림(정교조 강원지부)이 발표하고 이날 발표한 투쟁결의문을 통해[자주민중통일을요구하는 민족.민주세력의 급성장 앞에서 군부독재세력만으로는 지배기간을 유지할 수 없게된 미제를 위시한 노태루정권이 친미보수대연합의 구축으로 이땅 민주화를 차단하고있다]고 하고 [민자당 일당독재음모를 분쇄하고 자주민중통일의 길로 달려 나갈 것을 주장]했다. 3월16일,[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학생연합.위원장 김준연(경제4)]제2대 발대식 및 파쇼대연합분쇄를 위한 백령인 결의대회가 강원대학교 도서관앞에서 1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표한 투쟁선언문에서[파쇼대연합 격파위해 투쟁할것]이라 밝혔다. 4월19일,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산하[민자당 장기집권음모 분쇄를 위한 투쟁본부]구성 하여 반민자당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

5월1일, 노동절 101주년기념으로 민자당 독재음모분쇄 노동운동탄압을 분쇄를 위한 총동맹 휴업투쟁을 전개 하였다. 5월8일, 강원대학교 미래의 광장에서 [민자당장기집권음모분쇄와 민중운동탄압분쇄를 위한 백령인 결의대회가 총학학생회 및 10개단대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5월9일, [민자당 해체, 노정권 퇴진촉구 국민궐기대회]가 춘천지역 국민연합준비위원회의 주최로 강원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학생 시민 및 제 민주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5월18일, [5.18민중항쟁 계승제 및 민자당 장기집권음모 분쇄를 위한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춘천국민연합결성 준비위원회 주최로 강원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70. 강원대 경찰침탈사건 관련 투쟁

발생일 : 1990년 6월

관련 일지 :

1990.6.8 새벽 3시50분경 경찰6개 중대 700여명이 학교에 난입. 학내곳곳을 뒤져 학생51명을 무차별 불법연행.사무용품,동아리용품,개인소집품등 28종 2000여점 물품압수, 850여 만 원의 피해액 발생. [학원침탈 및 연행학우 석방을 위한 총학생회 및 10개단대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구성 총장실 점거농성 돌입. 오후2시[경찰학원난입규탄 및 연행학우구출을 위한 백령인 결의대회]개최. 오후4시 [민자당 일당독재음모분쇄 및 6.10 총궐기를 위한 춘천지역 청년학생전진대회] 가 춘천 지역 대학생 7백 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려 경찰의 학원침탈을 규탄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

6.9 오후2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구사항 밝힘. 요구사항은①학원 침탈에 대한 경찰 측의 공개사과 및 실무자 처벌②학원침탈을 묵인 방조 한학교당국의 공개해명 ③구속학우 전원석방과 피해보상. 오후4시 [백령인 결의 대회]개최. 비상대책 위원회에서는 춘천시민에게 6.8사태를 알리고 ‘민자당 장기독재음모분쇄 하고 민중기본 권쟁취’투쟁에 동참을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 배포.

6.10 오후2시 [백령인 결의대회]개최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무기한 철야농성 결 의.

오후4시, 춘천국민연합준비위원회에서[6.10항쟁 계승 및 민자당독재분쇄를 위한 춘천 시민대회] 개최 국민연합소속 전교조 춘천.춘성지부등 6개단체와 강원대,한림대생들이 참석 가두시위. 6.11 오전11시, 비대위대표 2인, 일반학우1인, 법대. 농대학장이 춘천경찰서에서 서장과 면담. 오후2시, [백령인 총동맹휴업결의를 위한 비상학생 총회 소집] 단대별 집결 후 도서관 앞에 집결 이 춘근 총장과 함께 경찰학원난입에 대한 공개면담 진행. 오후4시 40분 공개면담 진행중 사범대 과학교육과 2년 이미희(인권복지위원회 홍보부장)학생이 천지관 3층 총학생회실 앞 복도에서 온몸에 프랭카드를 감은 채 신나 를 붓고 분신을 기도, 춘천의료원으로 급히 옮겨짐. 이날 이미희 의 유서에는 “...독재 가 판을 치고 학원이 짓밟히는 상황 속 에서도 분노로 떨쳐 일어서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더 이상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 6월투쟁이 87년 6월 투쟁 보다 더욱 거세게 이끌어내자... 라고 절규하였다. 전신54% 3도 화상 사망률 50%의 중태임. 가두시위 후 도서관에서 철야농성 돌입

6.12 오전10시, [전체교수 비상 총회]개최 춘천경찰서와 도경에 항의 방문단 파견키 로 결정.이미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결정. 오후2시, [비상총회]개최 투쟁결의후 6천여명 의 학생들이 분산하여 정문,후문 시내곳곳에서 가두시위 전개, 오후 7시40분, 춘천의료 원에서 치료 중 이던 이미희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 상태악화. 오후11시, 가두투 쟁 끝내고 교내로 집결 철야농성 돌입. 이한열 열사, 김성수 열사, 어머니등 민가협 소 속 어머니 7명이 강대방문. 비대위에서 춘천시민에게 이미희의 분신을 알리고 ‘박살 민 자당, 처단 노태우’투쟁에 시민이 연대 할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 배포. 강원대 교수일 동이“... 대학의 권위와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대학의 자유와 교권을 지키는데 있어서 스스로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 했는지 뼈저린 자성을...총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은 물론 우리 교수들도 앞으로 교권수호와 대학의 자주권 확보를 위하여 확고 한 자세를 가져야”라는 견해 표명.

6.13 오후 2시, [비상학생총회]개최 6천여 학생 참석. 오후4시, 4천 여 명의 학생 명 동가두시위 전개 춘천시민과 연대 1천 여 명 정. 후문시위 전개. 오후11시, 교내 집결 철야농성 돌입.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이미희 사망률 70%, 즉시 중환실로 입 실,치료중 서총련 소속 150여명의 학생들이 호위. 강원대학교 강사일동이 견해 표명“... 정당성,도덕성 결여한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 리 라느 사 실을 현정권은 명심해야...”비대위에서 반민자당 투쟁에 시민이 동참 할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 배포. 강원대학교 대학원생들의 입장표명함.

6.14 오후2시, 평민당 진상조사단이 도지사, 도경국장, 구속학생과 면담 춘천지역 4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학생총회]개최 6천여명 참가. 오후6시, 시내곳곳에서 연좌시위 진행 침묵시위. 서울지역 학교에서 연대투쟁을 호소하는 선전 활동 전개

6.15 오후2시, [비상학생총회]개최 후 가두시위 원주에서 [이미희 양 분신 및 민자당 규탄대회개최]. 한림대, 민주조교일동지지 성명서 발표

6.16 새벽 0시30분, 교수대표5명과 비.대.위 와 간담회에서 이상용 도지사의 약속사항 전달 받음. 약속사항①피해액 보상②춘천경찰서장 전보 발령③도경국장의 총장방문사과④구속학생 전원석방을 검찰에 선처해줄 것을 요구. 오후2시, [비상학생총회]개최 도지사의 약속사항에 대한 논의. 오후7시, 과총회를 거쳐 수렴된 전체입장 정리. ① 피해조사단 공동 구성,전액보상②춘천경찰서장 파면③도경국장의 공개사과④6월8일 이후 연행.구속된 학생들의 전원석방 ⑤이미희의 신변보호 및 치료비 완전보장. 오후8시30분, 정.후문에서 2천여명 연좌시위. 오후11시, 단대별 철야농성 돌입. 이날 춘천경찰서장 김남배는 경찰학교 교무과장으로 발령 안윤희 도경국장은 총장을 방문 사과했다고 알려짐. 비대위에서, 춘천시민에게 도지사의 중재안을 폭로하고 투쟁대열을 분열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타협책이라고 폭로하는 유인물 배포. 6.17 오후5시, 단대별로 춘천 시내 곳곳에서 선전작업

6.19 오후 3시, 과총회 단대집회를 거쳐 전체집회 개최. 오후6시 30분, 명동에서 시위 전개 8시경 150여명의 학생들이 전경차 에 실려 춘천시외에 버려짐

6.20 12시, 70여개 학과 대표자협의회 개최 비대위 해체와 그에 대한 오류를 비판하고 해체를 거부,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 6.22 오후 3시, 전체집회 비대위에서 투쟁결의를 내오고 앞으로의 목표를①도경국장의 공개사과②피해보상 완전요구③이미희 치료비 및 생활대책 서면약속으로 축소 25일 3시 까지 관철되지 않으면 26일 강대전체 자퇴서 제출과 함께 장기전에 돌입하여 결사투쟁할 것을 밝힘. 오후 4시30분 후문 가두시위 전개.

6.23 오후3시, [요구조건 완전쟁취를 위한 백령인 결의 대회]개최 석방학생으로부터 상황보고 받은 후 투쟁지침 발표. 6.25 [1만2천 총단결과 요구조건 완전쟁취를 위한 비상총회] 개최 이미희 학생의 아버님이 참석, 단식농성 참가자 일동의 결의 다짐. 8월27일, 도청측으로부터 피해보상액 8백5십만원 받음

배경과 내용 :

경찰의 학원침탈 및 연행학우 석방을 위한 강원대 학생들의 투쟁이었던바, 총학의 주도적 투쟁으로 교수들까지 가세하여 경찰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아냄.

관련 인물 : 이미희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자료 1: 성명서 **최근 강원대학교 사태에 대한 교수들의 견해**

우리교수 일동은 지난 6월8일 새벽 경찰병력이 학교 책임자인 총장의 승인도 없이 우리 강원대학교 교내에 일방적 통고만으로 난입하여 학생회관을 비롯한 학과 사무실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법연행과 구타 그리고 학교 기물을 파괴한 일련의 사건이 대학의 권위와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라고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탐구하고 민족의 장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진리와 자유를 추국하는 속으로 학문의 자유와 실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우리사회 모두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아껴주어야 할 귀중한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찰난입 사건은 대학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써 압수수색과정에서 학생회실과 일반학과까지 수색하고 실험용 기구를 압수하였으며 새벽 일찍 도서관으로 공부하러가던 학생들까지 불법으로 대거 연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수 일동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경찰의 무분별한 공권력의 과잉행사는 그동안 타 대학에 비하여 안정된 가운데 면학에 열중하던 학생들을 자극하였으며 우리 대학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마비시키고 급기야는 한 여학생의 분신사건까지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불이 꺼지지 않는 진리탐구의 도장이 되어야 할 대학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오늘날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대학의 자유와 교권을 지키는데 있어서 스스로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하였는지 하는 뼈저린 자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교수일동은 냉철한 지성의 마지막 보루로서 이제까지의 미온적인 자세와 침묵을 떨쳐 버리고 우리 강대인의 자존과 대학의 학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관계당국은 본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강대인 모두에게 명백한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며, 총장을 비롯한 대학 당국은 물론 우리 교수들도 앞으로 교권수호와 대학의 자주권 확보를 위하여 확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학생제군들도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대처함에 있어서 냉철한 이성과 대학인다운 성숙한 자세를 가져 주기를 바라며, 미주적인 절차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진리탐구의 도장인 대학 내에서 더 이상의 혼란과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은 물론 우리 대학인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수 일동은 현재의 강원대학교 사태 해결을 위하여 우리들의 결의를 모아 관계당국에 항의하기 위한 교수대표를 파견하면서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이번 학원난입을 진두지휘한 경찰당국의 책임자는 즉각 문책되어야 한다.
2. 정부당국은 현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여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경찰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구속된 학생을 즉각 석방하고, 불법으로 압수한 물품은 즉각 반환하여야 한다.

4.우리 교수들은 이번 사태의 와중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사건인 이 미희 학생의 상처가 하루 빨리 쾌유되어 다시 학원으로 돌아 올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학생제군들의 자중을 당부한다.

5.총장은 강원대학교의 교권을 수호하고 대학의 자유를 지켜야 할 최고의 책임자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사태수습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1990.6.12

강원대학교 교수일동

자료 2: 성명서 학원탄압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입장

6.8 경찰의 학원난입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서 학문을 지배이데올로기화 하려는 현정권의 비민주성에 근원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도전행위에 대항하여 대학은 생존권적 투쟁을 하였고 마침내 이 미희 학우의 분신에 까지 이르렀다.

작금의 상황을 진리와 창조를 추구하는 대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근본적 탄압이라고 인식하는 우리 대학원생들은 진정한 대학의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합일된 입장을 표명한다. 3당합당 이후 6공화국은 선 성장 후분배의 논리에 의한 착취구조의 강화속에서 노동운동의 전면적 탄압 제민주운동의 파괴, 물가상승, 주가폭락, 전.월세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민중들의 생존권적 위기의식은 역으로 민자강 및 현정권의 위기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현 정권의 위기의식은 제 민주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나타났고 우리 강원대학교도 예외일수는 없다는 듯이 경찰의 학원난입, 학생들의 강제연행과 구속, 무차별 압수, 기물파괴 등의 폭력의 전시장화 되었다. 이러한 현정권의 공권력 만능주의와 도덕성 결여는 민주사회의 건설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 사태의 대처에 있어서 책임 있는 학교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현정권 및 그의 하수인 경찰이 학원에 대한 도전이 현 사태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은 “이성. 평화”등의 관념적 개념을 사용하여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분산시켜, 자의든 타의든 현 정권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강원대학교는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간과하고 책임있는 학교당국이 스스로의 발톱을 빼내어 내무당국에 헌납하는 추태의 자행한다면 학원민주화 운동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립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미희 학우의 의지를 계승하여 1만2천 학생대중의 혁혁한 투쟁은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강원대학교의 문제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평교수협의회 및 제반 학내 민주단체의 연대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우리 대학원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리 대학원생은 이 미희 학우의 완쾌를 바라며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정권은 학원탄압 및 제 민주단체의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이번 학원난입을 진두지휘한 도경국장, 및 춘천경찰서장은 즉각 퇴진하고 구속된 학

우의 석방과 압수물품의 반환 파손기물의 보상을 실시하라.

-현 사태를 통감하고 총장 및 학교당국자는 학원 자율권 수호를 위하여 저극노력하라.

-우리 대학원생은 대학발전을 위한 제 민주단체의 연대투쟁에 동참한다.

1990년 6월13일

6.8 학원난입을 규탄하는 강원대학교 대학원생 일동

71. 노동탄압분쇄와 강경대 열사 관련 투쟁

발생일 : 1991년 5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91년5월1일, [노동 운동탄압분쇄와 노동절1백2주년기념대회 및 강경대 열사 폭력. 살인노태우정권 규탄대회]가 춘.대.협 및 16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윤)주최로 강원대학교 도서관 앞 에서 천 여 명의 학생 시민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명동일대의 시내에서 노태우정권퇴진 살인 정권 퇴진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 투쟁을 전개하였다. 5월3일 강원대학교에서는 백령인 결의 대회를 마치고 한림대생들과 합류하여 3백여명의 학생들이 명동 및 버스선전전을 진행.5월3일 [강경대 열사 살인 만행규탄 및 5월 투쟁선포식] 5백 여 명의 학생들이 시내 일원에서 가두투쟁진행.

5월8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강원지회소속의 강원대, 강릉대, 상지대 교수 일동 명의로“민자당 정권은 공권력의 폭력적 행사에 의한 살인과 분신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는 등 4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현시국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였다.

5월9일, [노동운동탄압분쇄 및 폭력정권 살인정권 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백령인 총동맹휴업]이 강원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1천5백 여 명의 학생. 시민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규 탄 사 에서[민자당 출범이후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광폭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백주대로에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쇠파이프에 의한 강경대열사의 죽음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춘천 전 지역으로 분산하여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면서 시위대는 수 천 명으로 불 어 났고 저 녘11시 넘어서까지도 투쟁의 의지가 꺾 일줄 몰랐다. 5월9일, [민자당 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 5월14일[민주열사합동추모제 및 폭력살인 노 정권 퇴진 범시민 결의대회]가 강원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5백 여 명의 시민. 학생이 모인 가운데 강경대 열사 장례식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원노련, 전교조원주지회, 원대협, 민교협 강원지회

관련 자료 :

자료 1: 현대중공업 무력진압 규탄 및 세계 노동절 101주년 쟁취를 위한 원주지역

노동자. 학생. 시민 결의문

-노동절 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세계 노동절 101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민중해방, 노동해방”투쟁의 위대한 횃불을 치켜 든 그날을 되새기며 이 땅의 “민중해방, 노동해방, 민족통일”을 향한 결연한 투쟁의지를 선언한다. 101년전 미국 노동형제들의 총파업 투쟁은 암울한 노동현실 속에서 “노동해방”의 등불을 밝힌 기념비적 투쟁이었다.

200여명의 고귀한 생명을 역사의 계단에 바치면서 억압과 착취현실을 온몸으로 거부했던 101년전 May Day 총파업 투쟁은 “노동해방”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남겼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피맺힌 노동해방의 외침은 101년이 지난 지금 이땅 4천만 민중의 가슴에 들불로 살아 한반도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독점자본과 파쇼세력에 대한 꺼지지 않는 “노동해방, 민중해방” 투쟁의 적개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메아리 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무력진압은 독점자본과 파쇼정권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May Day 투쟁의 정신은 이 땅 민중민주운동의 줄기찬 투쟁속에서 면면히 이어 왔건만 한 세기를 지난 지금 이땅의 역사는 외세와 독점자본 그리고 그의 하수인 독재정권의 지배구조 속에서 더욱 왜곡 굴절되어 왔다. 분단과 독재체제는 고착되고, 한 줌밖에 안되는 독점자본가들은 민중이 피땀 흘려 이룩한 생산의 열매를 독차지하며 불평등 경제구조를 심화시켰다.

더욱이 광주민중항쟁을 피로 짓밟고 등장한 파쇼정권은 자신의 장기집권 음모의 마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기만적인 합당을 통해 일당독재를 획책하고 있다. 민중의 기본권을 말살함은 물론,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민중민주운동에 대한 대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전노협 와해공작, 노동법 개악 움직임, 전교조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온갖 감시와 수배, 도청, 테러 등은 극히 부분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28일 새벽 자행된 현대중공업 무력진압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임금인상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며, 또한 역사의 주인이며 생산의 주체적인 노동자계급의 상승하는 정치적 자각과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며, 이 속에서 노동자 및 기층민중에 대한 착취의 안정화를 통해 소수 독점재벌의 이익을 비호하고 독재정권의 안정적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반민주적 작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1만여명의 병력과 육,해,공 군사작전으로 현대중공업을 짓밟은 결과는 어떠

할까? 서울에서, 대구에서, 마산. 창원에서 그리고 울산에서는 어떠한가? 이땅의 천만 노동형제들은 현대중공업 무력진압을 규탄하며 노동자가 주인되는 “노동해방, 민중해방”을 힘차게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분명해졌다. 이 모든 사태는 독재정권과 소수 독점재벌의 종말을 고하고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가 주인되는 ”민중해방“의 새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땅 민중의 적인 민자당의 타도 없이는 어떠한 자유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May Day 투쟁의 열기를 모아 반민자당 투쟁에 총력하자. 또한 쓰레기 보수정객의 민중놀음을 청산할 노동자 중심의 민중정당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이럴 때 이 땅은 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의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한다.

세계 노동절 101주년 5월 1일

원주지역노동운동연합, 전교조 강원지부원주지회, 원주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자료 2: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명지대학의 강경대군이 공권력의 쇠파이프에 맞아 무참히 살해된 이후에도 불과 며칠 사이에 두고 수명의 대학생들이 잇따라 분신하고 있는 현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과 심각한 우려를 금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악화된데는 현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당국이 사태의 실질적인 수습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무책임하고 안이한 미봉책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군의 타살과 잇따른 학생들의 분신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폭력의 악순환의 근본원인은 6공 정권의 민주화의 지 부재와 공안통치에 있다. 6공화국 정권은 6.29선언에서 자기 스스로 약속한 일련의 개혁 공약마저 파기하는 파렴치한 기만행위를 자행 해 왔을 뿐 아니라 3당 야합을 통하여 민자당을 창당함으로써 오늘의 공안통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같은 6공 정권의 형태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을 송두리째 유린한 폭력정권으로서의 자기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하여 민자당 정권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해 급기야는 고귀한 인명을 살상하는 데까지 이르러 국가권력 담당자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하였다. 이에 우리는 현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학생들은 분신과 같은 지금의 극단적인 저항방식을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
- 2.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비롯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3.민자당 정권은 공권력의 폭력적 행사에 의한 살인과 분신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 4.언론은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양비론을 즉각 버리고 사태의 근본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해야 한다.

1991년5월8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강원지회(강원대,강릉대,상지대)교수일동

자료 3: 강원도 각계 민주인사의 “긴급시국선언문”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주통일을 소망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송두리째 뺏히고 벼랑 끝에 내몰린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상황은 5공독재를 능가하는 형편에 이르고 있으며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반민주적인 수구세력들은 이른바 ‘3당 통합에 의한 구국적 결단’이라는 미명하에 민자당을 창당하여 노골적인 반민중적 폭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소수 독점재벌을 살찌우는 정책으로 공공연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소리높여 주장했던 ‘금융실명제’를 하루 아침에 파기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집값, 전세값을 폭등시켜 수십명의 서민을 자살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전면적 수입개방으로 농민을 몰락시키고 하루가 다른 물가폭등으로 서민대중의 가계를 파탄지경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노태우 민자당 정권이 생존권을 개선하라는 민주노동운동을 최루탄과 쇠파이프로 짓밟고, 방송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언론사에 난입하여 수백명을 연행하고 수십명을 구속하는 만행도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온후한 강원도민들을 더 이상의 침묵속에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중생존권의 탄압과 반민주악법의 남용으로 하루 평균 4.6명 도합 1천여명의 양심수가 양산되어 인권도, 민생도, 민주도 모두 사라진 채 오직 폭력적 공권력만 날뛰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저들은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 하는 헌법에 의해 구성된 국회를 3당 야합에 의해 일거에 개헌선을 확보하여 ‘내각제’ 운운하면서 ‘민자당 영구독재’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대절명의 민주주의 소생의 기로에 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대한 노태우정권의 전면적인 반민중적 도발은 현 시국을 실로 영구독재의 허용이나, 민주 자주 통일을 통한 민중의 균등한 번영이나를 가름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단정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승리의 새날을 염원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5.9항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4천만 국민은 민자당 정권과는 같은 땅에서 함께 할 수 없고 민자당이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까이는 87년 6월 항쟁에서 독재타도, 민주쟁취가 국민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의지가 결연히 타오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민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200만 도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국민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는 민자당 정권을 물리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결의합니다.

민자당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국민의 뜻에 의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각계각층 전체 도민의 뜨거운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합니다.

-우리의 요구-

1. 노동운동, 민중의 민주운동에 대한 불법적 탄압을 무조건 즉각 중단하라!
2.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교육악법 등 수백개의 각종 반민주 악법을 즉각 철폐하고 조속히 제, 재정하라!
3.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라!
-이를 위해 재벌소유 토지의 국가환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금융실명제 및 토지 공개념을 전면 실시하라!
4. 장기수를 포함한 1천명 이상의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5. 이와 같은 지극히 정당한 민주, 민생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현 노태우 민자당 정권에게는 전혀 없으며 그럴 의지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전 국민의 의사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민자당은 즉각 해체하고 노태우 정권은 퇴진하라!

1990년 6월 1일

민자당해체와 노태우 정권 퇴진 및 민주화, 민족의 통일번영을 소망하는 강원도 각계인사

박정원 강성태 지정섭 김광호 임영근 임성대 김선희 김병선 신승철 이강혁 유경균
이현주

맹석철 최범순 한철인 김형국 권형우 한용규 연구태 안경천 장만준 홍재경 황관중
최종란

이태우 최경운 김영욱 황우남 전영희 하화식 한재덕 김태식 강원화 여운택 한은식
석정기

최종운 한남수 전동형 임영택 윤정현 김종만 신향순 황용태 허창두 양명철 장황봉
박상만

김영규 김종석 김정호 송덕규 전생수 김태식 김종현 송순오 신성식 윤창현 이상진
손인선

유재무 임헌택 이성근 고정수 이계문 서재일 노태식 한기동 박상혁 김명구 한경호
박선일

김정권 민병희 원영만 김경림 이준연 조경호 전경남 이병덕 이혁종 황시백 황선희
홍경전

김순봉 오중현 김열호 김현숙 한명신 정종열 최덕현 장재성 김유순 천은하 김인희
박희영

한연숙 심태산 김을용 곽대순 박춘심 유남선 유병권 이정열 김영옥 유정배 한용철
이현수

오상운 전기환 정재설 이재수 권오덕 배동인 남귀우 최 윤 윤용병 하광운 천남수 이
호선

황순석 박미경 이현이 신현암 조은희 유태호 오영태 정수영 정운환 조용일 배 진 원
기준

김동형 함민철 김진섭 허충근 이상남 이혁인 박석환 김성대 이인수 김 서 이시춘 주
창석

유병욱 허동선 배종호 정재홍 (이상 무순 147명)

72. 쌀수입 저지투쟁

발생일 : 1991년 10월, 1993년 11-12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쌀수입 저지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1) 1991년 10월 26일 《조선일보》,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權鍾大)은 25일 전남나주를 비롯, 충북 음성, 강원 횡성, 충남 홍성-예산, 전북 임실-익산 등 10여지역에서 5천여농민회원(경찰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쌀값보장, 전량매입과 미국쌀 수입저지를 위한 농민대회」를 열었다. 농민들은 “민족의 식량안보와 농민노동의 대가실현을 위해 쌀값이 보장되고 전량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반벼 매입가 24%, 통일벼 10% 인상 ▲전량매입 ▲미국쌀 수입저지 등을 요구했다.

자료 2) 1993년 12월 3일 《조선일보》 쌀수입 개방 반대 농민운동

(전략) 강원 평창군 농민회원 30명은 평창군청앞 마당에서 집회를 가진 뒤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9대를 평창군에 반납했다.(후략)

11월8일, [91쌀 수입 반대와 전량수매 및 옥수수 종자 손해배상을 위한 강원농민대회]가 전농 강원도연맹 주최로 강원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농민 학생 8백 여 명이 참여하여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미국 농민 살리기 위해 우리농민 다 죽이는 노태우정권의 살농 정권을 끝까지 투쟁해서 분쇄할 것을 결의하였고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학생들은 가두로 진출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11월16일, 미국쌀 수입저지와 쌀값보장 전량수매를 전국농민대회

73. 만도기계노조 파업(이용수 조합원 분신)

발생일 : 1991년 9월-11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91년 국내 최대규모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주)만도 원주사업본부 노동조합의 이용수조합원은 사내“민실협”조직의 일원으로서 같은 해 7월 15일 ‘91임투 막바지에 애초에 계획하였던 4개공장 3,500여 조합원 전원이 안양공장으로 집결한 “전체조합원총회투쟁”이 철회되고 노·사 잠정합의에 이르게 되자 이용수조합원은 집행부의 보다 철저한 투쟁을 촉구하면서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투쟁을 감행함. 이 과정에서 그는 전신의 40% 정도가 2-3°C의 화상을 입어 입원을 하였으나 9월 20일 퇴원함. 회사는 그가 퇴원하자마자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10월 26일 복무규율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함. 이에 (만도기계노동조합) 복직투쟁 조합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1.10부터 파업에 들어감.

관련 인물 : 이용수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성명서: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아직도 만도기계에서는 부당해고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신 시민·학생·노동형제 여러분!

UN 가입에 이은,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노동인권의 문제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병렬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자본가 단체들은 시대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시대적이고도 반노동자적인 노동법개악을 통과시키려 시도하였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만도기계(대표이사 정몽원)가, 문막공장의 열성조합원 이용수 동지를 “회사의 명예를 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고조치 함으로써 정부와 자본가 단체의 반역사적인 행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용수동지는, 영세민으로 되어있는 가난한 가정환경속에서도 만도기계 입사이후 줄곧 노동조합의 민주적 강화를 위해서 헌신적인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민주적 조직적 구심체인 ‘민실협’의 회원으로서, 사측의 수많은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선두에 서서 곳곳하게 실천해 온 건강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러

던 중 지난 7.15일 '91임투 막바지에 애초에 계획하였던 4개공장 3,500여 조합원 전원이 안양공장으로 집결한 “전체조합원 총회투쟁”이 철회되고, 노·사잠정합의에 이르게 되자, 이 이용수동지는 집행부의 보다 철저한 투쟁을 촉구하면서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투쟁을 감행하기에 T 이른 것입니다.(당시 전술로 안양, 평택, 경주, 문막 전조합원이 7월 16일 안양공장에서 총회투쟁을 계획하고 있었음)

그 과정속에서 이용수동지는 전신의 40%정도가 2-3°C의 화상을 입어 입원을 하였으나 몸이 성하지도 않은 부모님들이 치료비가 없어 오열하는 모습을 수많은 동지들이 지켜보고 동지들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지난 9월 20일 퇴원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문막공장)는 이용수동지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3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지난 10월 26일 회사의 복무규율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낸것입니다.

부당해고는 집행부와 다수의 민주적 조합원들을 이간질시키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음모의 일환입니다.

시민, 학생, 노동형제 여러분!

그간 노조 집행부에서는 분산하여 병원에 T 입원해 있던 이용수동지의 완전한 치료를 위하여 조합원들의 모금운동을 조직하여 치료비를 마련해 왔으며, 부당해고 조치 이후에는 징계결과가 지나치게 극단적임을 감안, 재심청구와 안양공장을 중심으로한 ‘해고철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신투쟁의 경위가 조합운영의 내부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이용수동지의 부당징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고, 이에 따라 상당수의 선진조합원들과의 불신과 갈등이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점을 회사는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집행부를 비롯한 거의 전조합원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통하여 노조내부의 불신과 분열을 최대한 증폭시키다가 오는 '92 단협에서 (예정 12.16 첫교섭)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비열한 음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 가정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내 복직시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측의 이러한 비열한 작태와 그동안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켜보면서 즉각적으로 조합원 복직투쟁대책위를 구성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부당징계 철회를 외치며 투쟁을 선언하였습니다.

시민, 학생, 노동형제 여러분!

우리는 노동조합의 발전, 그리고 부당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보호되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승리의 그날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용수동지의 분신투쟁은 노동조합을 보다 더 강화해 내려는 격렬한 문제제기였으며 이를 빌미로한 회사의 부당해고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탄압하고 개인과 가정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순한 의도가 숨겨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부당‘징계해고’는 당연무효인 것이며 ‘원직복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해방”을 향해 힘차게 진군하고 있는 천만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희망찬 미래가 바로 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부당하고 전면철폐! 노조탄압 분쇄하자!

@ 동지복직 쟁취하여 민주노조 강화하자!

@ 노동악법 철폐하여 노동해방 앞당기자!

1991. 11. 10

(만도기계 노동조합) 복직투쟁 조합원 대책위원회

74. 원주택시노조 파업

발생일 : 1991년 7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91년 7월 원주원성 택시연합 노동조합에서는 임금 34.7% 인상을 요구하며 12차례에 걸친 협상을 하여 최종적으로 5%까지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낮추었으나 사업주들이 이마저도 거부하자 11월 0일에 파업에 돌입함. 이와 함께 원주원성 택시연합노동조합 치악교통분회 조합원들도 사장의 노동조합 파괴음모를 규탄하며 파업에 돌입함. 치악교통은 67명의 운전기사 가운데 35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는데, 사업주가 노조분회장과 상조회장직의 겸직을 명하고, 상조회장을 비조합원 중에서 하도록 유도하여 노조 와해 공작을 함.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원주·원성택시연합 노동조합

관련 자료 :

성명서: 원주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파업에 돌입하며

원주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원주시내에서 시민 여러분의 발이 되고 있는 600여 택시기사들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사들은 하루 17시간 장시간 운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터무니 없는 월급(26만원)을 5% 인상하기 위해 파업을 하게 되어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기업주들과 12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을 거쳤으

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애초 요구사항인 임금인상 34.7% 인상에서 5%까지 양보를 하였음에도 사주들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제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파업에 돌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택시기사인 저희들은 시민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드리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은 택시를 운전하는 저희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자세로 운전을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택시운전사들은 주간에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장시간 노동과 형편없는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실제 운전사들의 심신을 피곤하게 만들뿐더러 저임금은 조금이라도 더벌기 위한 무리한 운전으로 빈번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치 못한 사납금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택시기사들이 시민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고 시민여러분의 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저희들의 파업은 바로 저희 택시기사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동안 사주들은 택시기사들의 노동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겨왔으면서도 택시기사들의 생존을 위한 5% 임금인상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여러분의 안전이나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은 생각조차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파렴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저희들의 파업으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보다 나은 서비스와 안전속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꼭 5% 임금인상을 쟁취하고 근무일수를 19일에서 18일을 쟁취할 수 있도록 또한 자율입금에서 고정입금을 쟁취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들의 주장

- * 5% 임금인상 즉각 실시하라!
- * 택시기사 단결하여 기사 생존권 쟁취하자!
- * 사주들은 협상을 조기 타결하라!

원주·원성택시 연합 노동조합

75. 학원안정화 대책 반대투쟁

발생일 1992년 2월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1991년 6.3외대사건(정원식총리가 외대에 강연을 하러 가다 외대입구에서 학생들에게 밀가루와 달걀세례를 받은 사건)을 빌미로 정부는 대대적으로 대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억압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학원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1.폭력세력화 하는 학생회 활동 지양, 2.학칙개정을 통한 학사관리 ①학사제적 제 부활(성적부활, 학CLR위반 학생) ②학사유급제 도입 ③학사행정 학생참여 배제. 3.면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4.교권확보 ①학생을 선동하는 교수 인사조치 ②신규. 임용. 승진의 강화 ③전체교수 명의로 게재하는 성명서 발표자제. 이는 6.3외대사건이후 학원안정화 대책이 대학 내에 본격적으로 침투 가시화 되었다. 92년 5월19일 강원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원안정화대책을 저지하기위한 [학원자주화 쟁취 및 민자당 재집권음모저지를 위한 백령인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요구사항은 ①시험기간 행사주간 부활

②학사제적 제 폐지 학교측과 1차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대학본부를 점거하고 농성 시작 하면서 총장과의 2차 협상을 가졌고 이 협상에서

①행사 및 실습주간과 시험기간을 명시

②학사제적제도 부활의 의미를 총학생회에 공문으로 보내고

③학칙개정시 학생참여 방안을 학생측과 합의후 학칙을 개정 할 것 을 합의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점거농성을 풀고 가두로 진출 반민자당 시위를 벌였다.

1992년 2월19일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대 60여명의 학생들이 춘천시 구 춘성군청앞에서 남북합의서 조속이행,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외치면서 시습 시위 유인물 3천여장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관련 자료 :

76. 사노맹 강원위원회 조직사건

발생일 : 1993년 8월 28일

관련 일지 :

배경과 내용 :

강원지방경찰청은 28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社勞盟)의 재건을 꾀한 강원위원회 총책 李恩永씨(25 한양대사회4년 휴학)와 민주정치연합 원주지부장 池載根씨(28 택시 운전사)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직원으로 군복무중인 5명을 국군기무사에 이첩했으며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權祥万씨(27) 등 3명에 대해서는 입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들은 지난 91년 9월 춘천 근교 강촌유원지에서 사노맹강원위 준비모임을

갖고 춘천-원주지역에 위장화원과 풍물교습소 등 활동거점을 마련, 사노맹 재건위의 지령에 따라 대학 광산 및 군부대 등지에 이적표현물을 배포하는 등 조직복원을 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침내 전선에 서다」 등의 유인물과 공격용 도검 컴퓨터 등 3백13종 6백27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李恩永 ▲池載根 ▲成洛允 (27 연세대 원주캠퍼스 물리4년 휴학) ▲孔仁杓(26 상지대 한의본3년) ▲田勳(24 상지대 행정3년) ▲李秀鎭(24 상지대 행정4년) ▲李忠熙(26 상지대 졸) ▲朴興烈(26 상지대 졸)

관련 인물 : 이은영, 지재근, 성낙윤, 공인표, 전훈, 이수진, 이충희, 박흥렬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 1993년 8월 29일 《조선일보》

77. 상지대학교수협회의의 교육민주화 투쟁

발생일 : 1992년 8월 26일- 1993년 6월

관련 일지 :

1987. 4. . 경향신문, '강원도 S대학 시간강사 채용에 1천만원 요구' 보도

1987. 10. . 학내시위 시작, 용공조작사건 발생

1989. 3. 31 상지대학교수협회의 창립 (회원수 26명)

1990. 4 .5 김대식 교수(전 교협대표) 폭행사건 발생

1990. 8. 25 교협소속 교수 14명 강의제외, 교협 한달간 농성, 철회시킴.

1991. 3. 04 교협소속 교수 5명 재임용탈락 위협, 교협 15일간 농성, 철회시킴.

1992. 8. 25 박정원교수 재임용탈락

8. 26 교수협회의 및 총학생회 재단퇴진투쟁 시작,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1992. 10. 25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교육부 특별감사

한약재료학과 설치규정 무시 임의운영, 이사장의 처(이사), 매부(부총장 겸 전문대 학장), 사위(총장 비서실장 겸 대학원 교학과장) 등 친인척 경영. 인사비리, 신입교수 채용시 사직서와 각서 요구, 박정원교수 부당 재임용탈락, 대관령 축산고 매입특혜, 교수채용시 봉급포기 각서, 재단측 교수 2명 가짜 박사학위소지 등 밝혀짐

1992. 11. 09 한의대생 2백명 수업거부 돌입

11. 18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교수,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참가)

학생 2,000여명 집회 후 본관 점거, 수업거부 결의

- 11. 24 원주시내 평화대행진(학생 1,500명 참가)
 - 11. 26 700명 상경투쟁, 파고다가구 앞, 명동성당 선전전
 - 12. 3 2차 상경투쟁, 세종문화회관 앞 및 명동성당
 - 12. 4 교육부, 상지대 이사장과 총장에 경고
 - 12. 7 교환실과 전산실 폐쇄
 - 12. 11 강릉서 시위 중이던 교협교수 24명 강릉경찰서에 연행(대표 3명 입건)
 - 1993. 02. 10 교협 교수 71명 사표제출
 - 02. 15 원주 영강교회에서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서재일 목사) 결성. 원주기독교협의회·원주시민회·원주민주청년회·전교조 원주지회·원주 흥성농민회·지역의 4개 대학 총학생회·원주노동교육연구원·진보정당추진위 등 모두 17개 단체 참여.
 - 1993. 03. 04 교협 교수 단식돌입
 - 1993. 03. 09 김문기 이사장의 호화불법 분묘 조성사실 보도됨(조선, 한국, 세계, 서울, 동아, 중앙, 국민, 경향 등)
 - 1993. 03. 22 상지학원, 학교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 보도(한겨레신문)
 - 1993. 03 22 세계일보 사설, “사학재단 전횡……학내분규 불씨로...’에서 상지대 집중보도
 - 1993. 03. 23 국회의원 재산공개, 김문기의원 재산 3위/ 땅투기 의혹 및 학교 부실 운영보도 (한국, 조선, 세계, 중앙 등)
 - 1993. 03. 25 부실·족벌·전횡.... “말로만 대학”/ 김문기의원의 상지대 형편 보도(한국일보) 상지대 “돈벌이 수단” 의혹/그린벨트훼손/재산축소/농지 편법 취득 보도(한겨레)
- *재산공개 이후 10월 17일까지 271건의 일간지 보도 이어짐
- 1993. 3. 31 김문기 상지학원 전이사장 구속수감
 - 6. 4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
 - 7. 22 교수협의회, 331일간의 철야농성 해제
 - 8. 30 김찬국 총장 취임
 - 1994. 3. 1 박정원교수 복직
 - 1995. 5. 10 김찬국 총장해임사태, 교협 한달간 철야농성, 국회 국정감사
 - 1995. 12. 6 교육부 관선이사진 교체(이상희 이사장 취임)
 - 1999. 10.12 제4대 총장 한완상 박사 취임
 - 12.31 교육부, 상지학원 이사진 교체 (문선재 이사장 취임)
 - 2000. 10. 2 (재)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설립(교직원 발전기금 자진납부)
 - 2001. 3. 3 강만길 총장 취임
 - 9. 6 시민대학추진위원회 발족
 - 2002. 1. 1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진 교체 (이돈명 이사장 취임)
 - 2003. 12.24 교육인적자원부 상지학원 정이사 승인

2004. 1. 1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이사 출범 (변형운 이사장 취임)

2005. 1. 1 김성훈 총장 취임

배경과 내용 :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던 상지대학교에 1989년 3월 30일 상지대학교수협의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대학민주화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교수협의회는 재단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고, 1992년에는 경제학과의 박정원교수가 재임용탈락을 당하기도 했지만 회원교수들이 굳게 뭉쳐 비리재단 퇴진투쟁을 전개하였다. 교수들은 무려 331일에 달하는 기간 동안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에서 농성을 하였으며, 전국 여러 곳에서 집회와 시위를 통해 학교의 비리를 알리고 대학민주화의 의미를 호소하는 모범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93년 3월 31일 재단이사장이 구속되었고, 6월에는 관선이사가 파견되었다. 또 해직되었던 박정원교수는 1994년 3월 복직하게 되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처음 대학민주화운동을 시작한 지 15년만에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 및 대관령종합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상지학원이 정이사체제를 확보하게 되었다. 2003년 12월 24일자로 상지학원의 정이사 9명이 취임함으로써 임시이사체제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상지대는 구재단의 끊임없는 복귀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내 대학 사상 처음 시민이 대학운영의 주체가 되는 시민대학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상지대의 정이사 체제 전환은 현재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파견한 전국 10여개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지학원 정이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변형운(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김범일(제2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이영수(경기대 교수) 최장집(고려대 교수)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하죽봉(변호사) 김승오(신부) 박종렬(경북대 교수) 김영순(공인회계사)

1992-1993년에 있었던 상지대교수들의 교육민주화투쟁은 우리나라 대학민주화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모범이다. 머지않아 들불처럼 타오를 대학민주화투쟁의 서곡이다. 상지대 교수들의 투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양심적 교수들이 부패한 사학재단을 몰아낸 투쟁이다. 양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이다. 사립대학 가운데 설립자가 투철한 교육이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많은 사립대학들은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천민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상당수의 사학재단들은 거액의 로비자금을 써서 대학설립허가를 얻었으며, 이들은 대학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한다. 불법(편)입학과 부동산투기, 교수임용비리, 이사장 개인사업체와의 내부거래, 교비횡령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부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비리들을 지속하고 은폐하기 위해 족벌경영, 교권탄압을 서슴지 않는다. 비리재단이 존재하는 한 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여기에서 대학의 비리를 척결해 참다운 교육의 장을 건설하려는 의식 있는 교수·학생들과 부패 사학재단의 충돌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비리재단에 대한 교수들의 투쟁은 간단없이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 이후만 하

더라도 세종대, 동의대, 조선대, 인천대, 상지대, 서원대, 청주대, 대구대, 계명대, 한국외대, 서원대, 덕성여대, 광주예술대, 한려대, 성신여대, 그리스도신대, 경문대, 동덕여대, 서일대, 동해대 등 끝도 없이 이어진다. 그 가운데서 조선대, 인천대, 서원대, 덕성여대, 경인여대 등 소수의 대학들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상지대도 그 중의 하나이다.

상지대의 투쟁의 특징은 교수가 투쟁의 중심에서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상지대 학생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싸웠고, 지역사회도 나름대로의 기여를 했다. 따라서 상지대 투쟁에서 차지하는 학생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 할 수는 없다. 많은 경우 대학민주화투쟁의 중심은 학생들이다.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부패재단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할 때, 교수들은 오히려 재단의 편에 서서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매도하고 탄압한다. 대부분 재단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민주화의 중심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지대투쟁이 독특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둘째, 중산층인 교수가 자신에게 씌워진 굴레를 깨어버린 투쟁이다. 교수는 한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 교수는 그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거나 이를 교육시키며, 또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수는 연구와 교육 및 봉사라는 주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구체화시키며 그 대가로 임금과 연구비 등을 지급받는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될 당시, 이를 막아보려는 정부는 “교사는 성직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다”고 하면서 노동자를 모독하고 교사를 중산층의 테두리 내에 가두려고 했다. 이러한 통제방식은 한 사회의 지배계층이 교수·교사를 통제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교수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순치되어 자신의 지위에 대해 만족해하며 과격한 투쟁에는 결코 나서지 않는다. 이 굴레를 깨지 못하는 한 교수는 영원히 자유인이 될 수 없다.

상지대의 민주화는 이 굴레를 과감히 벗어 던진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도 처음에는 대자보를 붙이는 것조차 경원시하는 평범한 교수들이었다. 그렇지만 투쟁이 전개되면서 이러한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몸을 사리지 않고 비리재단과 싸울 수 있었다. 길거리에서 가두집회를 하고, 전경과 몸싸움을 하며, 경찰에 끌려가는 것도 불사하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투쟁력을 회복했고 이것이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대학개혁은 구성원들의 치열한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두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대학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싸우지 않는 교수·학생들이 너무 많다. 얼마전 모 대학의 총장이 재단과의 갈등으로 물러났다. 며칠 뒤 재단은 일방적으로 부총장을 총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그 대학의 교수·학생들은 별 문제제기 없이 넘어가고 말았다.

자유와 진리, 정의, 봉사 등의 이념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라면 마땅히 자기 대학의 문제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 않는가? 가까이 있는 주먹을 멀리 있는 대포보다 무

서워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나서 고쳐야 한다. 예수가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소와 양을 내쫓고, 돈을 쏟아버리고, 비둘기상을 엮어버리듯이. 교수가 불의나 부패에 대해 눈을 감으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상지대는 교수와 학생들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비리재단을 퇴진시켰다. 그 결과 민주적인 대학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더 많긴 하지만.

넷째, 교육민주화는 국민모두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상지대는 교수·학생들의 투쟁에 의해 비리재단을 몰아내고 현재 최고의 민주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구 재단의 재진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여전히 수구세력을 등에 업은 구 재단의 대학 음해공작이 끊이지 않는다. 1995년에 있었던 '김찬국총장해임사태'가 그 실증이다. 대학은 이로 인해 바람 잘 날 없는 형편이다. 계속해서 진정과 탄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검찰과 교육부, 감사원에 의해 감사와 수사를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털고 또 털어서 주머니 속의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려는 끈질긴 기도는 대학구성원들을 정말 피곤하게 만든다.

상지대는 한 사회의 구성부분인 교육부문, 그 가운데서 대학교육 부문, 그 가운데서도 사립대학이라는 아주 작은 부문의 한 구성요소이다. 이런 작은 구성인자 하나에도 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면 민주화의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하물며 교육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관련 인물 : 박정원, 김대식, 장재화, 이상은, 황환교, 유광호, 김명환, 오승석, 임희진, 김갑태, 김세현, 김준, 김승탁, 조은경, 원향례, 오혜숙, 이희남, 권인석, 최현숙, 장영민, 김정란, 조천지자, 박길상, 우영균, 이승배, 정찬선, 김동균, 황도근, 최무영, 이광춘, 윤태호, 최동권, 성연근, 서재일, 한경호, 곽대순, 김진희

관련 단체 : 상교협, 민교협, 참여연대, 경실련, 상지대정상화원주시민대책위

관련 자료 :

자료1) 교수신문 사설 '상지대 사태를 보는 우리의 견해' 1992. 9. 15일

“우리 대학이 걸어온 길은 파란만장한 수난의 역사 그대로다. 지금도 한탄과 좌절, 바람의 몸짓은 아픔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아픔의 당사자는 우리 사회전체와 국민이고, 고난의 수혜자(?)는 교수와 학생이다. 해방이후 계속되는 이념적·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학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제7공화국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대학, 사회의 주체세력들 모두가 힘을 합쳐 대학발전을 위한 변신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낼 때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상지대의 교수 탄압사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걸림돌로서 도약과 총화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다. 박정원 교수의 재임용탈락은 여러모로 의혹이 많다. 상지대교수협의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서도 방관하지 말고 대학을 살리고 교권을 옹호하는 일에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대학이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수사회의 고난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보여야 할 때이다. 박교수의 대학발전에의 헌신과 학문에의 정진을 바란다.”

78. 전농 강원도연맹 창립

발생일 : 1992년 2월 24일

관련 일지

배경과 내용 :

1992년 4월16일2시 강원대학교 연적지 앞에서[춘대협 출범식 및 부정선거 주범 민자당 타도를 위한 2만학도 결의대회]가 5백여명의 춘천지역 대학생들이 모인가운데 집회가 있었고 집회후 가두진출. 4월30일, {강원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출범식}이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운동 탄압, 총액임금제 폐지. 92년 대선에서 민주정부 수립을 완수 할 것을 결의 하였다. 이날 강대협 의장으로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영국이 선출되었고 제1기 강대협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장 김태우가 선출되었다. 9월1일, [강원도 농민대회]가 강원대학교 백령회관에서 농민, 학생 5백여명이 모인가운데 열렸고 주요한 요구사항은 4천만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민자당 재집권을 분쇄하자. 농업대개혁안 선포식 및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총력투쟁을 할 것을 결의.

11월15일, 강원대학교에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춘천지역 선거대책 연대회의]발족식 및 김근태씨 초청 강연회가 3백여명의 학생,시민이 모인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교조 춘화자회,춘천민주청년회,사회문화연구회,춘대협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를 발족하였다. 발족선언문에서[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대개혁안을 실현시키고 범민주대연합을 통한 범민주 단일후보를 성사시켜 기필코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이에 17만 춘천시민과 더불어 부정선거를 저지하고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연대회의를 발족한다]라고 하였다.

12월13일 춘천시군 농민대회. 12월22일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저지를 위한 범도민대회

관련 인물 :

관련 단체 :

관련 자료

자료: 결성 선언문

농민은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식량을 생산하며 이땅과 이 민족을 수천년간 지켜온 역사의 당당한 주인이다. 갑오농민전쟁, 일제하의 민족해방투쟁의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 의해 재편된 한국사회에서 농업은 천사와 수탈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현 정부의 농업해체, 농민말살 정책은 한해에 50만 이상이 생활의 터전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

무엇이 한국농업과 농민을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가!!! 자국의 농업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식량질서를 지배하기 위해 무차별한 시장개방 압력을 넣는 미국, 지배권력 유지에만 눈이 어두워 이 땅의 민중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짓밟고 민족의 자존심까지 팔아먹는 현 정권과 돈이 되면 무엇이든 수입하여 민중의 고혈을 빼앗는 재벌들!

이들이 바로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농민의 기본적 생존권마저 빼앗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민족해방투쟁과 농민해방투쟁의 자랑스런 역사 속에 우리는 정치적, 조직적 구심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건설하였고, 더 이상의 압제와 수탈을 거부하고 민족민주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농민의 생존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농민의 권익을 지켜내는 일은 오직 농민 스스로의 각성과 조직적인 힘으로 가능 하다. 이제 강원농민대중은 농민의 정치적, 조직적 구심으로서 "전농 강원도연맹"을 결성하여 농민의 제반 정치적, 경제적 요구를 결집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7백만 농민이 하나 되어 풍요롭고 민주적인 농촌사회 건설과 이 땅의 자주화 민주화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모든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1992년 2월 24일

전국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

IV. 단체항목 기초조사 연구

1. 단체명 : 생명원주21 실천협의회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원주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인류는 역사의 전환점에 처하여 있음. 당면 문제들은 국가간, 국가내의 불균형, 빈곤문제의 악화, 기아, 질병, 문맹 등과 지속적인 생태계 파괴 등임. 그러나,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환경-개발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게 되면 기초 수요(basic needs)의 충족, 생활수준의 향상, 생태계 보호, 운영의 개선,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의 구현 등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임. 이는 한나라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을 통하여 달성이 가능함. 이 범세계적 협력은 UNCED개최 촉구와 동시에 결의된 1989년 12월 22일의 UN총회 결의 44/228 및 환경 - 개발 문제에 관한 균형적이고 통합된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깨닫고 특히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Agenda21의 논의과정과 결과를 참고로 하여 결성함.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아젠다21의 개발

환경 목표에 부응하여 개도국이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신규 및 추가 재원을 필요로 할 것임. 또한 아젠다 21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의 능력 배양에도 재원이 필요함. 각 계획 분야마다 상응하는 내용이 예시적으로 추계되어 있음. 아젠다 21의 각 계획분야의 수행에는 과도기 국가(economies in transition)의 특수 상황에 대한 특별고려가 있어야 함. 이들 국가들은 유례없는 경제변환기의 도전에 직면하여 사회, 정치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

아젠다 21의 계획분야들은 정책방향, 목표, 수단 및 실행방법 등으로 구분되어 설명. 아젠다 21의 역동적 계획임. 아젠다 21은 각국이 상이한 상황, 능력 그리고 우선순

위에 따라 상이한 주체들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며, 리우선언에 담긴 모든 원칙들은 십분 존중될 것이다. 아젠다 21의 전반에 걸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environmentally sound)"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environmentally safe and sound)"의 뜻으로 사용됨.(특히 '에너지원', '에너지 공급원', '에너지 체계', 또는 '기술'등과 결부되어 사용될 경우)

아젠다 21은 현재와 과거의 문제를 동시에 포괄

아젠다21은 개발 및 환경협력에 관한 범세계적인 합의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참여(commitment)를 반영. 그 이행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며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국가적 전략, 계획, 정책 및 과정이 긴요함.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있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UN의 역할은 핵심적임. 여타의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적 기구 역시 이러한 노력에 기여해야 할 것임. 또한 최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와 비정부기구 및 기타그룹의 적극적 참여가 장려되어야 함.

주요 활동가 : 제현수, 신병식, 김경준, 한경호, 김영하

관련 자료 :

2. 단체명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약칭 : 춘천시민연대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99년 9월부터

활동 지역 : 춘천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춘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 시민들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결성되었음. 지역에서 활동하며 시민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책화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춘천시민들과 함께 바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과 전국단위에서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

하여 활동하기 위해 결성.

조직 체계 :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 작은 권리 찾는 사람들 등 3개 분과위원회, 편집위원회('참여자치통신'발행).
부설연구소인 지역사회연구소

주요 활동 :

1) 올바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활동 (지방자치위원회)

춘천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매년 춘천시의 예산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예산감시활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춘천시의회 의정활동평가를 통한 의정활동 감시, 조례제·개정운동을 통한 잘못된 제도 개선 운동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 춘천미군기지 반환운동, 평화·통일 운동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

춘천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캠프페이지는 춘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000년 춘천시민연대와 여러 단체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춘천시민들은 춘천에서 미군기지가 떠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그 동안 '미군기지대책위원회'라는 분과위원회에서 미군기지 인근 주민 간담회, 근화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권 피해 설문조사, 춘천미군기지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 미군기지 지역주민 건강실태 조사 등 미군 부대 없는 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미군부대대책위원회'는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분과를 개편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앞으로 미군부대문제 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 문제,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3) 춘천시민들의 작은 권리 찾기 (작은 권리 찾는 사람들)

춘천시민연대에서는 춘천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은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인하 운동,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투여 등 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작은 문제들을 찾아 여론화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연대활동

춘천시민연대는 지역차원, 전국적 차원에서 많은 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춘천시민운동네트워크

- 춘천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춘천시 예산, 행정과 관계된 중요한 사항들을 각 단체 전문 분야별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 춘천연대

- 학교급식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모여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도정감시강원연대

- 강원도의 각 지역에 있는 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도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전국에 있는 1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각 지역의 활동을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 전국에 미군기지가 상주하고 있는 도시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문제 관련 단체들이 모여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 불평등한 소파개정운동, 미군기지 반환운동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예산감시네트워크

-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가 : 김홍영, 유팔무, 이춘식, 최명식, 강청룡, 심재학, 송규철, 유정배

관련 자료 :

3. 단체명 :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모임

약칭 :

소속 단체:

존속 기간 : 2001년

활동 지역 : 원주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지난 5 월 19 일(토) 강원도 원주시 태장 2동에 소재하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

프롱 인근 절골 마을 에서 캠프롱 방향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음을 주민 전복규씨가 발견했다 . 기름유출 현장에서 기름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 바로 아래의 논에 심어 논 벼의 모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증언함 .

- 이에 우리땅미군기지 시민모임 은 5 월 2 1일(월) 원주시와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유출기름과 부대내 기름 시료를 채취 , 상지대 서용찬 교수팀이 즉시 조사작업을 실시하였다 .

- 캠프롱 부대 관계자는 주민이 논에서 작업하던 중 트랙터가 넘어져 흐른 기름이라고 말하며 , 유출 기름이 경유 같다며 캠프롱에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함 .

- 5월 2 2일(화) 원주시민모임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세밀한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바위틈 여러곳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 5월 2 3일(수)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상지대 서용찬 교수팀의 유출기름 시료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결과 유출된 기름과 부대내 기름이 동일성분(J P- 8)임이 확인되었다 . 이에 원주시민모임은 피해주민들의 식수사용을(지하수) 중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원주시에 물공급을 즉시 해줄 것을 요구함 . 원주시는 진상조사와 부대장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 5 월 2 3 일(수) 유출기름이 J P- 8종으로 부대내 기름과 동일하다고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인근 논에서 작업중 넘어진 트랙터에서 흐른 기름이라는 내용의 주한미군입장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였다 .

- 5 월 2 5일(금) 주한미군사령부와 환경부 관계자(7 명)가 현장을 확인하고 한미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부대내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 이 과정에서 피해주민과시민단체는 제외하였으며 , 이에 항의농성(밤 1 1시까지)을 바로 진행하였다

- 유출된 기름과 부대내 기름을 조사한 결과(환경청, 상지대 서용찬 교수팀 조사결과 일치) 동일성분으로 밝혀짐.

- 밝혀진 기름 JP- 8은 등유형 유류로 국내에서는 공급 및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며 Exxon Mobil사에서 생산하는 jet fuel임.

- 기름유출방향이 높은지대(경사도 약 45. 이상)의 캠프롱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음.

- 10여년 전부터 미세한 기름냄새가 나왔다는 다수의 주민들 증언.

조직 체계 :

참가단체:21세기정책연구소/가정법률상담소/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원주YMCA/원주YWCA/원주생협/원주여성민우회/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원주지역학생대책위(가톨릭대학생연합회, 상지대학교총학생회,연세대학교총학생회,영서대학교동연)/원주환경감시단/원주환경운동연합/전교조강원지부원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횡성군농민회

주요 활동 :

- 5/ 21 기름유출 현장확인

전면적인 부대개방을 촉구하는 캠프롱 앞 항의시위

부대내 기름과 유출기름 시료채취

- 5/ 22 기름유출 현장 굴착작업 활동 (굴삭기 동원)

- 5/ 23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

자체 조사결과 발표 : 동일 성분 확인 (JP- 8)

부대개방과 캠프롱 부대장 사과 및 사퇴촉구 항의시위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 관련 우리의 요구사항 전달

(환경부 , 원주시, 환경청 , 주한미군사령관, 캠프롱 부대장)

이창복 국회의원 (민주당) 면담

- 5/ 24 기름유출 사건 규탄집회

피해지역 지하수 시료채취 (5곳)

- 5/ 25 조속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부대장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시위

(주한미군사령부, 환경부 관계자 현장확인)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탱크 교체작업 확인요구 (원주시,환경청)

- 5/ 26 캠프롱 정문 제42차 토요일집회

강충련 , 캠프롱 정문 앞 항의집회

기름유출 규탄하는 시민 서명운동 및 거리캠페인

- 캠프롱 정문 앞 릴레이 천막농성 (5/ 28) : 릴레이 참가자 1인 시위

- 주한미군사령관, 캠프롱 부대장 고발 (5/ 29)

- 환경부 장관 항의방문 (5/ 29)

미8군 용산미군기지 항의집회 (5/ 29)

-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

- 시민 서명운동 및 거리캠페인

- 원주주요인사 선언운동

- 시민참여 조직 : 프랭카드 기부운동, 검은천 달기운동 , 항의 E- mail 보내기 운동

- 연대집회 및 타단체 항의방문 조직

요구사항

1. 한미공동진상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시민단체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라!

2.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부대를 전면 개방하라!

- 원주주둔 미군기지 캠프롱 (이하 캠프롱이라한다)내 공군부대 기름탱크 주변 지하매설물 도면도를 전면 공개하라!

- 캠프롱내 공군부대내 기름탱크 관리경과, 실태를 기록한 관리일지를전면 공개하라!

- 캠프롱 창설이후 연도별 사용유류 현황 (기름종류,기간) 공개여부

3. 주한미군사령관과 캠프롱 부대장은 기름유출 사건을 솔직히 시인하고, 28만 원주시민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4. 주한미군사령관과 캠프롱 부대장은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원주시는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을 지고 28만 원주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6.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원주시는 피해주민 보상과 오염지역 복구를 위한 즉각

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7. 미국정부와 주한미군, 캠프롱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오염지역을 원상복구하라!

8. 한-미 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SOFA를 즉시 전면 개정하라!

주요 활동가 : 고정배, 최준길, 윤요왕, 이선경, 김경준

관련 자료 :

자료 1: 기자회견문

- 미군기지 「캠프 롱」 기름유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

지난 5월 20일(일) 원주주둔 태장동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롱」에서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원주시민모임 과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원주시는 현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캠프 롱」 방향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현장을확인하고 「캠프 롱」 기지안의 유류관련 시설을 조사하였으나 한국측 조사단의 시설물배치도 요구와 간단한 질문조차 답변하지 않는 등 형식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5월 22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원주시민모임 은 굴삭기를 이용한 2차 조사에서 확실하게 「캠프 롱」 방향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캠프 롱」 기지 관계자는 현장 출석요구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등 진상규명을 위한 어떠한 반성의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원주시민모임 은 「캠프롱」 기름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철저하게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미군기지 「캠프롱」 을 규탄하며 즉각 진상조사에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원주시민모임은 미군기지 「캠프롱」의 기름유출 사건이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지 원상복구와 피해주민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질때까지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밝힌다.

1.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원주시민모임은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하여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원주시민모임은 자체적으로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조사단을 구성한다.

3. 민간조사단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오염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4.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원주시민모임은 미군기지 「캠프롱」 주변의 피해지역 주민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5. 원주시민들과 함께하는 진상규명 촉구를 위하여 항의집회, 서명운동, 항의 E-mail보내기등 시민항의를 조직한다.

6.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미8군사령관과 캠프롱 부대장의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

7. 시민들과 함께 캠프롱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인간띠잇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원주시민은 미8군과 캠프롱, 한국정부와 원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미 8군 과 캠프 롱 에 대 한 요 구

1. 미8군과 캠프롱은 진상규명을 위하여 부대내 지하시설물 배치도와 유류관리시설 관리 일지 공개 등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응하라.
2. 미8군과 캠프롱은 기지주변의 지하수와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3. 미8군과 캠프롱은 한국정부와 원주시민에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한미행정 협의회 등 한국정부 및 원주시와 협의기구를 마련하라.

한 국 정 부 와 원 주 시 에 대 한 요 구

1. 한국정부와 원주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름유출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의 진상규명에 착수하라.
2. 한국정부와 원주시는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하라.
3. 한국정부와 원주시는 기지주변 지하수오염 및 토양오염에 대하여 한점 의혹이 없을 때까지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4. 한국정부와 원주시는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의 진상규명과 원상복구, 주민의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원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모임은 미군기지 「캠프롱」의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원주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1년 5월 23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원주시민모임

자 료 2: 고 발 장

고 발 인 :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문정현

140- 133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29- 15 복조빌딩 502호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모임 고정배 , 최준길

220- 070 강원도 원주시 인동 242- 16

:

Chief of Staff , USFK, LTG Daniel R. Zanii, APO AP 96205- 0009

140- 701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사서함 181호

No e | L. Lewky

220- 122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사서함 4호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토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내 용

지난 5월 20일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소재 미군기지 「캠프 룡」에서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21일과 22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원주시민모임(이하 원주시민모임)과 원주시, 원주지방환경관리청 등이 오염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와 유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굴착기로 오염지역 일대를 폭3m, 깊이 1m가량 파헤친 결과 1분에 100ml정도의 유류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토양오염지역에서 채취한 유류시료를 분석한 결과 미군부대내 유류저장 시설에서 채취한 성분과 같은 JP- 8종으로 밝혀졌습니다. JP- 8종은 등유형 유류로 국내에서는 공급 및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며 Exxon Mobil사에서 생산하는 jet fuel이며 난방유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류입니다.

원주시 태장동 미군기지 「캠프 룡」 일대의 주민들은 주로 농경을 업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로 이번 유류유출로 인하여 논이 검은색으로 오염되는 등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지역주민들은 지난 23일부터 식수를 끊고 원주시로부터 물공급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름유출이라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사령부와 「캠프 룡」 관계자는 기름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철저하게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일주일이나 지난 25일에서야 현장을 확인하고 빠른시일 내에 한미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답변만 할 뿐 시민단체 참여와 조사단 구성 시기, 주민피해

보상 등의 질문에는 모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어떠한 반성의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유류유출 행위는 SOFA협정상에도 명백한 협정위반행위이며, 한국의 토양오염보전법상에도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미군은 지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없이 한국의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군무원 맥팔렌드에 대하여 공무증명서를 발행하여 한국의 재판권을 부인하는 등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두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미군에 의한 국토의 파괴를 방지하고 한국의 주권확보를 위하여서도 이번 미군기지 「캠프 룡」 유류유출 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관계자 모두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주한미군사령관 Daniel R. Zanii는 미군기지 「캠프 룡」 부대장 Noel L. Lewky의 상관으로서 하급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군기지 「캠프 룡」 부대장 No e l L. Lewky는 부대내의 모든 사안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01년 5월 29일 고발인 문정현, 고정배, 최준길

서울지방검찰청장 귀하

자료 3: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3조의 합의의사록 제2항에 부합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

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953년의 상호방위조약,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주한 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그리고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의 오염의 방지를 포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그들의 정책에 부합하게 환경관리기준, 정보공유 및 출입, 환경이행실적 및 환경협의에 관하여 아래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환경관리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갱신에 협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기준은 관련 합중국의 기준 및 정책과 주한미군을 해함이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참조하여 계속 개발되며, 이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합중국정부는 새로운 규칙 및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환경관리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검토사이에 보다 보호적인 규칙 및 기준이 발효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환경관리기준의 갱신을 신속히 논의한다.

정보공유 및 출입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체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합중국 군인·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한다.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적절한 출입은 합동위원회에서 수립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하여 1953년상호방위조약하에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한다. 환경분과위원회는 정보 교환을 위한 분야,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적절한 출입, 그리고 합동실사·모니터링 및 사고후속조치의 평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환경이행실적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또는 그러한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에 의하여 제기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서도 논의한다. 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 외부의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어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환경협약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와 다른 관련 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환경문제와 그와 같은 시설 및 구역에 인접한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위의 양해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다.

2001년 1월 1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서명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대표하여

4. 단체명 : 원주시민연대

약칭 :

소속 단체 : 참여자치연대

존속 기간 : 1991년부터

활동 지역 : 원주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원주시민연대는 14년의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이다. 1991년 11월 31일 창립되어 우리사회 민주주의, 정권교체, 평화통일운동을 주도해 온 원주민주청년회가 모태가 되어 지방화시대,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98년 3월에 원주시민센터를 발족하였고, 05년 2월 원주시민연대로 개칭하였다.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시민연대의 주요사업으로는 주민공동체실현을 위한 강좌사업, 예산감시운동, 한지문화제, 포럼 및 조례제정운동, 평화통일운동, 인권운동, 전국네트워크

사업 등

주민자치역량을 쌓기 위한 강좌사업

강좌사업은 일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3개월씩 진행되며 현재 11기 강좌가 시작되고 있다. 언론모니터강좌, 평화통일강좌, 사진강좌, 답사모임, 주민권리찾기강좌, 철학강좌, 건강강좌, 청소년인권교실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 강좌를 수강한 주민들은 920여명으로 강좌사업 프로그램회원으로 단체의 가장 큰 자산이자 든든한 후원세력이 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예산감시운동, 최규하생가복원 백지화 투쟁이 기폭제 되어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예산감시운동은 우리 나라 시민운동의 한 영역을 구축했다는 전국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겨레21, 중앙일보, 한국일보, 대한매일) 예산감시운동은 96년부터 시작된 최규하생가복원백지화투쟁이 계기가 되었다. 3년간에 걸친 생가복원 백지화운동은 99년 4월 결정되었지만 당시 행정기관과 지방의회는 "본 예산서(94년도 부터)에 반영된 사업이라" 밀어 부치는 식 이었다. 이 투쟁으로 예산감시운동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97년 12월 5일 '원주시예산분석포럼'을 시작으로 매년 예산분석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약 230여억원에 이르는 낭비성, 선심성, 경직성 경비의 과감한 삭감을 주장하였다. 연간 3억2천만원에 이르는 계도지폐지, 판공비절감및 공개운동, 선심성축제 폐지, 각종위원회 통폐합 및 위원선정 30% 시민단체 참여, 지방세 카드사용납부제 도입, 시금고 공개입찰제, 천만원이상 관급공사 인터넷 개찰 및 공개입찰, 과오납 개선을 위한 공무원 실명제, 채무부담률 급증 및 지방채발행 의존도 억제, P00L사업비 예산지원의 적정성 검토, 국도비지원사업의 효율성 검토, 미발주사업에 대한 문제점, 원주시 직제현황 개선책, 지방화시대 원주시 특화사업 필요성 제기, 각종 감사 지적사항 개선안, 퇴직공무원 해외여행의 문제점, 원주시 정기간행물 구독에 대한 문제점, 치악산평방사 및 칠옥수수축제 폐지 건 등 잘못된 시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산현황주민공개 및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여 많은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 졌다.

판공비 공개운동

6년 전 원주지방의 작은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에서부터 시작한 판공비 공개운동은 99년부터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전국판공비공개운동네트워크'를 이끌어 내었고, 2000년 3월1일에는 전국 4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예산감시네트워크' 라는 단체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연간 40여차례 단체강연회, 공공예산낭비 환수를 위한 '납세자소송법'도 국회에 입법청원하여 3월 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제정운동을 펼친다.

원주한지문화제

예산감시운동의 대안의 운동으로 시작한 것이 '한지문화제'이다. 군사도시의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고장을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고, 문화와 품격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지방에서는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것이 세계에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한지문화제는 97년부터 3년간의 준비과정이 있었다. 일제시대부터 살아오신 70세 이상 노령층 400여명의 면접조사, 호저면, 귀래면, 단구동에 얽힌 닥나무와 한지공장 유래, 일본방문, 프랑스 방문, 프랑스 국립도서관자료검토 등 각계전문가들의 조사와 연구가 병행되었으며,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일반시민의 자원봉사물결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형의 축제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한지문화제는 3년연속 강원도 우수기획축제, 한국문화축제 50선에 선정되었으며, 축제를 디딤돌로 하여 치악산 입구에 한지공예관이 개관되었으며, 앞으로 한지테마파크 건립사업이 시작된다.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지대전은 양질의 전문인을 양성해 내는 보루가 될 것이며, (사)한지개발원은 기능성 한지개발, 한지문화상품 개발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2005년 파리한지문화제, 2006 베를린한지문화제등이 개최된다.

포럼 및 조례제정운동

주민감사청구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98.11), 행정정보공개조례 토론회(99.4), 민선 1기시정평가 (96.6),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00.7), 지방자치 5년 평가 지역주민 의식조사 자료집(01,6), 원주권신문방송보도에 대한 토론회, 기자실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01.12) 등을 개최하였으며, 매년 예산감시포럼을 진행하였고, 올해에는 지방의원해외경비사용에 관한 조례제정,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운동, 미군기지주둔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을 위한 제반 입법활동을 전개한다.

평화운동, 통일운동, 인권, 시민권리찾기운동

원주시민연대는 민족회의, 민화협,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로 우리사회 평화운동, 시민이 중심이 되는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6.15선언은 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를 진척시킨 통일운동의 성과이다. 지난해에는 금강산토론회, 북한영화제, 통일염원자전거대행진, 남북교과서토론회, 통일한마당, 청소년 평화캠프, 8.15통일달리기행사, 용천돛기 및 북강원돛기 계례사랑운동 등이 이루어졌는데 6.15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방 60돌 기념행사, 각계각층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남북강원도 민간교류사업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제9회 인권영화제에서는 인권토론회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인권상을 수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폭주하는 시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하는 시민권리찾기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주요 활동가 : 김진희, 이선경, 오미선, 이덕수, 전영철

관련 자료 : 원주민주청년회 창립선언문

조국의 역사를 밝히는 횃불이며, 지역 7만 청년의 구심체이고자 하는 열정을 모아,

오늘 원주의 희망 청년의 벗 '원주민주청년회'의 창립을 벅찬 감격으로 선언한다.

이제 우리는 '정의로운 것과 진솔한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적 필연성과 일제 치하에서부터 오늘의 분단에 이르기까지 구국의 일념으로 민족과 역사 앞에 애국적 삶으로 일관했던 선배열사들의 모범을 이어받아 정의에 용감하고 진리에 민감한 열혈청년으로서 자주 민주 통일의 신 새벽을 앞장 서 맞이하기 위해 '원주민주청년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민주주의 바다 구국의 길로 힘차게 달려 나아가려 한다.

92,93년의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수많은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공안통치 속에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열사들의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청년들은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작은 힘 모아 조국에 대한 끝없는 믿음으로 애국의 한 길을 달려왔다.

우리의 생명은 '단결'이다. 우리가 억압과 예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승리한다면 뭉쳐서 투쟁하는 길만이 올바른 것이다. 우리들은 일하는 청년이요, 민중으로서 직장 사회, 나라에서 주인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의존성의 논리가 관철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민중중심, 일하는 청년중심의 새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직업, 종교, 학력의 차이를 뛰어넘어 원주지역 청년들과의 대동단결의 기운을 높여 나갈 것이다.

오늘 조국의 현실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엄중한 시기이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가시밭길이 첩첩이 놓여있다. 그러나 지나온 과정에서 확인한 우리의 열의로 녹여내고 '골짜기가 있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이 기나긴 겨울이 춥고 혹독할수록 우리들의 봄은 더욱 찬란하여라'는 믿음으로 조국의 새날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자.

우리는 원주민주청년회가 청년속에서 청년과 함께 책임을 다하는 신뢰와 의리의 공동체로 우뚝 서고 조국의 운명을 청년의 두 어깨에 지는 책임으로 원주의 밝은 미래와 조국의 해방된 그 날을 힘차게 맞이하자.

1991년 11월 30일

원 주 민 주 청 년 회

5. 단체명 :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85년부터

활동 지역 : 원주 및 춘천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원주 한살림은 한살림운동이 처음 시작된 본가이다. 1985년에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출발하여 현재 3천세대의 회원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생명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와 환경사업 그리고 점차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회원복지향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땅에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나만 살다가 떠날 지구가 아니라 나의 아들딸들이 또 그 아들딸들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지구라는 것을 생각하고 과자 하나를 만들더라도, 고추 한 포기를 심더라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한살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며, 그때까지 한살림은 존속할 것이다.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사람은 자기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을 공경할 때 자기의 자기다움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이렇게 나를 모시고 공경하듯 다른 사람의 거룩한 생명도 공경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노인, 장애우들을 모시고 공경하여 저마다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자기만의 고유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존중하여 그들이 우주 공간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토양의 오염은 바로 지금 우리가 먹을 물과 먹거리의 안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기로 연결되기에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한 살림은 내 밥상 살리는 일을 통해 비료, 농약, 생활하수, 공장폐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등의 오염으로 죽어 가는 땅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든 자연 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도랑을 흐르는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을 중심에 두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물질주의 경쟁주의를 극복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계의 존재질서에 맞는 가치관을 확립하는 일이며 또한 올바른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으로 전환하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한 살림은 이처럼 소외가 만연된 우리 삶에서 이웃간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치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생산자는 모두가 내 먹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

루는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남든지 모자라든지 서로 나누어 먹는다는 각오로 짓습니다. 도시의 소비자는 이렇게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이웃과 나누면서 쌓인 벽을 헐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소통으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 나갑니다. 이렇게 한 살림의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자 노력합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주의 생명을 먹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농약과 중금속, 각종 식품 첨가물로 오염되어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은 밥상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합니다.

한 살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넓혀나감으로써 나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자연 만물, 나아가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보살피며 돕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삶의 가치와 생활 양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개인이 생명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각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과의 조화로운 삶을 실천의 원칙으로 하는 한 살림은 나 하나만의 생활이라도 공생을 실천한다는 윤리적 결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고 가꾸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역을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주요 활동가 : 이금래, 최정환

관련 자료 :

6. 단체명 : 성공회 원주나눔의 집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99년부터

활동 지역 : 원주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부족해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 주위에는 힘없고 소외된 계층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실업자는 81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3,000여명이 증가했다. 이중 60대 이상 실업자가 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2만8,000명보다 47.3%늘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더욱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률을 그대로 두면 2050년에는 최고로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의 현실은 복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실업과 날로 늘어가는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기만 하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무의탁노인과 저소득 소외아동 그리고 실업자와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성되었다.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나눔이라는 이름의 희망터 지난 1999년 원주시 학성동에 작은 희망터를 마련하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향해 뛰어 들었다. 나눔의 집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상지대 한의대생들의 도움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다. 곧이어 2개월 동안의 지역 조사를 거쳐 독거노인과 가정결연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햇살공부방을 마련했다. 방학기간동안 학교급식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햇살공부방은 처음 3~4명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은 20여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생태프로그램과 유기농 안전 먹거리 체험 및 문화체험 등 좋은 프로그램이 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아 원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지정됐다. 햇살공부방에서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생활 이외의 부분에서 소외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지도와 연극 관람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가정결연을 맺은 독거노인 가정에는 직접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는 원주의료생협과 함께 방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방문 의료서비스는 지역에서 봉사하는 홈헬퍼와 함께 호저면 고산리 14가정을 포함해 50여가정에 이르고 있다.

설립 초부터 시작된 독거노인 등과의 가정결연사업은 지난 2003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3 테마기획사업’으로 홈헬퍼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명공동체를 꿈꾼다. 2001년 초부터는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장애인, 실직노동자들을 위한 먹거리 지원사업인 푸드뱅크(Food Bank)를 시작해 지금까지 5년째 활동하고 있다. 푸드뱅크는 청소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한편 잉여먹거리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달하면서 음식물을 기탁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 결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는 LG베이커리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신청봉 고기농장 롯데제과 등 업체로부터 후원과 함께 월 2~3회씩 시설지원과 공부방 간식 가정결연 대상자들에 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는 실업자 종합지원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노동부가 지

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의 협동조합과 연계해 고령자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렁각시(가사도우미)가 있다. 지금까지 8기 100여명의 우렁각시가 교육을 마친 상태며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우렁각시 1기가 주축이 된 상조회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은 물론 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원주나눔의 집은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원주지역의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해 지역의 협동조합이 폭넓은 연대 의식과 복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원주생협의 유기농 먹거리를 푸드뱅크를 통해 지원 받고 원주한살림과의 협약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거나 운송사업단 등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가 : 김경현

관련 자료 :

7. 단체명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약칭 : 원주생협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2003년 6월 5일부터

활동 지역 : 원주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원주시내 8개 협동조합들이 국내 처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협동조합의 틀을 만들었다. 원주밝음신협과 한살림생협 원주생협 등 지역 8개 협동조합은 2003년 6월 5일 오후7시 밝음신협 4층에서 원주협동조합운동 협의회(회장:최정환·밝음신협이사장)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원주협동조합운동 협의회에는 1만3,0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밝음신협을 비롯해 △원주한살림 생협 △원주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원주의료생협 △삼도생

협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원주자활후견 기관 등 8개조합으로 조합원만 2만여명에 달한다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연대활동, 소식지 발간 등

주요 활동가 : 최혁진, 가봉현 등

관련 자료 :

8. 단체명 : 민주노총 강원본부

약칭 :

소속 단체 : 민주노총

존속 기간 : 1997년 2월부터

활동 지역 : 강원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1997. 2월, 강원지역본부 출범. 민주노총 강원도본부 준비위원회는 96년 9월말 대표자 첫 모임을 시작으로 10월 4일 권영길 위원장과의 간담회 및 수차례의 대표자 회의 및 지역별(춘천, 원주, 강릉)회의를 거쳐 96년 2월 전체 23개 사업장을 결의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도본부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규약, 운영안, 임원선출 및 출범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97년 2월 1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창립보고대회 및 출범식을 진행하였습니다. 1999.6 - 2기 집행부출범

조직 체계 :

산업별 노조 수 및 조합원 수 (2001.1.1)

가맹연맹명	단위노조수 (지부,분회 포함)	조합원수	단사,지부명
금속연맹	6	1,527	만도, 현자(정/판), 대우자, 기아자(정/판)
사무금융	3	726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공공연맹	5	2,361	한통, 사보, 데이콤, 전기안전공사, 공항공단
보건의료	14	1,195	강대병원, 적십자혈액원, 제일병원, 인화병원, 상지한방,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영동병원, 동해산재의료원, 태백산재의료원, 정선산재의료원
건설연맹	4	167	전기원, 한석엔지니어링, 황성일용, 인제건설노동조합
상업연맹	2	118	미도파, 동해A마트
대학	7	437	상지대, 상지영서대, 연세대, 강원대, 강릉대, 방송통신대, 한라대
민주택시	3	210	속초, 중앙, 원성
언론	6	805	MBC, KBS, CBS, KCYV
전교조	1	2,864	14개 지회
직가입	2	90	폴무원, 대성석회석동해광업소
기타	16	723	
총계	69	11,223	

- 주요 활동 : 1) 노동자 교실운영
2) 노동상담소운영 및 조직확대사업
3) 임원직선제 추진 (2001.9)
4) 정치세력화 사업처

주요 활동가 : 정양언, 박명길, 문태호, 공병욱, 유재춘,

관련 자료 :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약칭 :

소속 단체 : 민주노총

존속 기간 : 2002년 3월부터

활동 지역 : 원주지역

법적 상태 : 반합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노동운동, 공직사회정화

주요 활동가 : 권승복,

관련 자료 : 창립선언문

아!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인가. 오늘, 우리는 지나간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하였다. 돌이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50여년간 권력과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면 주는 대로 받아왔다.

국민들로부터는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 원망과 질책의 대상이었고,

정권은 정권대로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했다. 정권이 바뀔 때면 어김없이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희생양으로 우리들에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악순환을 당해 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인간임을 선언하고 제몫 찾기에 열을 올릴 때도 우리는 특별권력관계라는 두터운 껍질 속에서 복종과 침묵으로만 일관하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더 이상 굴종의 역사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오늘 온갖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엄숙하게 출범하는 공무원노조는 지난날 군사정권에 의해 빼앗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며, 민주노동운동에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참여하여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권력과 가진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드는 데 주체가 될 것이다.

이제 90만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선포한다. 세상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었음을.....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 1: 강원일보 2004.12.13일자,

공무원 사상최대 해직 도인사위 전공노파업 81명 파면·해임 결정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직위해제된 강원도내 공무원 705명중 파면 58명 해임 23명 등 81명이 파면 및 해임 결정을 받았다. 또 332명은 1개월 정직처분을, 235명은 1개월 감봉, 56명은 견책 조치됐다.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조명수행정부지사)는 13일 도내 파업가담자 704명에 대한 징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파면 및 해임은 395명이 파업에 참가한 원주시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춘천 18명, 삼척 14명, 동해 13명, 강릉 6명, 영월 3명, 정선 양구 고성 각각 2명, 화천 1명 등이다. 수배중인 강양희전공노강원지역본부장은 이번 징계에서 보류됐다. 도인사위는 파면과 해임 대상자는 주동자를 비롯해 적극가담자 등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노조간부 출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당일 복귀한 공무원과 개전의 정이 있는 직원, 선처를 호소한 직원 등은 단순가담

자로 분류시켜 구제했다고 덧붙였다. 조명수도인사위원장은 “강원도의 경우 파업가담자가 타 시·도에 비해 많았으나 심사결과 대부분 단순가담자로 밝혀져 파면과 해임이 적었다”며 “징계로 인한 업무공백의 최소화과 징계대상자의 반성정도가 많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도는 파면과 해임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은 이달중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임용대기자를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신규채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선지사는 이날 파업 참가자들이 시·군 공무원이지만 포괄적인 지휘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과 이번 징계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3개월동안 봉급의 3분의 1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료 2: 도내 시민사회단체들, 공무원징계 최소화촉구, 강원일보 2004.11.19일자

도내 3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총파업 사태로 직위해제 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할 것을 김진선지사 등에 촉구했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 노조가 제기했던 부정부패 등 문제점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이들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노조 문제가 심각한 사태에 이른 원인 중에는 자신들의 입장만 강요하며 대화의 의지를 갖지 않았던 행정자치부에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 3: 파업공무원 395명 징계, 강원일보 2004.11.16일자

원주시는 공무원노조 파업 관련 징계대상자가 모두 파면이나 해임을 당할 경우 행정공백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이번 징계대상자가 395명으로 원주시 전체 공무원의 30%에 이르기 때문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현재 주민등록상 원주시 인구는 28만4,478명이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을 감안하면 30만명을 훨씬 넘어 도시과, 건축과 등은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대상자인 395명이 모두 해임이나 파면처분이 내려질 경우 민원업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원주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무원 특채는 물론 일용직 활용과 조기 퇴직한 전직 공무원의 재임용까지 한다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 시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파업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는 파면하고 단순가담자는 해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16일자로 395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강원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조치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10. 단체명 : 강원청년단체협의회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강원 전역

법적 상태 :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강릉청년회/원주청년회/춘천청년회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한장수교육감 규탄 강원도민결의대회 집중을 준비하며
고교평준화 실시를 촉구하는 강원청년단체협의회 성명서**

한장수 교육감은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입증된 대다수 도민의 평준화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했던 평준화 도입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재선을 위한 추악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몇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강원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요구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아온 교사와 학부모들의 미룰 수 없는 거센 항거로 표현되고 있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을 망칠 뿐 더러 우리의 학부모, 선생님들에게까지도 아이들에게 빼뚫어지고 잘못된 경쟁체제를 강요하게 만들고 있다. 대학의 서열화가 대한민국을 변하지 않는 학벌위주의 사회, 입시의 지옥으로 만들었다면 비평준화 정책의 유지는 그러한 입시중심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유지하려는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외국어고, 특수 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등의 도입과 확대로 공교육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희망인 고교평준화는 이제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오직 강원교육감만은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강원청년단체협의회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각 지역의 교육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강원도민의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이제 돈 있는 사람만이 좋은 교육을 받고 그들이 부와 명예를 세습 받는 시대는 끝이 나와야하고 평등한 교육을 통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공교육정상화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이제 강원지역의 고교평준화는 미룰 수 없는 그 마지막 희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한장수 강원교육감은 2007년 입시부터 고교평준화도입을 즉시 수용하라.
1. 한장수 강원교육감은 자문협의회를 해체하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협의회를 즉각 구성하라.
1. 한장수 강원교육감은 평준화도입 공약 불이행과 평준화를 요구하는 교사와 학부모를 직원과 경찰을 동원해 폭력 진압한 것을 즉각 시인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라.

강원청년단체 협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강원교육연대와 연대하여 강릉, 원주, 춘천에서 적극적인 거리실천과 홍보활동을 벌여낼 것이며 만약 이러한 전도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차기 교육감선거에 출마 할 경우 낙선운동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2005. 10. 5.

강원청년단체협의회
강릉청년회/원주청년회/춘천청년회

11. 단체명 : (사)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원주지부

약칭 : 소시모

소속 단체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존속 기간 : 1990년 4월부터

활동 지역 : 원주, 영월, 평창, 횡성, 홍천 등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원주지부는 1990년 4월14일 본 모임의 두 번째 지부로 설립되었다. 원주시는 교통도시로서 강원도내 상품의 유통의 중심으로서 소비자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호소할 데가 전혀 없었으며, ‘소비자 고발’이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였던 지역이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지 못하였고,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관청의 지시를 따르는 지극히 소극적인 활동뿐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원주지역은 지학순주교 중심의 민주화 운동이 자리잡은 지역이었고,故무위당 장일순 선생님께서 지역사회의 스승이셨으며, 밝음신협은 지역 주민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주지부 설립 당시故장일순 선생님께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라고 하시면서, 소비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셨다. 그리고,故장상순 선생님과 박준길 전무님께서 노력하시어 밝음신협이 소비자운동을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현재까지도 사무실뿐만 아니라 회의실, 강당 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비자운동을 크게 돕고 있다.

조직 체계 : 회원수: 약 200명

주요 활동 :

소비자 고발상담, 조사연구 사업, 소비자 교육, 상품테스트 및 실량검사, 국제활동

주요 활동가 : 윤교회

관련 자료 :

12. 단체명 : 원주 YWCA

약칭:

소속 단체 : 한국여자기독교청년회

존속 기간 : 1967년부터

활동 지역 : 원주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원주 YWCA는 1967년 5월 6일 이희주, 이화재, 손덕수, 이정숙, 김병옥 씨 등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1988년 6월에 정회원Y로 승격되어 기독교운동, 여성복지 향상, 여성직업개발, 청소년육성사업, 환경운동, 바른 삶 실천운동, 사회복지사업 등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변화와 개인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 환경보존 운동 (쓰레기 종량제, 장바구니 들기, 수은 건전지 수거 운동)
- 아시아YWCA환경대회(1992)
- YWCA 여성 기능대회 개최
- 세계평화와 여성연대 모임 개최(연변, 뉴욕)
- 전국 대학생 여성포럼 , 국제 자원활동 연합캠프 개최
- 사랑의 Y 국제봉사단(CSV) 파견
-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시상
-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 보내기 운동
- 제2차 바른삶 실천운동 시작
- 실업충격완화 및 재취업, 창업준비 프로그램
- 사랑의 먹거리 나누기 운동(FOOD BANK) 전개
- 실직자 돕기 위한 1일 100원 저축운동 전개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13. 단체명 : 원주 YMCA

약칭 :

소속 단체 : 한국 YMCA

존속 기간 : 1973년부터

활동 지역 : 원주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YMCA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청년운동체로서 1884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하여 약 16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 120개국에 YMCA가 있고 한국에도 63개의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활동력있는 선교 운동체이며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원주YMCA는 이러한 YMCA의 목적에 따라 1973년 창립하여 원주지역의 시민운동, 청소년운동, 청년운동의 선도자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참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원주YMCA는 내일의 지도자를 기르는 어린이, 청소년 사업,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시민운동,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생활체육 및 사회교육사업, 선교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YMCA는 참된세상,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모두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등불로 꺼지지 않는 빛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사회를 이루는 주체적 시민세력의 형성을 위해 YMCA는 시민의 역사적 책임의식과 민주적 비판의식을 개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그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주도해 가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지역사회의 문화개선 및 의식개혁운동, 환경운동 등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원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시민사업

원주YMCA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힘을 발견하고, 나아가 21세기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 연대 운동

시·의정 참여단 활동

시민논단 개최

시정개혁을 위한 각종 연대 활동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개혁 운동

교육 문화 도시만들기 토론회 개최

교육환경개선운동

학부모교육

새로운 교통문화 창출을 위한 교통문화개선운동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조례청원 운동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 활동

정지선 지키기 실태 모니터
횡단보도 적절성 실태 조사
시민사회 정보공유를 통한 시민정보화 운동
정보주권을 위한 시민 연대 활동
시민정보 함께 나누기 운동
시민 알권리 확보를 위한 시정 참여 운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지표운동
지방의제 21 참여
지혜의 등대 운동
환경 운동

주요활동가: 김영하,

관련자료:

14. 단체명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강원지회

약칭 : 민교협 강원지회

소속 단체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1987년부터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강원대와 강릉대 민교협은 조인형, 배동인, 이병천 교수 및 임승달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강원도의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교육과 사회민주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기여를

하였다. 특히 강원대 민교협은 상지대의 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상지대 구재단을 퇴진시키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 상지대민교협은 민주화투쟁과정에서 고비마다 물길을 바꾸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비록 회원 수는 많지 않았지만, 민교협은 항상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를 견인하였고, 이를 계기로 회원들 간의 연대는 더욱 굳건해졌다. 상지대민교협은 교육민주화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싸웠다. 89년 전교조 결성투쟁 때는 김준 교수와 박정원 교수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교사들을 격려방문하기도 했다. 전교조활동과 관련해 원주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해직되었고, 이들을 돕기 위해 교수 10여명으로 전교조 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91년 5월이 되면서 강경대군 폭행치사사건이 발생했다. 87년의 박종철·이한열의 죽음 이후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의 죽음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었다. 민교협은 전국차원의 투쟁을 이끌면서 지역별·대학별로 농성에 돌입했고, 재야 민주화세력들도 동시다발적인 투쟁에 돌입하였다. 상지대민교협도 이 농성에 동참했다. 먼저 상지대 제3기 교협 집행부를 만나 사건의 개요와 투쟁의 의미를 설명하고 교협차원의 대응을 요구하였지만,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농성에 돌입하였다. “청년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정권은 퇴진하라. 교협이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다섯 명의 회원만으로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 다섯 명은 김세현·김준·김승탁·임상오·박정원이었다. 비록 소수가 전개한 철농이었지만, 학내외의 관심은 지대했으며 지역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많은 동료교수들과 지역인사들이 농성장을 찾아와 사기를 돋구었다.

상지대 민교협은 94년 이후 많은 교수들이 보강되었다. 새로 온 분들이 대거 가입하여 현재 15명을 유지하고 있다. 상지대민교협 회원들은 모두 자신의 영역에서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대학 내에서도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가 : 조인형, 배동인, 이병천, 박정원, 임승달, 김세현, 박병섭, 공제욱, 강이수, 신영명, 정대화, 김인재, 최종덕, 조석곤, 박용규, 배진한, 박수완, 홍성태

관련 자료 :

자료 1: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명지대학의 강경대군이 공권력의 쇠파이프에 맞아 무참히 살해된 이후에도 불과 며칠 사이에 두고 수명의 대학생들이 잇따라 분신하고 있는 현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과 심각한 우려를 금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악화된데는 현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당국이 사태의 실질적인 수습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무책임하고 안이한 미봉책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공권력에 의한 강경대군의 타살과 잇따른 학생들의 분신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폭력의 악순환의 근본원인은 6공 정권의 민주화의 지 부재와 공안통치에 있다. 6공화국 정권은 6.29선언에서 자기 스스로 약속한 일련의

개혁 공약마저 파기하는 파렴치한 기만행위를 자행 해 왔을 뿐 아니라 3당 야합을 통하여 민자당을 창당함으로써 오늘의 공안통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같은 6공 정권의 형태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을 송두리째 유린한 폭력정권으로서의 자기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하여 민자당 정권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의해 급기야는 고귀한 인명을 살상하는 데까지 이르러 국가권력 담당자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하였다.

이에 우리는 현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학생들은 분신과 같은 지금의 극단적인 저항방식을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

2.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비롯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3.민자당 정권은 공권력의 폭력적 행사에 의한 살인과 분신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4.언론은 기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양비론을 즉각 버리고 사태의 근본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해야 한다.

1991년5월8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강원지회(강원대,강릉대,상지대)교수일동

자료 2 : 현 정권은 교직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교육은 정권의 예속물이 아니다-

교육은 곧 백년대계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2세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숭고함에 있어서나 중요함에 있어서 교육외적인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가해져서는 아니 될 신성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극간 우리 교육의 실상은 과연 어떠했는가? 일제하의 식민교육은 차치하더라도 해방이후 이 땅에 수립된 역대 독재정권은 교육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백년대계로 삼기보다는 정권안보와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대 정권은 획일화된 논리만을 강제 주입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세계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식을 상실케 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입신과 영달을 위한 점수경쟁에 몰두케 함으로써 공익과 대중을 생각하기에 앞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먼저 탐하는 이기적인 인간군상을 양산해 왔다. 또 극심한 학력차별과 이에 따른 입시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심지어 매년 수십명의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지 않았던가!

이에 더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학교사회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문교제도의 틀에 얽매어 지시와 통제일변도의 관료조직화 함으로써 교육과정에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오직 상명하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렇듯 파탄지경에 이른 우리교육을 바로 잡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작금의 상황에서 그 역할을 남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스스로가 맡아야 한다는 뼈저린 각성이 바로 엇그제 전국교직원노조의 결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교원 스스로의 단결된 힘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맹목적 체제순응 교육 및 비인간적 점수경쟁으로부터 진실로 민족, 민주 그리고 인간화를 지향하는 본래의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고귀한 의지의 발로이자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노조의 총정에 대해 현 정권은 실정법 위반 등의 구차한 변명을 내세워 공권력을 통한 물리적 탄압과 주도교사들의 인신구속으로 답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볼 때, 그 배후에는 교육을 정권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기존의 기형적 기득권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미망에 사로잡힌 일부 교육관료 및 어용교육귀족 집단이 스스로 그 전위로 나서고 있다.

현정권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보다 나은 우리 교육의 앞날을 기원한다면 교직원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되며, 구속 수배되거나 직위해제된 교사들을 하루속히 교육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아울러 교직원 노조는 시대적 요청이자 거를 수 없는 역사의 귀결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합법적 단체로 인정해 주기를 충심으로 당부한다. 교육은 정권의 예속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와 민족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1989년 6월 1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지대 지회

15. 단체명 : 원주자활후견기관

약칭: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원주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1) 저소득층 고용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가능한 기업을 창업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① 유희농지활용을 통한영농사업 : 도농복합도시의 원주에서 휴경지를 통해 적당한 작목을 선택하여 그 수확물을 판매하여 장기적으로 영농자활공동체로 발전시킨다. 원주생협과 농업기술 및 자문, 실무추진협력과 안전한 판매망을 협조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보장한다.

② 재활용 활성화 사업 : 원주시내 일원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다. 또한 판매 가능한 재활용품은 판매하고 재사용이 가능한물 품은 원주YMCA가 운영하는 녹색가게장터와연계하여재활용 운동을 활성화한다.

③ 음식물 쓰레기재활용 사업 :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주생협과 연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지렁이 사육, 오리사육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저소득층의 고용을 증진시키고, 사업의 운영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유도함으로써 생산의 효율과 분배의 정의가 동시에 실현되는 기업의 모델을 만든다.

(2) 공동작업장 및 교육장

지역조사에 기반하여 지역 내의 저소득층 노인, 여성가장, 청소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도배, 간병 등)을 교육하고, 실습 후 공동작업을 하는 공동작업장 및 교육장 운영한다. ⇒ 2001년 2월 현재 지역조사 진행중(YWCA와 협력사업) * 교육장은 나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여 실시 한다

(3) 지역복지공동체 사업

자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들이 기존 나눔의 집의 지역복지공동체 프로그램들을 이용함으로써 문화적, 생활적 복지를 누리게 하며, 이의 성과로 주민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① 어린이 방과 후 교실 ② 야간학교 ③ 무료진료 ④ 무료이발 ⑤ 희망의 카드

(4)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장기적인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와 정책제안 및 구체적인 모델로서 주민모임을 조직한다. ① 지역내 저소득층 복지욕구 조사 ② 저소득층 고용과 자활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운동 ③ 주민모임 활성화

(5) 건설일용 노동시장 개선사업

원주의 일용직노동조합과 연계하여 원주지역 건설일용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① 건설일용협동조합 구성 : 관내 일용직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실직자들을 동자 출신노숙자들을 조직하여, 협동조합 구성.

② 건설일용고용정보센터 : 협동조합원 외의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고용정보제공

③ 건설일용 노동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존용역업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건설일용 노동자에 대한실태파악을 진행하고, 사회보험 가입등 제도적 보호에 대한대책 강구

주요 활동가 : 정인재

관련 자료 :

16. 단체명 : 원주녹색연합

약칭 :

소속 단체 : 녹색연합

존속 기간 : 2002년부터

활동 지역 : 원주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2002. 2 원주녹색연합(추) 결성
2002. 5 원주녹색연합(준) 발족식
2004.12 원주녹색연합 창립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자연생태계 보존운동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여 생태계 질서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노력 합니다.

자연과 생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서식지인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활동함

니다.

- 치악산 보존활동
-생태계 기초조사활동, 공원 내외 난개발과 훼손행위 대책활동 등
- 야생동물 보호활동
-조류보호구역 보존활동, 밀렵 대책활동,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 강원지역 백두대간 보호활동

***생태순환형 녹색도시 만들기**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도시문화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건강

하고 자립 가능한 도시와 마을 만들기를 통해 삶 속에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생태도시 만들기 운동
-도심 녹지공간(공원, 가로수 등)및 녹지축 보존활동, 중앙로 차없는 거리 추진활동,
50만 도시론 반대활동 등

***회원과 함께 하는 생활속의 환경운동**

회원이 주인 되어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생활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회원

모임, 자원활동 모임이 운영되어 자발적인 환경운동과 생활속의 환경운동을 위해 노력합

니다.

- 회원모임 활동
-풀내음(소식지편집위원회), 소박한 밥상(주부모임), 녹색오름(등산-생태기행모임),
건고싶은 원주(도시기행모임)
- 자연생태해설가 강좌 등

***생명 평화운동과 신자유주의 반대, 지역 연대활동**

지구적인 개발과 약탈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와 모 든 종

류의 전쟁을 반대하며 비폭력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 미군,한국군 기지에 의한 환경문제 대응
-캠프이글, 캠프롱 이전 미군기지 환경문제 대책활동, 1군수지원사령부 기름유출사
건
대책활동 등

-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보호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연대활동 등
- 신자유주의반대,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연대활동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창립선언문

원주는 우리나라의 청정지역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강원도의 대표적 도시로서 강원도의 역사, 문화적 중심도시이다. 강원도의 미래와 희망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 사업은 자연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너무도 쉽게 우리의 삶의 근원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자연, 생명, 환경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생명과 환경이 없이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생명 경시 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새로운 내일의 미래와 희망도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의 도시 원주를 자연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 안정성, 순환성, 지속성이 담겨진 생명존중, 환경보전의 가치를 내건 생태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며, 우리 후손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원주는 자연을 담보로 극단적인 개발을 통해 건설된 우리나라 대도시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팽창주의적 개발은 원주라는 도시에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의 도시 원주는 자연과 공존, 공생하는 생태도시가 되어야 가장 어울린다.

그 동안 원주는 우리 군부대와 미군 주둔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환경의 오염, 후세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국가자산인 치악산국립공원의 경관과 생태계를 외곽에서 보호해주는 주변지역의 난개발, 시민 생활환경과 조망권을 침해하는 부분별한 도심 주택단지개발, 최근의 환경 정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택지개발을 위한 도심 산지형 녹지의 훼손, 원주천의 수질악화로 인해 시달려 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택지와 도로개설 그 밖의 관광지 개발로 시 외곽의 산림과 녹지는 파괴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더 이상 원주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고 생명을 무시하는 도시개발은 없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원주 시민들의 힘을 모아 그리고 강원도민의 지지를 토대로 원주와 강원도 생태환경의 지킴이로서 원주녹색연합의 창립을 선언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원주녹색연합은

첫째,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원주시민들과 강원도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둘째, 원주가 생태도시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태환경 보전운동과 친환경적 도시계획의 수립, 모든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개발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셋째, 강원도 지역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핵심 축으로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그중에서 강원도를 관통하는 백두대간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백두대간 개발에 대한 압력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녹색연합은 삶의 현장에서,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한 실천을 시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4년 12월 4일

원 주 녹 색 연 합

17. 단체명 : 원주민예총

약칭 : 민예총

소속 단체 : 한국민예총

존속 기간 : 1995년부터

활동 지역 : 원주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연도별 주요활동 문화예술활동

1995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창립

1996년 일본 아이다 인형극제 참가

1998년 인권 영화제 개최

1998-2000년 원주 생명축제 개최

2002년 찾아 가는 문화 마당-장터 문화 마당 개최

2004년 5월 무위당(장일순)의 생명과 평화 축제 종아제 연출 및 공연

1998-2003년 원주 치악제 공동 연출

2004년 8월 무예극 '치악의 종소리' 공연 및 기획

2004년 12월 정책포럼 "축제마케팅과 지역발전 전략" 주관

1998-2005년 "생명,평화,꿈" 원주 어린이날 큰잔치 공동 주최 및 기획

2001-2005년 민족 통일 해원 상생굿 개최(5회)

1997-2005년 원주 민족예술제 개최(9회)

1997-2005년 원주 단오 맞이 시민 한마당 개최

2005년 사회문화예술 교육 사업-치악산 전설을 활용한 원주지역 전문 예술가 작업실 순회 생태문화 예술체험활동

주요 활동가 : 성낙윤, 최진희,

관련 자료 :

18. 단체명 : 전교조 원주횡성지회(초등, 중등)

약칭 :

소속 단체 : 전교조

존속 기간 : 1989년부터

활동 지역 : 원주횡성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1985.01.18 춘천YMCA 교육자협의회 창립(초중교사 40여명, 회장 곽대순)

1986.05.10 교육민주화 선언 참여(20명)

1987.06.21 4.13 호헌조치 철폐 시국선언(32명 참여)

09.19 강원교사협의회 창립(가톨릭센터, 봉쇄를 뚫고 150여명 참여)

1989.02.19 전교협 대의원대회에서 교원노조 건설 의결

03.09 6급 이하 공무원 노조결성 및 교섭인정 법안 - 대통령거부권 행사

05.14 교원노조 결성 강원교사 발기인 대회(강원대)

1989.05.28 전교조 결성대회(연세대)

06.11 강원지부 창립(연세대 원주의대, 지부장 원영만)

06.14 횡성지회 창립(지회장 이성원)

06.30 원주지회 창립(지회장 곽대순)

07.21 강원지부 조합원 명단 공개(한겨레신문, 166명)

7-9월 강원지부 조합원 42명

해직(원주지회: 곽대순, 원영만, 김인희, 한명신, 최덕현, 이향

횡성지회: 황선희, 박순남

구속자: 원영만, 김인희, 한명신)

07.26 해직교사 명동성당 무시한 단식농성(583명)

1992.08.21 교육개혁과 해직교사 복직을 바라는 사회인 선언

1993.01.26 국제 교원노조 제단체가 교원노조연맹으로 통합창립

1993.08.30 전교조 티가입, TI 한국 전교조 인정 촉구 성명

1994.03.01 해직교사 조건부 복직, 강원지부 41명 복직

1998.02.06 노사정위원회 전교조 법제화 합의

05.28 전교조 창립 9주년 기념식

1999.01.0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로 법제화 됨

06.29 원주횡성지회 합동분회 창립대회

07.01 노동조합 인증

07.15 전교조 강원지부 원주횡성지회결성 10주년 기념식 및 합법 전교조 출범

식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교육민주화운동, 참교육실천운동

주요 활동가 : 곽대순, 김인희, 윤주봉, 이 향, 한명신, 최덕현,

관련 자료 :

자료 1 : 지학순 주교님께 드리는 글

암울하기만 했던 과거 민족적 고난의 시대속에 온 국민의 뇌리에 이 땅에 민주화와 통일의 선구자로 기억된 존경하옵는 지학순 주교님께 드립니다.

그동안 주교님께서서는 민주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이루려 갖은 탄압 속에서도 곳곳하게 실천해 오셨습니다. 또한 민족의 미래를 짊어진 동량을 길러낼 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고 과거 일제시대 사학이 우리 민족해방의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진광학원의 설립자로서 이 땅에 참교육을 실현하려 애써오셨으며 진광학원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어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의 주역이 될 일꾼들을 길러내셨습니다.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정의가 강물처럼(1983. 3. 10.형성사)”이란 책자에서 강론을 통해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통찰하시고 현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명쾌하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강론중 소재목 “그리스도와 교육”에서 교육이란 본래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케 하며 인격을 배양하는 길이기 때문에 스승은 본래 제자들에게 지극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68쪽)

그래서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참교육을 하는데 더욱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69쪽)진실을 진실대로 가르칠 수 없게 하는 당국의 교육에 대한 기본방침과 자세에 기본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선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생이 학생 하나하나를, 학생전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69쪽)

.....교육은 결국, 오늘의 상황에서는 민주적이며 민족현실 속에서 참되게 사는 사고능력과 인간성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배치되는 교육은 하나의 도구로서 교사행위일 뿐입니다.....(72쪽)

.....우리는 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아픔을 가지고 보아야하며 또 그렇게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73쪽)

.... 오늘날 학교교육의 기본 지침이라 할 국민교육헌장에는 학생들에게 요구사항만 있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정의감을 키우지 않는 교육은 노예교육입니다.....(73쪽)

..... 인간의 정신적 도의교육이 말살되고 인간이 정권의 기계화되는 이 현실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양심을 가진 카톨릭 교육자라면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74쪽)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저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평소 주교님께서 역설하시던 참교육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전교조의 교육이념은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으로서 주교님께서 강론하셨던 내용과 일치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현정권에 의해 전교조는 온갖 탄압과 매도로 교사들의 참교육 실천의지가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현정권은 수천의 교사를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참교육을 모든 수단을 통해 악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8월 5일 진광고등학교에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광대순 교사가 주교님의 직권면직 처분으로 직분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주교님!

이 땅의 민주, 통일은 교사들의 참교육 실천으로 기필코 앞당겨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참교육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온 광교사를 카톨릭 교단의 사립학교 중 전국최초로, 그것도 민주와 통일의 선구자이셨던 지학순 주교님이 설립자이신 진광학원에서 적법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직권면직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당혹감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교육현실을 두고 전 국민이 걱정하는 이 때 아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전교조는 그 합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교사들은 참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단에 세워 두어야 합니다.

존경하옵는 지 학순주교님!

우리가 알고 있는 광교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며 학생들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해 왔습니다.

개학때 객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주교님의 올바른 판단을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교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1989. 8. 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원주지회 드림

자료 2 : 성 명 서

-교육민주화를 촉구하며-

우리는 최근 양심적이고 선진적인 선생님들의 참교육 실천을 위한 교직원 노조와 참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비열하고 반인륜적인 탄압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하고 배우고저 하는 우리의 후대들을 학교에서 몰아 내치는가 하면 학교장이 서슴없이 소속학교 교사를 형사고발하는 오늘의 현실은 국가백년 대계로서의 교육이 설 땅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족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교육이 인간과 민족의 존엄성, 자주성, 잠재가능성을 계승 발전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가 관변조직화되어 정권주변에 안주하는 현실은 진정 개탄스러운 것이다. 이렇듯 열악한 교육현실을 타개하고 민족 민주 인간교육을 실현하려는 교사들의 소박하고도 강열한 의지를 교육당국은 반교육적 관료와 어용학부모들을 사주하여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횡성읍 성북초등학교 황선희 교사에 대한 학교장 정근시 교장의 고발 및 직위해제로 교원 노조활동을 저지하고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두려워하는 교육관료들의 무분별하고도 반인륜적 처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황교사는 평소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생활 속에서도 온유하고 절제있는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긍지에 걸맞는 우리 지역사회의 모범적 교육자였고 이는 지역사회와 학교내의 동료교사는 물론 해당학교의 어린 학생들까지도 인정하고 따르는 선생님인 것이다. 그날 6월 28일 성북국민학교가 온통 울음바다가 되고 학부모들이 스스로 황교사의 활동을 지지하고 학교장의 처사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결의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로서 교장 정근시는 이미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반민주적, 반민족적 관료임이 분명해졌다.

오늘 우리 횡성군 민주학부모회는 성북초등학교 황선희교사의 징계와 고발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교육당국에 민족적 양심으로 아래 사항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1. 학교당국은 성북국민학교 황선희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구속 직위해제된 교사들을 즉각 교단으로 돌려 보내라.
2.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원노조를 인정하고 적극 지원하라.
3. 행정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좌경 용공조작을 즉각 중단하라.

1989. 7.

횡성군 교직원 노동조합 후원을 위한 민 주 학 부 모 회

19. 단체명 : 전농 강원도연맹

약칭 : 전농

소속 단체 : 전국농민회총연맹

존속 기간 : 1992년부터

활동 지역 : 강원도 전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조직체계: 전농 강원도연맹은 현재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등에 1,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음.

주요 활동 : 민족농업 사수! 통일농업 실현!을 위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통일 조국 실현

1992. 2. 24 전농 강원도연맹 창립 및 창립대의원대회(의장 배상수)

9. 1 농업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강원농민 결의대회

1993. 2. 24 제2기 대의원대회(의장 정연규)

12. 22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를 위한 범 강원도민대회

1994. 2. 28 제 3기 대의원대회(의장 정연규)

4. 9 UR국회 비준저지를 위한 강원유권자 결의대회

10.25 UR국회비준 반대와 재협상쟁취,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강원농민대회

12. 8 쌀 수매가 날치기 무효화선언 및 UR조기비준 저지를 위한 강원농민대회

1995. 2. 24 제4기 대의원대회(의장 최돈우)

12. 8 의보통합과 농정개혁 실현을 위한 강원농민대회

1996. 2. 9 제5기 대의원대회(의장 이승열)

8. 30 동해항 수입 식용쌀 하역 저지대회

1997. 2. 3 제 6기 대의원대회(의장 이승열)

9. 6 소 값 폭락대책 마련을 위한 강원농민대회

- 1998. 2. 9 제 7기 대의원대회(의장 이승열)
- 5. 25 도지사 후보 초청 농정공약 토론회 개최
- 6. 19 농축산물 가격보장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강원농민 대표자대회
- 12. 8 농가부채 해결과 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강원농민대회
- 1999. 2. 2 제8기 정기대의원대회(의장 이승열)
- 3. 8 농협개혁 촉구 및 신용대출금리 11.5%인하를 위한 강원농민 대표자대회
- 9. 10 농민생존권 사수! 99년 1차 강원농민대회
- 2000. 1. 27 제9기 정기대의원대회(의장 김종유)
- 11. 21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1차 농민대회

주요 활동가 : 배상수, 최돈우, 이승열, 김종유

관련 자료 :

20. 단체명 : 원주환경운동연합

약칭 :

소속 단체 : 환경운동연합

존속 기간 : 1993년부터

활동 지역 : 원주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쓰레기문제, 대기오염문제, 하천오염문제와 골프장반대활동, 송전철탄 건설반대활동, 에너지절약문제,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군부대환경문제 등의 직접적 현장활동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홍보활동과 시민환경교육, 생태기행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활동. 또한 회원참여의 활성화와 회원의 자율적인 환경활동을 위하여 생명미술시민작가회, 생명영상나눔이, 환경교사모임, 청소년 환경소모임

'푸른하늘' 등의 회원소모임을 운영
 원주권 관광개발시설 실태조사활동(1993)
 인제군 군종합훈련장 설치반대활동(1993-1994)
 우산공단 우성피혁 입주 반대활동(1994)
 원주환경살림미술전지방자치선거 입후보자 초청 환경현장 탐방활동(1995)
 원주환경살림미술전(1995)
 근로자복지회관(웨스포센타) 불법폐기물 매립 대처활동(1996)
 원주권 역사,생태관광 모델개발 및 정책제안 토론회(1996)
 원주권 역사,생태관광 시범운영(1997-1999)
 현대성우골프장 건설반대 주민지원활동 및 골프장반대활동(1997-1999)
 원주시의원 초청 소각장 간담회 및 소각장 반대활동(1997-1999)
 환경운동연합 강원연대 및 강원환경연합 결성(1997, 2000)
 섬강도보탐사 및 섬강수질오염원 모니터링 활동(1997-2003)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시민운동협의회 결성 및 활동(1998-2001)
 원주시 수돗물 악취사건 진상조사 및 정책제안활동(1998-1999)
 동강댐 건설반대활동(1999)
 총선시민연대 활동(2000)
 영월 서강 보존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 주민지원활동(2000-2001)
 공군부대(8비행단) 기름유출 대처활동(2001)
 환경기본조례 설치 및 원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결성(2002)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대처 및 미군기지 반환활동(2001-2002)
 1군수지원사령부 기름유출 대처 활동(1999-2003)
 생명원주21실천협의회 결성 및 물?폐기물분과 간사단체 활동(2001-2003)
 풀뿌리시민연대 활동(2002)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TCE유출 대처활동(2003)
 횡성댐 수질보전협의회 결성(2003)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21. 단체명 : 횡성환경운동연합

약칭 :

소속 단체 : 환경운동연합

존속 기간 : 1998년부터

활동 지역 : 횡성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횡성지역은 전형적인 산간농촌지역으로 제조업이 별로없이 청정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나 지방자립도가 낮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수증대를 위한 지역의 개발 욕구에 의해 대형스키장과 골프장등 위락시설과 공장유치 등이 환경에 대한 적절한 평가나 대책없이 건설되어왔으며, 이로인해 토양, 하천오염, 산림훼손등 환경오염문제가 발생되어왔다. 이러한 문제가 지역주민의 생존권문제와 직결되어 지역적?소규모적인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해왔으며(생수공장으로인한 지하수고갈, 골프장의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와 농약으로 인한 식수원오염, 등) 몇몇 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의 모색은 단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주민들만의 생존권 보존투쟁만으로 인식되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보존 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 전체에서 공론화시킬수 있고, 또 환경파괴행위에 대해 공동대처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뜻을 같이 한 지역주민들이 1997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년여의 준비 끝에 횡성환경운동연합이 태동하게 되었다.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횡성환경운동연합은 1998년 5월 준비위원회로 발족하여 2000년 3월 3일 환경운동연합의 정식 지역조직으로 창립하였으며, 회원들의 참여와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환경단체로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거기에 터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히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바꾸어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역운동의 확산과 초국적인 연대를 기치로 시민환경운동을 벌여온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적으로 52개 지역조직과 8만6천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환경단체로 성장하였으며, 횡성군에는 김윤수, 채금순 공동의장과, 운영위원, 각 읍면별 집행위원 등의 임원을 포함한 10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횡성환경운동연합활동전망- 횡성은 태기산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과 계곡, 하천 등의 자연환경이 잘 어울어진 지역으로, 앞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찾고자 하는 국민들

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횡성지역의 잘 보존된 자연환경은 그대로 지역의 자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발을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환경보존이 군의 모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한 생태주거건물을 건축토록한다든가, 축산폐수처리를 자원화 공정으로 하여 토양환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횡성환경운동연합은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횡성의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 및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실천운동의 확산과 생태계보존운동, 섬강, 주천강 맑은물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환경감시활동 등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횡성의 건실한 환경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요 활동가 : 김윤수, 채금순

관련 자료 :

22. 단체명 : 춘천시민연대

약 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99년부터

활동 지역 : 춘천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춘천시민연대는 1999년 9월에 창립되었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춘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 시민들이 주인 되는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며 시민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책화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춘천시민들과 함께 바뀌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에서, 전국 단위에서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납부해주시는 회비수입을 기본으로 운영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일체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회비로 단체 를 운영하다보니 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시민단체 활동의 독립성을 지켜 내고 자립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이러한 운영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춘천시민연대에는 지방자치위원회,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 작은 권리 찾는 사람들의 3개 분과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한 달에 한번씩 춘천 시민연대 소식지인 ‘참여자치통신’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설연구소인 지역사회연구소에서는 정기적인 정책토론회와 춘천지역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올바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활동 (지방자치위원회)

춘천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매년 춘천시의 예산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예산감시활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춘천시의회의 의정활동평가를 통한 의정활동 감시, 조례제·개정운동을 통한 잘못된 제도 개선 운동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 춘천미군기지 반환운동, 평화·통일 운동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

춘천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캠프페이저는 춘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000년 춘천시민연대와 여러 단체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춘천시민들은 춘천에서 미군기지가 떠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그 동안 ‘미군기지대책위원회’라는 분과위원회에서 미군기지 인근 주민 간담회, 근화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권 피해 설문조사, 춘천미군기지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 미군기지 지역주민 건강실태 조사 등 미군 부대 없는 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미군부대대책위원회’는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분과를 개편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앞으로 미군부대문제 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 문제,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3) 춘천시민들의 작은 권리 찾기 (작은 권리 찾는 사람들)

춘천시민연대에서는 춘천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은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인하 운동,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투어 등 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작은 문제들을 찾아 여론화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연대활동

춘천시민연대는 지역차원, 전국적 차원에서 많은 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춘천시민운동네트워크**

- 춘천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춘천시 예산, 행정과 관계된 중요한 사항들을 각 단체 전문 분야별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 춘천연대

- 학교급식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모여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도정감시강원연대**

- 강원도의 각 지역에 있는 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도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전국에 있는 1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각 지역의 활동을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 전국에 미군기지가 상주하고 있는 도시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문제 관련 단체들이 모여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 불평등한 소파개정운동, 미군기지 반환운동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예산감시네트워크**

-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23. 단체명 : 춘천생활협동조합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2001년부터

활동 지역 : 춘천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1995년 춘천/화천지역 유기농업실천농가와 춘천시민의 직거래 공급

◇ 2001년 11월 춘천생활협동조합 법인 창립총회 실시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 2001년 11월 농림부 시행 소비자단체 물류시설 지원사업

(판매장 설치사업) 국고용자 사업 수행

◇ 2002년, 2003년 2004년 정기총회 및 강연회

◇ 매년 계절별로 현장체험, 생태견학, 일손돕기, 문화제 등에 소비자 참가

◇ 조합원 대상으로 강좌 시행

◇ 조합원 자녀들 대상으로 생태학교 교육 실시

◇ 2003년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 수행

◇ 현재 소비자 조합원 850명/ 생산자조합원 20명 지역농업 살리기 전개

1) 천오백 조합원 및 월 이용 조합원 천 가족 달성

2) 월례강좌

3) 생태탐방, 테마여행, 산지견학

4) 생산자위원회 구성

5) 홈페이지 구축

6) 고교평준화 운동

7) 학교급식 운동

8) 방과후 학교 운영

9) 생협회관 건립을 위한 출자금 확대

주요 활동가 : 김선옥, 유상열, 한재천, 이재욱, 변창용, 유진숙, 김태수

관련 자료 :

24. 단체명 : 강원교육연대(원주, 춘천, 강릉)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원주, 춘천, 강릉, 속초·고성·양양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원주교육연대, 춘천교육연대, 강릉교육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회, 강원민주학부모회 준비위원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전국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도당, 전국농민회도연맹 등 7개 단체

주요 활동 : 공교육정상화와 고교평준화 실현

주요 활동가 : 박정원, 김효문, 김상도, 이열호, 손미애

관련 자료 :

자료1: 강원일보(2005.03.28)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이하 강원교육연대)가 5월 3일 출범식을 갖고 고교평준화 활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내달 3일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회, 강원민주학부모회 준비위원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전국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도당, 전국농민회도연맹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가 출범한다.

강원교육연대는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기금 모금, 설문조사,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원지부 관계자는 "강원교육연대 출범을 기점으로 평준화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2: 강원일보(2005.07.08)

도교육청이 최근 고입제도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평준화 실현 원주교육연대(상임대표 박정원 상지대교수)'가 8일 발족됐다.

이날 발족식을 가진 원주교육연대는 전교조 원주·횡성중등지회를 비롯해 원주 YMCA, 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 등을 비롯해 원주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원주교육연대는 발족문을 통해 "도 교육청은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고교평준화 로드맵을 철회하고 2007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안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에서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비평준화로 남아 있는 지역은 원주 춘천 강릉을 비롯, 천안 등 5개 도시뿐"이라며 "입시부담과 사교육비 증가, 인적자원의 낭비, 지역 화합과 통합에 역행하는 비평준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지난 5월 25일 고교평준화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고입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설명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내년 10월쯤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새 고입제도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료3: 강원일보(2005.06.09)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평준화 실현 강릉교육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평준화 실현 강릉교육연대는 7일 오후1시30분 강릉 근로자복지회관 민주노총 강릉시협의회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오는 2007년부터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번 평준화 실현 강릉교육연대는 김상도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대표가 상임대표, 김남형 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장과 김봉래 민노당 강릉시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노총 강릉시협, 공무원노조강릉지부, 민노당 강릉시위원회, 강릉청년회, 강릉경실련, 주부클럽 강릉지회, 전교조 강릉지회, (사)함께사는 세상, 강릉 청소년 문화센터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다.

한편 평준화 실현 강릉교육연대는 강릉지역 고교 평준화 실현을 위해 수요거리 선전전 및 서명 운동, 촛불 문화제 개최 등 도내 고교 평준화 실현을 위해 강원교육연대와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료4: 평준화집회(강원일보 2005.10.19)

강원교육연대와 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도민결의대회가 8일 오후 원주시 중앙동 원일로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연대는 "지난 3년 동안 학교 구성원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고교평준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2007년 고교입시부터 춘천과 원주, 강릉을 포함한 도 전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연대는 14일 오후 5시 30분 춘천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21일에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고교평준화 실현 지역연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자료5: 단식투쟁(강원일보, 2005. 10.11)

고교평준화를 촉구하는 학부모들이 단식농성에 동참,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학부모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부 학부모들은 11일 오후 도교육청 입구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고교평준화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물론 도민들도 바라는 고교평준화를 한 장수 교육감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단식을 통해 학부모의 이름으로 교육감을

심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4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강원교육연대 김효문 상임대표(전교조 강원지부장)는 이날 오전 실신, 28일 간의 단식을 끝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자료6: 고교생 1만명선언 강원일보(2005.11.03)

원주지역 중·고교 재학생들이 고교평준화를 촉구하는 1만학생 선언을 발표, 평준화 도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지역 고등학생 연합회와 학생동아리 연합회로 구성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원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연대(이하 학생연대)는 3일 오후 상지대에서 평준화 실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학생연대는 제76회 학생의 날을 맞아 '고교 평준화를 쟁취합시다'란 주제로 마련된 선언문을 통해 "학생들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학생연대는 대학입시가 마무리 되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춘천과 강릉 학생들과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활동 전개와 원주지역 중고교 재학생 1만5000명 참가 목표를 위해 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원주 교육연대와 함께 선언문 발표에 나선 학생연대는 지난 2일 원주YMCA에서 공식 결성됐으며 지난 한달 동안 원주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만학생 선언운동을 전개, 8000여명이 서명을 마쳤다.

자료7: 속초고성양양 평준화운동 강원일보(2004.01.19)

속초·고성·양양지역 고교평준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오전10시 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평준화 실시와 고입선발고사 폐기를 촉구했다.

전교조 속초·고성·양양지회를 비롯, 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속초시지부 등 속초와 고성지역 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교평준화 실시와 고입선발고사 폐기만이 학생들에게 꿈과 미래를 가져다 주고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선생님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고입 선발고사 실시의 즉각 중단과 고교평준화를 도 교육청에 요구하고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에 추재된 이열호 전교조 속초고성양양지회장(48)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속초시지부 등 8개 단체와 함께 평준화촉구 강원도민 걷기대회 및 속초지역 수요집회 등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25. 단체명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원주지부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26. 단체명 :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약칭 : 춘천경실련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1993년부터

활동 지역 : 춘천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변지량, 한동환

관련 자료 :

27. 단체명 : 춘천사회문화연구회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28. 단체명 : 원주여성민우회

약칭:

소속 단체 : 한국여성민우회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원주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나의 변화, 사회의 변화, 시민사회의 정착을 위해 지역의 활동가들이 결성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용정순, 이남숙, 서영희

관련 자료 :

29. 단체명 : 모두곶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법적상태 :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정대호

관련 자료:

30. 단체명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강원지부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31. 단체명 : 춘천여성민우회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32. 단체명 : 춘천 YMCA

약칭 :

소속 단체 :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YMCA)

존속 기간 : 1949. 2. 21부터

활동 지역 : 춘천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이사회, 사무총장, 위원회, 사업부서

주요 활동 :

평생교육실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YMCA사회교육은 시민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시민문화의 형성을 위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주요 활동가 : 김진규, 신덕진, 이칭찬

관련 자료 :

33. 단체명 : 춘천 YWCA

약칭:

소속 단체 : 기독교 여자청년회

존속 기간 : 1966년 3월 17일부터

활동 지역 : 춘천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조직 체계 : 총회, 이사회, 사무국, 사회문제부, 회원부, 홍보출판부 및 산하기관

주요 활동 : 환경운동, 시민교육, 직업개발,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생명사랑공동체운동

주요 활동가

관련 자료 :

34. 단체명 : 춘천환경운동연합

약칭 : 춘천환경연합

소속 단체 : 환경운동연합

존속 기간 : 1990. 11. 13

활동 지역 : 춘천 및 홍천지역

법적 상태 : 합법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운영위원회, 사무국, 교육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사업팀, 홍보위원회, 생활환경위원회, 홍천지역총괄위원회

주요 활동 :

- 1.지역 환경운동 활성화를 위한 조직사업
- 2.환경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 3.지역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제시사업
- 4.지역민들의 환경운동 지원사업
- 5.환경권침해에 대한 대책사업
- 6.국내외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사업
- 7.기타 환경운동에 관련되는 사업

주요 활동가 : 한대성, 박민수, 라병소, 최종남, 정을섭, 황영승, 이대형, 김래용, 최윤, 박명순, 이원우, 권희범, 유규현, 강명찬

관련 자료 :

춘천양양고속도로건설반대 성명서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은 춘천양양고속도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7월 말과 8월초 3주간 밀려드는 관광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51주를 늘리는 관광도로인 춘천(동홍천)양양고속도로를 3조 8439억원 투입하여 건설계획 중이며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해 놓은 상태다. 이 도로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7*9 고속도로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동서축연결망 계획의 한 일환이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는 교통수요의 구체성 상실, 전구간 중 68.8%에 달하는 터널과 다리, 생태계의 보고인 설악권과 오대산권을 관통하는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이 고속도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영종도 공항고속도로처럼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사패산 터널처럼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허점투성이인 타당성 조사

춘천양양고속도로사업에서 교통수요와 현황 분석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 도로공사 산하기관인 도로기술연구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2005년 7월 작성된 '실시설계에 따른 교통량 재분석' 자료에 의하면 사업노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교통현황에 대한 심층적 분석내용이 전혀 없으며, 사업노선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민자노선(서울-원주, 소위 제2영동)이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경제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비용편익분석(B/C)의 수치를 보면 97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는 서울-양양구간은 1.13 이고 춘천양양간은 0.93으로 나왔다. 그리고 기본설계(1999.12)에서는 춘천양양간은 1.08이고 한국개발연구원(2003.6)에서 실시한 춘천양양간의 타당성 재검증에서는 1.44로 분석되어 차츰 B/C 분석 값이 '1'이상으로 증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분석값의 변화는 설계변경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타당성조사(1997)시 총사업비가 2조5490억원에서 기본설계에서 3조9865억원으로 무려 1조4375억원의 사업비가 증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B/C 분석 값이 높아진 부문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2003. 6)의 재검증 자료에 의하면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2002년 가격기준-1조115.8억원(순현재가치가 '0'이상일때 투자할 만 하다는 것을 의미)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도로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점봉산과 방태산 자락을 파괴한다

춘천양양고속도로는 빼어난 생태공간인 설악산과 오대산, 백두대간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점봉산과 방태산 중간지점을 지난다. 점봉산 지역은 양치식물 이상이 관속식물로 총 756종류가 분포하여 우리나라 식물상(4191종류)의 18%를 차지하고, 방태산지역의 특정식물종은 모두 59종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점봉산과 방태산에서는 ① 조류종은 55종, ② 양서파충류 20여종 ③ 곤충류 73종 ④ 새, 족제비, 담비 등과 같은 포유류가 다양하게 살고 있다. 점봉산과 방태산은 동식물의 종다양성이 한국 어디보다 풍부한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천생태계도 풍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린천 수계에서는 총 9과 27종이 출현하였고, 천연기념물 2종,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동식물 3종이 있다. 방태천수계에서는 총 7과 22종이 출현하였고 이중 한반도 고유종은 6과 14종으로 빈도가 높았고 천연기념물 2종, 특정야생동식물 해당종 4종, 회귀종은 2

종이 있다.

71.5km에 터널 28개, 다리 50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춘천(동홍천)양양고속도로는 44번국도, 56번국도 사이로 동홍천→인제→양양을 잇는 총연장 71.5km의 고속도로이다. 이 구간에 터널은 28기소로 전체구간의 56.11%인 40.119 km이고, 교량은 50개소로 9.075 km이고 전체구간의 12.69%이다. 이 수치는 설계속도 100km로 주행시 총 43분간 춘천양양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터널에서 24분을 다리에서 5분30초를 총 29분30초를 터널과 다리에서 주행하는 것이다. 터널지역에서 운전은 다른지역보다 피로감을 많이 주며, 다리구간의 옆에서 부는 바람으로 주행의 불안함을 야기시켜 안전을 위협한다.

민관협의체는 원점부터 검토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5월 17일(확인요망) 올해 초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춘천-양양 고속도로 민관협의체'를 제안했다.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가 제안한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민관협의체'는 사파산 관통터널, 천정산 관통터널 등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해보겠다는 노력으로 나름대로 긍정성을 지닌다. 그러나 정부는 민관협의체의 권한을 '공사를 중단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원점 검토까지 주지 않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노선에 대한 재검증 차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사강행을 전제로 한 채 민관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사업타당성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업자체의 타당성부터 즉, 원점부터 검토되어야 하며 강원도 일대의 종합적인 교통정책과 백두대간의 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반대 공동대책위

1. 운영위원회 : (가나다순)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운영위원장)

민만기(녹색교통 사무처장)

박그림(설악녹색연합 대표)

박명순(춘천환경운동연합 의장)

박연수(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조우(원주녹색연합 운영위원장)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홍순경(우이정보존회 위원)

2.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반대 공동대책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녹색연합, 문경시민환경연대, 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야생동물연합, 우이령보존회, 원주녹색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태보존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 환경정의

35. 강원 민통련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36. 민중의당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37. 진보정당추진위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38. 민중당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39. 가톨릭농민회 원주횡성지회

약칭 :

소속 단체 :

존속 기간 :

활동 지역 :

법적 상태 :

결성 과정 :

조직 체계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가 :

관련 자료 :

V. 강원 원주·춘천지역 민주화운동 일지

1) 민주화운동 사건일지

날짜	사건	부문
1959. 1월	국가보안법 반대운동	정치
1960. 3-4월	원주농고, 3·15 부정선거 규탄과 4월혁명	학생
1960. 5. 8	원주고생, 정치검사 퇴진 운동	학생
1960. 5. 27	평창농고생 교사퇴진운동	학생
1960. 6. 10	원주택시기사 표준노동일 및 임금인상투쟁	노동
1960. 10. 11	6대 의혹사건판결에 대한 시장상인의 항의집회	사회
1963. 3월	박정희의 민정이양 연기 반대운동	정치
1963. 10. 10	관권선거운동 규탄투쟁	정치
1964. 3. 1	원주경찰서 유치인 처우개선 요구	인권
1964. 5-6월	춘천대생들, 공수부대원 법정 난입 항의시위	학생
1965. 4월	대성고생, 대일굴욕외교반대 성토대회	학생
1968. 2월	영월광업소 폐광 반대투쟁	노동
1972. 10. 4	평창 여교사들, '독신여교사수칙' 폐지투쟁	인권
1971. 10월	천주교 원주교구, 부정부패 규탄대회	정치
1977. 10월	가톨릭노동청년회 단식농성	노동
1973. 2.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 연합회 창립	농민
1973년 -	지학순 주교의 노동·농민운동 지원	종교
1971년 -	장일순의 사회운동	사회
1974. 7. 6	지학순주교의 양심선언과 긴급조치법위반 구속	종교
1974. 7-9월	지학순 주교 석방운동	종교
1974. 9. 23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결성	종교
1974. 10. 30	한국천주교계에 대한 원주교구 항의사건	종교
1974. 11.1	반독재민주화투쟁 점화	정치
1975. 2. 19	지학순 주교 석방 환영대회	사회
1975. 6. 3	강원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학생총연맹사건	학생
1975. 2. 20	민주회복국민회의 원주·춘천지부 결성	정치
1975. 9-12월	사회안전법 폐지 및 정치인 각성 촉구	사회
1976. 1. 23	1·23 원주선언	정치
1976. 3-12월	신현봉 신부 및 민주인사 석방운동	종교
1977. 1-5월	구속자를 위한 전국교구 순회 기도회	종교
1977. 11	김지하 구출위원회 투쟁	사회
1977 - 1978	춘천농민회 사건	농민

1979. 9. 3	YH사건규탄·유신철폐·경제파탄책임자처벌 시위	학생
1980년 2-4월	강원대 총학생회 부활위원회 투쟁	학생
1982.	부산미문화원사건 김현장 원주 도피사건	사회
1982. 4. 5	최기식 신부 등 체포사건	사회
1982. 4월-	최기식 신부 석방투쟁	사회
1982. 8-12월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고문폐지운동	종교
1982. 4. 22	강원대 성조기 소각투쟁	학생
1985. 9	소몰이 투쟁	농민
1984-1985	강원대 총학생회 부활투쟁	학생
1985-1986	연세대생 광주진상규명 투쟁	학생
1985. 9-11월	강원대 9·7조치 투쟁	학생
1985. 9월	미국농축산물 저지운동	농민
1986. 9-11월	강원대 자민투 관련 투쟁	학생
1987. 5. 4	강원대 교수 시국선언	교육
1986. 5. 22	원주민속연구회, 민통련, 가농, 가생 연대투쟁	사회
1986. 7-8월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종교
1986. 8. 29	미국농축산물 수입저지운동	농민
1986. 10	상지대 용공조작사건	학생
1987.10-11월	상지대생, 재단 퇴진운동	학생
1987. 6월	원주지역 6월 민주대항쟁	시민
1987. 6월	춘천지역 6월 민주대항쟁	시민
1987.8월-12월	강원대·한림대·춘천교대생들, 군정종식 투쟁	학생·시민
1987년 11월	연세대·상지대생들, 군정종식투쟁	학생
1987. 9. 14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황성지부 결성	정치
1988. 4월	강원대 총학생회장 구속 관련 투쟁 등	학생
1988. 5월-6월	강원대·한림대생, 전방입소 거부투쟁	학생
1988.8월-11월	전두환·이순자 구속투쟁	학생
1989,. 3. 31	강원농민운동연합 발족	농민
1987	강원교사협의회 결성	교육
1989.2월-3월	A.M.K. 노동자 투쟁	노동
1989. 8. 20	김현장 구속사건	사회
1989. 6월	이철규 열사 사인규명투쟁	학생
1989. 8월	평양축전 투쟁	학생
1985-1992	강원교육운동과 전교조 강원지부 결성	교육
1989. 11.	원주지역노동운동연합 결성	노동

1987 - 1992	민족상지 학원자주화투쟁	학생
1990. 3월-5월	3당합당 반대 및 민자당 장기집권분쇄투쟁	사회·학생
1990. 6. 8	강원대 경찰침탈사건 관련 투쟁	학생
1991. 5월	노동탄압 분쇄와 강경대 열사 관련 투쟁	사회
1991.10-11월	쌀수입 저지 투쟁	농민
1991. 11. 10	만도기계노조 파업(이용수 조합원 분신)	노동
1991. 11월	원주택시노조 파업	노동
1992년 2월	학원안정화 대책 반대투쟁	학생
1993. 8. 29	사노맹 강원위원회 조직사건	사회
1989-1993	상지대교수협의회 교육민주화투쟁	교육
1992. 2. 24	전농 강원도연맹 창립	농민

2) 민주화운동 단체 목록

1	생명원주21 실천협의회	사회
2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사회
3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모임	사회
4	원주시민연대	사회
5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	생활
6	성공회 원주나눔의 집	종교
7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생활
8	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	노동
10	강원청년단체협의회	청년
11	(사)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원주지부	소비자
12	원주 YWCA	청년
13	원주 YMCA	청년
14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강원지회	교육
15	원주자활후견기관	빈민
16	원주녹색연합	환경
17	원주민예총	문화
18	전교조 원주횡성지회(초등, 중등)	교육
19	전농 강원도연맹	농민
20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
21	횡성환경운동연합	환경
22	춘천시민연대	사회
23	춘천생활협동조합	교육
24	강원교육연대(원주, 춘천, 강릉)	사회
25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원주지부	교육
26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
27	춘천사회문화연구회	문화
28	원주여성민우회	여성
29	모두곶	문화
30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강원지부	소비자
31	춘천여성민우회	여성
32	춘천 YMCA	종교
33	춘천 YWCA	종교
34	춘천환경운동연합	환경
35	강원 민통련	통일

36	민중의 당	정치
37	진보정당추진위	정치
38	민중당	정치
39	가톨릭농민회 원주횡성지회	농민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원주·춘천

발행일: 2005년 12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